

제17회 공무원문예대전
대상 <푸른 감자>외 49편

공무원
문예
대전
수상작품집



안전행정부

제17회



농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

2014 제17회

공무원 문예대전

2014년 8월 인쇄

2014년 8월 발행

발행처 안전행정부

발행처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Tel : 02) 2100-4406 / Fax : 02) 2100-4369

펴낸곳 디자인 크레파스 / 02)2267-0663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가
무엇을
대견
수상작품집



안전행정부



발간사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

제17회 공무원문예대전에서 훌륭한 문학적 소질을 발휘하여 입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상작품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열일곱번째를 맞이한 공무원문예대전은 문학을 통해 보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뛰어난 작품들이 출품되어 대표적인 공무원 문화행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총 2,864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전·현직 공무원들의 문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쁜 공무 속에서도 자신을 되돌아보며 글을 통해 자아실현에 힘쓰신 모든 분들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문예대전을 계기로 공직자 여러분의 풍부한 감성과 창조성이 문화가 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보다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문학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입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왕성한 활동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4년 8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심사총평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소재로 상당한 문학적 수준을 보여

이번 제17회 공무원문예대전은 작년의 1,978편보다 출품 건수가 크게 증가한 2,864편이었다.

1차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 전체를 숙독하고 각각 15편 내외의 작품을 2차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깊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특히 대상 수상 작품과 금상 수상 작품은 전체 심사 위원들이 돌아가며 윤독한 뒤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장시간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응모의 대상이 전·현직 공무원들로 제한되어 공직의 경직되고 유형화된 체험을 바탕으로 다소 일상적이고 진부한 내용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소재를 다루어 상당한 문학적 수준을 보여 주고 있었다.

발상의 신선함은 물론 상상력의 논리나 형상화의 기법, 세련된 언어 표현, 작품에 담긴 인생론적 진실에 등이 큰 공감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이번 대상으로 선정된 윤영규씨의 <푸른 감자>는 기성 시인들의 작품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가작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좋은 글이란 형식미가 뛰어나고 기교가 세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가슴속에 절실히 다가오는 감동과 진정성이 없는 좋은 작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바쁜 공직의 업무 중에도 문학에 대한 열정과 각고의 노력을 다해 큰 역량을 보여 주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문예대전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은 꼭 고무적인 일이다.

좋은 작품을 보내 주신 응모자들과 입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다음 해에는 더욱더 좋은 작품으로 재회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4년 8월

심사위원장

CONTENTS



	발간사 안전행정부장관 정중섭	004
	심사총평 심사위원장 권용태	006
수상작	대상 수상작 심사평 심사 위원 권용태, 오세영, 진동규	014
	대상 푸른 감자 경기도 가평소방서 윤영규	017

시	은상 봄호수 구미도봉초등학교 구서영	021
	할미꽃에 길을 묻다 영덕세무서 이규활	023
	빈집 경상남도 남해군 정해찬	025
	동상 가을 오후 2시 영양일월초등학교 김여선	027
	나이 서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김봉대	030
	아이스크림이 녹는 시간 기획재정부 이용주	033
	꽃 핀 것이 좋은갑다 전, 전라남도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김형만	035
	갈대 동북지방통계청 심상대	037
	문고리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 곽향련	039
	블루(부제: 파도와 소녀) 영월신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노원숙	042



소설	금상	무계 서울영동중학교 이설아	047
	은상	승화원 서울특별시 임석진	069
		개개비와 빠꾸기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재록	092
동상	너는 홀라춤을 추네 천안월봉중학교 조미옥	122	
	검은 입 충청남도 최재호	158	
	술이 깨면 대구월배우체국 이현숙	181	
	겨울 햇살 전남보성초등학교 김용구	206	

수필	금상	이발소에서 전, 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갑수	229
	은상	문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김광규	235
		장독대가 있는 집 전, 포항남부초등학교 심금섭	241
	또 다른 동행 화성서부경찰서 김종걸	248	
동상	팽이 충청북도 청원교육지원청 임형묵	254	
	가방의 꿈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묘숙	259	
	아버지의 땅 경상남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이규준	266	
	설악의 풍경소리 경상북도 김천시 배진철	272	
	인문학적 삶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정재근	278	
상사화 대구신암초등학교 최선화	282		

CONTENTS



시조	금상	풍경을 읽다(耳鳴) 김천시의회 이태균	289
	은상	사유(思惟)의 한 녀 전, 국방부 이태호	291
	동상	번짐 소리 전,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변우연	294
		박제된 교실 풍경 경북고등학교 고윤석	297
		공 굴리는 뺨에로 제주지방법원 강용전	299
시조, 서체를 품다 광주송우초등학교 장은조	301		

동시	금상	엄마의 답장 함평초등학교 안안미	305
	은상	아빠와 시계 통계청 이희천	307
		만들레 이야기(부제: 우리 가족) 충청남도 천안시 채나연	309
동상	봄비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이상구	311	
	겸손한 발가락 충청북도 진천소방서 윤은경	313	
	톱밥 대구장동초등학교 김민중	315	
	이사 가는 날 화령초등학교 문초록	317	
	아빠의 젖은 운동화 대구달서초등학교 정우기	319	

동화	금상	상구는 내 친구 세종특별자치시 연서초등학교 유우석	323
	은상	마음속 물음표 하나 대구광역시교육청 허윤정	335
	동상	우리 아빠, 이범우 새일초등학교 손수연	344
		우린 서로가 필요해요 대구광역시 손혜영	355
		이오의 깃털 경상남도 최은준	366

희곡	금상	롤렛 장지중학교 노정은	381
	은상	자살합니다! 서울법원청사우체국 조영준	407
	동상	욕망이라는 이름의 막차 과천관문초등학교 이용욱	437





제17회



공무원
문예
대전

수상작품집

대상 수상작 심사평

〈푸른 감자〉는 한마디로 기성 시인들의 작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가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발상의 신선함은 제쳐 두고라도 상상력의 논리나 형상화의 기법이나 세련된 언어 표현이나 작품에 담긴 인생론적 진실 등 그 무엇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 까닭에 이분의 작품에서 굳이 흠을 잡으라고 한다면 그의 치밀한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나 할까. 오히려 아마추어적인 미숙함이나 풋기 같은 것이 없어 아쉽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이 시의 결구에 ‘푸른 감자’는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호외(號外)다”로 되어 있다. 즉 겨울을 이겨 낸 창고속의 푸른 햇감자는 한마디로 신문의 호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무슨 말일까? 시인은 어느 봄날, 이듬해의 씨감자로 쓰기 위해 지난 가을 보관해 둔 지하 창고의 햇감자를 살펴본다. 그런데 그 씨감자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것을 그는 ‘신문의 호외’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 시의 인생론적 진실이 담겨 있다.

호외란 어떤 큰 사건, 즉 사회적 격변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신문사에서 매체의 정기 발간을 정지하고 대급하게 그 사건의 전모를 만천하에 알리고자 임시방편으로 펴낸 정보 전달용 전단지이다. 그러므로 시인이 푸른 감자를 두고 이를 호외라 규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푸른 감자’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사회적 격변’이나 ‘천재지변’에 준할 만큼의 대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푸른 감자’에게서 일어난 사건이란 무엇일까? 이를 시에서

● 푸른 감자

찾아보면 이렇다. “감자는 아무도 몰래/빛줄기가 만든 요람에 누워/옹알이를 했나보다/촉이 낮은 알전구의 불빛에도/감자는 옴팡눈을 뜨고 있다.” 옴팡눈, 즉 시인은 푸른 감자가 옴팡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옴팡눈’이란 무엇인가? 감자에게서 막 돌아나는 새순을 가리키는 비유어가 아니겠는가. 시인은 말라비틀어져 죽어가는 감자라지만 거기에 빛이 있으면 – 실낱 같은 빛일지라도 – 새순이 돋을 수 있다는 진실을 깨우친 것이다.

지하 창고에 저장된 푸른 감자는 얼어붙는 추위와 혹독한 어둠으로 인해 거의 죽음에 다다른다. 그러나 그는 결코 죽지 않고 이듬해 봄에 다시 새순을 틔울 수 있었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비록 촉이 낮은 알전구이기는 했지만 그 곳에도 빛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그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 ‘희망(불빛)’의 소중함을 시인은 신문의 호외에 빛대 경천동지(驚天動地)할만한 삶의 일대 진실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이 시는 물론 푸른 감자와 그것을 감싼 신문지를 병렬시켜 감자의 새순과 신문 활자들을 상호 조응시키는 상상력의 신선한 전개를 보여 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말라죽어가는 감자를 통해 생(生)에 대한 외경의 정신을 감동적으로 향상화시킨 그 이야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사 위원: 권용태, 오세영, 진동규

대상



경기도 가평소방서
윤영규

당선 작가 수상 소감



뜻하지 않는 당선 소식을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큰 상에 견주어 저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저를 가두리 할 때 다시 감자를 생각 했습니다. 하늘빛을 모으고 새싹을 틔우는 쭈그렁 감자는 먹을 수 없는 독소덩어리입니다. 씨눈을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기제라는 사실 보다는 묵정밭에서 요란한 향기가 없는 흰 꽃과 자주 꽃을 피운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척박하고 모든 것이 끝난 곳에서 감자는 자기의 일상성을 회복합니다. 시간을 견딘 어머니는 감자와 닮아 있고, 덩이줄기 같은 난생설화를 매일 이야기 합니다. 부족한 제 시의 행간을 채우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를 다독이려고 쓴 글이 이렇게 공감을 받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낮은 곳에 섬돌하나 놓아 주신 심사위원 제위께 감사드립니다. 중심 잡는 법을 아는 아내와 두 딸, 말보다 의미를 일깨워 주신 경희사이버대학원 문예창작전공 교수님과 동학계도 감사드립니다. 멀리 보되 발을 헛디디지 않는 저만의 시법으로 소소한 것을 담는 종지 같은 시를 쓰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나날을 추스르는 모든 이의 마음자리에 턱없이 부족한 시를 헌정합니다.

푸른 감자

햇감자를 덮어 둔 신문지에는
뜨거운 날들의 기록들이 구겨져 있다.
까막눈이 부끄럽다던 어머니에게
신문은 읽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이다.
읽지 못하는 세상의 소란을 들추고
푸른색이 도는 감자를 고른다.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고
햇빛을 타박하면서 알아차린 것은
감자에게 번진 몽고반점
감자는 아무도 몰래
빛줄기가 만든 요람에 누워
옹알이를 했나보다.
촉이 낮은 알전구 불빛에도
감자는 옴팡눈을 뜨고 있다.
어머니가 읽지 못하는 활자들이
으깨지면서 파열음을 내는지
감자의 옴알이가 자꾸 들린다.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호외(號外)다.

A poem

시



심사평

수천 편에 이르는 투고작들 가운데서 입상작품 11편을 뽑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 심사 위원들은 미리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기로 논의하였다.

우선 제1차로 투고작 전체를 10여일 이상 읽고 세 분 심사 위원들이 각각 15편 내외의 작품들을 고른다. 그리고 수합된 이 50여 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제2차 속독회를 거쳐 입상자들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당선된 작품들은 윤영규씨의 〈푸른 감자〉 등 11편이다.

심사 위원: 권용태, 오세영, 진동규

봄호수 ● 은상

구서영 | 구미도봉초등학교

할미꽃에 길을 묻다

이규환 | 영덕세무서

빈집

정해찬 | 경상남도 남해군

가을 오후 2시 ● 동상

김여선 | 영양일월초등학교

나이 서른

김봉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이스크림이 녹는 시간

이용주 | 기획재정부

꽃 핀 것이 좋은 갑다

김형만 | 전, 전라남도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갈대

심상대 | 동북지방통계청

문고리

곽향련 |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

블루(부제: 파도와 소녀)

노원숙 | 영월신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은상



구미도봉초등학교

구서영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사람이 나이가 들면 꽃이 예뻐 보인다고 하더니 얼마 전부터 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을 두지 않고 달려온 각박한 일상의 틈 사이로 길가의 나무가 보이고 이름 모를 풀꽃도 보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가운데에 딱하니 자리한 금오산과 그 산이 내려 앉힌 넓은 호수는 사는 일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곤 합니다.

호숫가를 돌면서, 햇살에 반짝이는 호수면, 잎사귀로 촉촉하게 물질하는 나무들, 알록달록 스포츠웨어를 입은 사람들의 조잘거림, 경이로운 봄의 아름다움과 봄의 일부가 된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생동하는 소리로 귀에 와 닿았습니다. 하여 가슴 가득 차오르는 느낌을 시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난 후 비록 거칠고 서툴지만 나의 께적임이 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행복합니다. 틈을 열고 밖으로 한 발 내딛고 선 기분입니다.

수상의 영광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봄호수

봄호수가 햇살을 만나면
크리스탈 부딪는 소리를 낸다.

겨울 묵은 이불흔청 털어 말리듯
차르르 차르차르 속을 뒤집으면

내 깊은 꿈에서 푸른 잠자던 잉어가
뽀그르르 하품하며 깨어나고

꿈결인 듯 그대 머리결인 듯
능수버들 보습보습 솜털 보듬는 소리

묵은 벚나무 가려움에 투두-툭
꽃망을 터트리느 소리

예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봄은 물가로 먼저 와서
환희의 교향악을 울리나니

부지런한 이들은 함빡
개나리꽃 웃음 흘리며 몰려 나와

폴리프로필렌 등산바지 무르팍 언저리
걸을 때마다 뻘뻘 스치는 소리

이 봄 한 무리의 종달새 된다.

은상



영덕세무서
이규활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서울에서 걸려 온 낯선 전화를 여느 때처럼 스팸인 양 몇 차례 수신 거부해버렸다. 문자를 받고서야 수상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할미꽃에 길을 묻다’가 은상 수상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늘 좋은 시를 쓰려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바쁜 일상의 허락을 받아 습작 노트에 조금씩 모아 온 것이 한 편의 시가 되었고, 그러한 시가 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곳으로 기지개를 펴면서 세상과 마주하게 되어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지게 될 것 같다. 어쩌면 그런 시를 통하여 나를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한 동행자로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졸작에 대하여 수상의 영광을 주신 심사 위원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시를 위하여 호흡을 가다듬어야겠다.

할미꽃에 길을 묻다

과수원집 탕자나무 울타리 가시에 부고장이 걸렸다.
 집에 들인 객에게는 야박하게 굴지 말라시며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내어 주시던
 속 깊은 마음씨를
 가시 숲 헤집고 참새 떼가 물어 나른다.
 대청마루에서 목침을 베고 길게 누운 그림자는
 할머니의 유품을 챙겨 필력이는 만장을 끌고
 상주가 되어 산으로 간다.
 평생을 베풀며 살아 온
 풀려나온 정 넘치는 이야기가 아지랑이 등에 올라타고,
 따사로운 햇살의 추모 속에
 상수리나무 앞에 걸터앉은 바람이 곡을 한다. 후두둑 후두둑.
 꽃상여 스친 자리
 부풀은 흙씨가 떠돌다 정착하는
 지천으로 널린 야생 풀꽃의 자서전처럼
 다채로운 참살이로 힘겨워 할만도 하지만
 세상살이 경험 많은 꽃들은 피었다 지고
 마지막 가는 길에
 문득 고개 들어 할미꽃에 길을 묻는다.
 ‘이 길이 그 길이요?’

은상



경상남도 남해군
정해찬

당선 작가 수상 소감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시집을 즐겨 읽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시에 대한 기본적 소양도 없이 허술히 적은 게으른 글을 내밀어 놓고, 뜻밖의 입상을 하게 되어 사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시를 적기 시작한 계기는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집중이 잘 안되고 산만해질 적에 엉덩이를 의자에 붙일 핑계거리 차원에서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감상이나 생각의 단편들을 두서없이 간직해 두었다가 이따금 짧은 글로 옮긴 것이 부끄러우나마 제가 쓴 시가 되었습니다.

로드킬을 당한 고양이의 죽음과 산업 발전의 언저리에서 그 부산물에 기대어 삶을 연명하는 적지 않은 고달픈 인생에서 비슷한 비애감을 느끼기도 했고, 수도 검침을 나갔다가 드물지 않게 마주하는 농촌의 빈집에서 느낀 쓸쓸한 비감을 담담히 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과 어정쩡한 거리를 두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 고소를 금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농촌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 한가한 시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시란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부채 의식을 해결하는 비겁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이번 수상으로 더욱 그렇습니다만 시를 쓴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울러 좋은 시를 쓰기도 수상을 하지 못한 분들께 이 글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빈집

소리를 잃은 위낭은 텃밭에 묻히고
주인을 잃은 자전거는 녹이 슬어 잠든 탓에
빼격거리는 녹슨 양철 지붕만이
아기를 대신해 울음을 울건만
메아리 쳐 오는 것은
텃 빈 텃마루에 올려진
몇 장의 통지서

목마름을 잃은 수도꼭지는 침묵에 잠기우고
손님을 잃은 대문은 마당에 누운 탓에
마른 잎 몇 개 남은 감나무만이
쓸쓸한 엽서를 붙이건만
바람 불어 가는 곳은
텃 빈 그리움에 익어간
새까만 장독대



동상



영양일월초등학교

김 여 선

당선 작가 수상 소감



그 해 가을 햇살은 따사로웠다.
마지막 남은 애기똥풀 노란 똥꽃이
철조망 사이로 흔들리는 가을
그 해 가을 하늘은 눈부시도록 푸르렀다.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가을
마지막 꽃잎을 피우는 애기똥풀 노란 똥꽃
지금은 봄이다.
어느 곳이나 볼 수 있는 애기똥풀 노란 똥꽃
머지않아 뜨거운 여름에는
까만 열매 맺히겠지.
시 쓰기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신
심사 위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가을 오후 2시

가을 하늘
 푸른 병 속의
 소주들이 넘실거린다.
 갈 곳 없는 바람만
 빈 테니스장
 철조망 사이로 들락거리고
 모두들 단풍구경에 바쁘다.
 가끔 쳐다본 하늘엔
 아직도 어제 마신
 파란 소주의 숙취로
 머리가 푸르도록 어지럽다.
 바람도 걸리지 않는 철조망에
 어깨를 기대는 애기똥풀
 씨앗도 맺지 못할
 노란 똥꽃 하나
 바람에 흔들린다.
 사랑도 가끔은
 철 늦은 애기똥풀
 노란 똥꽃처럼
 열매를 맺지 않아도 좋으리

가을 오후 2시의
맑은 햇살은
들판으로만 비추고
애기똥풀 노란 똥꽃 피운
철조망 구석으로는
비추지 않아도 좋으리
푸른 병 속의 소주들이
아직도 넘실거린다.



동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김봉대

당선 작가 수상 소감



먼저, 세월호의 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을 모든 분들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자주 기다리는 손님은 오지 않고, 귀찮은 손님이 먼저 찾아온다.’

보낸 글 중에 수필에 기대를 가졌지만 엉뚱하게도 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부끄럽다. 마치 올림픽 경기에 기대한 선수는 탈락을 하고, 신경도 쓰지 않은 선수가 메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당선된 시 〈나이 서른〉에서는 오늘날의 우리 젊은 세대들의 현실을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진정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30년대의 세대인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60년대 필자의 세대도 지금의 세대보다 더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결코 삶이 쉬운 세대는 아니었음을 알 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졸업한 우리 공주 지역아, 너무 서둘지 마라. 시간을 좀 가지고 먼 길을 갈 준비를 해라. 조금 늦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 준 심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괜히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가 되고 싶은 날입니다.

나이 서른

나이 서른은
남자는 가장(家長)이
여자는 엄마가 될 나이다.

나이 서른은
청춘도 아니고
기성세대도 아니나
스스로 독립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나이 서른은
후배도 되고
선배도 되는
처신이 애매한 때이다.

나이 서른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삶도 짝꿍했을 것이다.



나이 서른은
어느 날
갑자기
뛰어 넘고 싶은 개울이다.

나이 서른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못하는
삼불(三不) 시대의 갈림길에서 서성거린다.

나이 서른은
치열하게 살아야 할 시간이지만
어느 듯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다.

나이 서른에
무엇이라도 해야 할 때이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는
갈 길을 잊은 돌아가지 못하는 철새가 된
나 자신을 본다.

동상



기획재정부
이용주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시를 쓴다는 것은 결국 불가능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불가능이어서 시는 쉽게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다. 불가능은 보이지 않고 말하기 어려워서 나는 시작(詩作) 앞에서 대체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러나 시를 써야만 날이 밝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시를 생각하는 밤은 더욱 어둡지만 살아있는 밤이다. 잠자던 나만의 언어가 깨어나 불가능의 춤을 추는 밤.

성석제의 기억에 따르면 중앙일보 기자였던 시인 기형도는 좋은 신문 기자보다는 좋은 시인이 되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나는 좋은 공무원보다는 좋은 시인이 되고 싶다. 시인이 뮤즈에게 바치는 세금은 시간이라는 말이 있다. 시를 놓지 않겠다.

아이스크림이 녹는 시간

불륜 드라마가 한창입니다.
 TV는 끝도 없는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낮이 뜨거운 밤입니다.
 반성하는 자는 성직자뿐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일은 얼마나 적법한지
 다들 무고해서 하이힐 뒤축 소리가 경쾌합니다.
 또각또각 어찌다 펼쳐진 시간이 지나면
 새빨간 철쭉이 피다가 시들고
 무고한 하루는 다시 제자리입니다.
 눈빛이 흐려지는 건 날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공기의 빈칸마다 녹이 슬어있고
 사람들은 그걸 과거라 부릅니다.
 TV에서는 우스꽝스런 논리로 무장한
 신데렐라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언제 말이 닿았던 적이 있나요?
 의심스럽지만 의심하는 자는
 냉장고 속 아이스크림처럼 단단해서
 속이 비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발걸음을 상상하는 밤에 불행하게도
 문장은 녹지 않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 시집가는 밤
 부드러운 노래가 떠다녔으면 했던 것입니다.

동상



전, 전라남도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김형만

당선 작가 수상 소감



늦각이로 글공부하며 좋은 글을 써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많이 설지만 맑은 샘물 퍼 올리는 두레박의 마음으로 시심을 채워가겠습니다.
함께 글공부하는 동천(東天) 문학 문우님들과 이상호 지도 교수님,
임미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글 만들어 보라고 보살펴 뽑아주신 심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큰 재난에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잿빛 하늘을 이고 사는 온 국민들 마음속에
빠른 치유와 회복을 기원 드립니다.

꽃 핀 것이 좋은갑다

외양간 옆 살구나무에 연분홍 꽃이
 작은 고샅길에 꽃눈을 뿌린다.
 어디선가 참새무리가 후루룩 떼거리로 날아오더니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폴짝 건너뛰고 포르륵 날아
 우듬지에 오르며 콩지를 올렸다 내렸다 요시랑을 떤다.
 한 놈이 신호하면 우르르 몰려 전깃줄에 오르다가
 후르륵 내려와 눈짓하며 가지 사이를 누빈다.
 선착순 달리기하며 병정놀이 하는 모양이다.
 겨우내 눈 덮인 오동나무에도, 휘청대던 대나무에도
 깃 들일 곳 없어
 말간 외다리로 명석 끝에서 앉아 졸고 있다가
 웅크린 깃털 고르며 얼마나 이봄을 기다렸던지
 나르고 뛰고 구르며 별들고 꽃피니 참말로 좋은갑다.
 후다닥 날개 짓에 살구나무 간지럼 타고
 연분홍 꽃잎 뿌려 봄맞이 길을 연다.

군대 간 큰 손주 혼쫌나게 뛰면서 선착순 달리기하다가
 토해낸 숨 닿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온다.
 황금색 살구 익으면 얼룩무늬 옷 벗고
 가르마 타고 출근하던 네 모습 보겠다.
 살구나무 흔들며 속살 노란 살구 함께 줍겠다.

오메! 살구나무 꽃 핀게 새들도 참말로 좋은갑다.

동상



동북지방통계청
심상대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여기 저기 주워 먹은 것들이 체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돌맹이인지 풀인지도 모르고 질긴 것은 삭혀서 먹어야 하는데도 그냥 먹었으니 어떤 땐 멀리하게 되고 어떤 때는 냉수 들어켜 듯 하였는데…….

아직도 확실한 방법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인다. 시를 알게 해 준 사람에게 고맙고, 시 닢두리를 들어 준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것으로 대신 하고자 한다.

갈대

미치도록 짝 찬 가을이다.

꽃분홍 팬티를 걸친

엉덩이를

내 눈 앞에다 들이미는

사춘기가 지나고

아무렇게 입은 옷 사이로

하늘이 언뜻 보여도

부끄럽지 않다.

차라리

팬티를 하늘에다 흔든다.

서걱거리는 소리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내 손아귀에서

뚝하고 대 부서지는 소리로

또 다른 하늘이 열린다.



동상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

곽향련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어떠한 절망 앞에서도 나를 잘 버티게 해 주는 시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그리하여 시를 쓰는 순간만이 온전히 나로 돌아갈 수 있다.

가장 진실하고 충실한 모습으로 내가 나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줄작에 입상을 얻어 주니 내 삶은 축복이 하나 더 쌓이는 셈이다.

뽑아 주신 심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고리

방문 손잡이가 혈령하다.
 나사를 조여야지, 생각뿐
 차일피일 미루었다.

누군가 예민한 촉수를 건드리고
 문을 팡, 닫고 나갈 때는
 불끈, 저항하다가도 스르르 놓아 버리는 손잡이
 쇳덩이처럼 싸늘한 침묵으로 견디었다.

한때는 먼 세계를 넘나 들것이라고
 수천 번 몸을 열었다 닫았다.
 마음을 열고 제끼는 남편과 아이에게도 때때로 서늘한 법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아픔을 짊어 주고 있다.

바람과 햇살의 지문까지 날날이 읽는
 저 고요한 고집
 벽처럼 굳은 몸으로 안과 바깥의 풍경을 이어 준다.

문고리를 붙잡고 호되게 산고를 치른 젊은 아낙은

역새 머리가 되고

어느 날 저 문을 열고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그 먼 곳,

그 나라의 문고리를 잡기 위해

어머니는 영정 사진을 찍으셨다.



동상



영월신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노원숙

당선 작가 수상 소감



때 이른 더위로 오후 한편이 끈적거리던 틈바구니에서 재잘대는 아이들을 챙기던 내게 낯선 전화 하나가 걸려 왔다. 금융 광고 전화이겠거니 했는데 너무 뜻밖의 수상 소식이 지친 나를 순간 화들짝 피어나게 했다. 공무원문예대전에 내 작품이 동상으로 입상했다는 말에 가슴은 왜 그렇게 쿵쿵 뛰던지! 수상의 기쁨은 크지만, 아직 눈물이 채 수습되지 않은 진도와 팽목항을 떠올리며 이 기쁨을 채 발설도 하지 못하고 아껴 두기로 한다.

이제 비로소 시작이다. 이 상은 앞으로 더 크고 깊은 시의 샘물을 퍼 올릴 마중물이 될 것을 믿는다. 문 밖에 오래 서성거리던 내게 흔쾌히 문을 열어 주신 심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여러 문우님들과 고마운 선생님들께 더 열심히 시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해 본다.

블루(부제: 파도와 소녀)

갤러리에 걸린 어느 여류 화가의 그림을 감상한다.

지난 날 그녀에게 갈매기가 물어다 준 어느 바다가
그녀의 손끝에서 굽은 점과 선의 파도로 피어나고 있다.

블루라는 제목처럼

날렵한 물고기와 느린 문어의 하루가 해초 사이에서 깨어나고
모래사장 하얀 별들의 웃음이 견고하게 표구된 사각의 파도 속에 까
슬거린다.

긴긴 날 그녀의 고행은 팔에서부터 마비가 왔었다지.

오래전 그녀가 꿈꾸었던 날들은 모두가

버거운 식솔들을 챙겨야 했던 남루한 밥상이었고

소녀가 지탱해 온 삶이란,

받아야 할 보살핌 보다 주는 것을 먼저 익혀야 했던 닳아버린 부엌칼
이었다지.

오래도록 새벽까지 단단하게 굳어가는 팔을 애써 주물러가며

먹물처럼 까아만 습기들을 붓에 적서 삶의 여백을 채웠다지.

눈부신 속세의 화려한 색채들은 그녀에게는 늘 아득히 먼 꿈이곤 했
었다지.

그래서일까,
밥 지을 저녁이면 어디론가 헤엄쳐 사라질 것만 같은 표구 속 저 물
고기들
늪은 여류 화가가 그린 그림 속에서는
고요한 저녁 연기의 포만을 닮은 물안개가 그림 가득 밥물처럼 피어
오른다.

희부연 물안개 속에 흑백의 한 소녀가 웅크리고 있다.
누구지, 저 소녀
어디선가 본 듯한 그녀가 해무 속에서 나를 돌아보자
내 안에도 파도가 솟구친다.
갤러리 가득 슬퍼서 그리운 미역 냄새가 또 다른 출항을 서두른다.

A short story

소설



심사평



〈무게〉는 모녀의 애증 관계를 회상적 관점에서 차분하게 그린 작품이다. 어머니의 부음을 접하게 된 딸을 초점 인물로 내세우고 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역도 선수였다. 어머니는 딸에게 집착을 보이고 딸은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이 싫어서 이를 애써 외면하고 살아왔다.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두 모녀가 동행했던 스위스 여행길이다. 어머니가 원하던 스위스 여행을 함께 했던 딸의 복잡한 내면이 냉정할 정도로 담담하게 펼쳐지고 있다. 삶이 주는 무게를 어머니의 무거운 몸 이미지와 연계해 보임으로써 소설적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서사의 방식 자체도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데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어머니의 삶의 무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바벨을 들어 올리는 역도 선수로 설정한 점이랄는지 어머니의 무게로부터 도피하고자 했던 딸의 심리를 연기에 대조하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특히 군더더기 없이 압축된 문장도 돋보인다.

심사 위원: 권영민, 김선주, 박덕규

무계 ● 금상

이설아 | 서울영동중학교

승화원 ● 은상

임석진 | 서울특별시

개개비와 뼈꾸기

권재록 |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너는 흘러넘을 추네 ● 동상

조미옥 | 천안월봉중학교

검은 입

최재호 | 충청남도

술이 깨면

이현숙 | 대구월배우체국

겨울 햇살

김용구 | 전남보성초등학교



금상



서울영동중학교
이 설 아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오래전 텔레비전에서 역도 경기를 보았다. 바벨을 들어 올리는 역도 선수의 까마득한 눈을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게에 대한 이야기. 당신이 오래도록 짊어지고 있었을 무게를.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릴 적부터 키워온 꿈이었다. 내 글에, 꿈에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신 심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부족한 만큼 더 많이 노력하겠다. 뜨거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꾸준히 써내려 나가겠다.

무게

여자는 경기장 뒤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너른 가슴이 높게 솟아올랐다가 가라앉는다. 순서를 알리는 신호가 울리자 여자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걸어나간다. 머리를 치는 일에 이끌이 난 망나니가 죄책감도 없이 죄수에게 다가가듯, 습관처럼 경기대를 향하는 여자를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여자는 경기대 옆에 놓인 허리 높이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선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릇 속에는 탄산마그네슘 덩어리가 담겨 있다. 여자는 허리춤에 느슨하게 걸쳐놓은 허리띠를 팽팽하게 졸라 맨 다음 그릇 속에 손을 담근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손가락 사이사이에 백색 가루를 골고루 묻히는 모습이 얼핏 보기에 세면대에서 비누로 손을 문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 주변에는 거품 대신 뽀얀 가루가 피어 오른다. 비누와 탄산마그네슘, 그 미끄러움과 뻑뻑함의 거리만큼이나 그녀는 멀리 있다.

여자는 손을 가볍게 털면서 가로세로 사 미터의 경기대로 올라선다. 바벨 앞에 선 여자의 몸 주변으로 미묘한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이제 여자는 단두대 앞에 선 죄인처럼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한숨을 길게 내뿜는다. 경기장 저 너머를 응시하는 여자의 눈빛이 담

담하고 아득하다. 나는 그런 여자의 눈을, 결코 마주칠 수 없는 눈을, 까마득한 어둠 같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본다.

화면 속 여자의 나이를 속으로 헤아려본다. 스물여덟. 그녀에게 그런 나이가 있었다는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지금 내 나이와 같은 오래전의 그녀에게 문득 묻고 싶어졌다. 당신을 이해하려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당신이 나를 처음 안았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 20년 동안 함께 옮겨 다녔던 비좁고 어둑한 집들의 문을 하나씩 두드려야 할지, 당신이 스무 살의 나를 서울로 떠나보내던 기차역인지, 혼자 묵묵히 밥을 지어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청했을 고향 집인지, 당신의 집 선반 위에 쌓인 약봉지나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생활 정보지 혹은 그 위의 볼펜 자국들인지. 나는 그런 질문들로 그녀를 흔들어 놓고 싶어졌다. 굳게 다물어져 있는 그녀의 입술이 어떤 대답도 내놓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퍼즐 조각들을 끼워 맞추듯이 그녀를 그려 본다. 완성된 퍼즐의 그림은 군데군데 이가 빠져있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너무 많이 잊어버렸다. 나는 수북하게 쌓인 셀 수 없는 퍼즐 조각들 터미로 손을 밀어 넣는 기분으로 그녀를 생각한다. 그 속에서 거칠고 두툼하고 단단한 그녀의 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다.

내게 그녀의 손은 흰 가루를 묻히고 바벨을 들어 올리던 세계 챔피언의 손이기 이전에 아침마다 머리를 묶어 주던 손이었다. 아직 손이 여물지 못한 어린 내가 세수를 하고 나오면 적수를 기다리는 격투기 선수처럼 그녀가 앉아 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무릎 앞에 등을 대고 쏘그려 앉는다. 머리채를 휘어잡는 두툼하고 역센 손아귀 안에서 힘없는 고개가 이리저리 흔들린다. 가만히 좀 있어, 그녀

가 낮게 말하면 내 목에는 어김없이 힘이 들어간다. 머리를 쥐어박히지는 않을까 가슴 졸이며 앉아있던 그 시간 동안 나는 영락없이 벌 받는 아이였다. 바짝 동여맨 머리카락 탓에 팽팽해진 눈초리로 다른 여자아이들의 머리를 흘겨보던 기억이 덩달아 팔려 나온다. 양 갈래로 땀은 머리카락 리본 장식이 달린 머리끈 같은 것들이었다. 내 머리끈은 일회용 그릇이나 헐거워진 리모컨에도 칭칭 감겨 있던 노란 고무줄이었다.

시간을 건너 또 다른 아침의 풍경 속에서 그녀는 반쯤 눈을 뜨고 엎드려 있다. 지갑을 더듬어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준 그녀가 졸린 눈을 도로 감으면 나는 슬리퍼를 꿰어 신고 동네 구멍가게로 뛰어간다. 만화 캐릭터 스티커가 들어있는 오백 원짜리 빵, 사백오십 원짜리 딸기 우유를 계산하고 나면 거스름돈으로 오십 원이 남았다. 빨대가 끊는 소리를 낼 때까지 우유팩을 비우고 나면 달착지근한 아침 식사가 끝난다. 나는 녹슨 철문을 밀고 집을 나선다. 불쾌한 쇠소리에 털이 곤두서지만 1층 주인집 할머니의 성질을 아침부터 견디지 않도록 가만가만 문을 닫는다. 서둘러 문을 닫았다가는 대문을 아주 깨부순다며 야단을 칠 테니까.

반듯하게 줄을 맞춰선 아이들 가운데 내가 서 있다. 애국가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지고 우리는 소리 높여 노래를 따라 부른다. 운동장 단상 위에 선 음악 선생님의 지휘봉 끝을 뚫어져라 응시한다. 최면에 걸린 듯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지휘봉이 휘젓는 대로 하늘이 노랗게 휘어지고 내 노래는 늘어난 카세트테이프처럼 박자가 더더진다. 하늘이 까맣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 애국가가 멈춘다. 젊은 남자 선생님의 등에 업혀 옮겨진 양호실에서 서서히 의식을 되찾는다. 하늘거리

는 커튼 너머로 선생님들의 나른한 말소리가 파도처럼 잔잔하게 밀려든다. 역도 선수의 이름과 그녀를 수식하는 뚱뚱하고 불쌍한 형용사들, 영양실조나 사생아처럼 낯설고 어렵지만 어렵פות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사들, 간간이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훌쩍 중학생이 된다.

하복을 맞추던 날 그녀는 나를 시내로 데리고 나갔다. 연예인들이 교복을 입은 포스터를 유리에 붙인 교복점을 그녀는 그냥 지나친다. 나는 쇼윈도에 세워진 마네킹을 집요하게 바라보지만 무신경한 그녀는 그런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우리는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교복점에 들어선다. 그녀가 알이 두꺼운 안경을 콧잔등에 겨우 걸친 교복점 주인아저씨와 열심히 흥정하는 동안 나는 하얀 조명 아래 단정하게 서 있던 마네킹을 생각한다. 교복이 담긴 종이 가방을 손에 든 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그녀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종이 가방을 아무 데나 내다 버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시장 한가운데에서 볼이 얼얼해질 정도로 따귀를 맞고 싶지는 않기에 나는 종이 가방을 결코 놓지 못한다. 천장이 낮은 식당에 그녀와 내가 자리를 잡고 앉자 만석이 된 듯 꽉 찬 느낌이다. 우리 앞에 뜨거운 국수 두 그릇이 놓인다. 그녀는 힘차게 면발을 빨아올린다. 젓가락질을 몇 번 하다 만 내 몫의 그릇까지 그녀가 대신해서 말끔히 비워낸다.

국수 두 그릇의 대기는 흑독했다. 쨍쨍한 여름날의 햇빛 아래에서 눈부시도록 하얗게 빛나는 블라우스 사이에 열은 연보랏빛이 감도는 나의 교복은 유난히 도드라졌다. 그런 색깔을 띤 블라우스는 전교에 다섯 명도 채 되지 않았다. 나는 하복 블라우스를 락스에 담가 주무르면서 국수를 먹는 그녀를 떠올렸다. 기다란 면발을 씹 없이 빨아

당기던 모습을 머릿속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물먹은 블라우스는 하얘지기는커녕 더욱 선명한 색깔을 띠었다. 다른 아이들의 교복에는 없는 패드까지 어깨에 덧대어져 있던 연보랏빛 블라우스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움츠러들던 어깨를 그녀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손에 잡히는 조각들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파편들뿐이었다. 기억 속에서 그녀는 무심경했고 나는 우울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며 혼자 살아가는 동안에 그녀는 점점 흐릿해져 갔다. 시간은 여과지처럼 기억들을 걸러냈고 순수하게 정제된 미움과 원망의 감정들만이 고스란히 남아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녀와 떨어져 사는 8년의 세월 동안 내게 남은 것은 그런 것들이었다. 조각난 기억들을 이어 맞추다 보면 어설피게나마 그녀를 그려볼 수 있을까. 나는 자신 없는 질문 앞에서 그녀의 조각들을 하나씩 그려모으고 있다.

지난봄 그녀는 스위스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녀가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실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던 날, 일을 핑계로 전화를 끊겠다고 하자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내뱉은 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일이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쩐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녀는 부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마치 지금을 위해 평생을 침묵해 온 것처럼 그녀의 부탁은 거역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 양 내 마음을 묵직하게 짓눌렀다.

“갑자기 스위스는 무슨 소리야?”

짜증 섞인 말로 통화를 끝내려던 내게 말을 흐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울린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냥. 거기에 가보고 싶어서.”

그 후로 비슷한 전화가 두 번 더 걸려왔다.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안부 전화조차 주고받는 일이 드물 정도로 데면데면한 사이였다.

“네가 안 되면 혼자라도 다녀올 생각이다.”

조심스럽던 부탁은 어느덧 미묘한 협박조로 바뀌어 있었다. 차라리 이편이 더 마음이 놓였다. 그녀의 화법은 요청문이 아니라 명령문이어야 했다. 그녀에게 어울리는 것도 그런 것들이었다. 그녀는 오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비굴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다. 남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나의 성격이었다. 어린 시절처럼 그녀가 내 위에 군림하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나에게 종속되는 것은 또 다른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언젠가는 그녀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명에 따라붙을 것 같아서였다. 그녀와 나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온 힘을 쏟아 얻는 뼈아픈 승리가 아니라 비겁하고 줌스러운 기권이었다.

결국 그녀와 나는 스위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일주일 치 휴가를 얻은 칠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녀는 선수 시절엔 지겹도록 탔던 비행기를 오랜만에 타려니 은근히 긴장된다고 말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스위스 타령을 했던 거야.”

그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반듯하게 두 번을 접은 종이를 펴자 손바닥만 한 호수 사진이 나왔다. 그녀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은행 갔을 때 잡지에서 봤어. 몰래 찢어서 주머니에 넣어왔는데

그 바람에 번호표 순서도 놓치고 말았지 뭐니.”

그녀는 흐뭇하게 웃으면서 반질반질한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이런 데가 있더라. 여길 꼭 가고 싶어서.”

나는 대답 없이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았다. 왼쪽에서 가이드북 책을 넘기는 퐁퐁하고 두꺼운 팔뚝이 스쳤다. 눈이라도 붙이고 싶었지만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고 분명해졌다. 한참이 지난 뒤 그녀가 책을 덮고 등받이를 뒤로 젖히는 것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커다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긴 비행시간 내내 그녀의 옆자리 말고는 달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숨소리는 이내 코 고는 소리로 바뀌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짜증스러운 눈길을 쏘아대는 것도 모른 채 그녀는 잘도 잤다. 그러면서도 기내식이 나올 때가 되면 귀신같이 눈을 뜨고 음식을 먹어치운 후 다시 눈을 감았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나는 잠들지 못한 정신으로 그녀의 옆자리를 지켰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기차를 타고 인터라켄으로 향했다. 그녀는 내가 끌고 온 커다란 캐리어를 거뜬히 들어 올려 머리 위에 있는 짐칸으로 단숨에 집어넣었다. 창가 쪽에 자리 잡은 그녀는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다. 푸르고 너른 들판과 야트막한 산들이 굽이치며 지나갔다. 브리엔츠 호수를 지나칠 때는 선뎀을 하거나 나무 사이에 해먹을 걸어 두고 책을 읽는 사람들도 구경할 수 있었다. 호수 근처에서 캠핑을 즐기거나 레포츠를 즐기는 유럽인들을 보면서 나는 그제야 스위스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들뜬 그녀는 자꾸만 말이 많아졌지만 그럴수록 나의 입은 무거워졌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낮선 이국땅에서 행여 도착역을 놓칠세라 신경이 곤두서기만 했다.

인터라켄 동역에 내린 우리는 헤매지 않고 호텔을 찾았다. 하얀 침대 시트를 씌운 침대가 헐뜯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놓인 방이었다.

“여자 두 명이면 더블베드룸이 훨씬 넓게 쓰실 수 있으실 텐데요.”

떠나기 전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트윈베드룸을 주문하는 내게 여직원이 아쉽다는 투로 덧붙이며 말했다. 여자의 말처럼 침대 두 개만으로도 침실은 꽤 찬 느낌이 들었다. 그나마 한쪽 벽면이 베란다를 향해 트여있었지만 햇볕이 들지 않는 방은 서늘하고 습했다. 나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캐리어를 열어젖혔다. 아무렇게나 쑤셔 넣은 그녀의 배낭이 제일 먼저 튕겨 나왔다. 나는 배낭을 함부로 집어 그녀가 걸터앉은 침대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녀는 등 뒤에서 짐을 풀었다. 흘끗 뒤를 돌아보니 가방 속에서 잡동사니들을 꺼내고 있었다. 어디서 들었는지 그녀는 튜브로 된 고추장이나 은행 이름이 인쇄된 선캡도 챙겨왔다. 대충 짐을 정리하고 나니 본격적으로 졸음이 몰려왔다. 아직 바깥은 밝았지만 한두 시간 안에 어둡해질 것이었다.

“뭐라도 먹고 자.”

그녀는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내게 말을 걸었다.

“비행기에서 그렇게 먹고도 배가 고파? 이참에 다이어트라도 해요.”

나는 빈정거리는 투로 대꾸하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썼다. 이불 밖으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나는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어렵사리 잠이 들었다.

눈을 뜨니 베란다 밖에 앉아있는 여자의 둥근 어깨가 흐릿한 달빛에 젖어 있었다. 하늘은 이미 어둡해졌고 불빛도 적었기 때문에 내 다볼 풍경이라고는 없었지만 그녀는 꽤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있었던 듯했다. 나는 일어나서 베란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오랜 비행에 지

치지도 않았는지 밝은 눈으로 깨어있었다. 그런 그녀의 눈빛이 남의 것인 양 낮설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 탁하고 어둡기만 했다.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던 그녀는 밤낮을 바꾸어 생활하는 날이 많았다.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설 때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무기력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세상의 끝을 본 것만 같이 두려워지곤 했다. 그런 그녀의 눈에서 언뜻 내비친 삶의 불꽃이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허기가 진다며 편의점에서 요깃거리라도 사오자고 했다. 우리는 호텔을 빠져나와 낮에 걸었던 거리를 둘러보았다. 활기차고 분주했던 낮과는 달리 거리는 어둑했고 인적이 드물었다. 음식점이나 상점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우리는 낮에 보았던 역 근처의 마트까지 걸어가 보았지만 실내등이 모두 꺼져있어 멀리서도 영업을 끝났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스위스에는 저녁 여섯 시가 지나면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는다는 가이드북의 한 구절이 스치듯 떠올랐다.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 늦게 나왔어.”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내 뒤를 따라 발길을 돌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밝을 때 뭐라도 사놓을 걸 그랬다.”

그녀의 뺨속에서 꼬르륵하고 끓는 소리가 났다. 나는 아무런 소리도 못 들은 척 호텔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그녀는 벌써 침대에서 푹아떨어져 있었다. 힘차게 코 고는 소리가 방안을 가득 울렸다. 나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노래를 들었다. 볼륨을 최대한으로 올려보았지만 비트 사이로 그녀의 코 고는 소리가 불청객처

럼 간섭해왔다. 나는 노래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싸늘한 밤기운이 열린 문틈으로 훑 끼치자 등 뒤에서 그녀가 뒤척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소리 나지 않게 문을 닫고 난간에 몸을 기댔다. 눈앞에 까마득한 산들이 사방을 가로막고 있었다. 멀리 있는 산들이 거리를 좁혀오면서 온몸을 옥죄는 듯한 기분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왔다. 막막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그녀의 눈빛을 밝힌 것이 무엇인지 의아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니 한국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검회색 밤하늘에 흐릿한 별 몇 개만이 희뵤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안개 없이 맑은 아침이었다. 일주일 이상 머무르면서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은 탓에 융프라우 산의 경치를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고 스위스를 떠나는 여행객들도 많다고 했다. 우리는 호텔에서 인터라켄 동역까지 걸었다. 산악 열차를 타기 위해 각국에서 모여든 여행객들이 역 쪽으로 분주히 발을 옮기고 있었다.

열차에는 국적을 알 수 없는 관광객들의 들뜬 목소리가 섞여 흥청댔고 그 속에서 드문드문 한국말이 들려오기도 했다. 기차는 푸른 하늘을 이고 선명한 초록빛 산맥들 사이를 유영했다. 가파른 산이 철길을 굽어보고 있었고 기차가 지나가는 길 주위로는 싱그러운 녹색 들판이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다. 붉은색 지붕을 얹은 집들과 나무가 군데군데 박혀 소담스럽게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달리는 기차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비현실적이라는 기분이 느껴질 정도로 평화로웠다. 멈추지 않는 기차에 앉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인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한국에 잠시 접어두고 온 일상들을 하나둘 꺼내보았다.

“외동인 건 알았지만 네 입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온 건 처음인 거 알아? 심지어 명절 때도 서울에만 있었잖아.”

일주일 동안 스위스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을 때 남자의 반응에는 불평이 조금 섞여 있었다. 일 년 남짓 만나온 남자는 최근 들어 곤란한 것들을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살뜰하게 챙기고 같이 있으면서도 부모님의 전화를 꼬박꼬박 받는 남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서히 끝이 보이는 관계였다. 어쩌면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정리될지도 몰랐다.

꼬리의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끊어놓은 것은 옆자리에서 터져 나온 낮은 웃음소리였다. 소리의 주인은 흰 머리에 붉은 얼굴을 한 백인 노부부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웃는 얼굴을 따라 접힌 자잘한 주름에는 그들이 살아온 세월의 곁이 엿보였다. 조각가가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공들여 새겨놓은 무늬 같았다.

나는 옆자리에 앉은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쳐다보았다. 검고 푸석한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들이 지저분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접힌 주름들은 굵고 깊었다. 그녀의 삶이 남긴 궤적은 서툰 목수의 도끼질과 대패질이 남긴 흠과 같은 것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단단했던 그녀의 몸도 서서히 꺼지고 있었다. 머지않아 그녀의 몸은 바람 빠진 거대한 풍선처럼 볼품없어질 것이다. 여전히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그녀는 늙어갈 것이다. 단 한 순간이라도 아름다운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함께 얼굴을 맞대고 웃어줄 사람이 영영 없을지도 모르는 생각에 어쩐지 조금은 그녀가 가여워졌다.

멀거니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카메라를

켰다. 휴대전화를 유리에 바짝 가져다 대고 촬영 버튼을 누르자 경박한 서터음이 울렸다. 사진 속에서 풍경들은 제멋대로 흔들리고 몽개져 있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마찬가지였다.

“잘 안 찍히네.”

그녀는 흔들린 사진들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기차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그녀를 휘방 놓을 것이다. 그녀를 위해 멈추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연법칙이 그녀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내게 은밀한 쾌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도로 넣고 다시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자꾸만 귀가 멍멍해졌다. 고막에 얇은 막이라도 씌듯 바람 소리가 귓바퀴에서 웅웅댔다. 고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선선한 여름이었던 인터라켄에서 출발해 따뜻한 봄날 같은 클라이네 사이데크를 지나 마지막으로 도착한 융프라우요흐는 초겨울 날씨였다. 서늘한 공기에 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배낭에 넣어온 겨울 외투를 꺼내 입었다. 모자에 뺏뺏한 털이 달린 패딩점퍼는 코를 찌르는 나프탈렌 냄새를 풍겼다. 전망대에 올라섰지만 안개와 구름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만년설로 덮인 산봉우리는 흐릿한 윤곽을 간신히 드러내고 있었다. 변화무쌍한 날씨 탓에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는 날이 드물다고 했다. 운이 좋지 않았지만 그것마저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졌다.

“책에서 봤는데 융프라우가 수줍은 처녀의 어깨라는 뜻이라고 하더라.”

그녀는 혼잣말처럼 낮게 읊조렸다.

“잘못 읽은 거 아냐? 사나운 폭군의 어깨라면 모를까.”

유럽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산봉우리를 마주 보았다. 살갓이 베일 듯한 칼바람이 사방에서 불어 닥쳤다.

“추워서 안 되겠어.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천천히 보고 와요.”

나는 실내로 들어와 매점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종이컵을 감싸 쥐 손바닥으로 뜨거운 커피의 온기가 서서히 옮겨왔다. 낮은 곳에서 올려다본 설산의 잠잠한 풍경과 코앞에서 마주한 사나운 풍경을 저울질하면서 유리 벽 너머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설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옷깃을 여미며 이곳저곳 자리를 옮겨 다니는 가운데 그녀는 한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멈춰 있었다. 꽃 한 송이 피우지 못하는 차갑고 딱딱한 봉우리를 마주하며 그녀의 어깨가 산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터라켄 동역에서 그린델발트로 가는 기차를 탔다. 그녀의 안색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다. 밤중에 끄끙거리며 앓는 소리를 설핏 들은 것 같기도 했지만 나의 의식은 깊은 수면의 나락으로 끝없이 가라앉을 뿐이었다. 기차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젊은 시절 무거운 바벨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흥하게 짓눌린 엄지손가락부터 허리와 무릎 마디마디까지 그녀의 몸은 성한 곳이 드물었을 것이다. 바벨의 무게와 그것을 견디는 시간만큼이나 닳고 닳아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앓는 소리 한번 제대로 낸 적이 없었지만 어떤 것들은 감추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나는 그녀의 커다란 몸뚱이 속에서 번식하는 통증들을 외면하고 싶었다. 오랜

잠복기를 거치고 서서히 그녀의 몸에서 드러나는 고통을 함께 짊어질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녀가 어린 나의 고통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녀의 고통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어야만 했다.

그린델발트에서 내린 우리는 휘르스트까지 이어진 곤돌라를 탔다. 그녀는 이런 걸 탈 때면 겁이 난다고 했다.

“감나무에 홍시 떨어지듯 똑 하고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해. 홍시처럼 물러터지든지, 잘 익은 감처럼 반으로 썬 쪼개지거나.”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입맛을 다셨다. 곤돌라 안의 공기는 후텁지근하게 데워져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이 선크림을 허영게 녹이며 흘러내렸다. 그늘을 벗어난 곤돌라에 햇빛이 비스듬히 내리쬐히며 그녀를 비추자 그녀의 티셔츠에 붙어있는 큐빅에서 자잘한 빛의 파편들이 터지듯 쏟아졌다. 빛들은 맞은편에 앉은 내 얼굴 위로 고스란히 흩뿌려졌다.

“그 옷은 또 뭐야.”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턱짓으로 그녀의 가슴팍을 가리켰다. 조악한 큐빅으로 장식된 회색 티셔츠는 아침부터 내내 신경이 쓰이던 것이었다.

“큰옷 가게에도 이런 옷이 있더라. 여행 간다고 옷 좀 보러 갔다가 가게 주인 등쌀에 못 이겨 사오긴 했는데, 좀 그렇지?”

그녀는 겸연쩍게 웃으며 황급히 외투 지퍼를 올렸다. 그녀는 육중한 몸으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몸에 맞지 않는 의자에 겨우 걸터앉아 진득한 땀을 흘렸다. 곤돌라 안의 공기가 희박해지기라도 하는 듯이 숨이 턱턱 막혔다. 나는 양손으로 손차양을 만들어 이마에 대고 창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싱그러운 푸른빛의 들판과 나

무들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린델발트에서 우리는 트레킹을 시작했다. 바흐알프라는 호수의 이름이 적힌 이정표를 따라 우리는 걷고 또 걸었다. 길은 대체로 완만하고 잘 닦여 있는 편이었다. 드넓은 초원에 사람들의 발길이 터놓은 길들이 능선을 따라 가늘고 길게 뻗어 나가고 있었다. 나는 쉬지 않고 길을 걸었다. 느긋하게 걷는 여행객들을 제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온 서양인들이었다. 털이 북슬북슬한 개와 함께 걷는 사람이나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를 둘러메고 걷는 남자도 있었다. 나는 여유로운 발걸음들을 부지런히 추월하며 말없이 앞만 보고 걸었다.

한참을 걷다 뒤를 돌아보니 그녀가 저만치 뒤에서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육중하고 둔한 몸을 있는 힘껏 움직이고 있는 그녀의 회색 티셔츠는 배어 나오는 땀 때문에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물먹은 회색 티셔츠 때문인지 그녀의 모습은 코끼리를 연상시켰다. 묘기도 부리지 못하는 늙고 지친 코끼리가 행진하듯 산을 오르는 거구의 동양인을 사람들이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런 코끼리를 채찍질하는 서커스 단원이 된 것만 같았다. 시지프스가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굴리는 가혹한 천형을 되풀이하듯이 그녀의 육중한 몸뚱이는 그 자체로 형벌이었다. 한때는 가장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린 경이로운 몸이었으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불러일으키고 우월감에 젖게 하는 몸. 나는 그녀에게 드리운 비극의 굴레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달아나려는 듯이 계속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꽤 먼 곳까지 와 있었다. 서둘러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가 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온

데간데없이 사라진 뒤였다.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쳤다.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도 옮겨지지 않는 그녀의 커다란 몸이 어느 길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녀의 몸은 구름 한 점 없는 이국의 맑은 하늘 아래에서 팍구멍 하나까지 숨김없이 드러날 것이다. 그녀의 짐승 같은 몸을 알은채하지 않고 유기하고 싶다는 불경한 욕구가 자꾸만 치밀어 나를 괴롭혔다.

그녀를 찾은 곳은 길이 둘로 나뉘는 갈림길 길목에서였다. 바위에 걸터앉아있던 그녀는 나를 발견하더니 무릎을 꿇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놓쳐버렸네. 표지판을 봐도 읽을 수가 없어야지.”

그늘 한 뼘 없는 땡볕에서 그녀의 얼굴이 벌겍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가 엉덩이를 탁탁 털자 마른 모래먼지가 일었다. 그녀는 말없이 앞장섰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천천히 길을 걸었다. 절뚝거리고 뒤뚱거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면서 걷고 또 걸었다. 길가에 아기자기하게 피어난 작고 소박한 꽃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생각해보니 그녀와 제대로 된 여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와 함께하던 시절 우리의 삶에 여행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천천히 걷고 뒤를 돌아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들은 그녀와 나의 삶에 허락되지 않은 여유였다. 나도 한때는 그녀를 위해 살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그녀가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이루어 주고 싶었다. 그녀도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하던 시절이었다. 그녀의 삶에서 슬픔이나 외로움을 걷어낼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전부를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를 키웠던

것은 그녀에 대한 애뜻함이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받은 상장이나 성적통지표를 내밀던 내게 보여 준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하기만 했다. 자랑스러움이나 뿌듯함 같은 감정으로 물들어 본 적 없는 백지장 같은 얼굴은 내게 체념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기쁨이건 슬픔이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녀가 지고 있던 삶의 무게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무게를 그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고 고집스럽게 홀로 버텼을 것이다. 어찌면 나를 키운 것이 그녀에 대한 동정심이 아니라 몸서리쳐지는 혐오감이었을지도 모른다. 나의 모든 노력이 그녀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에 지나지 않았음을 나는 어렵פות이 깨닫고 있었다.

그녀와 나는 결국 호수에 다다랐다. 둥근 호수 주위를 초록빛 초원이 감싸 안고 있었고 저 너머로 만년설이 쌓인 수십 개의 봉우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우리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설산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젖은 이마를 식혀주었다. 호수 위를 스치는 바람이 잔물결을 만들었고 호수는 잔잔하게 일렁이며 내리쬐는 햇살을 눈부시게 튕겨내고 있었다.

“사진기 좀 꺼내 봐라. 여기서 사진이나 한 장 찍자.”

배낭에서 꺼낸 카메라를 받아든 그녀가 한참 동안 눈치를 살피다가 우리 뒤편에 뒤에 서 있던 백인 남자에게 쭈뼛쭈뼛 다가갔다. 젊은 남자는 유쾌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건네받았다. 우리는 설산과 호수를 등지고 나란히 섰다. 스마일, 오케이, 윈, 투, 쓰리. 그녀는 남자의 말을 대충 알아듣고선 이리저리 포즈를 취했다. 남자는 셔터를

여러 번 누르며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를 돌려주는 남자에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땡큐 베리 마치.”

남자는 엄지를 치켜세우며 웃어주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밀면서 말했다.

“어디 잘 찍혔는지 확인 좀 해 보자.”

“배터리 다됐어.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나는 카메라를 뺏어 들고 전원을 끈 다음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확인한 그 사진 속에서 우리의 미소는 어색하고 불완전했다. 그녀와 나의 입꼬리에는 저마다의 무게가 추처럼 달려있기라도 한 듯 힘겹게 끌어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그녀대로의 고통을 나는 나대로의 괴로움을 입가에 머금고 우리는 쓰게 웃었다.

여자는 짧은 기합을 내지른 다음 허리를 굽혀 바벨을 넓게 쥔다. 손을 그려쥐었다 폄다 하며 자세를 바로잡는 여자에게서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여자는 서두르지 않고 잠시 머문다. 쥐죽은 듯 고요한 장내에 여자의 짐승 같은 포효가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다.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홀로 울부짖으며 여자는 단숨에 바벨을 가슴 위로 들어 올린다. 여자는 바벨을 가슴 위로 얹어 놓고 숨을 고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먼 곳을 내다본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 위로 많은 것들이 스친다. 그러나 나는 그중에 어느 것도 읽어내지 못한다. 그저 침묵의 시간을 홀로 견디고 있는 그녀의 속을 흐릿하게 헤아려볼 뿐이다.

드디어 바벨이 여자의 머리 위로 솟아오른다. 바벨 아래에서 여자

의 얼굴은 흥측한 모양으로 일그러진다. 앞뒤로 벌린 다리가 중심을 잡지 못한 듯 주춤거리지만 이내 두 발을 나란히 모으고 곧이 선다. 바벨을 들어 올린 몸은 금방이라도 휘어질 듯 이리저리 흔들린다. 옛 가락처럼 휘청거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몸은 언제까지 바벨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그녀는 끝을 알리는 신호가 올릴 때까지 묵묵히 바벨을 견딘다. 부러질 듯 부러지지 않고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으면서.

성공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 바벨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친다. 여자는 두 손을 각지 끼고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여자는 머리를 바닥에 대고 한참을 엎드려 있다. 크고 둥근 여자의 굽은 몸 앞으로 바벨이 튀어 오른다. 공중으로 솟아오른 바벨이 공중으로 솟아올라 여러 번 바닥을 두드리고 잠잠해질 때까지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바닥에 고꾸라져있는 그녀를 보며 나는 발레리나를 떠올린다. 학교에서 단체로 발레공연을 보러 갔던 날 경쾌한 멜로디를 따라 움직이던 깃털처럼 가벼운 몸을 떠올린다. 길고 풍성한 치마 아래에서 오른발이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왼발이 재빨리 그 뒤를 쫓을 때, 뽀족하게 세운 발끝이 바닥을 툽툽 두드릴 때, 길고 하늘거리는 치마가 빙그르르 돌아갈 때, 내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들이 몽글몽글 솟아 올랐다. 연기를 마친 발레리나가 한쪽 손으로 치마 끝을 잡아 올리고 반대쪽 손바닥은 가슴에 얹고서 관객을 향해 우아한 몸짓으로 인사를 했다. 관객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발레리나의 얼굴은 황홀하게 빛났다. 어느덧 나의 오른손도 그녀를 따라 가슴 위로 올라가 있었다. 축축하게 땀이 뻗 손바닥 안에 육신거리는 가슴이 만져졌다.

집으로 가는 까만 골목길 내내 나는 발끝만 보고 걸어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빛바랜 운동화가 타박타박 움직였다. 그 어떤 교향곡에도 어울리지 않는 발걸음이었다. 부드러운 분홍빛의 토슈즈 같은 것은 평생 내 것이 될 수 없는 물건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사뿐사뿐 걷다가 가볍게 뛰어오르고 부드럽게 회전한 뒤 사뿐히 착지하는 삶 역시 나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나는 자정이 다되도록 동네를 걷고 또 걸었다. 발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졌을 때가 되어서야 나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불도 끄지 않은 방안에 대자로 뻗어 있었다.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누워있는 그녀의 무거운 몸이 드르렁드르렁 코 고는 소리에 맞추어 진동했다. 나는 불을 끄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무대의 막을 억지로 내리는 심정으로.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그녀와 나는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다. 찬란한 스위스의 풍경을 등지고 선 우리는 돈을새김한 무늬처럼 도드라졌다. 풍경 속에 녹아들지 못하고 어색하고 낯선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로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진 인화를 주문해 그녀의 집 주소로 보냈다. 사진이 그녀 앞으로 채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의 소식이 먼저 도착했다. 그녀의 부음이었다.

그녀는 심판대에 서보지도 못하고 떠났다. 오랫동안 내 속에 침전된 원망의 덩어리들을 그녀도 알아야만 했다. 적어도 그녀에게 변론의 기회 정도는 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유서는 활자가 아니라 정돈되지 않은 집에 어지럽게 너

부러져 있는 잡동사니들이었다. 그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괴하게 휘어진 커튼 봉을 바라보며 그녀의 무게를, 그녀가 이고 있던 슬픔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그녀는 바벨을 던지듯이 훌거분한 마음으로 떠났을까. 나는 그녀가 내려놓은 내 몫의 무게들을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녀가 무덤덤한 얼굴을 하고 바벨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녀 대신 심판대에 서서 그녀를 변호한다.

미움과 증오, 원망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사소한 순간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대학교 기숙사로 붙여 주었던 택배 상자 속에 가지런히 포개어져 있던 한약포, 책상 밑에 처박아두었다가 이사를 나갈 때가 되어서야 하수구로 흘러보냈던 까맣고 쓴 냄새,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춥던 겨울날 퐁퐁 언 손과 발을 이불 속에서 주물러 주던 넓은 손의 온기, 작고 여린 팔뚝 위에 묶어준 토끼풀로 만든 팔찌까지.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그리워졌다.

손가락 사이에 그녀의 유골이 허공으로 풀려나갔다. 모래보다 가벼운 가루가 된 그녀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차라리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퐁퐁 휘날리던 탄산마그네슘 가루처럼 느껴졌다. 부드러운 촉감으로 남은 그녀를 손끝으로 느끼며 나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 위로 스위스의 어느 호수가 펼쳐졌다. 그녀를 한 줌 쥐어 잔잔히 흔들리는 호수 위로 흘날린다. 또 한 줌 바람에 실어 호수 뒤로 병풍처럼 펼쳐진 봉우리 위에 쌓는다. 내가 아는 그녀의 슬픔은 반짝거리는 호수 밑으로 수장하고 내가 모르는 그녀의 슬픔도 만년설에 매장해 천년만년 녹지 않도록.

은상



서울특별시
임석진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아직도 내가 글을 쓴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다만, 소설이든 시나리오든 쓰다가 어느 장면에서 정신없이 헤매는 그 순간까지도 즐기고 있다. 어떤 때에는 머리를 쥐어뜯고, 그동안 써 놓았던 글들을 모조리 날려 버리면서도 다시 쓰면 되지, 더 좋은 글을 쓰면 되지! 하는 마음에 전혀 노엽지 않다. 그런데 몇 개월째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있다. 쓰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수상 소감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낫지 않는 지독한 불치병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언젠가 지독한 통증이 찾아오고 마음이 다시 안정되면 그때는 내가 글을 쓰는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작년 이맘때 내 곁을 떠나신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실 것 같다. 나는 어머니께 앞으로 보여줄게 많으니 5년만 더 살아 달라고 애원했다.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간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은 채 떠나버렸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작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지켜봐 주세요!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심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승화원

화장신청서 철을 뒤적이다가 이처럼 정신이 아득해지기는 처음이었다. 신청서 한쪽 귀퉁이가 강아지 귀처럼 접혀진 것이 마음에 걸려 바로 펴 놓으려던 참이었다. 처음에는 이름만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례적인 확인 절차였고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았으므로 대충 훑어보는 것으로 망자들과의 짧은 연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김애선, 25번 화장로……, 평생 헤쳐 온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 마지막 관문에 도착해 있는 곳이 결국 25번 화장로인가 싶었다. 서류를 쥐고 있는 손이 떨린다. 20년 세월도 그녀를 지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나 보다.

사무실을 빠져나온다.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망자들이 영구차에서 이승의 마지막 여명을 맞고 있다. 어디쯤에 있을까! 검은 리본을 길게 늘어뜨린 영구차들을 하나하나 훑어나간다. 그만그만한 영구차들 중에서 그녀가 타고 있는 영구차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

북적이는 승화원은 고인을 떠나보내려는 유족들의 슬픔으로 가라앉아 있다. 평소 익숙한 분위기인데도 마음이 갑갑해져 온다. 이미 도착해 줄지어 서 있는 영구차들을 보니 진정이 되지 않는다. 영구차

들은 고인을 이승에서 떠나보내는 게 뭐가 그리도 급한 일인지 새벽부터 계속해서 들이닥치고 있다. 운구 준비를 요청하는 방송이 흘러나온다.

그녀의 노모와 마주친다. 화장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막 들어 서려는 순간이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다. 머리에 삼베 리본을 꽂고 있다. 세월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예전의 꼬장꼬장함이 아직도 배어 있다. 아무런 감정도 신지 않은 채 노모를 향해 인사를 한다. 고인의 유가족과 마주치면 으레 하는 인사다. 노모는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 제복을 입고 있어서 알아보지 못한 것인지, 일부러 모른 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꽃꽂한 노모의 행동은 어지러운 그녀와의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그녀를 잊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일순간에 허물어진다. 들숨과 날숨이 뒤죽박죽된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 손을 움켜쥘다. 들고 있던 서류가 구겨진다. 그녀의 화장 신청 서류다. 서류를 바르게 편다. 그녀 이름이 몇 갈래로 불규칙하게 구겨져 있다.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힌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마음 수련의 효과를 본다. 마음 수련은 사나운 생각들을 밀어내기 위해 시작했다.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고인을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동행하는 종사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자세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고인을 운구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기 십상이다. 마음을 다스리고 운구하다보면 고인과의 내면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며칠 전 오후. 느지막한 무렵에 40세 사형수 주검이 병원 앰블런

스로 운구되어 들어왔다. 고인은 투박한 소나무 관 속에 안치되어 있었다. 동행한 가족도 없었다. 사형수답게 죽어서도 교도관과 경찰관에 의해 호송되어 왔다. 사망진단서 특이 사항 란에는 남아있는 장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작은 흐느낌조차 없는 쓸쓸한 운구를 맡았다. 교도관과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고인을 운구대로 옮겼다. 교도관과 경찰이 한발 뒤로 물러서서 고인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했다. 그들은 사형수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을 것이다. 나도 고인에게도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이송에서 마지막 동행인이 되어 드리겠다는 의미였다. 화장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동안 마음이 숙연해졌다.

‘참, 장한 일을 하셨네요. 장하다니요? 저는 죄인인 걸요. 죄인이요? 세상에 나와서 죄 한번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도 죄 나름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목숨보다 소중한 네 살짜리 딸과 두 살짜리 아들을 죽인 놈입니다. 그때 저도 따라 죽어야 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땐 가난했고, 살아갈 힘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죽는 길밖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죽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잘못했지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이제라도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서 용서를 빌어야겠습니다. 편안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교도관 말에 따르면, 그는 비록 사형수였으나 본성이 착한 사람이었고,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그는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자식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

었다. 피고는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했다. 그 때문에 재판은 이례적으로 1년 만에 대법원 상고심까지 끝났다. 사형이 확정된 다음날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서약을 했다. 자신들도 사형이 그렇게 빨리 집행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의 유일한 혈육인 이복동생에게 사체를 인수해 가도록 요청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사형수의 분골은 유언에 따라 아내와 자식이 뿌려진 곳에 뿌려질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 한 일간신문 사회면에 이례적인 조그만 박스 기사가 났다.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 집행을 청원했던 사형수, 장기 기증 서약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다.’

운구를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온다. 고인들 확인 절차가 끝난 모양이다. 고인을 보내는 절차는 간단치 않다.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망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인과 유족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사망 일시도 확인해야 한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화장이 불가하다. 미리 준비한 흰 면장갑을 주머니에서 꺼내 양손에 낀다.

운구대를 밀고 와서 영구차 승강장 앞에 선다. 무표정한 얼굴이다. 이곳에서는 감정을 들어내서는 안 된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복식호흡을 한다. 호흡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도 쉬이 안정되지 않는다. 맨 앞에서 서 있는 영구차를 바라본다. 캐딜락 리무진은다. 온통 흰색 국화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뒷문이 열린다. 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백향나무로 만든 최고급 관이다. 특별 주문

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본다. 돈이 좀 있다고 하는 분류들이 주로 사용하는 관이다. 나이, 93세 남자. 정중하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인식표를 붙인다. 노인은 영정 사진 속에서 근엄해 보인다.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다가 이성을 떠나는 경우다. 많은 유족들이 고인의 운구를 따른다. 유족들로부터 곡소리가 간간히 신음처럼 터져 나온다. 1번 화장로에 입로시킨다. 2번 화장로와 3번 화장로에도 차례로 입로된다. 다시 승강장 앞에 선다. 나이 23세, 여자. 꽃다운 나이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사했다. 운구를 시작하려는데 고인의 어머니가 운구대로 달려들어 관을 부여잡고 울부짖는다. 관이 흔들린다. 자칫 잘못하면 관이 운구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경우다. 운구를 멈춘다. 고인은 유족들의 울부짖음과는 달리 영정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다. 그 모습이 오히려 그로테스크해 보인다. 남자 유족들이 어머니를 제지하는데도 관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몇 명이 더 나서는데도 떨어지지 않는다. 지켜보던 친척들이 다가가서 엄마가 이러면 딸이 좋은 데 못 간다고 위로하며 다독인다. 그때서야 겨우 떨어진다. 다시 운구를 시작한다. 나는 관망실에서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4번 화장로에 입로시킨다. 어머니가 입로를 지켜보다가 급기야 실신을 하고 만다.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졸지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에게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 유족들이 실신한 어머니를 업고 급히 나간다. 관망실 커튼을 내린다.

운구가 진행될수록 마음이 점점 더 어지러워진다. 그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서다.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운구가 반복된다. 다시 고인 앞에 선다. 21번 화장로에 배정받은 고인이다. 잠시 운구를 멈춘

다. 최고급 리무진 영구차 바로 뒤를 따라 주춤주춤 접근해 오는 영구차를 확인한다. 흰색 봉고를 개조해서 만든 영구차다. 초라함이 묻어난다. 더 이상 지체하면 유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도 있다. 다시 운구를 시작한다. 나이 49세, 남자.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사망했다. 최근 들어서 중년 남성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인 중 하나다. 미망인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화장로로 운구한다. 다른 운구에 비하여 속도를 조금 더 낸다. 운구 속도가 너무 느리면 유족들이 관을 붙들고 늘어지기 십상이다. 또한 너무 빠르면 유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표시가 나지 않을 만큼만 속도를 더 낸다.

길게 심호흡을 하고 승강장 앞에 선다. 그녀를 태운 영구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다가오는 영구차를 바라본다. 겨우 수습했던 정신이 다시 아득해진다. 영구차가 멈추어 선다. 장례 지도사가 차에서 내린다. 장례 지도사가 성큼성큼 걸어가 영구차 뒷문을 연다. 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20년 만의 해후다. 관 위에 손바닥 크기의 빛바랜 초라한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검은 리본을 밀어내고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가 활짝 웃으며 얼굴 가까이에 손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20년 전 어느 봄날, 내가 덕수궁 앞에서 1회용 카메라로 찍어준 사진이다. 장례 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조심스럽게 운구대로 옮긴다. 흰 천금으로 감싼 관은 가볍다. 병마와 싸우면서 육신을 어지간히 소진한 모양이다. 흐트러진 천금을 추스르고 나서 관을 끌어내린다. ‘헹’ 하고 코 푸는 소리가 들린다. 노모가 치마에다가 손을 닦고 있다. 줌 전의 그 꼬장꼬장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나이 45세, 여자, 김애선. 사인은 췌장암이다. 그녀에게 정

중하게 인사하고 인식표를 붙인다. 천천히 운구를 시작한다. 운구대 전기모터 소리가 웅웅 소리를 낸다. 속도를 줄인다. 그녀를 빨리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다. 노모가 뒤를 따른다. 아득해진 정신을 추스르려고 정신을 집중한다. 그럴수록 마음이 더욱 산란해져 간다.

교육법 개정으로 과외 금지 조치가 내려질 무렵, 그녀를 처음 만났다. 군대를 막 제대하고 암암리에 과외를 하고 있었다. 정부 고위 공직자의 자녀였고, 과외비도 꽤 두둑한 편이었다. 그러다가 단속반의 급습을 받았다.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기 때문에 간신히 단속은 피할 수 있었다. 고위 공직자라서 과외를 계속할 수는 없었다.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분출하는 민주화 열기에 동참하라,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니라,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다.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의미로 과외를 계속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밀려 과외를 포기해야만 했다. 학교 게시판에는 종종 나붙던 과외 구인 광고가 사라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연일 도배되었다. 아버지의 실직으로 복학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가 필요했다. 그래서 시위를 하는 외중에도 틈틈이 발품을 팔고 있었다. 그날도 총학생회 간부로서 정부의 폭거를 날날이 고발하는 대자보를 붙이려고 아침 일찍 게시판으로 향했다. 게시판을 정리하다가 조그만 구인 광고 하나를 발견했다.

‘급구, 교내 매점 판매원 1명, 남녀 구분 없음.’

게시판에 붙어 있는 광고문을 낚아채 주머니에 넣고, 급한 마음에

서둘러 대자보를 붙여나갔다. 장문의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쪽수도 많았지만 간간히 낱장 간에 그림과 그림을 맞추어 붙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급한 마음에 절반쯤 붙이다가 나머지는 후배에게 맡기고 매점으로 달려갔다.

매점은 밤샘 농성을 벌인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다. 구인 광고지를 매점 주인에게 들이밀었다. 그와는 군 입대 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매점 안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여학생 한 명이 분주히 상품을 진열하고 있었다. 아뿔사, 늦었구나! 하던 차에 그녀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내막을 알아차렸다는 듯이 나에게 목례를 했다. 며칠 후, 밤샘 농성을 하고나서 간단히 요기나 할 겸 해서 매점에 들렀다. 그녀는 계산대에서 학생들이 내미는 물품을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빵과 우유를 들고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섰다. 계산 속도가 빨라 금세 내 차례가 왔다. 빵과 우유를 보여 주고 지폐를 한 장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스름돈 보다 광고지 한 장을 먼저 내밀었다.

“이런 일도 괜찮으세요?”

그녀에게 받아든 광고지를 펼쳐 보았다.

‘화장장 아르바이트 모집, 일당 50,000원, 경우에 따라 시신 운구를 보조할 수도 있음. 벽제화장장 백’

그녀를 쳐다보았다. 여부를 궁금해 하는 그 눈빛이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매점보다 일당이 다섯 배나 되잖아요. 일이 좀 무섭기는 해도……, 남잔데 뭐 어때요?”

“일당이 엄청나네요? 정말 이렇게 많이 준대요?”

“그럼 한번 해 보실래요?”

“물론이죠.”

다음날 오전, 교내 노천 광장에서 벌어진 시국대토론회를 마치자마자 벽제승화원으로 달려갔다. 생각보다는 한산해 보였다. 넓은 주차장에는 영구차 한 대와 승용차 몇 대가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몇 명이 서성이는 중이었다. 벤치에서 쉬고 있는 유족들 모습이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경건한 것 같기도 하고, 침울한 것 같기도 했다.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고, 시위대 회유를 위해 스피커에서 경고 방송이 고막을 찢고, 입을 향한 행진곡, 하늘 높이 나부끼는 수많은 깃발들이 혼재하는 시위 현장과는 사뭇 달랐다. 경건하다 못해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최루가스를 마시고 헛구역질에 콧물과 눈물을 쏟아내면서도 화염병과 보도블록을 던지는 학생들의 모습이 흑백사진으로 오버랩되었다. 지원자는 나 혼자였다. 실무자 선에서 간단한 면접만으로 즉시 채용되었다. 이 일을 해본 적이 있느냐, 얼마동안 할 수 있느냐가 질문의 요지이자 전부였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어지러웠다. 유명 정치인이 단식을 했다. 시위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 학생의 죽음은 정국을 급속히 악화시켰다. 급기야 성직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넥타이를 맨 샐러리맨들이 거리로 나왔다.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까지도 거리로 뛰쳐나왔다. 나는 들끓는 세상에서 낮게 가라앉은 세상으로 잠행하여 숨어들었다. 이곳은 보도블록도, 최루탄도, 화염병도 날아다니지 않았다. 오직 보내는 자의 흐느낌과 가는 자의 침묵만이 존재했다.

학생회 간부들이 잇따라 체포되었다. 그들은 나를 배신자로 지목

했다. 두 달 가까이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그녀가 나를 찾아와 결백을 밝히려고 사정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여섯 살 난 여자아이를 화장로에 운구하고 난 직후였다. 두 자 남짓한 아이 관은 텅 비어 있는 상자처럼 가벼웠다. 영정 사진 속의 아이는 노란 풍선을 든 채 천진하게 웃고 있었다. 죽기 며칠 전에 병원 앞에서 간호사가 찍어준 사진이라고 했다. 여섯 해의 삶에서 네 해를 병마와 사투를 벌이다가 죽었다고 했다. 나는 관을 부둥켜안고 통곡하는 아이 엄마를 떠올리고 있었다. 아이의 유골을 수습할 시간이 되었기에 그녀에게 잘 가라는 말도 미처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다음날 아침 그녀가 학생회 간부와 함께 다시 나를 찾아왔다. 총학생회 홍보부장이었다. 집행부 결정 사항을 대자보나 대학 신문을 통해 알리는 일을 함께 했던 동지였다.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동지들에게 당장 돌아가자고 종용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승화원 건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가 내 양 어깨를 붙들고 흔들어대자 그녀가 반박하고 나섰다.

“어떤 일에 대한 가치는 일하는 사람이 의미를 부여했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거야. 민주화 투쟁도 마찬가지야. 억압과 폭정에 대항하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항거했을 때 가치가 생겨난다고. 강제로 일을 맡기는 것도 억압이고 폭거일 뿐이야. 선배 생각을 존중해 줬음 좋겠어.”

논리적이었다. 홍보부장은 그녀에게 설득당한 채 되돌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와 함께 걸었다. 그녀와 나는 주차장을 지나 유택동산까지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유택동산을 정면으

로 바라보며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학생운동은 물론이고 복학에 대해서도 일절 묻지 않았다. 단지 나를 승화원으로 몰아넣었다는 책임 감탄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 책임과 부담을 덮어씌울 수는 없었다. 이 일은 내가 선택한 일이었다. 나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유택동산을 바라볼 따름이었다. 고인의 분골을 들고 유택동산으로 들어가는 유족들이 보였다. 슬픈 얼굴들, 작은 흐느낌이 뒤따르고 있었다.

25번 화장로 앞에 선다. 그녀를 쉬이 보내지 못한다. 관을 내려다본다. 무슨 말이든 해주고 싶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무념무상의 상태로 가기 위해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다. 마음을 수련할 때 자주 쓰던 방법이다. 주변의 소음이 잦아든다. 소곤거리는 대화도, 작은 흐느낌마저도 사그라진다. 대신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겠어?’

‘정말로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난 새가 될 거예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잖아요!’

“선배님!”

낮은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든다. 작년에 공채로 들어온 신참내기 박주무관이다. 그는 정규대학에서 장례복지학과를 졸업한 엘리트다. 공개 채용 경쟁률이 삼십대 일이 넘었다고 했다. 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그는 가족들을 당당히 초대해서 승화원 구석구석을 견학시켜 주기도 했다. 장례복지

학과 학생들 실습과 견학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야!”

그녀를 보내야 할 시간이다. 관망실을 본다. 노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슬그머니 고개를 돌린다. 나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다.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다. 노모를 향해 공손히 인사를 한다. 노모가 치마를 들어 올려 눈물을 닦는다. 화장로를 향해 돌아선다. 화장로는 입을 꾹 벌리고 있다. 관위예다가 영정 사진을 바르게 올려놓는다. 그녀와 함께 태워버리기 위해서다. 잠시 그녀를 바라다본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다. 여전히 활짝 웃고 있다. ‘편안히 영면하거라!’ 화장로와 일직선이 되도록 운구대를 조정하고 나서 곧바로 그녀의 관을 밀어 넣는다. ‘잉~ 잉~’ 소리를 내면서 관이 빨려 들어간다. 순식간의 일이다. 화장로 안으로 들어간 관이 자리를 잡는다. 그녀는 나에게 잠깐 들렀다가 영원히 떠나려 하고 있다.

그녀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떠나곤 했다. 20년 전에도 그랬다. 연락을 끊은 지 보름 만에 나타나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가 버렸다. 그녀를 찾아 나섰다. 학교 도서관으로, 식당으로, 국문학과 강의실을 뒤졌다. 어디에도 없었다. 저녁이 되어서는 집으로 찾아 갔다. 집은 이른 저녁인데도 불이 꺼져있었다. 집 앞 대문에서 쫓그려 앉아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온갖 불길한 생각들로 머리가 지근거렸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에 지친 모습으로 나타났다. 순간 반가움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는데 그녀가 달려와 안겼다. 우리는 한참 동안이

나 서로를 안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다음날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그녀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졸업논문 때문에 지도 교수 호출을 받아 학교에 가고 없었다. 나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애선을 사랑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머니는 침대 위에 걸터앉은 채 바락바락 악을 써 댔다. 어머니는 내가 가지고 왔던 과일 바구니를 집어 던졌다. 6인용 병실은 삼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간호사가 뛰어 들어왔다. 옆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까지 휠체어를 타고 모여 들었다.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애선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제발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시체놀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 감히 내 딸을…….”

‘시체놀이나 하는 주제에…….’

가장 두려운 말이었다. 그건 절망을 의미했다. 당장 승화원에서 나오고 싶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열 번이고 백번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무조건 헤어지기만을 강요했다. 소란은 간호사의 제지로 겨우 진정이 되었다. 어머니는 간호사 부축을 받으며 마지못해 침대에 다시 누웠다. 모여든 환자들은 ‘시체놀이’가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다가 나중에서야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저마다 수군대면서 돌아섰다.

어머니가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 음독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것도 딸이 보는 앞에서 음독을 했다고 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 응급조치를 한 덕에 더 이상의 불상사는 없었다고 했다. 그렇게 말면서 간호사들이 혀를 찼다.

내 부모 형제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내 직업이 시체를 운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어머니는 왜 하필이면 그런 흉한 일을 하느냐고 나무라며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나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신이 나에게 소명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동안 화장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바뀌어 갔다. 더불어서 화장의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대적인 시설 증설과 함께 인력 증원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명칭이 화장터에서 승화원으로 바뀌었다. 그 시기에 승화원장이 정규 직원 특별 채용 제의를 해 왔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그녀가 승화원으로 찾아왔다. 유족들로 붐비는 휴게실 의자에 초췌히 앉아서 화장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빠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고, 그 옆에서 젊은 미망인은 냇을 빼 놓은 채 의자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불쑥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 내일 서울 떠나!”

그녀의 음성은 차분했다. 아니, 단호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이나 침묵이 계속되었다. 간밤에 잠을 설치면서 생각했다. 절대로 그녀와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녀가 막상 떠나겠다고 말을 했을 때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관망실 쪽에서 간간히 유족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에 찬송가 소리가 뒤섞였다. 고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것인지 자신이 위로받기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

었다. 그녀에게는 생소한 풍경이겠지만 이곳에서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갑자기 그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을 때, 벌써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다.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뒤쫓아 달려 나갔다. 정문까지 한 달음질에 뛰어 갔는데도 보이지 않았다. 한나절 내내 안절부절 하다가 조퇴를 하고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젊은 부부가 도배를 하고 있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전에 살던 사람은 오전에 이사 갔다고 말했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른다는 말과 함께.

그 후 몇 년간, 나의 생활은 그녀의 환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가 떠나던 날 그 모습이 승화원 구석구석에서 되살아나곤 했다. 분신처럼 끌고 다니는 운구대에도 소각로에도 그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심지어 사체를 화장하는 역한 냄새에서도 그녀를 찾아내려고 발버둥치는 내가 두려워지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추석 명절에 집에 잠시 들렀다가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 선을 보러 나갔다. 아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목구비는 물론 말투까지도 그녀를 빼어 닮아서였다. 직업이 뭐냐고 물어오면 시체놀이를 하고 있다고 말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 말은 입 밖에도 꺼낼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다른 말은 하지 말고 그냥 공무원이라고만 하라고 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 대신에 빈주먹을 날리며 눈을 흘겼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양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였다. 우리 집에서 더 적극적으로 서둘렀다. 밥벌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철학과를 중퇴했다. 그것뿐인가! 승화원에서 시체를 운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인들이 나를 거쳐서 이성을 떠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고인들을 저승으로 배웅해야 할지 몰랐다. 이정도면 결혼 조건으로 최악이라 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더 몸이 달았다. 맞선 상대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호감을 가진 모양이었다. 상고를 나와 바로 은행에 입사했기 때문인지 철학과를 중퇴한 사실에도 개의치 않았다. 졸업이나 중퇴를 따지기에 앞서서 대학이란 곳을 막연히 동경하고 있는 듯 했다.

결혼 생활 2년 동안은 그런대로 평탄했다. 내 직업이 승화원에서 관을 운구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였다. 아내가 출산휴가를 마치고 다시 은행에 출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은행지점장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아내는 장례식장에서 문상만 하고 승화원까지 따라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침에 분명히 확인했었다. 지점장 부인의 영구차가 다가왔을 때 별 생각 없이 승강장 앞에 섰다. 영구차 문이 열리고 유족들과 문상객들이 하나둘 내렸다. 곧 이어 관함이 열리고 사내들이 관을 운구차에 옮기는 사이에 성가대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유족들과 고인에게 목례를 하고나서 운구차를 밀고 앞으로 막 진행하려는 순간이었다. 참담한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다. 한쪽에서 아내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운구 도중에 아내에게 달려갈 수 없었다. 그것은 고인과 유족들에게 최고의 결례였다. 고인을 화장로에 입로시키고 서둘러 아내가 있었던 곳으로 달려갔다. 아내는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아내는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처가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모는 도리어 무슨 일이 있느냐

고 물어왔다.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날 은행으로 찾아갔다.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 문제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승화원에서 시체를 운구하는 내 직업이 문제였다. 사무실에서 내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운구하는 일을 고집했다. 서무, 시설 관리, 묘지 관리 이런 일들은 맞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고인이 이승에서의 마지막을 함께해 주는 것이었다. 직원들은 별나다고 했다. 포르말린 냄새를 맡으면서 관을 운구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면서.

아내는 다음날 늦게야 집에 들어왔다.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안방으로 따라들어 갔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속이려고 한건 아니고…….”

“뭘, 당신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그래 공무원은 맞네. 송장이나 운반하는……, 이 사기꾼!”

“여보, 난,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해. 그러니 날 좀 이해해 줘.”

“당신을 경멸해. 송장 만지던 그 손으로 집에 들어와서는 내 몸을 만졌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사람은 다 죽어.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나한테 철학 강의 하려들지 마.”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아내는 벽을 향해 돌아앉았다. 아내 마음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뒤였다. 다음날부터 모든 것을 자신과 철저히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내 옷가지와 양말 그리고 일상용품들을 모두 작은 방으로 옮겼다. 잠자리도 작은 방으로 옮겼다. 거실에서 마주쳐도 소 닭 보듯 지나쳤다. 아침저녁으로 식사는 차려놓았

지만 마주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 찬은 먹을 만큼만 내놓았다. 어쩌다 찬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여지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도 분리해서 보관했다. 그날 이후부터는 상가 집에 문상도 가지 않았다. TV 드라마를 보다가 영안실이나 승화원 장면이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려버렸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무슨 심산인지 이혼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대신에 아들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다. 만 세 살이 되었을 때부터 미술 학원,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한문 학원을 잇달아 보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아들의 시계에 맞추었다. 하교 시간에 맞추어 교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 길로 학원으로 데리고 갔다. 방학 때면 아들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했다. 영어 교육이니 글로벌 교육이니 따위로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언제 출국한다는 말도 언제 귀국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책상에 잘 다녀오겠다고 붙여 놓은 포스트잇이 전부였다.

박주무관이 나에게 메모지 하나를 내민다.

“선배님, 이거요, 25번 화장로 유족이 선배님께 전해드리라고…….”

메모지를 받아 펴 본다. 서툰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애선이가 마지막 가는 길은 꼭 자네가 배웅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네,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그리고 잘 부탁하네!’

출로 신호가 들어온다. 승무원들이 분주히 습골 준비를 한다. 25번 화장로를 본다. 아직도 화장 중이다. 1번 화장로 화장이 끝났다는 신호가 들어온다. 입로 하고나서 화장이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두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1번 화장로처럼 노인이거나 어린이가 입로된 경우에는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화장이 끝나기도 한다. 긴장한 체격의 성인이 입로되면 두 시간을 꼭 채우는 경우도 있다. 1번 화장로에 급속 냉각까지 끝났다. 화장로 문을 개봉하고 유골을 수습한다. 백향나무 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없다. 유족들은 분골을 원하지 않았다. 매장을 할 모양이다. 유족들은 보통 수목장을 하거나 산과 강에 뿌리기 위해서 분골을 원한다. 분골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장을 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다.

연소대 위 유골을 집게로 한 조각 한 조각 정성껏 수습한다. 유골은 따뜻하다. 살아 있는 사람의 체온만큼 온도를 머금고 있다. 수습한 유골을 함에 담는다. 한 조각의 유골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성을 다한다. 유골 수습을 마치고 수골실 커튼을 젖힌다. 유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유골함을 내민다. 유골함을 받은 유족들에게서 깊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운구를 할 때와는 다른 절제된 울음소리다. 상주가 유골함을 들고 돌아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 유족들이 유골함 뒤를 따른다. 커튼을 닫고 연소대 청소를 시작한다. 연소대는 아직도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구석구석까지 비질을 한다. 깨끗하게 청소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다. 그냥 습관처럼 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선은 25번 화장로에 두고서, 연소대 청소를 마치고 일어서다가 현기증으로 몸이 휘청거린다. 박주무관이 뛰어온다. 그는 온종일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 중이다. 그만큼 내 행동이 부자연스러웠을 것이리라! 그의 부축을 받아 접이 의자에 앉는다. 다른 종사자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유골을 수습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가능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어찌다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억양을 전혀 넣지 않는다. 다른 한 쪽에서 분골기 전기모터 소리가 정적을 깨뜨린다.

25번 화장로의 붉은 표시등이 깜박거린다. 화장이 끝났다는 신호다. 까닭을 알 수 없는 두근거림에 눈을 감는다. 그리고 나서 숨을 한번 길게 내쉰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화장로 열기와 역한 포르말린 냄새가 뒤섞여 폐 속으로 밀려들어 온다. 뜨거운 열기와 역한 냄새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슴이 쿵쥔거린다. 냉수를 한 컵 마시면 좀 덜 할 것 같다.

출로 신호가 떨어진다. 화장로 문을 열고 버튼을 누르자 연소대가 ‘윙~’ 소리를 내면서 밖으로 끌려 나온다. 덜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음이 멈추자 그녀의 무릎 뼈가 주저앉는다. 생전에 무릎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육신이 소진되고 남은 그녀를 오랫동안 내려다본다. 손과 갈비뼈는 이미 주저앉아 있다. 그나마 형체를 갖추고 있는 부분은 두개골과 등뼈뿐이다. 그녀의 모습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어찌된 일인지 조금 전까지도 선명했던 그녀의 모습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두개골은 그냥 두개골일 뿐이고 등뼈는 그냥 등뼈일 뿐이다. 눈을 감아도 마찬가지로 복식호흡을 해도 마찬가지다. 백골은 그녀를 떠올리려고 하는 생각들을 야멸차게 밀어내고 먼저 뇌리에 자리를 잡아버린다.

그녀를 수습해야 할 시간이다. 급속 냉각을 시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뜨거운 잔열이 남아 있다. 1,300도의 고온으로 뼈 곳곳이 무너져 내려 있다. 남아 있는 것마저도 손대면 금세라도 부서져 내릴 것만 같다. 천천히 장갑을 벗는다. 그녀의 뼈 마디마디를 온전히 느끼

기 위해서다. 먼저 사람의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두개골을 지나 목뼈, 갈비뼈로 손길을 옮긴다. 갈비뼈에 손길이 가기도 전에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갈비뼈가 힘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그녀를 수습하려던 손을 멈춘다. 곳곳이 무너져 내려버린 그녀를 내려다본다. 가능하면 온전히 수습하고 싶다.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두개골을 두 손으로 어루만진다. 따뜻하다. 그녀의 체온만큼이나.

조금 전까지 생각나지 않았던 그녀의 얼굴이 두개골에 오버랩된다. 그녀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짓는다. 20년 전 5월 어느 날, 여의도 공원 잔디밭에서 내 무릎을 베고 누워서 환하게 웃었던 그 얼굴이다. 나도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인다.

그녀의 얼굴을 감싼다. 손에 전혀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두개골 뒤 통수를 감싸고 있는 오른손 중지가 움푹 들어간다. 중지를 조심스럽게 빼낸다. 손바닥에 조금이라도 힘을 가하면 금방이라도 형체가 사라질 것 같다. 이마에 맺혀 있는 땀방울이 그녀의 광대뼈로 똑 떨어진다. 그녀는 떨어진 땀을 흔적도 없이 흡수해 버린다. 극심한 갈증에 시달린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그녀의 두개골을 들어 올린다. 목뼈가 소리도 내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 두개골을 미리 준비한 용기에 펴놓은 한지에 내려놓는다. 다음으로 목뼈를 수습한다. 목뼈 마디마디가 7개로 분절되어 있다. 하나하나 수습한다. 다음으로 어깨뼈를 수습한다. 어깨는 그나마 온전히 남아 있다. 교사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글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 다른 곳보다도 튼튼했던가 보다. 양쪽 손바닥뼈를 수습하고, 팔뚝뼈를 수습하고, 다음으로 어깨뼈를 수습한다. 다음으로 갈비뼈를 수습하고 척추 뼈를 수습한다. 갈비뼈는 전부 주저앉아

있고 척추뼈는 마디마디가 분절되어 뒤틀려 있다. 하나하나 수습한다. 골반뼈, 다리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발목뼈를 수습한다. 나머지 잔골들은 깨끗한 빗자루로 조심스럽게 쓸어 담는다.

한지 위에 펼쳐져 있는 유골을 내려다본다. 두개골을 중심으로 팔뼈와 다리뼈, 척추뼈들이 놓여있다. 그 위에 골반뼈가 포개져 있다. 사람의 형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한지 모서리를 접어 유골을 가리고 나서 용기를 들고 일어난다.

유골 한 조각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분골기에 넣는다. 손에 조금만 힘을 주어도 푸석푸석 부서져 내려버린다. 그녀가 손에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손의 움직임이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기를 반복한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그리고 나서 분골기 스위치를 켜다. 분골기가 웅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뼈 조각들이 가루가 되어 용기에 쌓이기 시작한다. 손으로 분골을 만져 본다.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다. 한지를 바르게 펴놓고 분골을 쏜다. 분골을 가운데에 놓고 한지를 정성스럽게 접는다. 한지에 쌓인 그녀는 한줌이 겨우 넘어 보인다. 분골을 향나무로 만든 함에 담는다. 노모가 준비한 것을 쓰지 않고 내가 마련한 것을 쓴다. 짙은 향나무 향에 그녀를 실어 보내고 싶어서다. 유골함을 보자기 위에 올려놓고 정성껏 묶는다. 유골함에서도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진다.

함을 안고 밖으로 나온다. 새 한 마리가 승화원을 맴돌다가 하늘로 날아오른다. 새는 멀리서 접이 되었다가 이내 사라진다.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재록

당선 작가 수상 소감



먼저,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모든 영령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몹시 숙연해지는 요즈음입니다. 다분히 관념적이지만 보다 근원적인 질문 하나. 산다는 것이 뭘까요?

이 화두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다가 문득 도원경을 발견하였습니다. 머릿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념(思念)들을 글로 옮기는 일이었지요.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은 먼 청년 시절이었으나,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은 불과 수개월 전. 지천명이 코앞이지만, 나와 시간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자판을 막 두드리고 있을 때에는 시공이 모두 함몰되어 하나의 진공 속에 별천지가 만들어지는 걸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더군요. 글을 쓴다고? 그 늦은 나이에? 쫓쫓……아니군요. 요즈음 트렌드에 맞게 ㅋㅋ로 할까요.

여하튼 별천지 속을 혼자 부유하다가 세상에 나의 도원경을 살짝 보여주고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고무적인 결과가 돌아왔군요.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좋게 봐 주신 심사 위원님, 전직(前職)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개비와 배꾸기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어저께 전화를 했을 때는 분명히 집에 있다고 했었는데, 장인은 집에 없었다. 배달된 지 며칠 된 듯한 엽서가 마루 위에서 먼지에 묻혀 덩굴고 있었다. 그로 미루어 집을 비운 것이 벌써 여러 날이 되었음이 분명했다. 오래된 시골집이라 며칠만 사람이 비워도 당장 표가 났다. 마루에 쌓인 먼지며, 마당에 훑날리는 나뭇잎과 잡초, 그리고 뭐라고 딱히 꼬집을 수는 없지만 빈집 특유의 쓸쓸함이 집안 곳곳에서 묻어났다.

아내는 마당을 쓸고, 잡초를 뽑고 부엌을 드나들며 집 안 곳곳을 치우는 등 바지런을 떨었다. 마루 위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던 나에게 아내가 대뜸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엽서를 건넸다.

“이것 좀 봐.”

엽서는 동남아 결혼 전문 회사 ‘사랑완성’이란 곳으로부터 장인 앞으로 온 것이었다. 내용인즉 ‘임성현 씨의 맞선 상대와 날짜가 정해졌으니 출국 준비를 하라’는 것과 ‘중도금 오백만 원을 수일 내로 입금하라’는 것이었다.

“뭐야, 이것들 노인 상대로 사기 치는 것들 아냐!”

나는 묘한 흥분을 느끼며 엽서에 찍힌 ‘사랑완성’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저쪽에선 대답 대신 ‘상답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라는 간단한 기계어만 들려왔다.

엽서의 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아내는 장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장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도대체 아빠는 어디에 가신 거야?”

아내는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엽서를 훑어보며 아내를 진정시켰다.

“아버님과는 어제 통화했잖아. 아마도 배터리가 다 되었을 거야. 그나저나 이진 뭐지?”

“그러게 말이야.”

아내는 대답을 하며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연결하여 ‘동남아 결혼 전문 회사 사랑완성’을 검색했다.

“무슨 회사라고 했는데 홈페이지 같은 것도 없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사태를 알아보자고.”

이튿날 아내는 오전 아홉 시가 지나자마자 ‘사랑완성’에 전화를 걸었다. 그들과 통화하는 내내 아내의 얼굴은 천변만화(千變萬化)였다. 화가 잔뜩 난 붉은 기운이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분노 때문인지 말문이 턱턱 막히고 있었다.

“당신들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팔순 노인을 꼬드겨 돈을 뜯어내고 있던 말이야. 빨리 원상회복해 놓지 않으면 모두 다 사기범으로 처넣을 거야!”

급기야는 거칠게 씹씩거리며 전화를 끊고는 나를 향해 고개를 주

억거리며 말했다.

“아버지가 잠시 노망이 드셨나?”

“…….”

아내는 잠시 주저하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빠른 말을 토해냈다.

“글쎄, 그 사람들 말이 아버지가 그 회사에다 베트남 여인과의 결혼을 신청하셨대. 이미 착수금으로 선금 오백만 원을 지급한 상태라는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아버지의 맞선 상대가 이제 스무 살의 베트남 처녀래. 이게 말이 돼?”

“뭐라고?”

놀라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장인은 이태 전에 몇 년간 중풍으로 누워 지내던 장모를 보내고 혼자가 되었다. 그 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는 아내의 말에도 장인은 한사코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우리 부부가 찾아봤으나 재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터였다.

아내와 내가 마당 끝을 맴돌며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아내의 휴대폰 벨이 울렸다. 아내는 통명스럽게 받았다.

“아빠, 어디예요? 저희 지금 시골집에 와 있단 말이에요!”

휴대폰에 귀를 댄 아내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이글거리는 걸 느꼈다.

“알았어요. 저희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있을 테니까 택시 타고 빨리 오세요.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 하여간 빨리 오세요. 자세한 건 오셔서 얘기해요.”

아내는 상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먼저 통화를 끊었다.

집 마당 가장자리에는 몇 십 년은 된 듯한 감나무 서너 개가 울타리를 이루고 있었고, 그 나무에서는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새들의 울음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았다. 내가 장인이 거주하는 시골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런 새소리와 맑은 공기였다. 그런데 이번만은 좀체 그런 새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 옆에서 끝없이 투덜거리는 아내의 짜한 기분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장인이 돌아왔다. 급한 일이 있다는 아내의 말에 택시를 타고 온 것이다. 장인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향해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리 호들갑을 떠나?”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내가 나서서 잠시 분위기를 수습해야 할 것 같았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세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이 사람 학교가 개교기념일인데다 마침 저도 시간이 나서 한 이틀 쉬려고 내려온 거예요. 집에 계시는 줄 알고 왔는데 집에 안 계시니 이 사람이 잠시 놀라서 그런 거예요.”

옆에서 잠시 뜬눈을 들이던 아내가 표독스럽게 쏘아 붙이며 엽서를 장인에게 내민다.

“아무 일도 없긴 왜 없어. 아빠 이건 뭐예요?”

엽서를 받아들 장인의 얼굴에서 일견 당황한 빛이 어린다. 붉어진 얼굴로 딸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한 마디 툭 던지며 방으로 들어간다.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방안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장인을 쳐다보았다. 약간 구부정한 허리, 주름살투성이의 얼굴이 예전의 당당했던 모습

은 온데간데없는 병약한 노인 그대로다.

이 양반도 한때는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 시골에서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했지만 퇴직할 때는 군청의 고위직이 되어 있었다. 검박한 생활로 차분히 노후를 준비하여 주변에 전담도 여럿 장만하였다. 몇 번의 시련은 있었지만, 그의 삶의 궤적은 변동이 그리 심하지 않았다. 적어도 장모가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그랬다.

장인은 딸의 시선을 피한 채 벽 쪽을 보며 찬찬히 말했다.

“너희들이 많이 놀라겠구나. 이렇게 사태를 키우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여간 별일이 아니다. 언젠가는 너희들에게도 말하려 했다만……. 크게 염려할 건 없다. 나, 아직까지 건강하다. 이번에도 서울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고 오는 길인데,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뉘는 없다더라. 그러니 너무 염려 마라.”

아내는 엽서를 들이밀며 채근했다.

“아빠,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응, 그건 말이다……. 내가 월남에 볼 일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내 일을 자기 일처럼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 볼일이란 게 뭐예요? 설마 저한테도 비밀로 할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한테도 말하려고 해. 그러니 이번 일은 그냥 좀 참고 기다리면 안 되겠니?”

“아니, 아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빠, 굳이 재혼하겠다면 아빠하고 맞는 사람하고 해야지. 손녀보다 어린애랑 어찌자는 거야! 정말 말을 말아야지. 아빠 도대체 왜 그래?”

“그건, 그건 말이다. 결혼 회사에서 월남 여인과 결혼하려면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랑 결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수월하다고 해서…….”

장인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붉어졌다.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빠,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나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 할까요? 전부 욕을 할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노망이 들었다고 할지도 몰라요.”

“…….”

“사실이지 아빠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혼자 계시는 것이 힘드시면 저희와 함께 사세요.”

아내는 내 쪽을 힐끔 보면서 거의 애원하다시피 매달렸다.

“그러세요. 아버님, 저희와 함께 사세요.”

이 알 수 없는 노인의 속내를 살피며 가볍게 아내의 말에 장단을 맞추었다. 여든 다섯의 노인네가 월남 처녀에게 새장가를 가겠다는 저의(底意)가 모처럼 흥미로웠다. 특히나 항상 타의 모범이 되는 걸 삶의 지표로 살아왔던 노인이 아니던가.

장인은 장모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에서 아내를 직접 수발하기 시작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 봤댔자 상태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인의 장모에 대한 애정은 사랑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어떻게 보면 집착이고, 또 어떻게 보면 희생이었다.

매사에 권위적이었던 장인은 장모의 병이 도졌을 때 그것을 당신 탓으로 생각했다. 장모의 병환 수발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했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병원은 양·한의를 통틀어 찾아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풍에 좋다면 침술이건 민간요법이건 당신의 모든 걸 걸고 일단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장모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장인은 장모를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시켰다. 어느 때가 아내가 장모의 목욕을 대신 시켰다가 장모로부터 핀잔을 들은 후부터는 다른 누구에게도 장모의 목욕을 맡기지 않았다. 새삼 돌이켜 보면 장모가 병상에라도 누워있을 때는 그래도 당신의 얼굴에 생기가 넘쳤던 것 같았다.

장인은 물끄러미 우리 두 사람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동안의 침묵이 서로에게 불편할 즈음, 아내가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아빠, 서울 병원은 왜 가신 거예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서 가신 거예요?”

장인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별일 아니다. 아픈 데도 없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만 가봐라. 바쁠 텐데. 참, 장 서방은 컴퓨터 좀 고쳐 놓고 가거라.”

장인은 피곤한 듯이 내뱉었다.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하던 나는 노인의 방에 들어가서 주인처럼 버티고 있는 컴퓨터를 살폈다. 밖에서 아내의 음성이 가파르게 수직으로 오르내렸다.

“아빠, 정말 영은이보다 어린 애한테 새 장가를 가겠단 말이야?”

말의 뒷부분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다. 컴퓨터 모뎀은 노란 불빛을 쉼 없이 깜박이며 명멸해 가는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간혹, 시간은 화석처럼 그 흔적을 남기기도 하는데, 그렇게 남겨진 시간 속에서 과거를 찾아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다.

방안에는 노인과 사위가 앉아있고 그 앞에 눈을 지그시 감은 노인의 아내가 누워 있었다. 막내딸이 커피를 노인에게 내밀며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한다. 노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커피 잔을 던져 버린다. 커피 잔이 박살이 나며 컴퓨터에도 커피가 몇 방울 튀었다. 모니터 옆면에 어슴푸레하게 남아 있는 자국은 그때를 되살리는 화석이다. 아마도 오랜만에 찾아온 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상승기류를 타고 등천을 했는지도 모른다.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

“아빠, 정말 도대체 왜 그래?”

바탕화면에 있는 인터넷 아이콘을 누르자 순간적으로 두둥실 떠나오는 별거벗은 젊은 여인들……. 순간 나는 노인의 비밀스러운 영역을 엿보게 된 것 같아 움찔했다. 컴퓨터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듯했다. 모니터 화면은 지우면 지울수록 더 많은 장면을 연속적으로 배설하고 있었다. 노인은 컴퓨터가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제어판과 레지스터리를 뒤지며 의심되는 파일들을 하나씩 찾아 삭제하자 컴퓨터는 간신히 진정되었다.

드디어 딸의 집요한 심문에 굴복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후유,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난 그저 월남이나 한번 다녀오고 싶었다. 같이 여행하면서 말벗이나 되어 주고, 또 여러 가지로 내 일을 자기 일처럼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잠시 헛생각을 했나 보구나.”

딸은 승리가 확정된 후에도 한참 동안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여러 느낌의 어감이 담긴 말로 몇 번이나 다짐을 한 후에야 고삿을 늦추었다. 우리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시골집을 나서 서울로 돌아왔다.

노인의 책상에 있던 약봉지를 추적하여 노인이 다닌 서울의 병원을 찾았을 때 아내는 기어코 눈물을 보였다.

“노인들은 신체기능이 쇠퇴해 감에 따라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정신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도 잘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대개 치매와 결부되거나 다른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늙어가는 당연한 현상으로 간주하지요. 여기서 더 심하면 자살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의사의 담담한 어조는 작지만 날카로운 갈퀴처럼 우리를 긁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리어 오고, 나중에는 따끔거리는 생채기처럼 우리를 핏고 지나갔다. 아내는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의사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장인은 아내가 떠난 후 극도의 외로움에 시달리다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한다.

장인은 몇 년 동안 중풍 든 장모의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며 꼬박꼬박 삼시 세끼를 챙기던 그런 어른이었다. 피골이 맞닿은 장모의 얼굴에 이마를 비벼대며 아파도 좋으니 당신 곁을 떠나지만 말라던 그런 노인이었다. 상치(喪妻) 후에 장인이 받았을 심리적인 충격이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갔다. 의사는 노인 우울증에는 주변의 관심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했다. 가능하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장인, 장모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다. 큰아들은 월남전에서 잃고, 작은아들은 외국으로 가 버리고, 막내딸이 현재 나의 아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인의 막내딸은 계속 훌쩍거렸다. 덩달

아 내 마음도 착잡해졌다.

언젠가 장인이 마을 뒤편에 있는 야트막한 야산으로 나를 데려간 적이 있었다. 장인은 그 야산이 월남에서 전사한 큰아들 병호의 것이라고 했다.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산 땅인데 지금은 그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다는 것이다. 인근에 골프장을 짓는다는 사람이 그 땅을 사려 하는데, 장인은 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때 장인의 얼굴에 언뜻 어리던 묘한 감상(感想)의 편린(片鱗)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막내딸은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집에 모시고 자 해도 당신께서 완강히 반대했다. 장인의 고집은 절대 꺾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던 터다. 당신이 외롭지 않게 누군가가 옆에 있어 줘야 한다는데, 도대체 누가? 그렇다고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팽개치고 아버지 곁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남편이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린다.

“아버지를 어떻게 하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주 찾아뵙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참에 독일에 있는 처남한테도 연락해서 한번 왔다 가라고 하지. 그리고 의사 말이 누군가가 옆에서 말벗이 되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니, 동네에서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지 뭐. 매일 와서 집 안 청소도 해 주고 아버님 말 동무도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친구 비슷한 가사도우미.”

“그럴까. 종구네 아주머니께 한번 부탁해볼까?”

종구네 아주머니는 말이 아주머니지 이제 일흔이 다 되어가는 할머니다. 일찍 결혼해서 열아홉에 아들 종구를 낳았다. 그리고 종구

가 돌도 되기 전에 남편을 여의고 청상이 되었다.

종구는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영민한 편이었다.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았다. 어쩌면 그런 열악한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농협 돈을 대출받아 무슨 특수작물 재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냉해를 빌미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탕감받은 일은 유명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관공서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종구부터 찾았다.

그러나 농촌 총각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결혼을 제때에 못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마흔여덟의 나이로 스물둘의 베트남 처녀에게 장가를 간 것이다. 아내와 종구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두 집은 바로 이웃에 있었지만 소작인과 지주처럼 엮여 있었다. 종구네 아주머니, 즉 종구의 어머니는 아내가 어릴 적부터 그 집안을 들락거렸다. 한 집에서는 일손이 필요했고 또 다른 집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자살까지도 한대요.”

아내는 도움을 요청하며 간절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했다.

종구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태를 전해 듣자 눈물부터 보였다. 아내는 그 눈물에 고무되어 같이 눈물을 글썽이며 종구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부탁을 했다.

“의사는 어디든지 소속감을 느끼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했어요. 가능하면 아주머니께서 우리 아버지를 경로당 같은데도 좀 모시고 가고 그러세요.”

종구 어머니는 돈은 무슨 돈이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내는 그녀

에게 매달 오십만 원씩 부쳐 주겠다고 했다.

아내는 아버지도 설득했다. 우리와 같이 지내기 싫으시면 일단 당신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라도 종구 어머니께 집안일을 좀 맡기자고 하였다. 스스로 당신의 병을 알고 있어서 옳을까 생각보다 쉽게 설득되었다.

그날 이후 종구 어머니와 아내는 거의 매일 전화로 아버지 상태를 점검했다. 장인의 상태는 의사도 인정할 정도로 많이 좋아지고 있었다. 아내는 매달 꼬박꼬박 종구 어머니의 계좌로 돈을 부쳤다.

독일의 처남은 이번에도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이는 소리로 아내에게 하소연하더라. 하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못 온 사람이니 그 심정도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 장례식 때 둘째 아들의 전화를 받고 못내 서운했던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둘째 아들은 독일에서 국제핵개발저지위원회인가 뭔가 하는 환경 단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다. 독일에 공부하러 갔다가 그 단체 소속의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더니 줄곧 그 일에 매달렸다. 듣기로는 핵폐기물 같은 것을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일이란다. 그래서 일 년에 몇 달은 아예 바다에 나가 생활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북극에 가까운 어느 바다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장례 일에 맞추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라 했다.

장인은 수첩에 무엇이든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장인의 수첩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전화번호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것과 달리 펜으로 여러 번에 걸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은 것이었다. 장인의 최근 행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긴장된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약간은 나이 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계하는 톤이 묘하게 뻔 음성이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약간 망설이다가 좀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쪽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만나자는 건지 묻지도 않고 흔쾌히 응한다. 게다가 탑골공원 내 팔각정 근처에서 내일 저녁에 만나자며 구체적 장소와 시간까지 정해주었다.

이 사람은 누굴까? 장인과는 어떤 사이일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 맞추어 보았지만 좋은 사이는 아닌 것 같았다. 특히나 장인의 최근 행보로 미루어 보면 더욱 그렇다. 아내 말로는 최근에 아버지가 집 뒤 임야를 골프장 건설업자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아내도 최근야야 동네 이장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다. 장인이 내게 장남 병호의 것이라고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못 박았던 그 땅이다. 그것을 처분했다면 대가가 상당했을 것이다. 아내는 장인이 그 돈을 누군가에게 사기당한 것 같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 땅 이야기만 꺼내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 사람을 만나면 장인의 최근 행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장인은 시골에서 제법 돈이 많은 노인 층에 속했다. 논밭을 포함한 임야를 제외하고도 상당한 현금을 은행, 주식 등에 묻어 놓고 있는 재력가인 셈이다.

탑골공원에 노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노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한담도 하고, 바둑이나 장기를 두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다. 그들의 모습은 다양했다. 제법 반듯하게 정장을 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축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육신의 쇠잔함은 모두 비슷비슷했다.

약속 시각에 팔각정 근처에서 전화를 걸었다. 치장을 많이 하고 화장이 짙은 초로의 여자가 나타났다. 화장으로 바래져 가는 피부를 가리는 등 애를 썼지만, 아주머니라기보다는 거의 할머니에 가까웠다.

“생각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네.”

그녀가 생글거리며 다가섰다. 향수 냄새가 강하게 내 후각을 파고들었다.

“근데, 이렇게 젊은 양반이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어?”

잠시 내 눈치를 살피던 그녀가 자신감을 얻은 듯 속삭였다.

“긴 밤 칠, 짧은 밤 삼. 알지?”

언젠가 노인의 성(性) 문제를 다루는 방송에서 본 적이 있다. 일명 ‘박카스 아줌마’다.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녀를 찾은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그녀는 장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그녀의 고객은 별의별 인간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장인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얼마 전부터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이 끊어지면 대개는 세상을 떠났거나, 거동이 어려워 요양 병원 같은 데 들어갔나 보다 생각하지요. 노인들은 시간이 남기는 찌꺼기라서 쉽게 부패해 줘야요. 그렇게 부패해 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나마 아직도 핏기가 돌 때 어떻게든 좀 더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고…….”

박카스는 신세타령을 한참이나 하더니 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

었다.

은백색의 머리를 반듯하게 정리한 노인이 인사동 가는 길을 물었다. 남도의 사투리가 완연했지만 그렇게 촌스럽지 않았고 궁(窮)해보이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널찍한 이마 밑에 움푹 들어간 눈망울에 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감이 끊임없이 출렁거리고 있었다.

박카스는 이 외로운 영혼을 파릇파릇한 시간 속으로 인도하고 싶어졌다. 그렇게 해서 은백색의 노인은 박카스의 고객이 되었다. 노인은 박카스에게 마치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변태 같기도 했다. 노인은 박카스를 발가벗겨 욕실에 눕혔다. 그리고는 정성을 다하여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씻겼다. 노인의 태도가 너무 경건해서 박카스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몸을 맡겼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그녀의 몸을 말끔히 씻기고 갔다.

그녀에게 그는 최고의 고객이었다. 그녀의 몸을 정성스레 씻기면서 노인은 온갖 이야기를 다 했다. 월남에서 죽은 큰아들, 외국에 사는 둘째, 그리고 교사인 막내딸까지 대부분은 자식들 이야기였다. 간혹 젊은 시절 노인의 이야기도 섞여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노인은 마치 자기 부인에게 속삭이듯 했다. 그러나 박카스는 몇 번 횃수가 반복되면서 노인에 대해 슬슬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평소대로 노인이 박카스의 몸을 다 씻기고 났을 때, 이번에는 그녀가 정성스레(그녀의 표현으로는 정말 순수하게) 그를 닦아 주었다. 그게 끝이었다. 그날 이후로 노인은 다시 오지 않았다.

박카스 이야기는 아내에게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갑자기 장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월남을 좀 다녀와야겠다는 것이다. 마침 종구 처가 월남 출신이라 같이 갈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미 여행 일정을 다 잡아 놓고 떠나는 날 전화를 한 것이다. 아내는 학생들을 인솔하고 수학여행을 떠났던 터라 연락이 쉽지 않아 내게 전화를 한다고 했다. 아버지 소식을 들은 아내는 펄쩍 뛰었다.

“왜 또 월남이야. 설마 월남 여자애를 만나려는 건 아니지?”

아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조바심을 냈다. 장인이나 아내는 월남이 베트남으로 바뀐 후에도 여전히 월남으로 통했다.

잠시 후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종구 어머니와 통화를 한 모양이었다.

“근데 좀 이상해. 월남에 종구 어머니랑 종구, 종구 처까지 다 같이 간대. 내 전화는 받지도 않아. 잠시 다녀오는 것도 아니야. 열흘이나 걸린대.”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아내는 아버지의 심리상태를 추리하기에 바빴다. 종구네 식구 전체를 데리고 여행을 갔다는 게 아내에게는 영 마뜩지가 않아 보였다. 아무리 종구 처가 베트남 출신이라 해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장인이나 종구 어머니는 여행을 떠난 이후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내는 나보다 더 조바심을 냈다. 급기야 시골에 가면 종구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효율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아내의 예상은 적중했다. 마을 이장은 종구뿐만 아니라 그 처의 연락처까지 알고 있었다. 더불어 최근에 종구가 장인을 얼마나 지극 정성으로 대했는지도 시시콜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유명 관광지는 물론이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름난 음식점을 비롯하여 장인이

좋아할 만한 곳을 꽤 찾아다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인은 만나는 사람에게 종구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한다.

이장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내는 아내대로 나는 나대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쨌든 장인의 상태가 호전된 것은 분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 말을 아꼈다. 장인에 대한 소문은 이미 마을에 짝 퍼져 있었다.

아내는 조심스레 종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초등학교 동창으로 이웃에 살았지만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않던 두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아내는 살갑게 말을 건넨다.

“야! 나야, 희영이. 너 지금 우리 아버지랑 같이 있지?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연락했어.”

몇 마디를 더 주고받던 아내가 시무룩한 얼굴로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조금 있다 지가 이쪽으로 전화한다네. 아마도 아버지 눈치를 보나 봐.”

잠시 후 종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내는 한참이나 ‘응, 응’하면서 종구의 말을 듣고 있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아내는 한동안 멍하니 있더니 종구가 전해 준 이야기를 했다.

“아빠가 이번에 월남에 간 것은 큰오빠 때문이래.”

아내의 얼굴에는 묘한 빛깔의 그늘이 깔렸다. 그것은 약간 서글퍼 보이기도 하고, 약간은 허전해 보이기도 했다. 아내는 그 분위기를 추스르는 데 꽤 틈을 들이더니 덧붙였다.

“큰오빠 사망 보상금으로 샀던 그 야산 있잖아. 그걸 처분했는데

그 돈을 월남에 기부하기 위해서 간 거래. 종구는 자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아버지에게 하지 말라네. 후우, 누가 진짜 자식이야?”

아내는 지금까지 자기가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고 자책했다. 아들을 전장에서 잃은 아버지의 가슴에 새겨진 상흔(傷痕)이 그리도 깊은지 몰랐다는 것이다. 그건 사위인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먼발치로 바라만 보았지 한 번도 그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 한 적이 없었다.

열흘이 지나갔다. 아내는 긴 세월을 견뎌 낸 노목(老木)처럼 곳곳하게 일상으로 돌아왔다. 여행객들이 돌아오자 모처럼 시골집은 잔칫집 분위기로 시끌벅적했다.

그러나 아내는 해야 할 어떤 일을 하지 못한 사람처럼 매사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다. 산란한 마음을 들기지 않으려는 듯 평소보다 많은 말과 큰 웃음으로 긴 여행에서 돌아온 아버지 일행과 어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여서 도무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디다 시선을 두어야 할지조차도 모를 지경이었다. 특히, 얼굴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을 나뉘 본 적이 없는 종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했다. 종구도 마찬가지였는지 얼마간 얼굴이 보이더니 집에 불일이 있다면서 이내 가버렸다. 가장 유쾌한 이는 종구 처와 종구 어머니였다. 종구 처는 붙임성이 있어서 내게도 연신 웃음을 보냈다. 종구 처의 혀 짧은 소리는 갈댓잎이 바람에 서걱거릴 때 나는 소리 같았다. 키가 작고 얼굴이 까만 그녀는 우리 딸 영은이와 동갑이다.

영은이는 대학에서 연출을 공부 중인데 지난해에는 ‘한국의 숲’이란 다큐멘터리로 방송국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다. 한 달 전쯤 그때 받은 상금 중 일부를 기부하더니, 나머지를 가지고 홀연히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나는 영은이가 걱정될 때마다 딸아이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수십 번도 더 돌려보았다. 곧게 뻗은 갈대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그 뒤를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갈대밭이 가득 채우는 첫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제목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즈음 영은이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금부터 평화로운 이 숲에서 일어나는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가 갈대밭의 어느 지점을 클로즈업하자 작고 아담한 새 둥지 하나가 보인다. 둥지에는 개개비 한 마리가 머리를 쭈뼛거리며 알을 품고 앉아있다. 카메라가 서서히 돌아가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뼈꾸기 한 마리가 이쪽을 쳐다보는 모습이 보인다. 개개비가 잠시 둥지를 떠난 사이 뼈꾸기는 개개비의 둥지로 날아와 자신의 알을 낳고 사라진다. 개개비는 뼈꾸기 알도 열심히 품어 준다. 며칠 후 둥지 안에서는 먼저 부화한 뼈꾸기가 뒤에 부화한 개개비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모두 밀어낸다.

- 이제 둥지는 뼈꾸기 차지가 됩니다. 어미 개개비는 열심히 먹이를 물어와 뼈꾸기 새끼를 먹입니다. 나중에는 자신보다 덩치가 커진 뼈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물어다 줄 겁니다. -

영은이는 최대한 담담하게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종구 처의 부모도 먼 이국땅으로 떠난 딸이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으로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우리보다 그녀의 부모는 더욱 걱정스러울지도 모른다. 나는 불현듯 종구 처를 토닥여 주고 싶었다.

장인은 종구 처를 ‘응우예’인지 ‘응우야’인지 정확하게 판별되지 않는 발음으로 불렀다. 장인이 ‘응우야(혹은 응우예)’하고 부르면 종구 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재빨리 ‘예이 아버님’하고 달려갔다. 그녀가 장인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종구 어머니와 종구 처가 집으로 돌아가자 장인은 나와 아내를 불렀다. 장인을 가까이서 쳐다본 지가 꽤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썩한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겹겹이 덧대어져 있었다. 그의 눈은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아내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참을 주저하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언젠가 너희에게 해 줄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 내가 월남에 가려고 한 이유는 말이야, 그건 너의 큰오빠 병호와 관련이 있어. 병호가 월남에서 죽고 얼마 되지 않아 월남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었다. 병호가 월남에서 사귀던 아가씨라는 사람이 보낸 거였어. 편지 내용은 자신이 병호의 아이를 낳았는데 혼자 키울 수가 없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지.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사진도 함께 보냈어.”

“네에? 큰오빠가…….”

잠시 기가 막혀 하는 아내를 옆에서 눈짓으로 진정시켰다.

“그 편지를 받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당황스러웠다. 고민 끝에 일단 아들이 근무했던 부대로 자초지종을 알아보았어. 그런데 부대에서는 당시 월남에 그런 사기꾼들이 득실대니 일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구나.”

장인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입맛을 쩍쩍 다셨다.

“부대에서 하도 딱 잘라 말하기에 우리도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네 어머니가 그때 보내온 아기 사진을 내놓으며 어찌면 병호의 자식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더구나. 네 어머니는 그때까지 그 일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가슴속에 묻고 있었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네 어머니가 풍에 걸려 버렸다. 네 어머니가 풍에 걸리기 직전에 그렇게도 나에게 월남을 다녀오자고 채근하더구나. 그때 내가 너의 엄마 말을 들어 주었으면 풍에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장인은 주저하다가 지갑에서 낡은 흑백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직 백일이 채 되지 않은 아기 사진이었다. 아내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을 잘 봐봐. 보면 볼수록 병호가 아기일 때랑 닮았어. 네 어머니가 풍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아이를 찾으러 월남에 같이 갔을 거야……. 그런데 이번에 월남에 가서 그때 적혀있던 주소를 찾았지만, 해당 마을이 있던 곳에는 커다란 신발 공장이 들어와 있더구나. 종구 처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그 마을 사람들은 전부 빨빨이 흩어져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

장인은 이야기 중간 중간에도 종구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 번 이야기했다.

“종구가 애를 많이 먹었어. 종구가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어. 종구는……, 종구는…….”

장인의 종구에 대한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아내는 허공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심사가 불편할 때 곧잘 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장인은 딸의 반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딸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즉 야산을 처분한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종구의 말대로라면 베트남 어느 시골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는데 그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장인의 상태가 어떤지 알기 위해 약속된 시간에 의사를 찾았다. 의사는 장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몇 가지 육체적 조작도 해보게 했다. 장인은 주어진 과제를 별로 어렵지 않게 수행했다. 의사의 질문에도 물 흐르듯이 술술 대답했다. 나는 아내가 장인의 검사를 돕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사에게 나직이 물었다. 육체적으로 저렇게 늙은 상태에서도 성(性)적인 상상이나 환상에 빠질 수 있는지.

“노인들도 성적인 문제는 젊은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때에 따라 치매가 진행되면서 병적으로 집착하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는 데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젊은 시절보다 정서적으로 더욱 집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너무 쉽게 풀어버린 허망함에 멧쩍어하는 나에게 의사는 덧붙였다.

“이런 경우도 대부분은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단지 독거노인들의 경우는 좀 더 다른 정서적 문제와 결부될 때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의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장인의 옆모습을 훑쳐보았다. 성실하게 살아온 한 노인이 차창 밖을 무심한 표정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던 노인이었다. 손녀보

다 어린 처녀한테 새 장가를 가려는 그 심사가 헤아리기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노인의 그러한 심정도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었다.

머릿속에 아침 연무처럼 피어오른 우울증은 노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나이 많은 여자보다 젊은 처녀와의 결혼이 현실적으로 더 쉬울 것이라는 결혼 브로커의 농간이 버무려진다면, 그리고 월남 어딘가로 향하는 죄의식이 마음 급한 노인을 채근했다면, 손녀보다 어린 여자애랑 맞선을 볼 마음이 생길 법도 했다.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장인의 얼굴은 한결 밝아졌다. 그러나 육신의 쇠잔함이 가져오는 그늘도 만만치 않았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피로감이 육신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무릎이 아파서 산책도 두려워하고 귀도 매우 어두워졌다. 장인의 몸 상태가 나빠질수록 아내는 종구 어머니에게 많이 의존했다. 마찬가지로 장인의 종구에 대한 의존도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종구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기네 가족과 여행을 다녀왔다. 물론 장인도 함께였다.

아내는 아버지의 잦은 여행이 건강을 해칠 것을 염려했다. 이즈음 마을에서는 종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았다. 종구가 장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장인의 재산을 빼돌린다는 것이었다. 소문은 그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서 가장 늦게 도달하는 모양이었다. 급기야는 우리에게도 그 소문이 들려 왔다. 한 번 연통을 킁은 소문은 연속적으로 또 다른 소문을 데리고 왔다. 연금 공단에 다니는 아내 친구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조금씩 타오던 연금을 일시불로

신청해서 가져갔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도 이즈음이었다. 이장으로부터는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전답 중 일부를 종구 앞으로 이전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종구가 최근에 구입한 중형 승용차 역시 아버지가 사 주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아내는 분노했다. 아버지에게 종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해야겠다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때맞추어 장인이 오랜만에 우리를 불렀다. 장마 기간에 잠깐 나타나는 햇빛처럼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이 자신감이 넘쳤으며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다. 종구 어머니가 과일을 가져오자, 잠시 망설이던 장인은 과일을 하나 베어 물며, 대수롭지 않은 말투로 말했다.

“야, 너희들 잘 들어라. 나, 저 종구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했다. 종구가 곁에서 잘 돌봐주고 있으니, 이제 너희는 나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바쁘면 자주 안 찾아와도 된다.”

“…….”

“그리고, 혹시 내가 죽고 나면 분쟁이 생길까봐 미리 말해두는데 저 뒷골에 있는 논 다섯 마지기과 그 뒤에 붙은 산 삼천 평은 종구 앞으로 이전해 주었다. 그 산에 너희 어미도 묻혀 있고 나도 죽고 나면 묻힐 끼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형제가 되었으니까 그리 알고 지내거라.”

평소와 확연히 다른 말투와 품새가 사전에 결심을 단단히 한 것 같았다. 종구 어머니는 그 옆에서 약간 멧쩍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나와 아내는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앉아있었다. 그때 밖에서 종구가 들어왔다. 그는 잠시 우리를 보더니 크게 놀라지 않고 말했다.

“어, 희영이 왔네. 아버님께 말씀 다 들었지? 두 분이 하도 원하셔서 일단 두 분 뜻에 따랐어. 나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였는데, 결국 두 분이 스스로 면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셨더라고.”

“…….”

아내는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종구는 나를 향해 씩웃 웃더니 대뜸 손을 불쑥 내밀었다.

“이제, 우리 매제 사이가 되었네. 잘해 봅시다. 나 우중구요.”

“아……, 예.”

나는 얼떨결에 그 손을 맞잡았다.

영은이의 다큐멘터리 ‘한국의 숲’은 내가 보기에도 걸작이었다. 영은이는 그 프로를 찍기 위해 거의 일 년을 집에서 나가 살았다. 영은이의 다큐멘터리는 결국 뼈꾸기의 기발한 생존 방식이 그 주제인 듯했다. 언젠가 영은이가 잠시 집에 들어와 있을 때 흥분된 목소리로 하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아빠, 뼈꾸기라는 애 있잖아. 개네들 어떻게 사는 지 알아? 개개비라고 하는 덩치가 작은 여름 철새가 있는데 자신의 육아를 개네들을 이용해서 다 해. 아주 흥미롭지 않아?”

나는 아주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것도 자연의 일부겠지.”

다큐멘터리 말미에는 둥지 밖으로 쫓겨난 개개비 새끼 위로 번개가 번쩍거리는 장면이 뒤따라 나오고, 순식간에 먹구름이 갈대밭을 덮으며 장대비를 쏟아 내리는 장면이 디졸브되었다. 이 장면에서 영은이는 CG(컴퓨터 그래픽)의 힘을 빌렸다고 했다.

잠시 후, 종구 처가 막걸리를 내어 왔다. 종구는 막걸리 병을 거꾸로 들더니 입구 부위를 틀어막고는 힘차게 흔들었다. 그리고는 커다란 대접에다 가득 한잔을 따른 뒤, 걸쭉한 소리로 장인에게 술을 권했다.

“아버님, 곡차 한잔 하시지요.”

평소에 장인은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던 터라 나는 흥미롭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내는 대뜸 양갈지게 쏘아붙였다.

“우리 아버지는 술을 전혀 못하셔.”

종구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이건 술이 아니야. 곡차야 곡차.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 완전 보약이야.”

종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인은 마치 우리에게 시위라도 하려는 듯 그 술잔을 들고는 단숨에 들이켰다. 아내는 놀란 얼굴로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나도 마찬가지로였다. 장인은 술잔을 내게로 돌렸다.

“장서방도 한잔해 봐. 아주 좋아. 이거 마시고 조금 있으면 몸에 기운이 막 솟아나는 걸 느껴.”

얼떨결에 넘겨받은 잔을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종구가 막걸리 병을 잔에 대고 양껏 따랐다.

“자 매제도 한잔 하시죠. 참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나? 매형이라 해야 하나? 매제라 해야 하나?”

잠시 잔을 들고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종구 처가 와서 서툰 한국말로 권했다.

“꼬모부, 꼬모부 맞죠? 쭈욱 마시세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이유도 없이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던 터라 순식간에 잔을 비웠다. 종구가 넉살 좋게 한마디 했다.

“이야, 우리 매제 나랑 통하는 데가 있네.”

그리고는 내손에서 잔을 뺏어가다시피 하더니 막걸리 병을 내손에 쥐어주었다. 종구는 나를 향해 능글맞게 웃으며 뺏어간 잔을 내 코앞에다 높이 들어 올렸다. 나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잔에다 막걸리를 가득 부었다. 아내는 나를 무섭게 쏘아보고 있었다. 이어서 술이 몇 차례 더 돌아 불쾌해진 얼굴로 종구가 말했다.

“저 앞에 밭 있잖아.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곳에 있는 밭패기, 그 옆으로 도로가 난다는 거야. 무주 쪽으로 국도가 난다는데, 국도가 나기 전에 그 밭에다 과실수를 심어 놓으면 그 보상금이 엄청나. 어때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사과나무 몇 개를 심어 놓을까? 하하!”

나는 그 밭을 잘 알고 있었다. 장모가 살아 있을 적에 그 밭을 막 내딸에게 준다고 하자, 장인이 독일에 가 있는 둘째 아들 것이라고 못을 박던 그 밭이다. 종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장인 때문에 꼭 참고 있던 나는 그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아니, 아버님. 그 밭은 독일에 있는 둘째 처남 것이라고 장모님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장인은 술기운인지 아니면 사태 파악이 안 된 건지 몽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종구 말이 다 맞아. 장서방도 종구한테 많이 물어봐.”

급기야는 아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빠, 도대체 제정신이에요? 야, 우종구! 너 미쳤니? 술도 생전 드시지 않던 분에게 술을 드시게 하질 않나, 마치 친아들이라도 된

듯이 떠들어대질 않나, 너 왜이러니?”

순간, 종구의 얼굴에 웃음기가 싹 가시고 아주 짧은 순간 아내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침착한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을 했다.

“야, 임희영! 너, 내말 잘 들어. 니네들이 자식이면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 아버지가 혼자서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타성바지인 나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였겠니? 니네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오는 걸로 자식 노릇 다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체력이 팔려 농사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말할 상대도 없는 노인에게 하루하루는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진정 우리 아버지 대하듯이 아버님을 모셨다. 이 부분은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몰라. 그래서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셨다고.”

종구의 눈빛은 어느새 촉촉하게 물기가 배어나고 있었다. 순간, 제정신이 아닌 듯한 장인이 소리를 크게 질렀다.

“야, 너거들 지금 무슨 짓들이냐! 어른 앞에서. 다시는 내 앞에서 서로 헐뜯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희영이 너는 앞으로 종구를 친오빠처럼 생각해. 알았지?”

아내는 뿡 일어서더니 나에게 소리쳤다.

“여보, 안 일어서고 뭐해요. 빨리 집에 가요. 그리고 이답에 아버지가 술 드시지 않았을 때 다시 와서 이야기하도록 해요.”

나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나의 머리에는 영은이의 다크가 떠올랐다. 빼꾸기가 개개비의 알을 밀어내고 대신 동지를 차지하는 그 영상을 보며 어미 개개비가 참

으로 미련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 미련함에 엇대어 생존을 해 나가는 뼈꾸기의 모습이 참으로 유머러스한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집을 박차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찌면 뼈꾸기에게 밀려난 개개비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그렇더라도 종구의 말대로 기능적으로는 종구가 우리보다 자식 노릇을 많이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것이 종구의 선의에서 출발한 건지, 아니면 다른 저의(底意)가 깔린 건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다. 특히나 노환에다 우울증으로 온전한 판단이 어려운 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구가 훨씬 더 믿음직스러웠을 것이다.

문득 탑골공원의 수많은 노인들이 생각났다. 그들의 자식들은 도대체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하고 있을까? 자식이 모든 생업을 팽개치고 부모 봉양에 매달릴 수는 없을 진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자식의 도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문득 개개비와 뼈꾸기의 경우도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나저나 당장에 우리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종구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졌다. 앞서 가던 아내를 쳐다보았다. 순간, 걸음을 멈춘 아내는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큰 소리를 질렀다.

“종구, 이 개자식!”

여러 가지로 뒤숭숭하던 나의 머릿속은 아내의 이 한마디로 일거에 정돈되었다.

동상



천안월봉중학교
조미옥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제 소설은 제가 교사가 되고자 마음먹기도 전, 그러니까 15~16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어린 남매를 키우며, 매일 자정이 되어야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조금씩 조금씩 자아가 허물어 내리고 있었지요. 진눈깨비처럼 춥고 습하며 또한 어두우며……, 터널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 날들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준 것이 글쓰기였습니다.

어느 날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임용고사를 준비하던 순간부터 글쓰기는 제게 사치가 되었습니다.

교단에 선지 10여 년을 넘어서서, 문득 곱팡이가 피어오르며 삭아 가던 옛 글몽치를 몰래 꺼내들었습니다. 촌스럽고 정제되지 못한 글, 끝까지 읽어주시고 뽑아주시다니, 얼굴이 붉어지게 부끄러우면서도 가슴이 뵈니다.

조심스럽게 혼잣말로 묻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어도 될런지요.

너는 흘러넘칠 추네

초겨울 햇살 한 자락이 처연히 비취 들고 있는 좁다란 창밖 어디쯤에선가, 아주 먼 나라에서 들리는 것 인양 자동차 경적이 뿌우우하고 길게 울렸다. 반쯤 지하로 내려앉은 방은 격자무늬 방범창 안에 갇힌 먼지 앉은 유리를 통해 굶주린 듯 탐욕스럽게 빛을 흡입하고 있다. 창밖은 거의 2미터 높이로 집을 둘러싸고 있는 투박한 벽돌 담장이 턱밑을 바투로 막고 있다. 무겁게 내려앉은 햇빛 하늘은 지붕에서 지붕으로 끊임없이 줄달음하는 전깃줄에 갈가리 찢겨져 있었다.

방 한쪽 벽으로 위태하게 서 있는 비키니 옷장을 귀퉁이가 뭉그러진 낡은 철제 사무용 책상이 바짝 붙어서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있었다. 장식 없는 흰 벽은 벽지 위에 그대로 페인트칠을 해놓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친 붓자국이 눈에 거슬렸다. 벽들은 아주 미세한 파장에도 먼지덩이처럼 사그라져 버릴 듯 위태로운 신음을 뱉어내고 있는 것 같다. 너무나 가볍게, 소리 없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아찔한 상상을 쫓다 인숙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책꽂이에 얹혀있는 탁상시계는 벌써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아, 벌써……!’

까마득한 공상 속에서 버거운 듯 자신을 추스르며 인숙은 양미간을 찡그렸다. 더 이상 미적거리다간 너무 늦어버릴 것이다. 끈적이듯이 몸에 감기며 달라붙는 상념을 떨치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인숙은 자신이 지금껏 어머니의 의중을 저울질하고 있었음을 문득 깨달았다. 웬만한 일로는 좀처럼 전화를 한 적이 없는 어머니가 어제 전화를 걸어온 뒤였다. 아버지 칠순인데 남들처럼 잔치는 못 하더라도 남의 눈도 있으니 한번 다녀나 가라는 것이었다.

칠순이라는 용어가 주는 무게 때문이었을까? 회갑도 모르는 척 넘겨버렸는데 벌써 칠순이라니……. 이제껏 아버지에게 너무나 무심했던 날들이 얼마 남아있을 성싶지 않은 아버지의 삶 위에 반추되어 가슴 한 자락을 쓸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렇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칠십을 살았건 육십을 살았건 그게 무슨 기념할 만한 일이란 말인가?

어쨌든 다녀와야 마음이 편할 듯싶었다. 기수가 떠나고 나선 더욱 발길이 뜸했던 고향집이었다.

늦기 전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했다. 읍내에서도 한 시간 가량 버스를 타야 하는 데다 그나마 삼티까지 가는 버스는 한 시간에 한 대 정도 밖에 다니지 않았다. 점차 인근에 사는 사람이 더 줄어들어 버스는 해가 갈수록 더 뜸하게 오고 갔다.

차량산맥 줄기가 뻗어 내려가다 잠시 곁가지를 살짝 흘려놓고 간 모퉁이의 안굽이 막다른 동네였다. 버스에서 내려서도 20여 분을 걸어 들어가야 했다. 아무리 서둘러도 다녀오는 것은 하루해가 버거웠다.

인숙은 함부로 벗어 던져 마구 뒤엉켜 있는 옷가지 따위 사이에서

방 열쇠를 찾아 한참 동안 뒤치닥거렸다. 언젠가는 방문에 그대로 꽂아 놓은 채 다음날까지 모른 적도 있었다. 더 이상 찾기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기어이 눈에 들어오는 그 비릿한 허탈은 삶의 배신감을 증폭시키곤 했다. 그런 날에는 일상의 사소한 것들마저 너무나 낯설고 힘겨운 구멍처럼 느껴져 구역질이 나곤 했다.

기수가 떠나고 난 후로 인숙은 발이 땅에 닿질 않는 아찔함을 느끼곤 했다. 허공에 떠다니며 자꾸만 사물과 부딪칠 것 같은 무중력감에 언뜻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한 상에서 밥을 먹어도 기수와 인숙은 이가 잘 맞지 않는 부속품처럼 언제나 서로 조금 엇나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그와 대화라는 걸 나누어 본 기억이 없다. 기수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인숙은 그의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손에 묻은 잉크처럼 지워지지 않으나 그 형체를 명확히 떠올릴 수도 없는, 코끝에 걸려 간질거리는 재채기 같이, 혹은 안타깝고 때로 상처처럼 쓰라린…….

기수를 떠나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

초등학교 때 시골 아이 기수는 천진한 아이였다. 그만한 나이에 꿈꿀 법한 도시에 대한 동경조차도 없었다. 중학교 진학 시기가 되자 어머니는 기수를 도시로 보내 공부시키고 싶어했다. 여상을 졸업한 인숙이 어머니가 고대하던 취직 대신 대학에 입학한 뒤였다. 딸도 대학 보낸 마당에 아들을 도시에서 공부시키고픈 열망은 어머니에게 거의 맹목적인 것이었다. 그 성화에 못 이겨 기수는 쇠코뚜레

에 꺾여 끌려가듯이 도시로 나왔다.

기수가 초등학교 졸업식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는 그를 인숙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왔다.

“어차피 인자 집 떠나면 원제 다시 삼티로 내려와 살것냐. 여기서 핵교 졸업허구 취직허서 장개도 들고 도시 사람 되야지, 농삿꾼으로 살건 아니잖여. 그렇게 넘보다 하루라도 먼저 익숙혀지게 혀서 짱짱 허게 자리를 잡어야제. 니 누나가 있으니 뭘 걱정이것냐.”

아버지는 까슬까슬한 눈길로 방바닥만 쳐다보며 묻지도 않은 말을 서둘러 마치고는 급한 불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시골집으로 되짚어 내려가 버렸다.

밖에 내놓기 불안한 아들을 어머니는 유달리 치마폭에 싸안고 키웠다. 아버지도 남들은 일찍 시집보낸 딸이 외손자 안겨주기 시작할 나이에 재혼으로 얻은 첫아들인지라 늘상 노심초사했다. 그런 만큼 기수를 멀리 유학시킨다는 것은 대담한 결정임에 틀림없었다.

짐이래야 옷가지 몇 개 싼 꾸러미가 전부인 기수는 방구석 한쪽에 보통이를 내려놓고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지 어색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서 있었다. 동지 같은 부모를 떠나 배다른 누이와 함께 낯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몹시 긴장을 하는 눈치였다.

그때 인숙이 보다 자상하게 누나 노릇을 해 주었어야 했는지 모른다. 그랬더라면 어쩌면 기수의 삶이 그토록 극을 향해 치닫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당시 인숙의 관심은 오로지 ‘조국의 민주화와 군부독재 타도, 억압받는 민중의 해방’을 향하고 있었다.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들어오는 날도 최루탄을 뒤집어쓰거나 술에 절어있

기 십상이었다.

아는 얼굴 하나 없는 낯선 도시의 빈집에서, 길을 잃을까 구멍가게도 못 가고, 배가 고파도 라면하나 끓여먹을 주변이 없어 혼자 꼰렁 꼰렁 눈물을 흘리고 있을 말더듬이 동생의 생각은 인숙의 머릿속 어느 부분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런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에 역량을 소비한다는 것은 어쩌면 반역인 것 같기도 했다. 간혹 해거름에 집에 들어와 보면 빈방처럼 불도 켜있지 않았다. 연탄 가는 방법을 몇 번 씩이나 가르쳐 주었지만 기수는 번번이 불을 꺼뜨렸다. 인숙은 그럴 때마다 화가 치미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기수를 외면했다. 그건 무관심과 고의적인 소외였다.

중학교에 입학하자 기수는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던 모양이었다. 시골아이 티가 배인 까무잡잡한 얼굴에 심한 충청도 사투리로 어눌하게 혀 짧은 소리를 내는 그는 늘 어깨가 처져 있었다. 어머니를 닮아 송아지같이 큰 눈망울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입학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어느 날, 기수는 옷이 찢기고 코피가 터져 앞자락이 엉망이 된 채 돌아왔다. 누가 왜 그랬는지, 아무리 다그쳐도 말이 없었다. 공포인지 슬픔인지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절망이었을까? 부들부들 떨며 구석으로 웅크리기만 했다.

그 후 기수는 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끌고 가다시피 억지로 데려다 놓고 온 어느 날 또 옷이 찢기고 소지품을 잃어버린 채 돌아왔고 다음날 결국 집을 나가 버렸다.

인숙은, 처음엔 동생이 이유 없이 당했을 폭력의 공포를 조금은 동정할 생각이 있었다. 고즈넉한 산골 마을의 작은 분교에서 고만고만한 소꿉친구 몇 명하고나 어울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 한가운

데 낫선 얼굴들 사이로 던져졌으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세상에 대한 대응 방식이 짜증스럽고 화가 났다. 결국 그 모든 것은 그의 몫이었다. 누구도 방패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이다.

기수는 최악의 길만을 찾아들고 있었다. 며칠 다녀보지도 못한 학교에선 무단결석으로 결국 재적이 되었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두 달이 넘게 찾아 해매 거리를 떠도는 걸 데리고 왔을 때에도 그는 고개를 가슴에 처박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잊었다.

붓으로 그린 듯 짙은 눈썹에 어려서는 꽤 예쁘장했던 긴 속눈썹은 알 수 없는 그늘을 머금고 있어 웬지 선뜻 말붙이기 어려운 인상을 풍겼다. 얼굴이 곱상한 편인데도 그는 늘 분이 난 늙은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기수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눈빛으로…….

그는 조금쯤 좌절했을 뿐이다. 그저 그가 잃어버린 것이 순수한 어린 날의 꿈같은 어찌면 살아가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될 것도 없는 그런 것이리라고 인숙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간 후론 그를 거의 잊고 지냈다. 기수가 다시 인숙을 찾아 온 것은 인숙이 대학을 졸업하고 민청련 사무실에서 ‘청소년을 위한 [우리역사 바로 세우기]’ 동아리를 꾸려나가고 있던 무렵이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도 짬새들은 여전히 설치고 다녔고, 인숙은 자신의 작은 노력과 희생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는 신념

을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었다. ‘나비효과를 물리적 법칙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아픈 회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고 있던 날들이었다. 하나 둘 믿었던 동지들이 떨어져나가는 걸 지켜보며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에 나달나달 지쳐가고 있었다.

늘어지는 폭염에 혹사당한 선풍기가 끼이익 끼익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고 있었다. 시내의 뒷골목에 박힌 오래된 건물의 맨 위층이었다. 미로 같은 건물의 5층에 있는 사무실은 처음 오는 사람이 찾기엔 쉽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공중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한지 한참만에야 찾아온 기수는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꿈꾸는 듯 조금은 멍청해 보이기까지 했던 눈빛은 사나와져 있었다. 계집애처럼 한쪽 볼에만 패이던 볼우물만은 여전했다.

“누우누 누나, 나도 돈 벌고 싶어.”

한참을 쭈뼛거리기만 하던 기수는 밀도 끝도 없이 불쑥 한마디 내뱉고는 꺾불까지 붉어졌다.

‘네가? 웃기지 마! 시골에 가서 농사일이나 거들어.’

하는 소리가 목까지 올라오는 걸 삼키며 인숙은 눈길을 거두었다.

‘네 얼굴을 대하는 것도, 누나라고 불리는 것도 귀찮아. 난 지금 내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벅차고 힘들어. 내가 널 위해 뭘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마.’

인숙은 속으로 그렇게 쏘아대고 싶었다.

아침이면 나가서 어딘가를 쏘다니다 늦게야 들어오는 기수를 모르는 척했다. 인숙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광물적인 무관심. 그보다 나은 방식을 찾을 수 없었을 뿐이다.

더위가 설핏 기울어가던 어느 날, 가을을 꿈꾸는 서늘한
 빗줄기에 도시가 내려앉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지쳐
 돌아온 인숙은 방문을 열고 들어서려다 급성 빈혈을 일으킬 듯 아찔
 했다. 벽이 온통 새하얗게 칠해져 있었다. 채 마르지 않은 페인트가
 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여기가……?’

인숙은 처음으로 기수의 내면이 궁금해졌다.

그의 닫힌 입 속에선 어떤 언어들, 장독에 담긴 시커먼 간장처럼
 삭아가고 있는 것일까?

금세 어두워오는 낯설도록 하얀 방에서 오래도록 서성이며 인숙은
 생각했던 것 같다. 어쩌면 기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딘가를 향
 해 떠났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비오는 가을
 저녁이면 그럴 수도 있으리라. 오랜 항해를 마친 난파선이 닻을 내
 리고 영원히 정박할 항구 같은 곳. 혹은 무덤처럼 고요하고 어머니의
 자궁처럼 편안한 그런 곳으로.

그 밤, 인숙은 불길한 시너 냄새를 맡으며 오래오래 그치지 않는
 빗소리에 귀를 적셨다. 천길 벼랑 끝에 서있는 고성(古城)의 밑실에
 갇히는 꿈이라도 꿀 것 같은 밤이었다.

유명한 참치 회사의 선승 확인서를 받아들이고 어머니는 아들의 전
 사통지서라도 받은 것처럼 오열하며 울부짖다 정신을 놓았다. 기수
 는 아주 오랫동안 꼼꼼히 준비해왔던 사람처럼 홀연히 떠나버렸다.
 먼 남태평양으로 떠나는 원양어선을 탄 것이다. 한마디 쪽지조차 남
 기지 않고 마치 증발접시 위의 물이 어느새 날아가 버리듯 그렇게 사
 라져 버렸다. 함께 지낸지 몇 개월쯤 되었을까? 밥상 위에 수저 한

벌을 더 올려놓는 생활에 익숙해졌을 무렵이었다. 버스 정류장의 양 버드나무 가로수 잎이 하나 둘 물들어가고 있었다.

깨끗이 정리된 비키니 옷장의 지퍼를 열어보면서 인숙은 그 텅 빈 공간에서 알지 못할 무언가를 향한 막연한 공포를 읽고 있었다. 난데 없이 뒷덜미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아니이……. 가가 그러두 누나라고 너만 믿구 올라왔는디, 니가 워티게 했간디 그러. 시상이 피붙이라고 그거 하나 있능거 핵교도 지대루 못당긴 불쌍헌 그걸 아니이……, 시상이(세상에나)……, 내가 너 무정쿠 매선년인건 진작이 알었지만 혀두 너무허는구나. 시상이……, 동상 하나있는 걸 그걸 조분조분이 못택구 있구 그 험한 데로 가게 놔뒀냐아……. 우리 기수 그 먼 타국에서 물구신이라두 되면 워쩔껴어 워쩔껴. 이년아! 너만 대학 공부허구 너만 출세허면 다여. 이 주리를 혈년. 그 불쌍헌 걸……. 아이구, 기수야아, 기수야아…….”

어머니의 애간장이 녹아나는 곡소리는 증몰이 증증몰이를 지나 휘몰이에 접어들었다가는 꼬억 꼬어억하는 비명에 가까운 울부짚음과 함께 간헐적으로 끊어지곤 했다.

누구에게나 저울 같은 대상이 필요한 것이다. 인숙은 생각했다. 제 가슴에 칼을 긋고 싶을 때, 누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풀어내야 할는지 모른다. 어머니에겐 다만 분이 풀릴 때까지 푸념해댈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다. 그러니 흐르는 강물처럼 들어 넘기는 거야. 저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건 어머니의 한계일 뿐이다.

어떤 억지소리에도 인숙이 절대로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걸 어머니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어찌면 일상적이라고 할 만큼 들으며 자라온

욕설들이건만 좀체 익숙해지지 않았다. 마치 어머니라는 그 이름처럼, 낯익은 언어가 주는 상스러운 이물감.

계약 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 기수가 다시 이 땅의 흙을 신발에 묻힐 수 있기까지 먼 바다를 떠다니며 2년 반을 부유해야 하는 것이다.

기수가 떠난 이후, 아버지도 갑자기 백 년쯤 더 살아버린 사람처럼, 혹은 삶의 모든 희망을 앗긴 사람처럼 공상스런 체념을 안면 가득 새기고 있었다. 그 팍팍한 목청으로 온갖 욕설을 다 주워섬기며 한바탕 푸닥거리를 해대곤 하던 어머니도 차츰 풀기 없는 목소리로 팔자타령이나 지분지분 웅얼이는 게 고작이었다.

집을 나서니 겨울 초입의 씨늘한 기운이 옷깃을 타고 뒷목으로 몰려들었다. 터미널로 가는 시내버스는 얼마 기다리지 않아서 도착했다. 평일 오후의 시내버스엔 승객이 별로 없었다. 터미널에 내린 인숙은 대합실로 들어가는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버스는 붉은 색이 칠해진 뒤꽂무니를 틀고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다.

곰팡이 냄새와 범벅이 된 오래된 버스 특유의 기름냄새가 후끈하게 틀어놓은 히터의 열기를 타고 차 안 구석구석 가득 차 있었다. 점심도 거른 빈속이 느글거렸다. 차에는 대여섯 사람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인숙은 앞에서 두 번째 창가 자리에 앉아 창문을 열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창문은 모두 통유리로 바뀌어 있었다. 승객들은 창가에 앉아 문을 마음대로 여닫지 못한 채 유리창 밖으로 빠르게 달아나는 외부 세계를 마냥 내다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가로수도 없는 도로 가에 알몸으로 질주하는 오뉴월의 햇살이거나 혹은 뻗속까지 에이는 듯한 추위일지라도 버스 안에서는 전혀 바깥 기운을 체감할 수 없었다.

벌써부터 손바닥엔 축축하게 땀이 배이고 등이 끈적끈적 해왔다. 퀴퀴한 냄새 때문에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운전기사한테 히터를 좀 줄여 달라고 말을 할까 하다가 인숙은 그냥 참아보기로 했다.

1시간 40분 후에 버스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까무룩 졸기도 하다 눈을 떠보니 무녕왕릉을 돌아 새로 지은 박물관을 막 지나치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한달음에 시내버스 타는 곳으로 갔다.

이미 사위는 어스레하고 있었다. 삼티까지 가는 표를 한 장 사면서 몇 시 차인지 물었다. 유리 칸막이 너머의 사내는 한참 만에야 6시 55분 차라고 알려 주었다.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시내버스는 인숙이 도착하기 바로 전에 출발했을 거였다.

하릴없이 주위의 간판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승차권 판매소라고 쓰여 있는 작은 가건물 상자 속의 동근 벽시계를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같은 이름을 단 간판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백제 이발소’, ‘백제 여관’, ‘백제 사진관’…….

왕궁이 자리했던 땅에 뿌리내리고 사는 자긍심의 표현일까? 혹은, 그저 타성처럼 백제라는 오래된 이름에 익숙해진 것일까? 인숙은 어두워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라져간 것들을 떠올렸다. 왕궁과 왕비, 사비성의 삼천궁녀, 계백, 백제의 흰옷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고…… 기수……. 인숙은 기수라는 이름을 낯설게 불러보았다. 언뜻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았다.

멈추었다 떠나는 버스들의 꿈무니로 희푸른 매연이 토사물처럼 쏟아져 나와 공기 중으로 천천히 흩어졌다. 매캐한 가스실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이 코끝이 아릿했다.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보따리를 꾸러미꾸러미 들고 백제 슈퍼 앞 한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노파가 움푹한 눈으로 인숙을 뵈듯 쳐다보았다. 주름진 음경같이 오글오글한 노파의 이마로 허영게 바랜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노파는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자꾸만 욱진 머리채 뒤 꼭지의 비녀에 감으려고 애를 썼다. 이가 없어 합죽해진 입술이 안으로 말려 있었다. 쇠락한 읍의 한 풍경을 이루고 있는 듯한 노파를, 인숙은 눈길을 피해 슬쩍 한번씩 돌아다보았다. 왜소한 몸집에 고양이처럼 굵은 허리며 때에 찌든 흰 고무신, 갈퀴 같은 손으로 움켜쥔 남루한 보따리……. 인숙은 왠지 초조한 느낌이었다.

연세가 몇이나 되었을까? 칠순의 아버지도 저렇게 추레한 모습이겠지……. 몰락한 옛 왕궁의 풍경처럼…….

인숙은 신발의 어둠 속에 간혀있는 발가락들을 자꾸만 꿈지락거렸다.

그 사이에도 버스는 여러 대가 왔다가 떠났다. 매번 아널 줄 알면서도 도착하는 버스들마다 고개를 빼고 행선지를 들여다봤다.

이번에는 버스 세 대가 연이어 도착했다. 인숙은 행선지 표지를 보기 위해 버스들을 차례로 지나치며 뒤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역시 삼티행 버스는 그 중에 없었다. 다시 처음 서있던 자리로 돌아와 보니 노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도로 가의 상점들에 하나 둘 네온이 켜졌다. 마치 사라진 과거의 열락을 토해내려 애쓰고 있는 듯했다. 지금은 누구도 언뜻 떠올리기 어려운 사비성의 궁녀들이 한때 오갔을 이 거리에…….

삼티행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들었다. 제법 많은

승객들로 버스는 가득 찼다. 읍내에 있는 여고나 여상의 학생들로 보이는 옛된 얼굴의 소녀들이 저희들끼리 사투리를 섞어 조잘거리며 까르륵 웃곤 했다. 차창 밖으로 울긋불긋 현란한 네온사인이 천년의 잠을 깨고 포효하는 짐승 떼처럼 불안스런 눈빛으로 번득였다.

읍내를 벗어나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버스는 소방서 앞 로터리를 돌아 방향을 잡고는 직선 도로를 따라 속력을 내고 달렸다. 금새 밖은 녹녹하게 스며오는 어둠에 잠겨들고 있었다.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릴 때, 검은 휘장이 무대를 가리며 천천히 내려오는 것처럼 어둠은 오지랖 넓은 치마주름을 펼쳐 바야흐로 사위를 품 안고 있었다. 인숙은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문에 비추어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움푹 패인 볼이 짙은 명암을 드러내고 있었다.

‘으이구, 넌 그 승질머리 땀에 그렇게 말러비틀어진겨. 허구 다니는 꼬락서니 허구……. 그러니까 취직해서 돈벌어가꾸 시집갈 궁리나 혀. 으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시골집에 들어서면 언제나 듣게 되는 소리. 인숙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돈 벌 생각은 안하고 무슨 공부를 더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다. 그렇다고 문맹의 부모 앞에서 민주화니 불평한 세상이 어찌니 떠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지집이 박사면 뭐허구 대통령이면 뭐혀, 여자는 그저 둥구박 팔잔겨. 서방 자알 만나는 게 쥘인겨. 니가 잘났으면 월매나 잘났냐? 그려봤자 지집이지 별 수 있는 중 알어? 심판없는 년 같으니라구, 워편

베락을 마질 잡노르년이 저런 독종을 퍼질러놓구 뒤편 갖구 넘어 신세를 묶구 있어. 으히구……. 속터져…….’

쇠꼬챙이로 후비듯이 양광진 어머니의 대거리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해 인숙은 자기도 모르게 흠칫 주위를 휘둘러보고는 낮은 한숨을 쉬었다.

기수에 대한 희망과 기대들이 하나 둘 어그러지며, 어머니는 마치 인숙을 출가시키는 것만이 집안의 막힌 창으로 빛을 들이키는 방법이라도 된다는 듯이 다그치곤 했다. 어머니의 팔자를 엮어매고 있는 인숙이라는 ‘살’을 풀어버려야 기수의 앞날도 밝아진다고 했다는 어느 점쟁이의 말 때문일까? 아니, 그건 어찌면 어머니가 지어낸 핑계인지도 모른다. 대체 보상받을 무언가를 꼼꼼히 셈하고 안달하는 사람처럼 어머니는 점점 더 인숙을 못 견뎠다.

버스에서 내리자 사위는 이미 칠혹 같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다. 둘러선 산들조차 검푸른 하늘가에 날선 제 형상을 새기고 있었다. 시린 별들 사이로 하얗게 바랜 상현달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인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추위는 스멀스멀 정강이 안쪽으로 타고 올랐다.

작은 다리를 하나 건너고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낮은 산뒀을 돌았다. 멀리서 개울물 흐르는 소리도 들릴 듯한 정적만이 발걸음에 채이고 있었다.

마을에 가까워지자 전엔 없었던 가로등 하나가 창백한 빛깔로 어둠을 쫓고 있었다. 그러나 사방을 둘러싸고 급한 걸음으로 조여오는 어둠을 수은등 하나로 몰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10여 호 집들이 비스듬하게 환형 구조를 이루며 부챗살처럼 퍼져 있는 농가들, 집집마다 축 낮은 형광등이 반딧불처럼 그만크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림자를 집어삼킬 만큼 어두운 돌담길을 돌아 집에 이르렀다. 녹슨 철 대문은 항상 그렇듯 열려진 채였다. 오래 손질을 하지 않아 들성들성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향나무 울타리는 볼품없이 가지들이 솟구쳐 있었다.

한때 아버지는 날이 퍼렇게 선 전지가위를 제법 근사하게 싹둑거리며 향나무들을 연병장에 나온 신참 병사의 머리처럼 군기가 서게 잘라놓곤 했었다. 그건 아마도 인숙이 아주 어렸을 적의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햇살이 하얗게 내리쬐히는 마당가에 찡그린 얼굴로 서서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을 지칠 때까지 구경했다. 버려진 잔가지들을 주워 소꿉 삼아 놀았다. ‘이건 김치, 이건 밥이여.’ 하고 혼잣말로 낮게 중얼거리던 그 길고 지루하던 하오의 기억이 바로 어제인 듯 인숙은 아직도 권태로운 느낌이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는 향나무 울타리 손질하는 일을 버거워했다. 들성들성 이까지 빠진 전지가위는 창고 구석에서 혼자 녹슬어가고 있었다.

이끼 끼고 낡은 슬래브 기와지붕과 군데군데 회벽이 떨어져나가 붉은 흙이 드러나 보이는 집의 외벽들, 그리고 들쭉날쭉하고 더러 병들어 죽어 가는 향나무 울타리는 서로 어울리며 전체적으로 쇠락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어린 시절 괴기스런 공상을 불러일으키며 갖가지 요물로 되살아나곤 했던 향나무 그림자는 여전히 가로등과 부엌에서 비어져 나오는 미미한 불빛에 뒤섞여 어지러웠다. 행뎡그렁한 집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인숙은 거실을 겸하는 부엌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며 낮게 가라 앉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정적 속에 갑자기 이물질처럼 끼어 든 자신의 목소리에 깜짝 놀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부엌엔 아무도 없었다. 낡고 오래된 냄비들이 한 쪽 모퉁이의 선반 위에 차곡차곡 얹혀 있었다. 그 아래쪽으로 세월의 더께에 형편없이 그을리고 찌그러진 양푼 서너 개가 포개져 있었다. 어머니는 가볍고 쉽게 뜨거워지는 그 양은그릇들을 사용해서 참깨를 볶기도 하고 무청을 삶기도 했다.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서서 안방 문을 열었다. 방바닥이 온통 벧나락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어슴프레 보였다. 부엌으로 면해 있는 벽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 희미한 빛의 입자들이 벧나락 위에 흩어지고 있었다. 방안엔 미세한 먼지들이 빈틈없이 가득 차 있어 코끝이 매끈했다. 순간 방문을 닫으려던 인숙은 흠칫 놀랐다. 어두운 방구석 한 쪽에 아버지가 작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 왔어요.”

“.....”

아버지는 말없이 그녀 쪽을 힐끗 한 번 쳐다보고는 다시 손바닥 위에 놓인 벧나락을 들여다보았다.

“뭐 하세요? 어두워서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귀가 어두운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무표정했다. 인숙은 소리치듯 크게 말했다.

“어머닌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방벽을 타고 웅웅웅 울려서 되돌아 올 것 같았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는 그제서야 그녀가 온 걸 알은 것 같은 얼굴로 인숙을 건너다 봤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옴폭 패인 눈자위엔 흠빛 주름이 굵다. 땅만 파며 칠십 평생을 살아왔음을 몸으로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 아버지는 온몸이 흠빛이다. 감각이 전혀 살아있을 것 같지 않은 거칠고 마디 굵은 손가락들과 가뭄 만난 논바닥처럼 짝짝 갈라진 발뒤꿈치는 늘 외면하고 싶은 생채기였다.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도 온전히 건사하지 못할 정도의 치열한 삶이 아버지에게 보상해 준 게 과연 무엇이였을까?

아버지는 가난한 소작 농가의 일곱째였다. 아들이라고 해봐야 입 하나 는 것일 뿐 반가울 것도 없었으리라. 어린 시절부터 끼니 거르는 날이 챙겨먹는 날보다 많았다고 했다. 그런 탓인지 왜소한 체구인데다, 연세가 들면서 등까지 휘어 지겟짐을 지고 걸어 갈 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지게 혼자 움직이는 것 같았다. 지방층이라곤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얼굴은 뼈에 얇은 가죽을 아교로 붙인 것처럼 보였다. 노인네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골동품 같은 아버지. 아버지는 피로한 기색이었다. 금방이라도 부스러질 것 같은 동작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면서 으으으음 하는 낮은 신음 소리를 냈다.

“니 어머니인 장별리갔다.”

만성 천식으로 그르렁거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열릴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오래된 상자 속에서 올려나오는 것 같았다.

“그래요? 언제요?”

“오늘 아침이 갔어. 니 큰 이모가 위독하시다는구나.”

“아아. 그랬구나. 그럼 언제…….”

큰 이모는 항상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독하시다는 말에도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다. 어머니에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친정붙이였지만 둘째 이모가 몇 해 전 돌아가신 후에도 큰 이모는 여전히 큰 이모로 불렸다.

“몰르겠다. 쿨룩 쿠울룩. 요새는 바쁜 일도 읊구 허닝께 며칠 게 있겠다구 헐는다…….”

아버지는 끄으 소리를 내며 천천히 허리를 펴고는 허적거리는 걸음으로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의 부재가 주는 묘한 안도감과 허전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버지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서니 갑자기 들이치는 불빛에 눈이 부셨다.

“저녁은요? 잠수셨어요?”

“원제……. 인자 먹어야지.”

아버지는 싱크대에 서서 대충 손을 씻고는 플라스틱 밥그릇 두 개를 집어 들고 전기밥통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밥을 푸려는 듯했다. 인숙은 누런 도금칠이 조금씩 벗겨져 나간 동그란 알루미늄 밥상에 썩어져 있는 얼룩덜룩한 꽃무늬 밥보자기를 들춰보았다. 어머니가 아침에 차려놓고 간 모양이었다. 김치며 무장아찌 따위 반찬들이 뒤적거리린 채로 놓여 있었다. 아마도 아버지 혼자 점심을 먹고 나서 그대로 보자기만 썩워 놓은 게 분명했다.

“제가 풀게요.”

아버지의 손에서 밥그릇과 주걱을 건네받으며 인숙은 하마터면 흠, 하고 울목을 놓을 뻔했다. 칠순이라고 잔치까지는 생각지 않았

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의 얼굴에선 아무런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차마 칠순이니 어찌니 말을 꺼낼 이유는 없었다. 어머니의 부재를 논하기에 앞서 인숙 자신도 할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밥솥의 뚜껑을 여니 그 안에 반듯하게 반을 갈라먹고 남은 반달모양의 밥이 들어 있었다.

“아니 왜 밥을 고루 섞어서 안 푸고 이렇게 반 딱 갈라 드셨어요?”

“그려야 다음이 먹을 양을 요량할게 아니여. 쿨룩 쿨룩 쿨룩.”

아버지는 ‘당연한 걸 묻는구나.’ 하는 얼굴로 할끔 건너다보며, 밥상 앞에 무릎을 세우고 쭈그려 앉아서 밥이 다 퍼지기를 기다렸다.

어색한 침묵을 걷어내고픈 마음에 인숙은 아무 말이나 해야만 할 것처럼 초초해졌다.

“벗나락을 왜 방에다 깔아놨어요?”

“말리기 위해서 었겠지…….”

아버지와 단들이 있게 되면 항상 어색함을 이기지 못했다.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단 말인가.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출세는 커녕 제 밥벌이도 못하는 딸자식이 아버지 눈엔 항상 마뜩찮은 짐일 뿐이었다.

산모퉁이를 돌아 안골인 샵티에서 인숙과 또래인 아이들은 대부분 중학교를 마치고 도시의 방직공장으로 갔다. 이른바 산업체 고등학교라는 열악한 환경의 방직공장에서 기숙하며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했다. 한 달에 십만 원이 채 안 되는 월급을 받아 적금을 들어 일 이년쯤 후엔 시골 부모에게 소를 사주기도 했다. 그렇게 몇 년씩

그녀들의 어린 몸을 노동으로 소진하다가 스물 초입이면 하나 둘 제 짝을 찾아 살림을 차렸다.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인 영란이, 화자, 순영이, 오복이 모두 그렇게 앞서거나 뒤서거나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고 잘들 산다고, 부러움을 담은 그 소리를 어머니로부터 귀에 딱지가 앉게 듣고 또 들었다.

“너는 원제 철들래. 이드라 창고집 성자는 이번에 또 사백을 부쳐 왔다더라. 벌써 적금들은 게 거의 천만 원이 다 된다고 성자엄마가 마실방이서 자랑했잖더라. 저 시집갈거 다 모았으게 걱정응디야. 지 엄니한테 그러더라. 엄니는 암씨랑토말구 그저 신랑감이나 골라노라구. 가엄니가 마실방이서 중신들 좀 허소 허닝께 그냥 사방이서 나서더라. 시약시감이 그만허면 워따 내놔도 꿩리잖찬냐구. 시방 난리가 났더라. 에이휴……. 워디 넘부끄러서 니 얘기는 내놓털 못 허것어. 지 어때아배는 죽두 못 썬먹은 뿔꼭지처럼 말러비틀어져 갖구 시상이 넘털이 비웃는다. 그집 딸은 지아배 늙어 고꾸라질 때 기다렸다가 판사라두 될 모양이라구. 배웠으면 부모 근중헌 중도 즈 알아야지. 그러구 그만침 했으면 질릴 때두 되았지 안냐? 여자가 공부를 많이 허면 팔자가 사나워지는겨. 골치가 아픈게 워편 남정네가 데려가것냐. 그러구 시방 니 나이가 몇이나? 이이? 인자 널 모래믄 마흔이여 마흔. 원제까지 이팔청춘인 중 알아? 너넨 인자 재취 소리나온다. 안 그럴 중 아냐? 스물 한두 살 시약시들이 허천인디 누가 너 같은 노처녀를 데려가것어? 애 딸린 홀아비 재취자리나 있을까. 허긴 워디서 혼삿말이 있다 허두 걱정여. 너넨 돈 한푼 벌어 논 것두 읊이 오티게 혈겨. 난 물론다. 느이 아배 갔다 팔어두 사간단 사람이 읊을 텅게 니가 알아서 혀라. 으이구……. 서방 복 읊는 년이 무슨 팔자로

자식 복이라구 있을꺼…….”

어머니는 같은 소리를 질리지도 않고 몇 번씩 반복하며 꺼질 듯 한 숨을 내쉬곤 했다. 청상의 홀몸으로 애 딸린 중늬은이에게 시집와 모진 고생을 하며 살아온 어머니는 이 땅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게다가 농삿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삶은 당신의 것일 뿐이었다. 자꾸만 고개가 모로 젓혀지는 걸 어쩔 것인가?

시골집에 와서 한바탕 머릿속을 불쑥시개로 헤집는 듯한 소리들을 듣고 나면 인숙의 마음은 멀미를 하며 검푸른 남태평양의 바다 위를 넘실넘실 떠다녔다. 멀리 멀리 더 멀리, 떠날 수 있는 한 더 멀리.

어쩌면 원양어선을 타고 참치 잡이를 하고 있는 것은 기수가 아니었다. 뚫어 넘칠 듯이 지글지글거리는 붉은 태양 아래 검게 그을린 팔뚝을 드러내놓고 시퍼런 바닷물에 잠긴 그물을 당기다, 튕겨오르며 뱃전을 부딪는 물살을 온몸에 뒤집어쓰는 듯한 선뜻한 냉기에 진저리를 치기도 했다.

“지난번 매상에서 2등급을 맞았지 안꼈냐. 그러 다시 갖구 와버렸지. 자알 말리기만 하면 월매나 존 쌀인디. 쿨룩 쿠울룩. 2차 매상에선 1등급 맞일 수 있을끼여.”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소리내는 것 자체가 무척 힘겨운 듯 가래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아버지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장이 줄어드는 듯한 긴장을 느끼게 했다.

먼 곳에 가있다 갑자기 잡아채진 것처럼, 뜨악한 얼굴로 아버지의 말소리를 흘려들던 인숙은 아연, 흠어지는 단어들의 의미를 꿰어 맞

추느라 신경을 귀로 집중시켰다. 만성 천식으로 숨이 가쁜 데다 앞니가 빠져 바람 새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웬만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속으로 웅얼거리는 듯한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마을 건조장이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서 말리면 쉬웁텐데…….”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런다냐? 한가마 말리넌디 샅이 월맨디……. 그거 다 지허구 나면 남는 게 있는 중 아냐? 쿨룩 쿠울룩 쿠울룩.”

인숙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젓가락으로 밥알만 부지런히 입에다 날랐다. 요즘은 농촌에도 트럭이 흔했다. 그런데, 경운기 하나도 없는 집에서 쇠 구루마에 쌀부대를 싣고 면에 있는 농협창고까지 한 시간을 걸어갔다 되짚어왔을 아버지의 구부정한 모습이 눈에 밟혀와, 밥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아버지도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끝내자 아버지는 낡은 장롱 속에서 이부자리를 꺼내 주며 말했다.

“나는 베가 잘 말르나 살피면서 자야 형께……. 쿨룩쿨룩……. 저방에서 가마니 몇 장 깔구 자면 된다. 보일라를 틀긴 헛는디 부엌은 좀 추울껴. 쿨룩쿨룩……. 안방만 베 잘 말르라구 득신득신허니 틀어 갔구. 그렇게 너넨 이불 푸욱신 덮구 자라. 여긴 산골이라 아침저녁으론 한겨울 날씨여. 쿨룩 쿨룩 쿠울럭 크어억 크억.”

숨넘어갈 듯 잔기침을 한동안 토해낸 아버지는 때론은 수건으로 입가에 흘러나온 침을 쓰윽 문질렀다. 못 본 척 그 모습을 외면하며 인숙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남은 인생동안 저 몸에서 무얼 더 퍼낼게 있을까. 그저 살아버린 기둥나무 같은 아버지. 가슴을 할퀴는 듯 작고 찌부라진 아버지의 눈.

인숙은 입술을 깨물며 뻗뻗하고 투박한 옥양목에 쌓인 솜이불로 소옥 들어가 누웠다. 잠은 쉬이 올 것 같지 않았다. 꺼끌꺼끌한 눈을 굴리며 한동안 뒤척이던 인숙은 슬그머니 일어나 건넌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직사각형의 부엌에 안방과는 맞은 편으로 붙어있는 건넌방은 거의 정사각형이었다. 그래서 부엌에서 건넌방으로 가자면 폭이 좁은 자투리 공간이 있었다. 부엌과 건넌방의 세로 길이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마루 같은 거였다. 거기엔 낡은 시루나 싸구려 플라스틱 화분에다 어머니가 정성 들여 키우는 크고 작은 선인장 여남은 개가 주욱 늘어서 있었다. 그곳을 지나려면 항상 선인장 가시에 찢리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 어스름히 드러난 선인장들의 형체는 마치 가시 방망이들로 테를 두른 것 같았다. 선인장을 지나 건넌방의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창호지를 발라 놓 오래된 나무문에 붙어있는 동그란 무쇠 손잡이가 섬뜩하게 차가워 뒷덜미에 찌르르 정전기가 오는 것 같았다. 한겨울이면 그 무쇠 손잡이는 젖은 손을 짹짹 달라붙게 만들곤 했다.

문은 잘 열리지 않았다. 그 문은 문지방과 너무 꼭 끼이게 되어 있어서 항상 있는 힘을 다해 문고리를 잡아당겨야 열리곤 했다. 다시 한번 숨을 멈춘 다음 힘껏 잡아당기자 문이 갑자기 확하고 열렸다. 엉겁결에 인숙의 몸은 선인장들 위쪽으로 한 번 휘청 하다가 문고리를 틀어쥐고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다.

문이 열린 방의 안쪽에 빈틈없이 짹짹 들어찬 어둠들이 용트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웬지 선뜻 방안에 들어서기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적에 한밤중에 변소에 가고 싶어 쪼쪼매던 기

억이 떠올랐다. 왜 꼭 한밤중에 일이 보고 싶어지는지. 참을 만큼 참아보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훌쩍거리면 어린 기수는 졸린 눈을 부비며 손전등을 찾아들고 앞장섰다. ‘나랑중이 내가 바밤쫑에 똥누고 싶다고 허면 누누우가 꼭 가같이 와야허. 아알것어?’ 하는 다짐을 버벅이는 허 짧은 소리로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방 가운데쯤에서 인숙은 어둠 속에 선 채 천장에 휘휘 팔을 내저으며 스위치 줄을 찾았다. 한참만에야 가느다란 줄이 손에 잡혔다. 줄을 잡아당기자 형광등이 깜박 깜박거렸다. 형광등 불빛에 따라 방 안의 모습이 보였다 사라졌다를 몇 번 반복한다. 인숙은 눈을 파고드는 시린 불빛 때문에 얼굴을 심하게 찡그리며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곧 형광등은 진정되었다. 방안은 달라진 게 없다. 서랍이 잘 맞지 않아 늘 빠다닥 하게 보이는 다섯 칸 짜리 서랍장은 속에 어떤 옷가지가 들었는지를 조금씩 내보여 주고 있었다.

어렸을 적, 인숙이 동생과 함께 쓰던 앓은뱅이 책상 위에 영역을 표시하게 위해 그어놓은 선명한 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인숙은 앓은뱅이책상 옆에 있는 낡은 선반 쪽으로 갔다. 잡다한 책 몇 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뒤죽박죽 얹혀 있었다. 잠이 올 때까지 읽을 만한 책이 없을까 뒤적여 보았다. <반공을 넘어 필승으로>라는 제목의 푸른 표지, 그 옆으로 아버지가 보던 <영농교본>과 <새마을 노래 모음집>도 보인다. 발이 시려워 연신 한쪽 발을 다른 쪽 발등에 올려놓으며 눈으로 훑어보았다. 한쪽에 먼지를 뽀오양게 쓰고 있는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낡은 와이셔츠곽이었다. 촌스러운 머리모양을 한 남자가 요즘엔 아무도 매지 않는 폭넓은 줄무늬 넥타이에 흰 와이셔츠를 받쳐 입고 느끼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인숙은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속에는 누렇게 빛이 바랜 옛날 사진들과 낡은 공책 따위들이 담겨 있었다.

인숙은 자신의 눈앞에서 갑자기 시간이 마구 형클어지며 거꾸로 소용돌이치다 곤두박질치듯 당혹스러웠다.

아버지는 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놓으셨을까? 마치 폐가의 문패처럼 쓸쓸한 얼굴을 하고 있는, 혹은 이미 기억 저 편으로 유기되었어야 했을 것들을…….

과거의 기억들을 아무리 헤집어보아도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사탕처럼 달콤한 상상력을 불러 일으킬리 만무하였다. 인숙은 선뜻한 냉기에 섞여드는 근원을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끼며 천천히 공책을 펼쳤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쯤 그린 것일까? 별거벗은 여자가 커다란 유방을 드러내고 있거나 성기가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는 유치한 그림들이 보였다. 인숙은 문득 괴어오르는 부끄러움에 얼굴 근육이 굳어졌다.

그즈음 인숙의 가장 중요한 일과는 기수를 돌보는 일이었다. 어머니가 들에 나가 일하는 동안 기수를 돌봐주어야 했다.

그 날은 마당가에 있는 개기죽나무 가지에 앉은 뜰매미가 유난히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다. 뜰매미 뜰매미 뜰매미……. 방바닥에 가만히 누워있어도 땀이 흐를만큼 무더운 날이었다. 정오 한 더위가 기울기 바쁘게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들로 나가며 잠든 기수를 잘 보라고 일렀다. 인숙은 요대기 위에 별거벗고 잠든 기수의 얼굴에 달라붙는 파리떼를 손사래쳐서 쫓아주고 있었다. 귀청을 때리는 매미 소리가 최면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인숙은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조용……, 조용……, 열을 셀 때까지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넌 죽어. 하나 둘 셋 넷……, 아홉, 아홉 반,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그러나 매미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깊은 잠이 들었는지 한참이 지나도 기수는 깨일 줄을 몰랐다.

인숙은 무료하고 심심했다. 읽을 만한 동화책도 없고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도 없었다. 그러다 인숙은 기수의 조그만 풀주머니같은 생식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슬그머니 만져보니 팔죽 속에 들어있는 작은 새알심 같은 게 느껴졌다. 그 위에 매달린 새끼 손가락같이 조그맣고 뽀얀 고추가 제법 귀여웠다. 그때 문득 엉뚱한 호기심이 떠올랐다. 인숙은 살그머니 일어서서 기수의 배 위에 말타듯 올라앉았다. 그리고는 기수의 생식기에 자신의 사타구니를 대고 살살 부벼보았다. 뼈근한 요의가 느껴졌다. 어느새 매미소리도 귓가에서 사라지고 두려움 섞인 알 수 없는 쾌감으로 가슴이 떨렸다. 아주 잠깐, 그것은 거의 몇 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발걸음 소리도 없이 어머니가 문을 벌컥 연 것이었다. 기겁을 할 만큼 놀란 인숙은 그만 엉겁결에 잠든 기수의 팔을 밟고 말았다. 방에 들어서려다 깜짝 놀란 어머니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감과 동시에 문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뒤에서 기수의 자지러질듯한 울음에 섞인 어머니의 험한 욕설 소리가 길게 따라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마도 그 해 겨울이었던 듯 싶다. 눈이 몹시 많이 내렸다. 당시만 해도 시멘트 포장도 되어있지 않았던 하굣길은 눈이 녹아 몹시 질척였다. 몸집이 작고 깡마른, 곱슬머리에 새까만 얼굴의 여자아이가 어딘지 불편한 듯 다리를 꼬아가며 걷고 있는게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입술을 오지게 깨물고 주근깨 덕지덕지 내려앉은 볼 두덩은 창백하게 질려있었다. 그때 인숙은 아랫배가 몹시 아팠다. 급체를 했던지 창자가 꼬이는 것 같고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그대로 설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때를 생각하니 갑자기 인숙의 아랫배에 예리한 통증이 스쳤다. 고통의 기억이 이리도 깊게 아로박힌 탓인가.

학교에서 집으로 향하는 산모퉁이 길의 반쯤 왔을까? 엉덩이를 움켜쥐고 비비틀며 아무리 급하게 걸어도 집까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삐질삐질 오물이 새나오는 걸 느끼는 순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진 인숙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신작로 가에서 엉덩이를 까 내렸다. 고여있던 배설물을 풀어놓자 꼬이는 것 같던 아랫배의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러나 어찌나 급했던지 바지를 까 내리는 순간 설사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괄약근의 조임을 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퍼렇게 언 손으로 엉덩이를 멍쳐 항문 근처를 닦으며 어린 인숙은 흐억 흐억 울음을 삼켰다. 아랫배는 시원했지만 오물로 더럽혀진 옷들 때문에 여간 걱정이 아니었다.

쭈뼛거리며 집에 들어서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서질 못하고 눈치를 살피는 인숙에게 아버지가 왜그러냐고 물었다. 울어서 꼬질꼬질해진 인숙은 차마 말을 못했다. 옷을 더럽혀 버렸다는 걸 안 아버지는 당장 머리채라도 휘어잡을 듯이 펄쩍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다 큰 지집애가 오줌통도 못가리면 똥다까 쓰겠다. 이 추운데 네에미 똥빨래까지 시켜야 쓰겠어?”

아버지의 목청엔 과장된 감정이 엿보였다.

그러나 인숙은 끄적하리만큼 창피했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잠시 후에 목청을 녹인 아버지는 따뜻한물을 떠다가

“어여 씻어 줘. 어린 게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었어.”

하며 새침해진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인숙은 그런 아버지가 또 까닭 모르게 서글퍼지는 것이었다.

찬바람이 부는 한겨울 저녁나절, 아랫도리를 온통 벌거벗은 어린 인숙은 어머니가 따뜻한 물을 가져와 씻어줄 때를 바라고 마당 한가운데 있는 수돗가에 서서 오래도록 기다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참이 지나도 더운물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무쇠 가마솥에선 물이 끓는지 김이 오르고 있었다. 인숙은 가마솥의 김이 오르는 따스한 그림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고개를 푹 수그렸다. 눈물이 흘러 자꾸만 눈앞이 부영게 흐려지는 걸 손등으로 쓰윽 훑치고 나서 손등에 묻은 눈물 자욱을 한참 내려다보았다. 사지가 얼어붙는 듯 오그라들었다. 저녁 밥상을 다 차린 어머니는 플라스틱 국그릇 속에 살얼음 덩어리가 서걱거리는 동치미를 한 사발 얹어 방으로 들고 들어가 버렸다. 방문이 잠시 열렸다가 닫히는 찰나, 인숙은 아랫목에서 담요를 덮어쓴 채 뒹굴고 있는 기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때 기수는 서너살쯤 되었을까? 히죽 웃고 있었다.

‘아아, 저 아랫목에 몸을 묻고 있으면 얼마나 따뜻할까? 개운하게 씻고 들어가 누우면 얼마나 아늑하고 상쾌할까?’

인숙은 오물로 더럽혀진 정강이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이를 악물고 추위와 서글픔을 참았다.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도 같다. 살아간다는 일은 이렇게 춥고 혹은 배가 고프고 혹은 참기 힘들만큼 굴욕스러운 일이 아닐까하고, 어른이 되어 또 이렇게 힘겨운 일을 당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이겨 내는 것처럼 오늘을 기억하며 이겨내리라 하고, 스스로 비장해지기까지 했었던 것도 같다. 헛기침만 연신 토해 내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방문을 닫으며

“진지 안자신테유?”

하고 차게 말하자 가마솥 뚜껑을 소리나게 열어 젖히고는 뜨거운 물을 한 대야 퍼다 인숙의 앞에 놓았다. 인숙은 얼음 덩어리가 뚱뚱 떠다니는 수돗가의 물받이 통에서 살얼음을 걷어내고 찬물을 한 바가지 퍼 온도를 맞추었다. 아버지는 그런 인숙을 쳐다보다가 담배 연기를 길게 뱉어내고는 밖으로 나가 버렸다.

금세 어두워져버린 마당엔 향나무 그림자가 시린 달빛을 입고 어울어울 날아다녔다. 인숙은 벗어 놓은 바지며 속옷들을 빨며 소리죽여 울었다. 손이 곱아 잘 비벼지지 않았다. 비누는 영 거품이 일지 않았다. 젖은 옷들은 금세 얼어붙을 듯이 뻣뻣해졌다. 비눗기를 헹귀내고 작은 손으로 힘겹게 물기를 짜서 가마솥 뚜껑 위며 부뚜막에 펴 널어놓고 허청거리며 방문을 열었을 때, 기수는 어머니 품에 안겨 단꿈을 꾸듯 잠들어 있었다.

인숙은 오래도록 그 날을 잊지 못했다. 그토록 행복해 보이던 기수의 잠든 얼굴이 얼마나 사무치게 부러웠던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진 상처처럼 이따금 혼자 꺼내보며 아픔에 떨게 하는 기억이었다.

인숙은 퇴색하지 않는 모난 기억들을 손에 들고 있던 종이들과 함께 상자 속에 구겨 넣고 먼지 앉은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는 머리 위로 손을 뻗어 형광등의 줄을 잡아당겼다. 어둠이 일제히 눈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인숙은 빛이 닿지 않는 바다 밑처럼 축축한 어둠 속을 더듬어 살금살금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방문을 닫으며 힐끗 들여다 본 방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동굴 속처럼 보였다. 그 어둠 속에는 작위적으로 기억세포 속에서 매장하려 애쓰던 어린 날의 춘화 같은 기억이 묻혀 있었다.

상자를 품에 안은 인숙은 소리 죽여 밖으로 나갔다. 어둠을 헤집고 집 뒤꼍으로 향했다. 뒷마당 한쪽에 오래된 아궁이가 있었다. 집 난방을 기름 보일러로 개조하면서 아버지가 따로 만든 그 아궁이는 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 사용되었다. 인숙은 상자를 아궁이 앞에 내려놓고 어둠을 더듬어 라이터를 찾았다. 불을 당기니 가스 냄새가 훅 끼치며 불꽃이 일었다.

종이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타들어갔다. 널름거리는 노오란 햇바닥이 한차례 훑고 지나가면 어김없이 검은 재가 되어 몸을 틀며 사그라졌다. 명랑해진 불꽃이 넓지 않은 뒷마당의 어둠을 저만치 쫓아냈다. 불꽃이 뿜어내는 빛의 산란을 바라다보며 인숙의 마음속에 갇힌 어둠도 덩달아 저만치 달아나는 것 같았다.

그럴 수만 있다면, 소리도 없이 이렇게 한순간에 비워버릴 수만 있다면. 모두 잠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언뜻, 어머니의 시든 오이 같은 얼굴이 떠올랐다.

‘나 역시 쉽지는 않았구나…….’

어머니는 그런 표정이었다.

불꽃이 사그라들자 다시 어둠이 모여들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잿속으로 손을 헤집어 보며 인숙은 어머니를 생각했다.

‘네 아버지 칠순인데 노인네만 떨렁 있어서야 쓰것냐? 댕겨나 가

거라.’

새삼 어머니의 목소리가 풀죽어 있던 듯 느껴졌다. 기다림에 지친 것일까? 아니면 어쩌면 기수가 영영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

방으로 들어선 인숙은 퐁퐁 얼어붙은 듯 차가운 발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솜이불 속으로 후다닥 들어갔다. 미세한 온기가 발등을 간지럽혔다. 먼지 낀 20와트짜리 형광등의 흐린 불빛은 두꺼운 솜이불을 통과하지 못해 이불 속은 캄캄한 암흑이었다. 풀을 먹여 뻗뻗하고 차가운 옥양목 속에서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도록 퐁퐁 억눌려 있었을 목화솜의 따스함을 느끼고 싶었다. 그 오래되고 냄새나는 솜은 그러나 아직 따뜻할 것이었다. 분명 따뜻할 것이었다. 인숙은 흐으음하는 콧바람 소리가 일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냄새가 났다. 단 한번도 인숙을 살갑게 품어주지 않은 어머니. 어린 시절 기억의 굵이굵이마다 이제는 분노도 설움도 아닌 아픔만으로 남은 어머니. 어머니의 모진 대거리를 들을 때마다 인숙이 할 수 있는 소심한 복수는 무시였다. 천박함에 대한 정멸. 어머니가 그걸 몰랐을까? 그럴 리 없었다. 어머니는 아무 반응도 없는 인숙을 두려워했다. 치를 떨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날카롭게 후비고 매를 쳤다. 그러나 인숙은 그럴수록 내면으로 더 단단히 자신을 잠궈버렸다.

인숙은 갑자기 이불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는 생각에 숨이 막힌다. 이 무게를 매일 견디며 한겨울을 났을 어머니의 늙고 왜소한 몸이 생각났다. 기수를 떠나보내고, 일 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기수의 편지에 며칠씩 쓰러졌다 일어나길 반복하던 어머니의 그 긴긴 세월을 기늬해 본다.

잠결에 어렴풋이 들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눈을 떴다.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온 부싯 햇살이 싱크대 선반 모서리에서 자잘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느끼하고 역한 밥 익는 냄새가 났다. 끓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보니 벌써 뜬이 다 든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구부정한 허리로 서서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인숙은 잠시 그대로 누워 일어날 수가 없었다. 몸이 찌뿌드드한 게 온몸의 근육과 뼈마디가 마치 윤활유가 부족한 부속품들처럼 삐걱이는 것 같았다. 되감았던 눈을 가늘게 뜨고 벽에 걸린 괴종시계를 올려다봤다. 벽시계 유리 위로 설익은 햇살 한 자락이 날카롭게 되 쏘이고 있었다. 인숙은 시린 듯 눈을 찌푸리며 상체를 일으켰다. 시간은 벌써 8시를 지나고 있었다. 첫차는 이미 떠났고, 서둘러야 9시 반차를 탈 수 있을 거였다.

이부자리를 개켜서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고 세수부터 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선뜻한 냉기가 차르르 몸에 번졌다. 굼뜨게 세수를 하고 나서 벽에 함부로 처진 못대가리에 걸려있는 눅눅하고 냄새나는 수건에 대충 얼굴을 닦으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버지는 수북하게 푼 밥그릇을 밥상에 얹어 놓고 있었다.

‘아아,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릴 것을…….’

설핏 마음에 물기가 어렸다. 그런 중에도 ‘빨리 먹고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물쭈물 밥상 앞에 앉았다.

여긴 오래 있고 싶은 곳이 아니다.

‘내가 왜, 왔을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목젖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바빠 쳐 내리며 밥을 씹었다. 인숙은 밥상을 치우고 찬장을 뒤져 미역 한 봉

지를 찾았다. 벽벽 문질러 씻어 냄비에 찬물을 붓고 가스 불에 얹었다. 마늘과 간장만 넣고 끓이는 날 미역국. 미역국 끓는 비릿한 바다냄새에 고개를 외로 틀고, 인숙은 아버지를 불렀다.

“저기, 미역국 끓여 났어요. 점심 때 잡수세요.”

“……. 그러, 싸게 가. 차 놓치게. 차비는 있능겨? 읊으면……, 쿨룩 쿨룩.”

아버지는 엉덩이를 다른 천으로 덧대 기운 볼품없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구겨진 지폐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인숙의 눈에 수전증으로 떨리는 아버지의 손이 아프게 들어왔다. 손톱이 뭉그러진 채 사람의 것 같지가 않은 뼈마디 굵은 손이……. 그 손은 인숙에게 어떤 빛 독촉을 하고 있는 것 같이만 느껴졌다. 무어라 규정하기 어려운 인생의 빛이라는 게 분명 있을 것 같았다.

“걱정 마세요.”

인숙은 눈길을 피하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너무 늙었다.’

차비 걱정을 하는 아버지의 한마디에 눈시울이 금새 뜨거워졌다. 늙음이란 때로 ‘삶에의 체념으로 인한 너그러워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인가보라고 인숙은 생각했다.

담모통이를 돌다 힐끗 돌아보니 아버지는 아직도 마루에 서 있었다. 먼 테를 향하고 있는 아버지의 눈길을 쫓으니 건너편 하늘이 시리게 개어 있었다. 아니, 아버지는 그 시린 하늘 너머 더 먼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름주름 접힌 아버지의 눈가에 언뜻 물기가 어리는 것 같았다. 인숙은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비릿한 바다 냄새 나는 미역국이 끓고 있는 아버지의 칠순 아침,

기수는 어느 하늘 아래에서 떠돌고 있을까?

무언가에 쫓기듯이 내쳐 걷던 인숙은 문득 멀미가 났다. 수 십만 톤이나 된다는, 옥상엔 넓은 운동장이 있고, 엄청난 냉동 창고를 제외한 선실만 해도 수백 개가 넘는다는 거대한 배를 타고 검푸른 남태평양의 바다 한 가운데를 출렁이고 있는 것 같아 산도 하늘도 출렁출렁 일렁일렁 움직거리는 것 같아 뱃속의 것들이 들쭉아 오르는 구토를 느꼈다.

인숙은 잠시 그대로 길가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다.

여기는……. 언젠가 몹시도 강박해 보이는 어린 소녀 하나가 뒤틀리는 배를 옮겨주며 쪼그려 앉았던 거기쯤인 것 같다……. 눈을 흘기던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듯싶다.

인숙은 내내 생각해왔다. 기수를 떠나보낸 건 바로 어머니라고. 어머니의 집착과 과잉된 기대들이 그를 현실로부터 달아나게 만든 거라고. 어머니는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둔 것이다. 인숙은 삶의 빛나는 무언가를 어머니에게 갈취당한 것처럼 느껴지곤 했었다. 하여, 기수의 빈자리가 남긴 메워지지 않는 공간이 조금쯤은 음험한 만족을 느끼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득, 인숙은 생각한다.

풍만하고 번들거리는 젖가슴을 드러낸 훝갈색 피부의 여인들이 머리에 갖가지 원색의 꽃장식을 뽐내며 엉덩이를 흔들며 홀라춤을 추고 있을 것 같은 남태평양의 어느 작은 섬에서, 어쩌면 더 이상 기수는 세상을 향해 말을 더듬거리지 않아도 될는지 모른다……!

인숙은 건너편 산아래로 리듬감 있게 굴곡져 내려오는 빈 눈을 바라보았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난 꼬부랑 능선들은 적나라하게 윤곽

을 드러내고 있었다. 계곡에서 흘러나와 소르랑소르랑 논 사이로 흘러내려가는 냇물과 정다운 대화라도 나누고 있는 것일까?

논이 자리잡지 못한 곳엔 밭이 있었다. 산기슭의 경사가 심한 밭들도 텅 비어있었다. 밭을 품안고 있는 산들도 잎을 떨군 활엽수들로 인해 쓸렁해 보였다. 갈뿔부리를 따라 아침 햇살을 튕기며 기지개를 켜다.

잠그지 않은 코트의 앞자락으로 한기가 달려들었다. 턱이 떨렸다. 어쩐지 인숙은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날 선 칼날 위를 맨발로 걷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다. 길가에 내려앉아 연신 주위를 살피던 까치 한 마리가 푸르렁하고 날개를 떨며 날아올랐다.

인숙은 새처럼 가볍게 등을 곧추세웠다. 그리고, 춤이라도 추려는 듯 발걸음을 놀렸다.

너는 흘러넘칠 추네.

울긋불긋 꽃장식 머리에 이고

고혹적인 몸짓으로

흘러넘칠 추네.

빛나는 젖가슴 위로

꽃목걸이 흔들리네.

푸른 바다 위로 팝콘처럼 흩어지는 너의 웃음

흘러넘칠 추네, 너는.

발걸음에 채이는 돌맹이들이 써늘하게 언 낮빛을 풀며 인숙을 올려다봤다.

동상



충청남도
최재호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정신적 고통과 한계 상황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보이고 들려오는 것들을 상상의 틀 안으로 가둬 놓고 보여 주려 노력하였다. 그런데 활자들이 견잡을 수 없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아마도 상실감으로 발꿈치를 걸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차갑고 딱딱한 생의 단면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검은 입에서 들려오는 말들일 것이다.

부디 살아있다면 힘을 내고 아니라면 아름다운 꿈을 꾸길 바라본다.

검은 입

불 꺼진 복도 중간쯤에 내가 있었다. 복도는 맹수의 아가리 속 같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 녀석에게 내 육신이 반쯤 먹혀있었다. 몸은 마비되어 꿈쩍할 수 없었다.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은 희미하게 불이 들어오는 복도 끝을 필사적으로 응시하는 길 뿐이었다. 이 고약한 놈은 내 몸의 미세혈관까지 독액을 주입하고 있었다. 독 기운은 조금씩 끊임없이 내 살 속으로 스며들어 아직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던 내 의식에까지 전달되고 있었다.

밤새 이 녀석은 나를 산 채로 집어삼키려 따리를 틀고 문밖에 있었던 걸까. 몸이 서서히 굳어가며 나른해진다. 동공은 산대하고 각막 위에서는 호호마다 독 기운을 주입하는 혈관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각각의 방들을 움켜쥔 손가락에는 '도시가스' 라고 새겨진 붉은 문신이 보인다. 혈관 중간쯤 웅이진 곳에서는 집집마다 독가스를 얼마나 들이마셨는지 숫자로 읽혀 준다. 거기에 귀를 대보면 사람들의 목숨 끝 숫자들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따금 이놈의 아가리 속에서는 숨겨있던 바늘 같은 이빨들이 나와 내가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제 삼켜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내 머리통을 콕콕 찌른다. 녀석의 독은 몸속 신경세포를 쭈뼛하게 만들고 마음속 깊이 숨어 도사리고 있던 우울증을 터지게 만드는 성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독뱀에게 물려도 독에 면역이 있어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몽구스처럼 이제껏 이런 곳에서 잘도 버티며 살아왔다. 아직 이놈의 독이 내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다. 저며지고 씹혀 들어간 내 살점도 생각보다 질기다. 그 살점 안에는 생존 알갱이들이 배겨 있어 마지막 순간을 고대하는 녀석의 신호를 듣지 않는다.

또각또각 구두 굽 소리가 내 뒤를 따라오기 시작한다. 이놈의 아가리 속에서 잠시 굳어있던 나는 다시 가늘게 숨을 트며 점점 오그라들어오는 목구멍 속으로 헤집고 들어가는 중이다. 겨우 엘리베이터 앞. 녀석의 식도가 있는 목젓에 다다랐다. 옆에는 소화전이 보인다. 그래, 나는 아직 소화 전이다.

붉은색 '7'표시가 되면 목젓에서 '짹'하는 소리가 울린다. 방금 밑에서 무엇을 먹어치웠는지 모르는 녀석의 트림이 밀려올라와 내 몸에 쏟아진다. 또 다른 입이 열린다. 혀가 없다. 어디서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목젓 쪽에서 여하튼 가볼지를 묻는다. 나는 망설이다가 선택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입속에 거울을 들여다보니 녀석의 입이 내 뒤에서 닫히고 있다. 그 안에서 기름진 타액이 얼굴 가득 묻어나는 채로 나는 녀석의 혀가 되어 날름거리기 시작한다. 뭔가를 삼키려다가 상처가 났는지 혀는 군데군데 베인 곳이 붉다. 나는 숨이 막힌 채 이 거대한 녀석의 식도를 타고 내려앉는다.

내려가는 중간쯤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층이 열린다. 여기에서도 녀석의 길고 커다란 목구멍이 보인다. 감시용 눈알은 집집마다 붙

어있다. 어둠 저편에서 문이 열리고 유리알 하나가 반짝이더니 불쑥 여린 살내 나는 사람이 탄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송곳니처럼 날카로운 것이 뻗어 나가기 시작한다. 여자의 드러난 살점들을 물고 살갓에는 타액을 묻히기 시작한다. 나는 사람의 고기가 의외로 많다고 생각한다.

내 입이 커져갈수록 녀석의 울부짖는 소리도 점점 크게 들려온다. 녀석은 아마도 사람을 삼킨 나를 삼켜버릴 작정인가 보다. 먹잇감의 뼈와 살이 750kg 11명까지는 넉넉하다는 적정하중 표시가 있다. 소화되다가 멈추거나 없으면 비상벨을 누르란다. 여전히 여자는 마비된 듯 꼼짝을 못하지만 눈빛으로 붉게 떨어져 내리는 숫자를 세며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일층입니다. 일층입니다.’

문이 열리자 입속에서 뒹굴던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여자의 비명과 살점과 나의 부러진 이빨들과 타액이 한데 엉켜서 뭉텅 끊어져 나가버린다. 그리고 나는 이내 허기를 느낀다. 스마트폰을 만지작대며 태연하게 걸어 나가던 여자의 손가락이 떠오른다. 아무래도 그 손가락질이 내 목구멍을 자극하여 구역질을 하다가 여자를 계워낸 것 같다.

붉은색 ‘1’표시가 뜨면 일하러 가야한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는 미소를 지을 생각이다. 안면 거죽을 움직여본다. 여러 가지 표정 중에 웃는 표정을 꺼내 본다.

오늘 출근길에는 이 녀석의 배꼽을 뚫고 나간다. 맨얼굴로 맞는 바깥바람이 차다. 내가 타고 나갈 차는 이 아파트의 아랫배 속에 있다.

그래서 나에게 출근이란 늘 아파트에서 배설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밖으로 내질러지지 않을 생각이다. 나는 녀석의 뒷구멍 속으로 파고들어가 차를 끌고 나올 것이다. 녀석의 뒤가 찢기면 경광등 붉은 불빛이 사방으로 튀고 뻘뻘비명 소리가 울릴 것이다.

이 아파트의 경비실은 녀석의 다른 한쪽 눈알이다. 내가 빠져나가자 녀석의 충혈된 눈동자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백미러로 보인다. 유리알 속의 경비원은 큰 먹이를 집어삼키려다 턱이 빠져 반쯤은 눈이 풀려버린 맹수의 눈동자 모양을 하고 있다. 그 눈동자는 이내 무표정해진다. 녀석도 눈꺼풀을 내리고 이내 잠잠해진다.

배꼽 바깥으로 튀어나온 이 녀석의 눈알도 너무 오래되었다. 이러니 나를 단번에 삼키지 못했던 것 같다. 녀석의 아가리도 4층 이상부터 있는 듯하다. 3층 정도는 먹잇감들이 훌쩍 뛰어내려도 운이 좋으면 죽진 않을 것 같다. 이제 보니 좀 전에 내가 7층 복도 끝에서 보았던 환한 불빛은 살아나갈 길이 아니었다. 어쨌든 우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다가 우두둑 뭔가가 끊어져 나가버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어쩌면 이 녀석의 소화기관이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니 이 녀석은 육식동물 치곤 굉장히 순하다. 블라인드로 베란다 창문만 가려놓으면 추락을 충동질하지도 않는다. 저 아래 시멘트 바닥에서 누가 나에게 손짓을 한다거나 내 어깻죽지에서 날개가 솟아오르고 있다거나 하는 속임수도 평상시엔 쓰지 않는다. 나뭇가지보다 위에 사는 층 주민들에게겐 목숨은 부칠 기회도 준다.

아직 높이의 개념이 없는 아이가 난간을 기어오를 때, 성적을 비판

한 중고생 또는 돈이 없거나 고독하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병이 있거나 실연한 사람이 옥상이나 복도 끝에 발꿈치를 걸쳤을 때. 무덤덤하게 아니면 안쓰러운 시선으로 하릴없이 바라보다 땅바닥에 차갑게 널브러진 시신을 지켜봐야만 했을 녀석.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면 녀석은 육식동물도 독뱀도 아니고 단지 한 가족의 집이거나 어떤 이에겐 그저 직장일 것이다. 가끔 소화불량에 걸리고 급체하는 것처럼 녀석에겐 오히려 내가 자기 속을 종종 불편하게 하는 얽힌 밥덩이일지도 모른다. 속이 더부룩하여 아니면 기도가 막힌 것 같아 가슴을 치고 등을 두드리며 헛기침을 연거푸 해대거나 응급처치로 누군가 뒤에서 흉부를 압박해 줘야만 특하고 튀어나가는 또는 튀어나갔으면 하는. 그랬으면 속이 시원할 이물질인지도 모른다.

깎아지른 절벽 같은 녀석의 형체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나는 출퇴근 시스템의 부품으로 기능한다. 회사 근처 편의점 전자레인지에서 대충 데워진 햄버거와 나는 ‘쩍’하는 소리와 함께 모락모락 김을 내며 튀어나간다. 햄버거도 나도 반쯤 눈을 뜨다 말았다. 어쨌건 누군가로부터 패스트푸드를 손에 받아들고 나는 거리 위에 있다.

거리에서 나는 눈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삼키고 있다. 삼킨 것 대부분은 갖고 싶던 것들이다. 반짝이는 빌딩 아래를 사각사각 내려내는 다리들. 가격 없는 가슴들. 울렁거리는 할리데이비스.

이 로데오거리로 사람들이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듯 포장되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건물 곳곳에선 잠들지 않는 외눈박이들이 정해진 공정을 벗어나는지 지켜보고 있다. 생산라인을 따라 정신없이 걷다가 슬그머니 걸음을 멈춰 본다. 짐작대로 거리의 풍경들은 멈추지 않고

내 옆을 지나쳐간다. 모두들 누군가의 컨베이어벨트 위에 놓여있다. 부족한 게 보이면 채워진다. 여러 가지 모양이 된 부품들이 각자 모서리가 맞는 건물들 속으로 끼워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녀석들이 내 눈앞에서 하나둘씩 눈을 떠가며 점점 거대해져 가는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어떤 놈들은 소리 없이 괴성을 지르며 듣지 못하는 거리의 사람들을 마구 집어삼키고 있다. 넘을 수 없이 높아만 가는 녀석들의 몸뚱이가 햇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다. 반대편 그늘로 몰아져 간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져 가도 나는 패스트푸드를 삼키며 구경꾼처럼 서있을 뿐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내 모서리가 닳은 부품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다. 지하도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 노숙자가 구걸하는 손을 내민다. 호주머니에 동전이 있는지 만지작거린다.

이제 내 차례다. 심장 뛰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나는 불량률이 낮다. 이제껏 프로그램 된 대로 잘 동작해 왔다. 나는 불량률이 낮다. 나는…….’

습관처럼 혼자 중얼거리다가 사무실 문을 연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나는 암전한 먹잇감이 된다. 세령게티의 영양들처럼 주변에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눈망울을 하고 A4용지 뜯어먹기에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다. 그런 나와는 달리 상사들은 육식성이다. 전엔 초식성이었다고들 하지만 지금은 육식성으로의 진화과정을 완전히 거친 것 같다.

동물의 고기를 누구보다 오랫동안 맛본 K과장이 먹은 동물 흉내를 내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학습된 본능이라도 있는

듯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무엇이든 게걸스럽게 먹으려 한다. 그러다가 자신도 불쌍하게 먹히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며 자리로 돌아와서는 뺨눈을 뜨고 말하기 시작한다.

누가 토해낸 살점인지 짐작하며 받아먹는다. 뇌와 간이 녹아내리고 그 빈속으로는 의미 없는 자음과 모음들이 쏟아지고 있다. 속에 담아두면 가시가 돋기 시작하는 자음과 모음들은 곧 가지를 뺏기 시작한다.

반복되는 먹이사슬 속에서 나는 문득 동물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만들고 싶어진다. 얼마나 많은 소, 닭, 개, 돼지들이 사람들 뺨속에 채워져 있을지 궁금하다. 지금 내게 쏟아내고 있는 말이나 행동, 표정들이 어떤 동물에 가까운지 실시간으로 보여 준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

각자 어디서 무엇을 삼켰는지 몰라도 잡식성인 사무실 사람들은 이제 모두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동물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이는 컴퓨터의 구성품이 되어 있다. 대낮부터 술병 모양이 되는 사람도 있고 집에 남겨진 애들을 원격제어 방식으로 키우는 스마트폰 아빠가 되기도 한다. 방금 전까지는 휴지통이나 복사기였다가 지금은 파쇄기인데 앞으로 나는 무슨 모양이 될지 알 수가 없다.

K과장이 자리를 비우면 쥐죽은 듯 조용했던 사람들이 살판난다. 막간을 이용해 사다리를 타고 그날그날 운 나쁜 사람을 K과장에게 제물로 바쳐 하루가 편히 가주길 기원하는 시간이다. 어찌면 월급쟁이들에겐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날선 톱니바퀴들 속으로 누군가 한번쯤 끼이는 그런 흥분과 재미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먹이회

전이 멋대로 꼬리를 물고 물리며 몇 바퀴 돌고나면 예외 없이 거리로 나갈 시간이 온다.

어쩌면 상사들도 문을 열고 나가 어둔 복도로 접어들면서 그들을 삼키려 드는 입과 이빨들과 목구멍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통근버스에 올라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겨우 빠져나온 맹수의 아가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 중 몇은 굳림하고 재미있고 대우받는 걸 가정에서 직장으로 옮긴지 오래다. 오늘도 상하관계라는 결박의 끈으로 굴비 엮듯 묶여 달고 나간다. 나가면서 묶는 습관을 가르친다.

N이 통근버스에 오른다. 나는 차를 두고 가기로 한다. 내 자리는 늘 N의 뒤여야 한다. 그 자리에서 나는 N이 긴 생머리를 쓸어내리기를 기다리다가 눈을 감는다. 버스가 가는 방향의 역방향으로 시간을 돌려보다가 쓱쓱 지워버린다. 지우다가 흠이 난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어두워져 갈수록 모두들 말이 없어진다. 누군가는 이미 기절한 듯 잠이 들어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듯하다. 책을 읽거나 폰에 얼굴을 묻고 시간을 보내고도 있다. 세워야 할 테를 지나갔다며 운전사에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 TV를 보고 있지만 어쩌든 간에 버스는 통째로 어디론가 빨리 들어가고 있다. 이제부터는 꾸역꾸역 시간을 옥여넣는 구간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헛헛하게 작별을 고하고 돌아선다. 모두들 아직은 살아있다.

TV가 혼자 켜있다. 모니터에선 여자의 가슴이 보인다. 잠든 시간 동안 방 안의 것들은 모두 제각각 있었나보다. 바닥에 널브러진

것들부터 주워 모아본다. 하지만 잠시 들러붙었다가 이내 접착력을 잃고 흐트러져 버린다.

나는 방바닥에 해체된 채로 누워있다. 바닥에선 뭔가 부패되는 냄새가 나고 있다. 찬장에서 나무젓가락을 꺼내 바닥을 헤집어본다. 잡으려는 것들은 모두 알갱이가 되어 부서져 내린다.

여전히 모니터 속 여자는 자기 가슴을 주무르고 있다. 내 눈동자는 모니터 위에서 이리저리 구르다가 이내 초점을 잃는다. 나는 그저 방 안의 걸모양만 살피고 있다. 이제 여자는 한쪽 구석에서 희미하게 뛰고 있는 내 심장을 보고 있다. 이따금 내 손가락이 꿈틀거리지만 브래지어를 올리는 여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자는 이내 다른 알갱이가 된다.

눈을 감으면 N이 긴 생머리를 쓸어내린다. N이 머리를 쓸어내릴 때마다 방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내 무게로 인해 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런데 바닥에서 숨이 쉬어진다. 두 발이 뭉그러지고 지느러미가 자라나는 형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어느새 나는 어디로도 나갈 수가 없는 어항 속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다. 나는 내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비늘들을 본 순간부터 이 안에서의 헤엄을 멈출 수가 없다. 문손잡이에 살그머니 코를 대본다. 의아스런 눈동자를 하고는 뼈끔 숨을 쉬어본다.

밀을 보니 어떤 것도 뚱뚱 뜨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 위를 보니 내 숨이 방울방울 올라가는 저 수면 위로부터 틈이 벌어져 내려오고 있다. 지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나를 보는 하나의 눈동자가 보인다. 유리벽에 이리저리 머리를 박고 있는데 그런 나를 누군가 우악스레 잡아 꺼내 퍼덕이던 나의 폐부를 칼로 저민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그는 저머진 내 살점의 틈들을 무표정하게 헤집고 있다. 그리고 드러난 내 심장과 뇌를 검은 가시바늘들로 찌르고 있다. 나는 연거푸 입을 삐꺼거리며 헛구역질을 한다.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필사적으로 헤엄은 치는데 몸체가 가는 곳이 생각지 못한 방향이고 자꾸만 아래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떨리는 손을 내민다. 나를 저미던 그는 그 손을 보고도 무심히 떠나버린다. 또각또각 계단 아래로 가는 구두 굽 소리가 들린다.

나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다. 머릿속 기억의 알갱이들이 지글거리는 TV 화면처럼 마구 흔들려서 내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다. 더운 숨에서 살이 타 나온다. 아직 숨은 붙어있고 눈은 깜박이고 있다.

N이 있는 곳에 가려면 불 꺼진 기다란 복도를 지나야 한다. 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나는 검은 희열을 느낀다. 한 걸음 다가설 때마다 그 복도 깊은 곳에 N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뭔가에 이끌린 건지 내 안의 누군가가 등을 떠미는 건지 알 수는 없다. 이 복도만 들어서면 밝은 빛이 수축하고 어둠은 동그라진다. 그곳으로 향하는 터널만 보이고 빛 속에선 문이 보인다. 문 옆에는 무표정하게 나를 보는 내가 있다. 그는 이 장면을 한 컷 사진 찍는다. 한 발짝 뒤에서 따라오는 내 발걸음 소리를 어둔 저편에서 누군가 훑쳐 듣는 듯하다.

사내 도서관의 문 앞에 다다라 돌기처럼 솟아오른 문손잡이에 손을 댄다. 손바닥이 더워진다. 두근두근 문이 열리고 플래시가 터진다. 형광등 불빛에 잠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주임님”

밝게 웃으며 거리를 둔다. 나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다.

“잠깐 자리 좀 지켜주세요. 아래층에 다녀올게요.”

따스한 눈빛을 차갑게 거두는 것이 N의 평소 습관이자 폭력의 방식이다. 책상 위엔 N이 웃고 있는 사진이 든 액자가 있다. 이곳에서 지금 나는 N을 흠칠 더 추한 방법을 궁리중이다. N의 긴 생머리를 묶던 머리끈이 보인다. 이것을 풀면 내 목이 조여지던 물건이다. 무릎 담요와 책상 베개가 있다. 나는 무릎 담요 위에 코를 대본다. N의 냄새가 배어있는 무릎 담요를 부비면 램프의 요정처럼 N이 나온다. 요정은 나를 화장실로 인도한다.

불 꺼진 화장실에서 나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표정이다. 불을 켜고 화장실 구석구석에서 숨은 눈동자와 남을 향해 열어놓은 귀들을 찾는다. 백열전구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을 카메라도 확인한다. 환풍기 나사를 풀고 안도 들여다본다. 의심이 잦아들고 나면 이젠 껍데기만 남아 행해진 내 안을 채우려한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나는 그저 나의 추행을 변명하고 싶어 한다. N이 먼저 내게 폭력적이었음을 설명하려 한다. 온기 없는 말들을 몇 마디 나누다가 N의 시선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내리누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말은 아래를 향하고 N의 말은 위를 향하고 있다. 내가 N에게 관리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되는 그쯤에서 더러워진 나를 위한 그리고 더럽혀진 N을 위한 변명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예쁘긴 하죠?”

그렇게 적당히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형벌이 시작되려나 보다. 이 녀석은 지금 내게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죄를 물으려는 것이다. 이 녀석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 이제 이 공간에서 내게 들려오는 말들은 듣고 싶지 않다. 그 말들은 나를 구석으로 몰아세운다. 이 녀석의 입모양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 그 입모양은 항상 난간 위에 걸터앉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입모양에서 지금 뭔가가 회오리치며 송곳 모양으로 단단히 뭉쳐지는 것이 보인다. 그 형체가 스멀스멀 기어와 내 어깨 위에 올라타고는 거머리처럼 끈덕지게 들러붙고 있다. 그걸 짊어지고 짓누르는 압력을 견디며 끝없는 계단을 터벅터벅 오르는 것부터다. 생각으로 집을 짓는다. 허공으로 기와를 나르고 빈 공간에서 벽돌을 빚어 지은 집을 다시 허문다.

통증을 잡아먹는 벌레들도 숨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한다. 벌레들이 내 안에 집을 짓고 구멍을 내고 몸에서 나가기 시작하면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뭉그러진 사람의 형상이 나타난다. 송곳 모양에 찢려도 이제 나는 그다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이 공간에서 까닭 모르고 허우적대기만 한다. 무슨 일이든 계속 하고 있는데도 어딘가 이미 구멍이 나서 그런지 그저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뿐이다.

나는 내 몸에 오랫동안 들러붙어 있던 이 녀석의 실체와 무게를 증명하고 싶어진다. 사람들은 생각의 알갱이나 그것이 떠다니는 공간에는 실체나 무게가 없기 때문에 N에 대한 나의 추행에 죄가 없다고도 말할 것이다. 하지만 공간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그 실체와 무게를 증명할 수 있고 그 안에 담겨진 생각과 행위들도 그 무게만큼 벌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런 행위나 생각의 알갱이들이 담긴 공간이 나에게 너무도 과한 해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이 녀석의 입모양이나 나의 생각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보여 주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세하게 흔들리는 저울 침이 내게는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저울이 가리키는 무게로 지금 나는 방바닥에 짓눌려져 있다.

끈덕지게 따라다니고 괴롭히는 이 녀석은 수시로 모습을 바꾼다. 어떨 땐 N이기도 하고 N이 아니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나와 나 아닌 것들을 제외한 여백에 색을 칠해보기로 한다. 그러면 빈 공간 속에 단단히 숨은 녀석이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아마도 녀석은 생물과 무생물 사이를 오가는 입자들의 순환통로 역할을 하는 무섭고 냉정한 배달부일 것이다. 죄를 지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 다른 물질로 치환시켜 버리는 무색 무미 무취의 맹독성 촉매제일 수도 있다. 지금 나는 여백을 칠한다면 어떤 색을 칠해야 되는지 궁리 중이다. 이러는 건 죄가 아닌 것 같은 데도 시간이 간다는 이유로 녀석은 나를 입에 넣고는 조금씩 용해시키려 하고 있다.

혹시 걷다보면 내가 짙어진 이 녀석의 무게가 줄어들지도 모른다. 걸으면서 N의 영상이 나오는 무릎 담요도 버리고 화장실 벽에 붙어 있던 눈과 귀도 버리고 하수구를 타고 어디론가 흘러가버렸을 나도 잊어버릴 생각이다.

거리의 유리들에 비친 내 모습이 한 조각씩 어디론가 가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무도 플라스틱 의자도 건물도 구름도 모두 조금

씩 어디론가 가려하고 있다. 잠시 멈춰서면 그제야 모두 달라진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아 돌아온다. 다시 건다가 나는 내가 칠할 부분이 너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 손엔 아무 것도 들려있지도 않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탄다. 창밖에서 일렁거리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도시가 거대한 바다 속에 잠겨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버스도 태양의 열기에 살짝 익어가고 보이는 건 무엇이든 지나치는 자동차 소음에 이리저리 썰리고 뒤집힐 때다. 뭔가가 이 밀밀한 오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여기저기로 스며들어가고 있다. 우두커니 창밖만 보고 있다가 이 녀석이 내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정신이 든다.

이 녀석은 끝도 없이 무게를 먹고 비우는 생물일지도 모른다. 그 무게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끊임없이 분해하고 해체시켜 집어삼키고 살을 찌우는 무감정의 생명체일지도 모른다.

문이 열리고 들어서자마자 무표정하게 굳어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희미해지다가 금세 투명하게 사라져가고 있다. 이제 그들은 바람 든 풍선처럼 이리저리 흔들거리기만 한다. 스무 명 남짓의 얇은 사람들과 손잡이에 매달린 사람들의 형체가 모두 사라지고 바퀴가 아스팔트 지면으로부터 이탈해 똥똥 뜨려 한다고 느낄 때쯤 정류장 도착을 알리는 멘트가 들린다. 브레이크 소음이 그저 공명상자가 되어 버린 버스를 찢고 들어와 울림으로 남았다가 사라진다.

찢어진 틈으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토해지기 시작한다. 개체화되고 분리되었던 개념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텅 비어진 그 순간을 통

해서 나는 이미 다른 것들로 채워져 버렸다. 다시 문이 열리면 사람들 속에서 어긋거리던 바람이 나가고 굳어가던 일상들도 멍텅 떨어 나간다.

정류장의 사람들 머리 위로는 숫자들이 보인다. 그 숫자들 아래서 누군가 톱니바퀴 하나를 돌리기 시작한다. 톱니바퀴가 돌면서 맞물린 다른 톱니바퀴들도 돌고 있다. 숫자들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혼자 계시니까 생각만 많은 거예요.”

N이 새로 산 스마트폰 속의 남자 사진을 뚫어져라 보고 있다. 내가 빈 공간에서 사투를 벌인 일을 N은 흘려듣는다. 검은 복도가 독액을 혈관에 주입하고 아파트가 육식동물처럼 굴고 방안에선 사람이 물고기가 되고 그 밑바닥에선 공간이 송곳 모양으로 뭉쳐진다는 말들은 이제 막 바탕화면으로 설정된 남자에게 흡입되려는 N의 콧가 근처에서 모두 사그라졌다.

N이 돌리고 있는 톱니바퀴는 적어도 내 것과는 다른 것 같다. 부촌에서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N이 이해하기엔 임대 아파트에서 생성되어 뿔어져 나온다는 부정적 이미지의 포말들은 모두 내가 혼자 오래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가스 찬 배가 자꾸 꾸르륵 거려서 램프의 요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다.

“잠깐 자리 좀 지켜주세요. 아래층에 다녀올게요.”

N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가버린다. 자리 지켜달라는 말의 톤이 지난번과 같아 N의 어딘가에 장착된 기계음 같다고 생각한다. 무수한 책들 속에 파묻혀 하루를 보내는 N에게 책 한 권 추가해 준 느낌이다.

아래층에서 한참 만에 들어온 N의 입가에는 분홍빛이 덧발라져 있다. N이 다시금 바탕화면 속의 남자와 교감하려는 순간 나는 화장실로 간다. 전과 달리 화장실 벽에는 눈도 귀도 없다.

‘휴지를 변기 속에 넣지 말아주세요. 변기가 막힙니다.’

이제 보니 화장실이 내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낙서들을 보다가 내 안에 쌓여있던 것들을 흘려보낸다. 검은 복도는 형광등이 나가서였다. 전처럼 복도도 그리 길게 보이지 않는다. 어둠도 밝음도 더 이상 수축되지 않는다.

N에게서 멀어질수록 또 다른 세계로 떠밀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마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따로 있다면 나는 지금 N의 끝자락에 와있는 것 같다. 또각또각 구두 굽 소리가 복도를 지나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다. N이 있는 위층과 내가 있는 아래층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세상의 단면들이 보인다. 그 단면에서 피가 흐른다.

물렁거리던 세상이 단단해지기 시작한다. N이 있는 세상이 그 안으로 들어가 사라져간다. 내게서는 뭔가가 반듯하게 잘려져 나간다. 콘크리트 계단 위로 끊어져 내린 기억의 줄기 몇 가닥을 주워 본다. 거기서 배어나온 시간들을 조각조각 이어 본다. 희미하게 N이 놓고 간 허물이 보인다. 허물의 표면에는 내게서 잘려나간 살점들이 보인다. 그것을 삼켜 본다. 아래로는 더운 피가 모이는데 머리에선 아무 느낌이 없다. 모르는 사이에 또 어딘가 신경이 잘려나간 게 분명하다. 어느새 나는 아주 낮선 얼굴을 하고 있다.

문득 세상의 단면들이 보일 때마다 나는 옆으로 걷는다. 끊임없이 조금씩 더운 피가 배어나오는 그 단면에 부딪치기라도 하면 순간 나

는 수평으로 추락하기 때문이다. 그 추락은 바닥과 표면이 맞닿아 있다. 이 순간만 지나면 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다고 단면의 검은 입은 말한다.

그 단면 앞에서 나른해진 내 의식이 멋대로 춤을 추고 있다. 우두커니 서 있다가도 발자국이 다른 데로 간다. 이대로 무엇인가 부딪칠 것만 같다. 헛구역질이 나온다. 부딪치기도 전에 질식할 것만 같던 그 순간에 누군가 뒷덜미를 잡아끈다. 두어 걸음 뒷걸음질에 흠뻑 젖었던 의식과 몸이 붙고 주변으로 밀려났던 화면들이 모이면서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는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는지 살핀다.

“단면에서 왜 피가 나냐?”

K과장이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을 소비할 것을 권한다. 눈코 입이 문질러지고 손발이 결박당해 보이는 K과장이 술잔을 내민다. 그의 뒤로는 가느다란 끈들이 보인다. 그 끈을 따라가면 아마도 대접 못 받는 집이나 마이너스 통장과 대출이 있는 은행이나 위아래로 치이는 직장 따위가 나올 것이다.

그는 뭔가를 열심히 해봐도 끈에 꿰이고 매달려 이리저리 흔들거리다가 결국엔 터져서 휘감겨 들어가는 낚시찌 같은 신세라는 말을 가능한 길게 늘려가고 있다. 소주로 하루를 기울이다가 전신이 마취 되면 미늘을 자기 코에 꿰고 일어선다.

‘그 미늘에 옆구리 없는 물고기를 걸고 들어가진 말아주세요.’

길바닥에 길게 늘어뜨려진 두 그림자를 경쾌하게 밟고 지나가는 구두 굽 소리 아래서 희미하게 비명 소리가 들린다. 거리의 사람들이 마치 거대한 고무바퀴처럼 보인다. 회전하는 바퀴들 아래로 일그러

저 들어가는 그림자를 보며 떨리는 손을 내민다. 자꾸만 눈앞이 흔들려 잡아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 그림자는 이내 이리저리 흩어져 버린다.

발밑에서 뭔가 물컹거린다. 분명 내 안에서 뭐가 새어나간 느낌이다. 발아래부터 시작한 소름이 온몸의 혈관과 살갓을 쓸고 지나다닌다. 치약 몸통을 밟으면 치약이 뿜어져 나오듯 길바닥엔 무언지 알 수 없이 뿜어 나온 내용물들로 흥건하다. 무심코 그 위로 사람들의 발걸음과 자동차 바퀴들이 지나갈 때마다 내용물은 어디론가 치워져 간다. 그리고 또 다른 뭔가가 내 안으로 다시 채워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에게 나란 신호를 뜨문뜨문 보내고 있다.

한밤의 도시 능선이 흡사 거인의 입처럼 보인다. 들쭉날쭉한 거인의 검은 이가 다시금 뿌득뿌득 갈려지기 시작한다. 입가에선 반짝이는 불뚱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리로 몰려 들어간다. 이를 갈아대는 소리는 마이크와 앰프 소리에 묻힌다. 그 입 안에서 허물을 드러내고 내용물을 쏟아낸 사람들과 그것을 치우거나 주워 먹는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하루의 끝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떨어져 내리는 시늉을 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 사는 규칙에 서툴다.

“왜 나와 있어요, 주임님?”

아스팔트가 솟구치며 긴 혀로 내게 말한다. 그런 이유로 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제부턴가 나에게 의심병이 생겼다. 집을 나설 때 현관문을 잠그고도 다시 열어 방안을 확인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도 머

리를 내밀어 복도 끝 문짝이 닫힌 상태인지 살펴본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때도 닫히는 문 사이로 바닥을 한번 훑어본다. 버스에 타고 내릴 때도 자리에 떨어진 게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한다. 아무리 돌아봐도 잃어버린 건 없지만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것에도 의심이 간다.

아무래도 방 안의 무생물들 때문인 것 같다. 지금도 밤새 부대끼던 나의 흔적들을 먹어치울 무생물들이 내가 없는 공간 속으로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을 것이다. 내가 방문을 잠그고 나올 때를 기다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것들이 모두 살아나 여기저기 휘젓고 다녔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만의 주파수로 내 험담을 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밖에서 문을 잠근 게 아니라 나 없는 동안 자기들만의 유희를 즐기려고 안에서 문을 잠근 건지도 모른다.

나가라며 열린 엘리베이터 문을 살며시 닫는다. 6층에서 내려 한 층은 살금살금 계단으로 오른다. 굽을 들어 소리 내지 않고 문 앞까지 다다른다. 문을 열어젖히고 안을 살펴본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들떠있던 것들은 모두 가리앉아 있다. 그래도 나는 각각의 물건 위치들을 머릿속에 담는다.

아무리 정리해 놓고 가도 퇴근 후 들어오면 누군가 드나들었던 듯 어질러진 이불과 옷가지들.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아무 데나 드러누운 물건들. 짝 없는 젓가락. TV 위에 더께 앉은 먼지. 출근 전까지를 더듬어 봐도 기억나지 않는 장면들이다. 그래서 나는 늘 같은 장소에 다른 기분으로 들어간다.

내가 방 안에 있으면 모두들 숨을 죽인다. 그 안에서 나는 늘 찌그러뜨린 맥주 캔 모양을 하고 구석진 곳에 꾸겨져있다. 전에 살던 부부에게 얘기가 있었는지 불만 끄면 천장에서 하늘색 달과 별이 뜬다.

딱히 날아갈 데도 없어 보이는 앵무새에겐 눈이 없다. 벽지는 한겨울에 붉은 눈이 내리는 무늬를 하고 있다. 쳐다보고 있으면 붉은 눈도 빙글빙글 쏘아지고 앵무새도 퍼덕거리기는 한다. 밥은 밥솥이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준다. 다른 장식품들처럼 나는 그저 누워 있으면 된다. 집에 오면 나가고 싶고 나가면 집에 가고 싶다.

슬그머니 문을 열고 나가다 보니 방 안의 것들이 모두 움직이려 하고 있다. 달과 별과 앵무새와 붉은 눈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문을 닫는다. 가만히 문에 귀를 대보니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어찌면 그들 모두는 이미 오래전에 내게서 떠나갔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들이 벗어놓고 간 허물이 남은 이 공간에 매일 내가 들어와 너무 오래 그들의 허상과 마주했을 것이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어느 한 곳에 구멍이 나 있다. 하루를 날로 삼킨 표정의 그들 머리 위에서도 날선 칼과 손 없는 자루가 보인다. 나는 늘 다니던 길에서 길을 잃는다. 딱히 갈 곳이 보이지 않는다. 물살처럼 떠밀려가는 사람들에게 휩쓸려 나는 나를 놓쳐버린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나를 발견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누군가 툭 건드릴 때까지 껌데기만 남아 있다.

땅거미가 질 때쯤 녀석의 아랫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오늘 하루를 소화한 차들이 이곳에서 아직 덜 삭은 채로 가지런히 놓여 있다. 위쪽으론 붉은 동맥이 보인다. 아랫배에서 위로 올라가는 입구 쪽 판막에는 ‘동파의 위험이 있으니 문을 꼭 닫아주세요’ 라고 쓰여 있다.

나는 지금 오늘 버려야 할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녀석의 소화기관

을 따라 역류 중이다. 캄캄한 내장 속을 또박또박 밟으며 휘돌아 올라가 녀석의 입에서 툭하고 튀어나갈 생각이다.

민감한 녀석의 촉수가 가는 곳마다 외눈에 불을 켜다. 녀석은 나 모르게 끈적이는 위액과 타액을 나의 몸에 묻혀 놓는다. 내일이면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고 나의 위치를 가늠할 것이다.

무거워지는 눈꺼풀로 바깥세상에 커튼을 친다. 문을 잠그고 들어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저런 생각 중에 누군가 살며시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내 어떤 형상이 들어와 내 몸을 짓누른다. 움짱달짝할 수가 없다. 살점이 떨어져나가 너털해지더라도 이것을 떼어내고 여기서 나가려 한다. 눈 밑으로 새어 들어오는 실낱같은 불빛들을 꼭꼭 밟아 늘려나간다. 손을 뻗어 더듬다 작은 스탠드 버튼이 눌린다.

헬륨을 불어넣은 풍선처럼 방이 어둠 속에서 둥실 떠오른다. 이 안에서 나는 중력을 느끼지 못한다. 발로 벽을 한 번 밟으면 701호는 앞으로 반 바퀴 구른다. 시계 바늘의 각이 여러 번 얹어진다. 아무리 굴러도 다치지 않는 이 풍선놀이에 재미가 들린다. 사방의 벽을 이리저리 밟아 본다. 밟은 방향으로 거칠 것도 없이 굴러간다. 건물이나 사람이나 자동차나 신호등에 막히는 법도 없다. 나는 바닥에서 까르르 웃고 있다. 붉은 눈이 땅에서 하늘로 내리고 있다. 자그락자그락 하늘색 달과 별들을 밟는 소리도 들린다. 무시무시한 도시의 윗니들이 머리 위로 다물리기 전에 나는 눈 없는 앵무새를 따라나선다.

건너편 아파트에는 군데군데 불이 켜있다. 그 안의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의 눈동자가 되어 이리저리 뒹굴고 있다. 아마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를 돌리다가 비로소 숨겨왔던 눈들을 뜨는 시간일

것이다. 어두워져 갈수록 여러 개의 네모난 눈들이 떠지고 있다. 어떤 것은 물끄러미 나를 보아 주고 있고 어떤 것은 그저 물 위로 눈망울만 올려놓은 개구리처럼 눈꺼풀만 깜박이고 있다. 그 눈들 속에서 작은 숨들이 방울방울 흘러나와 하늘로 오르고 있다. 나는 그 숨 방울을 타고서 하늘로 난 층계를 오르다가 잠시 아래를 본다. 깊은 어둠 속에서 입이 열린다. 일그러진 사람의 형상이 시멘트 바닥 위로 쿵 하고 떨어진다.



동상



대구월배우체국
이현숙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어떤 형태로든 글을 쓴다는 건 삶에서 매번 머뭇거리고, 뒷걸음질 치는 나 자신을 가장 차갑고, 격렬하게 응시하는 일상의 버릇 같은 거였다. 그런데 꽤 오랫동안 글을 쓸 수 없었다. 백빠진 문장과 양상한 낱말들 사이에서 헛되이 떠돌며, 허겁지겁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뭐든 쓰겠다는 욕망은 거듭되는 현재의 시간들에 떠밀리며 낡은 유류폼처럼 오래 잊혀졌었다. 그래서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이 기괴한 상처투성이의 배냇짓 같은 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게 된 것이. 그래서 또 다행이다. 살면서 오래 내동댕이쳤던 그 간지럽고 설레는 욕망을 다시 꺼내 만지작거릴 수 있게 된 것이.

술이 깨면

나를 포함한 우리 셋은 모두 촌스럽고, 좀 얼빠진 녀석들이었다. 나는 소주를 입 속으로 털어 넣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털 떨어진 녀석들과 불편하게 둘러 앉아 토요일 오후를 갈팡질팡하게 보내게 된 건 몹시 우울한 일이었다. 후출근한 잿빛 터틀넥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묵묵히 제 잔을 채우고 있는 태호와 실새 없이 육개장을 퍼먹고, 건어물을 씹어대며 너저분한 소리나 지껄여대고 있는 현규를 짝막하게 일별하고, 나는 멀거니 기태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빈소에는 드문드문 문상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영정 사진 속 기태의 모습은 입사 시험용 수험표 위어나 불일 법한 단조롭고 케케묵은 표정이었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셨고, 간간히 울었고, 오줌을 싸러 나가거나 담배를 피워 댔다. 사람들은 그렇게 저마다 살아있는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힘껏 하면서 죽음을 떠밀어낸다. 삶의 관성은 그토록 선정적인 방식으로 죽음과 다투듯 멀어진다.

나는 푸석푸석한 얼굴로 앉아있는 기태의 아내를 돌아보았다. 병실에서 기태에게 숟가락으로 물을 떠먹여 주던 그녀의 얼굴을 기억한다. 스스로 잘 버티고 있다는 안도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그녀

의 눈동자에서 나는 긴 시간 동안 차곡차곡 내려앉은 황량한 폐허를 보았었다. 그녀는 곧 기태의 병원 진료비와 장례 비용을 정산하고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는 의례적인 일들을 차분히 해낼 것이다. 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해지하면서 그녀는 비로소 기태의 부재를 온 몸으로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건 그녀의 몸속에 쌓인 카페인과 타이레놀과 멜라토닌의 반감기만큼 짧은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가뭇없는 시간과 기억이 퇴적되고 침식된 일상을 견디다 보면 죽음은 어느 순간 험기워지고 가벼워지게 될 것이다.

나는 기태에 대해 떠올려보려 애썼다. 그에 대한 기억은 이제와 곱씹어보면 몇몇 단편적인 것뿐이어서 ‘우리가 정말 둘도 없이 친했던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을 정도였다. 학창 시절 우리는 가끔 어울려 자전거를 타고 어둠이 내리는 도로 한복판을 가로지르거나, 담배를 돌려 피우고, 포르노 비디오를 함께 보거나 했을 것이다. 기태는 털 자란 아이 같았다. 도서관 구석진 곳에 앉아 조용히 필립k딕의 소설을 읽거나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은행원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대출로 집을 장만했다.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만났을 때 기태는 항암제에 취한 텅 빈 눈으로 웃었다. 그때의 그는 마치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푸른 사막 한 가운데를 홀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다.

토요일 오후에 급작스럽게 그의 장례식장을 찾게 된 건 순전히 얼떨결이었다. 뭐 까짓것 한두 시간 정도 뭉개다가 태호나 현규 같은 시시껄렁한 녀석들과 만나 술이나 마시게 되거나, 혹은

예기치 않게 은혜를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던 건지도 모른다.

기태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막 부서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부서장은 내게 ‘아쉽지만……’ 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신사업 추진 TF팀 공모에 이제 입사 3년차인 오진석 대리를 나 대신 추천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던지시 내비쳤다. 회사는 주력 온라인 커뮤니티 “GINNI.COM”의 하위 범주에 불과했던 게임 서비스의 덩치가 커지자 결단을 내렸다. 새로운 브랜드로 분리 런칭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TF팀 발족을 위해 부서별로 인력 추천을 받았다. 기획실에서는 나와 오대리가 공모 신청을 냈었다. 신사업 추진 TF팀 합류는 회사 내 굳건한 계급의 사다리 위로 성큼 올라설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자네나 오대리 둘 다 의심할 바 없이 역량이 뛰어나지만, 오대리에게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기획실엔 자네 같은 재원도 붙들고 있어야 하고’ 부서장이 내 어깨를 툭 치며 위로인지 모를 소리들을 빈정거리듯 늘어놓았다. 매번 꼬박꼬박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했지만 어딘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지던 오진석을 떠올리자, 견잡을 수 없는 열패감이 뱀 비늘처럼 차갑게 몸을 휘감아왔다.

부서장실의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두통이 밀려와 눈을 감았다. 눈을 뜨면 거대한 모래바람이 얼굴로 끼얹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생의 곳곳엔 깊고 어두운 크레바스가 놓여있어 조금만 발을 헛디뎠도 까마득한 틈 속으로 떨어져 버린다. 나는 위태로웠지만,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엘리베이터 앞에 늘어선 사람들은 모두 빈틈없이 이기적인 표정으로 앞만 쳐다보고 있었다. 나를 비롯해 그들 모두는 장

전된 총으로 서로를 번갈아 겨누며 매일 매순간 참혹한 러시아룰렛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총구를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기분이었다.

“곧 결혼한다며? 준비는 잘 되가?”

현규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태호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별로 자신 없는 말투로 대답했다.

“그냥, 다 접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 귀찮고 맥 빠져. 사는 게 지리 멀렬이야”

잠깐 침묵하다 태호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어쩌면……, 내년엔 남해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어. 지난주 인사 담당이 12월 초쯤 남해 지사로 발령이 날거라고 하더군. 본사 감원을 위한 조치야. 지난번 평정 때 내 점수가 고만고만했었거든. 거긴 연고도 없고, 곧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정 따윈 고려되지 않아. 난 결국 잉여 인력으로 분류된 거고, 그나마 자리보전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하지.”

태호는 감정을 다듬어 버린 까슬까슬한 말투로 마치 남의 말을 하듯 툭 말을 내뱉었다.

“지난 월말엔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했는데, 짜장면을 시켜먹다가 뜬금없이 울컥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한심했지. 들키지 않으려고 하마터면 짜장면에 얼굴을 처박을 뻔 했더니까. 마치 한밤에 무작정 버스를 타고 전혀 낯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요즘엔. 아침 회의에선 허둥거리다 팀장한테 까이고, erp에 재고를 맞추고, 단가표를 만들어내는 단순 반복적인 그런 일들을 못 견디 하면서도 차마 그만 둘 수 없는 건 다른 무엇 때문도 아냐. 공과

금을 내고, 대출을 갚고, 보험료를 내고, 매일 밥을 목구멍으로 꾸역 꾸역 밀어 넣겠다는 비루하고 일차원적인 이유 때문이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냐? 우리 모두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살아.”

나는 자조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태호의 잔에 술을 채워 주었다.

“나도 이번에 라인을 완전 잘못 타는 바람에 숨죽이고 이리저리 눈치 보고 있는 중이야. 사무국장한테도 밍보인 건지 요즘 틈만 나면 나를 갈귀대는데. 어휴, 차라리 환자들의 일방적인 폭언이나 듣고 있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환자들은 적어도 정서적으로 정직하고 깔끔한 편이지. 어떤 땐 환자들 가래나 빼주고, 약이나 먹여주는 단순 명쾌한 일들만 했으면 싶은데……, 병원도 완전 작은 정글이야. 저마다 무리들을 만들고, 줄을 세우지. 난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저 그런 한심한 부류고, 그냥 무념무상 염불이나 외는 중 같이 내 일만하게 수술실이나 지원할까도 생각하고 있어.”

현규가 맞장구를 치듯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다.

“니들 혹시 우리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 수업시간 기억나냐? 여선생이 들려 준 이상한 동화 말야.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우리들 처지가 거기 나오는 머저리들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 올라가려고 기를 쓰는데 다들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 멍청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게.”

물을 마시던 현규가 말했다.

기억난다. 기말고사를 앞둔 몹시 무더운 여름날이었고, 프랑스어 수업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내신을 대비해 에트르와 아부아르 동사의 용법을 외우거나, 노골적으로 수학책을 꺼내 인수분해를 풀었다. 임신을 해서 배가 볼룩한 프랑스어 여선생은 나직한 목소리로 수업

을 계속 진행했고, 아이들은 거의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날 무렵 여선생은 책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5분정도 남았는데, 이걸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 될 거다. 그동안 수고했고, 기말고사도 잘 치르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싶다. 나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나가도 좋아.”

그리고 여선생은 머리카락 길이를 재서 왕권을 물려주려는 왕과 그의 일곱 딸들에 관한 기묘한 동화를 들려주었다.

금발의 분홍빛 뺨을 가진 아름답고, 기품 있는 왕이 있었다. 왕은 희안하게도 갈색 머리에 주근깨가 나있는 불품없는 서커스단의 줄타는 소녀를 사랑했다. 동화 속에 존재하는 국가였으므로 당연히 왕은 계급 간 갈등 따위 없이 소녀를 왕비로 맞았다.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여섯 명의 딸을 낳았다. 모두 아버지인 왕을 닮아 금발에 분홍빛 뺨을 가진 예쁜 아이들이었다. 왕은 행복했고, 여왕은 무슨 일인지 불행했다. 그리고 이듬해에 여왕은 일곱 번째 딸을 낳았고, 그 아이만은 여왕을 닮아 어두운 밤길 같은 갈색 머리를 하고, 야윈 뺨에는 깨알 같은 주근깨가 나있었다. 왕은 곧 후계자를 정해야 했고, 일곱 명의 딸들 중에서 골라야 했다. 왕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좀 어처구니없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역시 현실이 아닌 동화였으므로 가능한 것이었다.

왕은 머리카락이 가장 길고 풍성한 딸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딸들에게 부지런한 시종들을 붙여서 머리카락을 관리하게 만들었다. 다만 마지막 일곱 번째의 딸만은 어머니인 여왕이 맡았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기약 없이 흘러갔다. 여섯 명의

딸들은 저마다 뛰어난 시종들의 도움을 받아 머리칼을 가꾸고, 기르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딸만은 항상 머리에 두건을 쓰고서 궁 밖의 더러운 거리를 쏘다니거나, 푸른 들판을 뛰어다녔다.

7년째 되던 날 드디어 왕은 일곱 명의 딸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리고 딸들의 머리카락 길이를 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딸들의 머리카락 길이가 한 치의 오차 없이 똑같았던 것이다! 그랬으므로 당연히 두건을 쓴 일곱 번째의 딸에게 시선이 모아졌다. 언니들의 시기와 질투어린 눈길을 받으며 왕의 막내딸은 두건을 벗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막내딸의 머리칼은 소년처럼 짧았다. 여섯 명의 언니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자연스럽게 막내딸은 그 우스꽝스러운 왕위 경쟁에서 탈락했다. 여왕은 막내딸을 돌보는 틈틈이 머리가 자랄 때마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싹뚝 잘라버렸던 것이다. 그 덕분에 막내딸은 홀로 그 끝없는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나머지 여섯 명의 딸들은 또다시 긴 시간 동안 왕위 계승 전쟁을 치러야 했다. 다시 7년의 시간이 끝도 없이 흘렀고, 여섯 명의 딸들은 역시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 사이 왕이 죽었고, 왕의 유언대로 후계자가 정해질 때까지 그 참혹한 경쟁은 계속 되었다. 여섯 명의 딸들은 온 인생을 걸고 머리카락 길이를 재고 또 잴다. 그러는 동안 막내딸은 궁을 떠나 바깥 세상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늙어가는 평범한 삶의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며 살아갔다.

“이 이야긴 오늘의, 지금 여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빛대 볼 수 있는 일종의 우화로 볼 수 있을 거야.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고, 그 누구의 욕망도 채워지지 않은 채 끝을 맺는 비극이야. 아이들을 위한 동화인데도 말이지. 여섯 명의 딸들은 계급의 사다리 위에 올라서기 위해 그런 멍청한 왕의 조건을 비판 없이 수용했고, 댓가로 자신들의 인생을 통째로, 기꺼이 낭비하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지. 이 여섯 명의 딸들이 끊임없이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돌덩어리를 산꼭대기 위로 계속 굴려야 하는 시지프스와 다른 점은, 이들은 절망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분들 각자는 이 우화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다만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삶의 어느 한 순간 이 딸들의 우화를 문득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스스로에게 환기시킨다는 건 어쨌든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이것으로 수업은 끝이다. Bonne Chance!”

가난과, 절망과, 패배감 따윈 평생 겪지 않을 여선생이 눈을 반짝이며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모른다. 삶은 동화처럼 모두에게 평등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왕의 딸들처럼 완벽하게 동일한 출발선에 서서 경쟁하지도 않는다. 나는 오히려 막내딸의 머리칼을 싹둑 잘라버린 여왕의 잔인함 때문에 그 이야기에 쉽게 공감하지 못했다. 그건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었다. 애초부터 풍성한 금발이 아니었고, 타의에 의해 잘린 머리카락 때문에 경쟁 대열에조차 끼지 못했던 일곱 번째의 딸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던 걸까?

그때 나는 책상에 엎드려 반쯤 잠에 취해 있었다. 나는 원소주기율표를 외우고, 함수를 푸는 반 아이들과 철저히 겹돌았다. 지칠 줄 모르고 덤벼드는 열등감 때문에 나는 내부로부터 꾸준히 붕괴되는 상태였다. 내가 사는 임대 아파트에서는 밤새 어린아이가 울었고, 사

람들이 악다구니를 쓰며 싸워 댔다. 더러운 오물 냄새와 비린 생선 냄새, 저녁밥 냄새가 눈물처럼 말라붙어 검열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삶인양 내게 아프게 들이댔다.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급속도로 늙어간다. 대학에 간다거나 연애를 하고, 멋진 직업을 갖겠다는 꿈같은 건 사치였다. 성인이 되기 전에 돈을 벌어야 하고, 냉소와 황량함으로 가득한 생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열여덟 살의 나는 조금도 더 살고 싶지 않았다. 미래는 점점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으로 내 숨을 옥죄어왔다. 식당에서 더러운 그릇을 닦고, 시든 야채 냄새와 튀김 기름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퇴근하던 어머니는 푸석푸석하게 시든 당신의 얼굴처럼 어두운 미래를 내게 선사했다. 나는 계급의 경계 위에서 발악하다 지쳐 나가떨어질 것이다. 첫 숨을 쉬는 순간부터 내 계급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출구 없는 현재와 암담한 미래. 그것이 열여덟 살의 내 삶 전체를 꿰뚫는 표현이었다. 나는 난폭한 자기혐오와 만성적인 무기력 사이에서 흔들리고, 허우적거렸다. 자살하든가 지옥 속에서 살든가. 화강암처럼 단단해지는 절망을 움켜쥐고 꾸준히 그 명제를 속으로만 삼키던 외롭고 막막한 날들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생은 언제나 가파르게 변주된다. 예고 없이, 불현듯, 갑자기. 내 열여덟 살의 삶을 오롯이 사로잡았던 죽음의 무게가 한꺼번에 질량을 잃고 가벼워졌다. 까마득하게 생이 휘몰아쳐도 나는 죽지 않고 버티고, 가능하면 있는 힘껏 살기로 했다. 그건 놀랍게도 또 우습게도 ‘사랑’ 때문이었다. 혹은 ‘환각’이었거나. 아니면 사랑이라는 헛것 같은 껍질을 뒤집어 쓴 ‘욕망’이었거나. 나는 그러한 생애 처음이었던 감정을 어떤 언어의 몸으로도 빚어낼 수 없었으므로 그저 낮간지럽게 사랑이라고 부를 뿐이다.

기타네 집에서 사촌이었던 은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 꾸밈없이 천진한 얼굴이 나에게 처음으로 ‘좋아한다’라고 말해 주었을 때, 나는 독한 몽유상태에서 깨어난 느낌이었다. 내 가난은 결국 흔해빠진 재앙일 뿐이고, 그 악몽이 살아있는 순간의 내 실존을 뿌리째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미래를 지망하던 은희. 좋은 직업의 부모를 두고, 고액 과외를 받으며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이 빛나던 은희. 그 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일은 쉬웠다. 내가 스무 살이 되고, 대학을 가거나 무언가를 갖게 되는 상상보다도 훨씬 더. 밑바닥에서 올라다 본 은희는 내가 감히 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그 애가 처음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다. 가슴 속을 소용돌이치며 흔들어대는 떨림과 슬픔이라는 극단의 감정 때문이었다. 은희는 너털한 내 삶 속으로 단 한번도 망설이지 않고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 들어왔고, 나는 견잡을 수 없는 내부의 균열로 휘청거렸다. 나는 완벽하게 그 애에게 홀려있었다. 그러나 이 갑작스럽고, 느닷없는 감정은 곧 서늘하게 좌절되고 말 터였다. 일생을 통틀어 그 사실을 그토록 선명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참. 오늘 은희가 올까? 넌 은희랑 아주 오래 못 만났지?”

현규가 내 얼굴을 쳐다보며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뭔가 알듯말듯하다는 현규의 그런 태도에 조금 짜증이 치밀었다.

“오랫만에 얼굴 한 번 봤으면 좋겠다.”

태호가 심상하게 대꾸했다.

까마득한 문자 이전의 선사 시대처럼 기록되지 않은 깨끗한 페이지로 남아있는 열여덟 살의 은희를 떠올린다. 계단을 뛰어 오르던 하얗고 가느단 발목. 긴 손가락과 손등 위에서 팔딱거리던 푸른 정맥.

우물 같이 깊고 검은 눈. 차가운 겨울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머리카락. 은희는 그런 헛것 같은 낱낱의 이미지로만 떠다녔다. 그 애는 내게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 문득 멈춰서리게 되는 통증, 혹은 생의 지층을 고요히 뒤흔드는 실체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었다.

“은희가 어떻게 사는지 혹시 알아?”

나는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다 마침내 은희의 이름을 무심한 듯 툭 꺼내 놓았다.

“얼마 전에 이혼했다는 얘길 들었던 거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편하고 살벌했다지 아마? 기태가 아프기 전에 작년 봄인가? 셋이서 같이 점심을 먹었던 적이 있어. 그때 보곤 못 봤지. 그때 얼굴이 많이 어둡더라고. 예뻐었는데 많이 지치고 늙어보였어. 솔직히 좀 많이 실망했어. 내 첫사랑이었는데, 이렇게 망가지는 게 싫어 씩씩하게도 했고. 여튼 옛날 옛적 우리 열여덟 살에 모두가 좋아했던 은희 아니냐?”

현규 녀석이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사실에 개인적인 감상까지 시시콜콜 덧붙이며 말했다. 알미운 새끼. 나는 일그러진 표정을 숨기려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담뱃갑을 찾았다.

“담배 좀 태우고.”

나는 신발을 꿰며 입구 쪽을 쳐다보았다. 저녁이 되자 장례식장에 조금씩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병원 응급실 근처 돌계단 쪽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찬바람을 쐬자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다.

‘우리 모두가 좋아했던 은희’

그 말은 오래되고 삭아버린, 어딘가 나쁘고 불온한 추억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촌스럽고 저열한 표현으로 느껴졌다. 은희라는 이름은 태호나 현규나 나를 가끔 철없이 빛나던 열여덟 살의 시간 속에 붙박아두는 안타까움으로 불러야 마땅했다. 바람이 우수수 푸른 나뭇잎을 뒤적거렸다.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의 소음 속에서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처음엔 나직하게 흐느끼는 듯 섬세하게 흐르던 음이 돌연 탁하게 가라앉았다가 순간 격렬한 알레그로 아지타토로 이어졌다. 동시에 응급실 쪽으로 들어오는 구급차의 다급한 경광등 소리가 불청객처럼 섞여 들었다. 두터운 공기의 결을 헤집으며 폭발하듯 튀어 오르는 소리가 검게 펼쳐진 어둠 속으로 후두둑 흩어졌다. 나는 꿈쩍없이 뒷에 채인 사람처럼 소리들에 사로잡힌 채 붙박힌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모자이크처럼 제각각의 무늬와 색을 갖춘 기억들이 다투듯 어지럽게 엉켜들었다.

‘괜찮니? 너 정말 괜찮아?’ 나직하고, 차분하게 내 귓가에서 울리며 나를 붙잡아 주던 은희의 목소리를 나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한다. 먼 곳 어딘가에서 울리던 피아노 소리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 섞여 들려서 처음에는 누군가가 부르는 노랫소리로 착각했었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고, 몹시 더운 여름날의 바람 한 점 없는 오후였다. 방학 동안 나는 학원비를 벌기 위해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피자 배달을 했었다. 은희는 내가 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에드워드 호퍼의 화집을 주겠다고 굳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3시쯤 짬을 내서 내가 사는 아파트 쪽으로 들르겠다고 갑작스럽게 통보를 해 오는 바람에 나는 좀 허둥거렸다. 옷장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은 낡은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거울 앞에서 꽤 오래 뜬을 들여 머리를 만졌다. 그리고 아파트를 나와 입구 쪽 주차장에 세워둔 스쿠터에 시동을 걸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쿵, 하고 위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무심코 위를 올려다보았고, 동시에 팔짱을 낀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어떤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단단하고, 무심한 얼굴이었다. 여자와 나의 눈이 공중에서 서로 부딪혔다. 처음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지 못했다. 아주 잠깐 동안 주위는 얇은 난막 같은 것에 둘러싸인 듯 고요했다. 그리고 곧 사람이 떨어져 내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황급히 소리가 난 아파트 화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떨어진 사람은 남자였다. 밝은 노란색 줄무늬 셔츠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사내를 안다. 새벽에 퇴근하는 그를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치곤 했었다. 그는 노란색 패턴의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고, 뭉툭하게 한 마디가 잘려나간 집게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의 눈은 기쁨이라든가 슬픔, 혹은 노여움 같은 감정 한줄기도 실어 내지 않는 무디고, 텅 빈 공동 그 자체였다. 그에게선 다만 그날그날의 노동에 지친 피곤만이 푹푹 묻어났다. 그는 아내와 자주 다투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그들이 험하게 싸우고, 집기를 깨부수는 소리가 벽을 타고 우리 집 안방까지 슬금슬금 넘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싸움은 여자의 그악한 울음소리와 함께 절정에 치달았다가 어김없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끝이 나곤 했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방금 추락한 사내의 아내였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작스럽게 위 내벽을 타고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다. 현기증이 났다. 역한 기운이 몰려들어 구토를 참을 수가 없었다. 어지

럽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다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다. 마치 잘못 짜여진, 군데군데 허술한 일일 통속극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울컥 눈물을 쏟아내듯 구토했다. 남편의 즉흥적인 자살에 무감한 아내의 눈동자를 나는 쉽게 떨쳐내지 못했다. 찌들대로 찌들고, 닳을대로 닳아버린 생의 무참한 알몸을 그토록 선정적으로 목도하게 되는 일은 참기 힘든 일이었다.

“괜찮니?”

그때 은희가 내 어깨에 손을 울리며 아득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햇빛이 붉었고, 먼 곳에서 바람결인 듯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너, 괜찮니? 걸어갈 수 있겠어?”

스쿠터 옆에 쭈그리고 앉아 토하고 있는 내 곁에 서서 물병을 건네며 은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버린 칼끝으로 위벽을 긁아대는 것 같은 고통 때문에 거의 눈을 뜨지 못할 지경이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위액까지 토해내며 그 쓰리고 극악한 맛을 혀끝에서 느끼고 있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은희를 쳐다보았다. 그 애를 보는 순간 내 안에서 격렬하게 푸닥거리를 하던 고통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듯 편안해졌다. 은희에게서 청량한 바람 냄새가 났다. 맑은 피아노 소리에 섞여 구급차의 경광등 소리가 혈관을 촘촘히 긁어댔다. 시간을 뒤흔들어 똑똑 분절해 버리는 것 같은 차갑고 날선 소리였다. 주위는 온통 핏빛으로 붉었다. 현실과 환상이 아찔하게 서로를 겨누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 경계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환각제를 들이미신 듯 비틀거렸다.

“괜찮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쥐어짜듯 목구멍에서 겨우 빠져나온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가슴 속으로 바람 한줄기가 들어왔다 훌쩍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 애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것 같은 참담한 기분을 애써 눌러 끄며 나는 방금 사람이 떨어져 내린 곳으로 시선을 던졌다. 남자가 떨어져 내린 아파트 화단에는 다 피운 담배꽂초와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빈 술병들,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와 더러운 오물 같은 것들이 성긴 어둠처럼 질척하게 엉겨 붙어 있었다. 적나라하게 내동댕이쳐진 생의 남루함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그 애와 나 사이는 이토록 꿈같이 멀었다. 낮과 밤사이의 틈처럼. 멸망한 고대 국가의 아득한 국경처럼.

살면서 반드시 비관적으로 끝나야 될 순간들이 있다. 그 순간이 바로 그랬다. 나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구급차가 사내의 시체를 수습하고 그의 아내가 구급차에 오르는 순간들을 빠짐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있던 은희의 손을 슬며시 놓았다. 은희의 투명한 눈동자가 의아하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던 그 순간을 나는 꽤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 그날 이후 다시는 은희를 만나지 못했다. 몸을 몇 번이나 뒤채며 돌아눕고, 웅크렸다 다시 돌아눕던 불면의 밤들과 환절기 몸살을 치르듯 아픈 몸으로 한 계절을 보내며 나는 터널 같이 어두운 열여덟 살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나는 담배 불을 끄고,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뭘 기대했던 걸까? 나는 피식 입가에 실소를 머금었다. 코트를 집어들며 현규에게 그만 슬슬 털고 일어나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규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마침내 은희가 왔는데, 안 보고 갈 참이야?”

나는 그제야 기태의 영정을 향해 절을 하는 은희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검은 정장 바지 밑으로 드러난 하얀 발목이 시리게 눈에 들어왔다. 망설여졌다. 꽤나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난감했다. 만나고 싶었지만 또 간절히 피하고 싶기도 했다. 은희는 결코 되돌아 갈 수 없는 안타까움, 다가오지 않는 간절함, 희미하게 멀어질수록 뚜렷해지는 결핍 그 자체였다. 그녀는 어쩌면 프랑수아 여선생이 얘기하던 동화 속 일곱 번째 딸의 잘린 머리카락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애초부터 내게 허락되지 않아 포기하기 쉬웠던 모든 것들을 통틀어 은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 애의 얼굴로 웃고, 그 애의 입으로 말하고, 그 애의 몸으로 구체화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은희가 기태의 아내와 몇 마디 나누고 마침내 그 여전히 까맣고 윤기 나는 맑은 눈으로 우리 쪽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툭, 하고 머릿속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은희가 얇은 미소를 띄며 우리를 보고 아는 체를 했다. 아주 오랫동안 서로 연락하고 지내 온 것처럼 심상하고 편한 얼굴이어서 혼자 곤두서있던 나 자신이 오히려 우습게 느껴질 정도였다.

“정말 오랜만이네.”

은희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마른 목소리였다.

웬지 섭섭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예사롭고 틀에 박힌 흔한 몇 마디의 안부 인사와 서로의 근황이 짝막하게 오고갔다. 은희의 우명한 눈동자는 좀 탁해보였고, 입술은

거칠게 부르터 있었다. 얼굴과 목에는 조금씩 살이 붙어서 어쩔 수 없이 완연한 시간의 흐름이 느껴졌다.

“이제 막 자리를 뜨던 참이야.”

별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아 내가 겨우 내뱉은 말이 그거였다.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대로 헤어지면 섭섭하지. 또 언제 만나겠어? 은희야, 어때? 괜찮다면 근처에서 우리끼리 술이나 한 잔 할래?”

홀로 명쾌하고, 단순하고, 매사 거리낌이 없는 현규가 별로 반갑지 않은 제안을 했다. 은희는 잠시 뜬눈을 들이더니 뭐, 그러는 것도 좋겠지. 마치 남의 말을 하듯 그렇게 말하곤 나와 태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아무렴 어떠랴 싶었다. 나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못 이기는 척 현규가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섰다.

장례식장을 나선 우리들은 잠시 방향을 잃고 거리에서 헤맸다. 거리엔 차고 황량한 어둠이 깃들었다. 이따금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난폭하게 튀어오르며 어둠 속으로 잘디 잔, 칼날 같은 빛을 뿌렸다. 길 거리는 질척거리는 소음과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붉은 정지 신호등에 멈춰 선 사람들의 입술은 거친 냉소로 일그러져있고, 저마다 오래 억눌린 비명과 공허한 절망을 울음처럼 삼킨 표정으로 정물처럼 서 있었다. 신호등 앞에 선 우리 넷의 얼굴도 쌍둥이처럼 같았다. 행복하거나 불행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순환을 거듭하는 생의 평범한 일상성을, 옛날식 사진관 앞에 걸린 가족사진처럼 진부하고 흔해빠져서 기억나지 않는 그저 무사한 하루들을, 망설임 없이 반복되는 현재의 시간들을, 그 모든 사소하고 초라한 것들을 우리는 생의 처음부터 원했다. 그것이 그토록 어려워서 우

회하고, 에두르고, 머뭇거리고, 주저앉는다.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불편함과 어색함 때문이었는지, 우리 넷은 두서없이 길거리를 헤매 다녔다. 그러다 마침내 작은 실내 포차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는 거의 9시가 넘어 있었다. 제법 긴 시간이 흘렀고, 각자 생업의 고통 속에 주저하며 더듬더듬 나아가느라 술잔을 기울일 만한 화제도, 복원할만한 기억도, 만만한 얘깃거리도 없었다. 우리는 하릴 없이 한동안 흑독하고 매서운 날씨 얘기와 기태의 투병기와 건강에 관한, 서로 제대로 듣지도 않는 도돌이표 같은 헛헛한 말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은희는 거의 말이 없이 가끔 얘기를 듣고 있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 올렸고, 간간히 제 잔에 술을 채웠다. 실내의 백열등 불빛이 은희의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이리저리 부딪히며 그녀의 얼굴과 목에 깊은 그늘을 드리웠다. 가끔 숙였던 고개를 들 때마다 시간에 무너지지 않은 단아한 이마가 드러났다. 허공에서 우리의 시선이 몇 번 엇갈렸고, 의미 없이 부딪쳤다. 나는 그녀의 단호하고 섬세한 이마와 귓잔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능선을 빈 눈길로 더듬었다. 연거푸 털어 넣은 술 때문이었던 걸까? 긴 시간으로 방부된, 원생대의 화석처럼 시간의 켜 사이에 음험하게 웅크리고 있던 환지통 같은 통증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낮간지러운 관능이 아랫도리로부터 온몸을 찌르르하게 휘감아왔다. 그녀가 내뱉는 모습과 자음들이 서로 엉키고 몸을 섞으며 내 귓속으로 출렁이듯 파고들었다. 몸의 감각들이 수다스럽게 일깨워지는 느낌이 불편해 나는 황급히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봤을 땐 정말 많이 어두워 보여서 맘이 좋지

않았어. 잘 해결된 거니?”

현규가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은희에게 물었다.

“음. 이전 남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무감해졌어. 문학 용어로 ‘객관적 상관물’이라 하나? 이전 제삼자의 시선으로 맘껏 빗대서 그 일들을 표현할 수 있을 지경이야. 작년 내내 그 난리통을 겪으면서 내밀하고 사적인 일들이 순식간에 객관화되어 버리는 현상을 겪었어.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 고통 따윈 보편적 현상이 되어 버리지. 팝콘을 씹으며 즐기는 따분한 장르 영화의 관습 같은 거랄까. 남편과 그토록 서로를 증오하고, 물어뜯었는데, 문득 그때를 떠올리면 헛웃음이 날 정도야. 시시때때로 날 어지럽히던 진창들이 이제와 생각해보면 게으르게 소파에 누워서 보던 아침드라마 이상으로 몰상식한 신파 같고 거짓말 같아. 그래서 결국 채널을 돌리게 되는.”

술이 들어가자 밧그레한 뺨으로 웃는 은희는 좀 편해보였고, 답지 않게 수다스러워졌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만큼 겸손하고, 진지하고, 맞춤형 말이 있을까 싶네.”

태호가 꼬치구이를 우물거리며 은희의 술잔에 술을 따랐다. 나는 뜬금없이 적도에는 존재하지 않을 마르고 깊은 사막과 그 무덤 같은 모래더미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상상했다. 평탄하고 그저 앞으로만 나아갈 것 같던 은희의 삶이 언제부터 뒤틀리고, 균열이 생기게 된 건지 나로서는 짐작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면 열린 문이 보이는데, 그 앞에 어둡고 깊은 숲이 가로막혀 있어서 나갈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림을 혹시 알아? 그때 내 처지가 딱 바로 그랬어. 그 그림 속 계단 위에 언제까지나 갇혀 있는

것만 같은 날들이 무섭게 반복되고, 난 너무나 허약해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내 디을 수 없었어. 우물쭈물하고, 기진맥진했지.”

은희가 생일날 내게 선물했던 에드워드 호퍼의 화집에 실려 있던 그 그림을 기억한다.

『계단』 1949년작.

계단이 있는 안쪽 세계와 문이 열린 바깥쪽 세상 어디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기묘한 그림이었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나 자신이 그 어두운 계단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기분이 들었었다. 두 세계와 완벽하게 불화하는 타자로서의 나. 차마 몸을 섞을 수도, 도무지 화해할 수도 없는 완전한 이방인으로서의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게 되는 그림. 고작 열여덟 살에 내가 느꼈던 그 아득한 고립감을 한참을 돌아와 만나 이제는 어른이 된 은희가 새삼 일깨워 주었다. 계단의 위쪽에 서 있든 아래쪽에 서 있든 결국 우리는 둘 다 바깥으로 단 한 발자욱도 떼지 못한 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걸까?

“이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네. 처음 기태가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땐 참을 수 없이 괴로웠어. 정말 오랫동안 서럽게 울었지. 기태는 사춘이었지만 우린 형제보다 가까웠거든. 그런데 긴 투병 생활이 이어지고 시간이 흐르니까 슬픔도 표백이 되더라. 죽음도 어느 순간 당연해지고. 그런 걸 보면 인간이란 기본 바탕 자체가 긍정적인 것 같아. 가벼워지려는 강박증에라도 걸린 것처럼 기를 쓰고 잊으려하고, 자신의 불행을 보편화하고 객관화하려 들거든. 자,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따분하고, 사적

으로 본다면 비극적인 얘기 하나 해줄게. 도벽이 있는 어떤 남자가 있었어. 도벽이란 일종의 정신병이지. 근데 이 남자의 도벽은 이상한 방식으로 발현이 되는 거야. 자신이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의 물건을 조금씩 훔치는 거지. 교수였던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평소에는 수줍고 예의 바른, 또 꽤나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친한 친구도, 애인도 그리고 부모조차도 그런 그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몰랐던 거지. 그는 아주 오랫동안 지킬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질적인 성격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잘 살아왔어. 물론 친구들 중 사소하게 물건을 잊어버린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고 해. 그렇지만 모두 스스로의 부주의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겠지. 문제는 그가 결혼을 하고 나서 부터였어. 아내와의 사소한 말다툼이 쌓이고, 단순한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이 점점 커지면서 마침내 그는 아내를 미워하다 증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 그는 조금씩 아내의 옷을 훔쳤고, 아내의 구두를, 아내가 아끼는 화집들을, 그리고 아내가 그린 그림들을 훔쳐냈어. 아내는 점점 이상한 낄새를 느꼈겠지.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그녀의 소지품들을 훔쳐서 창고나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다는 경악스런 사실을 알게 됐어. 처음에는 그녀도 남편과 좋게 이야기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그가 결국 아내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결혼반지까지 훔쳐냈을 때 더는 참을 수가 없어졌어. 그렇게 그 결혼은 완전히 끝장이 나 버린 거지.”

은희가 담담한 말투로 그 이야기를 끝냈을 때, 우리 모두는 그것이 은희에게 일어났던 지극히 개별적이고, 내밀한 상처였음을 짐작했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의연하고, 꾸밈없는 화법 때문에 흔한 여성

잡지의 싸구려 가십난을 읽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몇 잔의 술이 오가고, 여러 개의 술병이 바닥을 드러낼 때쯤 우리는 술집을 나섰다. 다시 언제 만나게 될지 기약도 없었다. 우리는 만나서 반가웠다. 다음에 또 보자 따위의 의례적이고 관습적인 몇 마디 인사를 나눴다. 현규는 취해서 조금 비틀거리는 은희를 내게 맡기고 태호와 슬쩍 꺼져버렸다. 나는 촌스럽고, 노골적인 그의 행동에 쓸쓸하게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걸을 수 있겠니?”

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은희는 괜찮다고 대답하곤 이내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나는 택시를 잡기 위해 횡단보도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은희의 한쪽 발이 푹 꺾이더니 몸이 균형을 잃고 종잇장처럼 가볍게 쓰러졌다. 너무 순식간이어서 당황했다. 나는 재빠르게 그녀에게로 다가가 한쪽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녀의 한쪽 팔을 내 어깨에 두르고,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잡았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몸이 밀착했다. 그녀의 체온이 내 팔에 전해졌다.

“미안해. 창피하게 해서.”

은희의 창백한 뺨이 내 어깨에 닿았다.

“좀 걸을래? 장례식장 근처 주차장에 내 차가 있으니깐 일단 그리로 가자. 대리를 부를게.”

“변명 같지만 취해서 이러는 게 아냐. 나 저혈압이 있거든. 조금만 누워있으면 괜찮을 거야. 아주 잠깐이면 돼”

주차장까지는 비교적 짧은 거리였으므로 조금 걷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움켜쥐고 걸었다. 굉장히 불편하고 우스꽝스런 모습

이었으므로 나는 내내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내게 무방비하게 기대오는 은희의 몸은 작고, 또 지나치게 가벼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겨우 주차장에 도착해 자동차 뒷좌석 문을 열고, 은희의 허리를 감았던 팔을 풀었다. 흐릿한 외등 불빛이 은희의 파르르 떠는 속눈썹 위에 부딪혀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순간 나는 “은희야”, 하고 생의 첫울음을 울듯이,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이름을 애타게 찾듯이, 그렇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그녀가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려 내 허리를 둘렀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당겨 안았다.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나는 그녀의 등 뒤로 펼쳐진 겹겹의 어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내 품안에서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몸은 헛것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메마르고 까슬까슬한 입술에 키스했다. 그녀의 입에선 술 냄새와 마른 꿀꺽질 냄새가 났다. 그녀의 혀가 밀려 들어오고, 그녀의 타액이 내 입술을 부드럽게 적셨다. 그녀의 몸과, 냄새와 질감을 분명하게 확인한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바스락, 거리며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황급히 입술을 뗐다. 가파르게 오르내리던 감정의 격랑이 어이 없이 가라앉았다. 나를 뻥히 쳐다보는 그녀의 눈동자 속으로 빛과 어둠이, 내 안의 나직한 울음소리가, 비탈에서 있는 것만 같던 위태로운 순간들이, 그리고 기약 없는 미래가 한꺼번에 침묵하듯 잠겨들었다.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묵은 감정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급속도로 차가워졌다. 대리를 부를까 잠시 망설였다. 은희는 뒷자석에 몸을 누이고, 이마에 한쪽 팔을 올린 채 잠자는 듯 눈을 감고 있어서 표정을 볼 수 없었다. 뭐, 아주 잠깐이면 되

겠지. 나는 자동차 앞좌석 문을 열고, 시트를 조금 젖히고 앉아 눈을 감았다. 사위는 조용했다.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넌 여전하구나.”

이윽고 은희가 잠에 취한 것같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뭐가?”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난 곧 뉴질랜드로 떠날 거고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여긴 이제 기태도 없으니까 맘 둘 곳도 없고……, 그리고 오늘 널 만나게 돼서 많이 반가웠어. 잘 살아.”

어쩐지 그 말은 좀 서럽게 들렸다. 적막한 침묵 속에 우리는 하염 없이 갇혀있었다. 접속사 없는 문장처럼 우리는 각자 홀로 통곡하듯 외로워졌다. 각질 같은 푸석한 어둠이 와락 덤벼들었다. 왜 이렇게 참담한 기분이 드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술이 깨면 은희는 건널목을 건너 첫 번째로 다가오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마냥 흘러가 버릴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붙잡아 두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이름으로 불렀던, 내가 애초에 닿을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수백만 년의 전의 먼 시간처럼 상상할 수 없는 아득함으로 기억이 멀어지고 말 것이다.

나는 어둠이 빼곡히 들어찬 내 집, 차갑게 식은 무덤 같은 내 방으로 돌아가 짧은 잠을 청하느라 몸을 몇 번이나 뒤채고, 돌아눕고 할 것이다. 갑각류의 껍질처럼 단단한 장막을 치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권태롭고, 그저 무의미한 날들을 아주 잘 살아낼 것이다.

동상



전남보성초등학교
김용구

당선 작가 수상 소감



내가 쓰는 문장 하나하나가 어떤 치유의 힘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해 봅니다. 글쓰기가 나를 위로하고 내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겠지요. 사랑하는 아내 경희, 보석 같은 딸 민정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소설 속 인물을 만들어 준 어머니, 요양원에 계신 장모님께 이 글을 드립니다.

겨울 햇살

철주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했다.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기도 했다. 철주는 몸을 움직여 보려 했다. 그러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앙상하게 말라붙은 어머니의 얼굴이 철주의 몽롱한 의식 속으로 빠르게 스쳐갔다. 철주는 눈을 번쩍 떴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미정은 기척도 없이 굳히 잠들어 있다. 어젯밤 둘은 늦게까지 말다툼을 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설날에 집으로 모셔 오자고 이야기한 것이 화근이었다.

철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었다. 꿈은 아닌 것 같았다. 철주는 행여 미정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다. 철주의 시선이 대문을 향했을 때 달그락달그락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골목길에서 들려왔다.

철주는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어슴푸레한 골목길에 익숙한 뒷모습의 노인이 유모차에 몸을 의지한 채 느리게 걸어가고 있었다. 낙원택이었다.

“성규 어머니…….”

철주는 노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노인을 큰 소리로 불렀다. 낙원택은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한 듯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철주는 낙원택을 향해 켜걸음으로 다가가며 다시 한번 낙원택을 큰소리로 불렀다.

“어머니…….”

그때서야 낙원택은 인기척을 느낀 듯 뒤를 돌아보았다.

“일어났는가, 잠자는데 내가 깨웠당가?”

낙원택은 눈 밑까지 칭칭 둘러맨 목도리 때문에 말하기가 불편했는지 목도리를 두어 번 풀어냈다.

“아니에요, 막 일어나던 참이었어요.”

철주는 낙원택이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까닭이 궁금했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먼저 낙원택을 안심시켰다.

“날도 추운데 이 아침에 무슨 일이에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세요?”

“아니 괜찮네, 근디…….”

낙원택은 뭔가 말을 하려다 머뭇거리며 철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낙원택이 아침부터 서둘러 철주의 집을 찾아온 것은 어제 낮에 마을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다. 웅촌리는 대암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시골 마을이다. 웅촌리 노인들은 낮에는 거의 경로당에 모여 시간을 보냈다. 노인들은 오전에는 집안에서 소일을 하고 점심을 그럭저럭 해결한 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 둘 경로당으로 모여들었다. 낙원택의 하루 일과도 다른 노인들과 별 다를 것은 없었다.

낙원택은 어제도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유모차에 의지해 경로당으로 나갔다. 경로당 방안에서는 노인 몇이 화투판을 벌이고 있

고, 몇은 누워 있거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낙원택이 방에 들어서도 노인들 중 두엇을 빼고는 낙원택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낙원택은 이런 광경에 익숙했다. 나이로 치자면 경로당에 나온 노인들 중에서 정호 할매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나이는 노인들 사이에서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했다. 경로당에서의 위세는 자식들이 얼마나 경로당에 신경을 써 주는 가로 결정되었다.

웅촌리 출신 청년 대부분은 마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인구 20만의 소도시 회령에 터전을 잡고 살면서, 주말이면 부모의 안부를 확인하러 웅촌리에 들렀다. 경로당이 마을 초입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집에 가기 전에 으레 빵이나 두유, 라면 같은 간식을 사들고 경로당 문을 두드렸다. 간식은 노인들의 먹거리도 되었지만, 누구 자식이 될 사오고, 누구 자식은 뭘 가지고 왔네 하며 두고두고 노인들의 이야깃거리도 되었다. 그 중에 가장 칭송을 듣는 자식은, 회령에 있는 식당을 예약하여 주기적으로 노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자식이었다. 당연히 그 부모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노인들 사이에서도 대우를 받았다.

낙원택도 막내아들 성규가 회령에서 사업을 하며 살았을 때까지만 해도 웅촌리에서 이런 대우를 받지는 않았다. 성규가 회령시에서 웅촌리 향우회장을 맡으면서 동네에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성규는 어렸을 때부터 붙임성이 좋고 인사성이 밝아 늘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아이였다. 성인이 되어서는 일찌감치 사업을 시작해 회령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면서 동네 청년들 중에서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동네 유사만 있으면 포레 청년 누구보다도 큰돈을 내놓고는 했다. 동네 사람들도 낙원

택 앞에서 수시로 성규 칭찬을 했다. 그러나 5년 전 낙원택의 남편이 폐암으로 죽던 해,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성규가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동네에서 낙원택의 위신도 급속하게 달라졌다.

영감이 할멈보다 먼저 죽은 것이야 시골 마을에서는 다반사였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떠난 것은 위축될 일도 아니었다. 문제는 성규의 동네 친구 몇 명이 성규에게 돈을 융통해 줬다는 사실을 그 부모들이 알게 된 후였다. 이듬해 성규가 재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문까지 퍼지자 낙원택을 대하는 노인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부도가 난 이후 성규는 동네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3년 전 사람들 눈을 피해 밤늦게 집에 와서 낙원택 얼굴만 보고 새벽에 쫓기듯 가기는 했지만 동네에 얼굴을 내밀 수는 없었다. 그 후로는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물을 뿐이었다. 최근에는 전화마저도 뜬해 낙원택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성규가 회령을 떠난 뒤로 낙원택은 꽤 오랫동안 경로당에 나가지 않았다. 노인들의 차가운 눈초리도 부담됐지만, 자식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해 이런 사단이 났다는 자괴감 같은 것이 발길을 붙들어 댔다. 성규의 공장이 부도나기 전, 마지막 남은 논마저 처분한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도 후회가 됐다. 영감이라도 살아 있었다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으리라. 서울과 속초에 사는 두 딸이 가끔 용돈을 보내주긴 했지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약값과 먹을 양식을 사고 나면 빠듯한 정도였다. 딸들도 형편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낙원택도 잘 알고 있었다. 작년 가을부터 옆집 대서택의 권유에 못 이겨 경로당에 다시 나가는 했지만, 여전히 껄끄러움은

남아있었고 낙원택을 대하는 노인들의 태도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

“아따 안 흡소. 따시게 좀 입고 다니제.”

화투판을 구경하며 누워있던 대서택이 몸을 일으켰다.

“이리 와서 손 좀 녹이시오.”

대서택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춰 올리며 손으로 방바닥을 짚었다.

낙원택은 대서택 옆으로 가서 이불 한쪽을 무릎 위에 덮었다.

“한 판 실라네. 이번 판은 패가 영 아니네. 잘들 해 봐.”

월등택이 쥐고 있던 화투패를 담요 위에 뒤집어 놓고, 바구니에 담긴 고구마를 집어 한입 베어 물었다.

“왔소?”

월등택은 그때서야 낙원택이 보인다는 듯 고구마를 우물거리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월등택은 노인들 중에서도 유독 낙원택에게 차갑게 대했다. 월등택의 둘째 아들 명수가 성규의 보증을 선 까닭에 몇 년째 고생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회령에 있는 명수의 아파트까지 압류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월등택은 회령 시장에서 오랫동안 채소 장사를 해서 자식들을 키웠다. 젊은 시절 워낙 가난했기에 돈에 대한 한도 있었고, 수십 년간 고생하며 장사를 해서 그런지 욕심도 많고 말심도 좋은 노인네였다.

“날이 춥네.”

낙원택도 월등택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다.

화투패가 한 번 더 돌 무렵, 월등택이 고구마를 한입 더 베어 물더니 노인들을 향해 말을 쏟아냈다.

“풍양택이 인자 완전히 들어가부렀다구먼.”

방 안에 있던 노인들의 시선이 모두 월등택을 향했다.

“풍양택이 어디를 들어갔다구요?”

대서택이 베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며 월등택을 쳐다봤다.

“아, 요양원에 들어앉아부렀다고. 회령 넘어가는 길에 새로 생긴 요양원 안 있던가, 효자 요양원이라더냐 뭐라더냐. 어제 회령 장에 갔다가 철주 장모를 만났는데 인자 퐁오줌도 치신을 못한께 철주가 넣어부렀다고 하더만. 참 그 할망구도 복이 없어. 젊어서 그리 고생하고 인자 자식들이 그락저락 좀 살만한께 몸이 아파가지고, 노망만 안 왔어도 어찌 견딜만했을 것인다.”

“철주가 일부러 그랬을라구요. 풍양택이 많이 아프니까 그랬겠지요.”

대서택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월등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 병 앞에 효자 있단가, 회령 노인 병원에 있을 때 그냥 놔두제 뭇흘라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번거롭게 고생을 해. 어차피 또 요양원에 들어앉힐 것을.”

“회령 노인 병원에서는 노인네가 더 안 좋아지고 옴까지 옹아서는 고생해서 철주가 데리고 나왔다 안그럽디어.”

대서택이 사정을 잘 안다는 듯 말했다.

“우리 동네 노인들 요양원에 잘도 들어가네. 벌써 네 번째 아닌가, 인자는 자식들이 넣기 전에 아프면 알아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세상이어. 요새는 나라에서 보조해 줘서 돈도 많이 안든다 그러더만. 먹고 살기 힘들고 아픈 노인네들은 면사무소에다가 말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제. 그래야 혼자 살다가 겨울에 얼어 죽고 그런 불상사는 면하제.”

월등택이 말을 쏟아내다가 낙원택을 힐끗 바라봤다.

“뭘 소리여, 늙어 병신이 되어도 내 집에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지, 뭐가 좋다고 요양원 같은 데를 들어가.”

천 영감이 화투패 하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위매,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된다고요. 글고 요새 세상에 누가 병든 부모 병수발 든다고, 자식새끼들이 즈그들 먹고 살기도 바쁘디 부모 똥오줌 치운시름 살 거 같소? 병철이가 그리 한답디어, 병철이 각시가 그리 한답디어?”

월등덕도 지지 않고 말꼬리를 물었다.

“어디에 있는 요양원이라 했는가?”

월등덕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낙원덕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 회령 넘어가는 길에 새로 생긴 요양원이라고 안 그랬소, 말을 잘 들어야지.”

월등덕은 귀찮다는 듯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풍양덕의 근황을 들은 낙원덕은 마음이 아팠다. 풍양덕의 병세가 심해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나빠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동갑내기로 웅촌리에 시집와서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나누며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친구가 풍양덕이었다. 늙어 병이 들면서 점차 왕래가 적어졌지만 낙원덕은 풍양덕에 대한 애잔함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낙원덕은 밤에 잠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풍양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낙원덕은 풍양덕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풍양덕의 집에 점차 발길을 끊은 것이 미안했다. 재작년 봄까지만 해도 어렵게라도 의사소통이 되었지만, 풍양덕의 치매가 점점 심해져 언젠가부터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가 없었다. 작년에 순덕이 어매가 요

양원으로 가고 풍양택까지 그렇게 되자 낙원택의 마음은 더욱 허해졌다. 자신의 미래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무릎을 구부릴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한 날이 많아졌고,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입맛도 없어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아졌다. 육신의 고통이야 어떻게든 견뎌내고 흘려보낼 수 있었지만 연락 없는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려왔다. 몇 년 동안 집에 오지 못하는 자식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자식의 마음은 오죽할까를 생각하면 낙원택의 가슴은 미어졌다. 낙원택은 매일 밤, 자다가 그냥 조용히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만약 중풍이나 치매라도 덜 커 와버린다면 그 이후의 삶은 상상하기 싫었다. 또래의 노인들이 하나 둘 편치 않은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낙원택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다.

낙원택은 새벽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생각의 가지는 뻗고 또 뻗어나갔다. 낙원택은 문득 풍양택의 보행기를 떠올렸다. 무슨 애먼 생각이냐며 잠시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지만, 그 생각은 그냥 지나칠 만한 것이 아니었다. 낙원택은 관절염이 심해진 뒤로 옆집 대서택 손자가 쓰던 유모차를 얻어 3년 넘게 사용해왔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유모차 바퀴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더니 최근에는 유모차가 잘 굴러가지 않을 정도까지 되어버렸다. 낙원택은 동네에 쓰지 않는 유모차라도 있으면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아이들이 귀한 시골 마을에서 유모차를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낙원택은 유모차 대신 풍양택의 보행기를 끌고 다녀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오히려 노인용 보행기가 유모차보다 끌고 다니

기에는 더 나올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풍양택의 처지와 철주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사정을 말하면 철주도 동의해 줄 것이다. 어차피 풍양택은 당장은 쓰지 못할 물건 아닌가, 날이 밝으면 철주가 출근하기 전에 풍양택 집에 가서 보행기를 빌려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서야 낙원택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철주는 낙원택이 무슨 말을 꺼내려다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정말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다.

“사실은 내가 자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리 찾아왔네.”

낙원택은 철주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무슨 부탁이시길래…….”

“어이 철주, 자네 어머니 요양원에 다시 들어가셨다며, 많이 안 좋아지셨는가?”

낙원택은 보행기 이야기를 바로 꺼낼 수가 없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철주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 계실 때라도 내가 자주 와볼 것을 그랬네. 자네가 영 마음이 안 좋겠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지요.”

“설 지나고 회령 갈 일 있으면 꼭 들러보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니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가더라도 못 알아보실 거예요.”

“그래도 어찌 사람이 그런당가, 자네 마음은 알았으께 내가 알아서 함세.”

낙원택은 이제는 보행기 이야기를 꺼내도 되겠다 싶어 속에 있는 말을 조심스레 꺼냈다.

“어이 철주, 자네 어머니가 쓰던 보행기 안 있는가?”

철주는 토방 한쪽에 세워져 있는 어머니의 보행기를 떠올렸다.

“예, 집에 있습니다.”

“어이, 나 그거 어머니 요양원에 계실 때까지만 좀 써도 되겠는가, 어머니 나오면 바로 돌려주세요.”

낙원택은 보행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쉽지 않았다는 듯 눈빛에 미안함을 담고 있었다.

“어머니 보행기를요…….”

철주의 머릿속에는 몇 가지 생각이 빠르게 교차했다. 철주는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심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어머니는 십여 년 전쯤부터 허리병을 앓았다. 철주와 가족들은 어머니의 허리 통증 원인이 단순히 척추뼈의 이상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대학병원에서 어머니의 병이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병은 한참 진행된 뒤였다. 3년 전부터는 치매까지 덮쳐 어머니의 노년을 괴롭혔다. 처음에 어머니는 보행기를 마다했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근육이 점차 굳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진 뒤로는 보행기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었다. 철주는 어머니를 생각해 일부러 보기도 좋고 끌기에도 편한 보행기를 사드렸다. 보행기는 수년 간 어머니의 분신이였다. 지금은 어머니가 사용할 수 없는 처지지만, 그렇다고 보행기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자네도 보다시피 나도 유모차가 있는데 이것이 바퀴가 고장이 나

서 잘 안 굴러간단 말이지. 어디 안 쓰는 유모차라도 하나 구해볼라고 해도 구하기가 쉽지 않구만. 그렇다고 돈 주고 살 형편도 못되고…….”

낙원택은 철주가 망설이는 것을 느낀 듯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미안하네, 내가 뭘 욕심이 생겨서 이걸 얻을라고 허는가 모르겠네.”

낙원택은 다시 한번 미안함을 표현했다. 철주는 낙원택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낙원택의 부탁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어머니 갖다 쓰세요. 저희 어머니 나오시면 그때 돌려주시고요.”

“성규한테서는 가끔 전화는 오나요?”

철주는 보행기 이야기는 끝났다는 듯 성규의 안부로 화제를 돌렸다. 성규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지내온 죽마고우였다. 성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몇 년째 연락 한번 없는 것이 서운하기도 했고 걱정도 됐다. 성규가 부도나기 전 자신에게 찾아와 대출을 부탁했을 때 담보나 보증 없이는 안된다고 매몰차게 대했던 것도 늘 마음에 걸렸다.

“가끔 전화는 오네.”

낙원택은 성규에게 전화 온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성규한테 전화 오면 제가 안부 묻더라고, 꼭 연락 한번 하란다고 전해주세요.”

“어이 알았네.”

“유모차는 출근길에 제가 차에 실어서 집에 갖다 드릴게요. 놔두

고 가세요.”

“그럴랑가, 고맙네. 보행기는 조심히 쓰다가 어머니 나오면 바로 돌려줍세. 고맙네, 고맙네.”

낙원택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다. 철주는 집에서 어머니의 보행기를 가져와 낙원택에게 건넸다. 그리고 보행기를 끌고 가는 낙원택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철주는 낙원택의 유모차를 어머니의 보행기가 놓여있던 자리에 세워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유모차는 바퀴를 잡아주는 볼트가 빠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철주는 가슴 한 구석이 저러왔다.

낙원택은 설날에 자식들 누구 하나 온다는 말은 없었지만, 나물 몇 가지를 다듬어 놓고 오후 느지막이 경로당에 보행기를 끌고 나갔다. 풍양택의 보행기는 낙원택이 끌고 다니던 유모차보다 훨씬 끌기에도 편하고 잘 굴러갔다. 낙원택은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낙원택이 경로당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필 월등택이 반대편 골목에서 경로당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낙원택은 자신의 유모차가 보행기로 바뀐 것을 노인들이 모르고 넘어가길 원했다. 눈썰미가 없는 사람은 잘 모를 것이고, 혹시 바뀐 걸 알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 낙원택은 월등택이 평소처럼 인사 없이 경로당으로 들어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것은 낙원택의 바람일 뿐이었다.

“못보던 것인디, 유모차 바꿨소?”

월등택이 보행기와 낙원택을 번갈아보며 말했다.

“가만히 본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디.”

월등택은 보행기를 이리저리 유심히 살피봤다.

“어디서 얻었네…….”

낙원택은 말끝을 흐리며 보행기를 세워 놓고 경로당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날씨가 추운 데다 설 준비를 하러 시장에 간 노인들이 많은지 다른 날에 비해 노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오늘은 대서택도 보이지 않았다. 낙원택은 더 이상 월등택이 보행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를 바랐다. 월등택은 낙원택이 방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참 동안 보행기를 살피다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저거 많이 본 거 같은디 어디서 났소? 혹시 풍양택 거 아니요?”

월등택은 보행기의 정체를 알았다는 듯 방으로 들어서면서 낙원택을 쳐다봤다.

“분명히 풍양택 거 같은디.”

낙원택은 대답을 하지 않고 머뭇거렸다.

“왜 대답을 안허요, 풍양택 거 맞지라?”

월등택은 마치 취조를 하듯 물었다.

“그래 맞네. 자네도 알다시피 내 유모차가 고장나서 바퀴가 잘 안 굴러가지 않는가, 아침에 철주한테 사정을 말하고 빌려왔네. 풍양택 나오면 바로 돌려주기로 했고.”

낙원택은 월등택에게 보행기의 정체를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월등택의 드센 말투에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월등택이 낙원택의 사정을 안중에 둘 리 없었다.

“아, 그래도 그렇지. 풍양택이 요양원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다

고, 철주 보기 미안하지도 않습디어? 노인네가 욕심이 많아가지고서는, 당장 갖다 주시오. 더 욕 얻어먹기 전에.”

월등택은 마치 낙원택이 풍양택의 보행기를 훔쳐오기라도 한 것처럼 낙원택을 몰아세웠다.

“이 노인네 풍양택 죽으면 이것저것 쓸 만한 것 있으면 챙겨오고도 남을 노인네네. 나 같으면 철주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리는 못하겠네. 보행기 주면서 철주 마음이 어땠을까이.”

월등택은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계속해서 낙원택을 다그쳤다. 월등택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낙원택의 가슴을 후벼팠다. 낙원택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대신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두 눈에 그렁그렁 맺혔다.

“아파 그만 허소, 어차피 풍양택은 당장은 쓰지도 못할 물건인데 좀 빌려 쓰면 어떻단가, 글고 잠시 쓰다가 풍양택 나오면 돌려준다고 허잖여.”

낙원택의 상기된 얼굴을 본 천 영감이 재빨리 월등택의 말을 끊었다.

낙원택은 월등택이 야속했다. 풍양택과는 흥금을 터놓고 지내온 친구 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모질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물론 성규의 부도로 인해 자기 자식이 고통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백번도 이해하지만, 세상살이가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디 늙은이의 탐욕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져왔단 말인가. 이 말이 입 속에서 몇 번이나 맴돌았지만 차마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그때 이장이 경로당 방문을 열지 않았다면 낙원택은 꿈쩍없이 눈물 바람을 할 뻔했다. 꼭 눌러 참은 눈물이 조금씩 눈가로 흘러내리

려 할 때 이장이 경로당 방문을 덜컥 열었다.

“모레가 설날인데 동네 청소 한번 합시다. 내일 아침 일찍 울력할 것인데 다들 참석하시오들.”

이장 김두만은 올해로 칠십이다. 마을에 이장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다보니 이십 년 넘게 이장 직을 맡아 오고 있었다. 성격이 급해 가끔 오해를 사는 일도 있지만, 뒤끝이 없고 일 처리를 잘해 마을 사람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다. 이장은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이 모두 자기보다 연장자였지만 울력 나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명령조로 전달했다.

웅촌리 노인들은 팔십이 넘어서도 호미질할 힘만 있으면 마을 울력에 참석해야 했다.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이 몇 없는데다 누군가는 마을 청소를 해야 했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작년 추석 무렵, 나이가 팔십이 넘었는데 계속 울력에 나가야 하느냐고 정호 할매가 한마디 했다가 이장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 걸 다들 알고 있었다. 낙원택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더 이상 못 나가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노인들도 울력을 하는 게 당연한 마을의 분위기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내일 아침 먹기 전에 얼른 해봅시다. 한 집에 한 명은 꼭 나와야 됩니다.”

이장은 한 집에 한 명을 강조하며 방문을 닫았다.

“살살 하면 되지, 어디 울력 한두 번 하는가?”

천 영감이 노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울력 이야기로 화제가 돌아 월등택은 더 이상 보행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낙원택은 오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보행기가 풍양택의 것이

라는 것을 월등택이 알아버린 이상, 보행기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소리를 할 게 뻔했다. 오늘 경로당에 나오지 않은 다른 노인들의 귀에도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대놓고 말은 안하더라도 못마땅해 할 노인도 여럿 있을 것이다.

낙원택은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을 나섰다. 눈이 오려는지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 앉아 있었다. 낙원택은 집으로 가는 길과 반대쪽에 있는 풍양택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보행기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낙원택은 보행기를 끌고 한참을 걸어 풍양택 집에 도착했다. 열린 대문 사이로 마당을 보니 풍양택 손자 영찬이가 놀고 있었다.

“아가, 이거 느그 할머니 보행기인데, 아빠 퇴근하시거든 아래뜰 은서 할머니가 잘 쓰고 갖다 놔다고 말해라이.”

보행기를 건네받은 영찬이는 마치 장난감 자동차를 타듯 한쪽 발을 올리고 보행기를 마당 끝까지 빠르게 밀고 나갔다.

어둠이 웅촌리를 둘러쌌다. 선달 매서운 바람이 골목을 걸어가는 낙원택을 세차게 할퀴고 지나갔다. 멀리 어둠에 싸인 집이 보였다. 낙원택은 절룩거리며 걸어가다 멈추고, 담벼락에 기대어 쉬었다가 걷기를 반복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낙원택을 맞아주는 건 하지만 앙상하게 남은 감나무 한 그루뿐이었다. 낙원택은 방으로 들어가 전기장판에 전원을 넣었다. 낙원택은 틀니를 입에서 빼내어 머리맡에 놓고 회색 털모자를 머리에 눌러 썼다. 밥통에 식은 밥이 남아 있었지

만 저녁 생각은 나지 않았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 TV를 켜다. 일일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었다. TV를 보던 낙원택의 시선이 잠시 전화기로 향했다. 방안의 옷풍이 낙원택의 머리를 휘감았다. 낙원택은 이불을 머리 위까지 한껏 끌어올렸다.

철주는 출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미정은 더 이상 남편의 의견에 반대할 수 없었다. 명절을 앞두고 싸워봤자 서로가 손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또 명절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 따뜻한 밥 한 끼 챙겨드리고 싶어 하는 자식의 마음을 탓할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남편의 생각이 어머니에게는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철주도 미정이 어머니를 집에 모셔 오고 싶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심해져 회령시에서 응촌리로 들어가 살자고 했을 때, 두말없이 시골로 들어온 아내였다. 그 후로 3년 넘게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었고, 어머니가 회령 노인 병원에 입원했다가 옴이 옴아 온몸을 긁어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때도,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 온몸 구석구석 연고를 발라주면서 어머니가 불쌍하다며 밤새 울던 아내였다.

미정이 설날에 어머니를 집에 모셔 오는 것을 반대한 것은 효자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당부 때문이었다. 요양보호사는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당분간 외출은 하지 않는 게 어머니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식들의 호의에 노인들이 집에 다녀올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더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다. 철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처음 회령시에 있는 노인 병

원에 입원했을 때도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적이 있었다. 그때도 집에서 병원으로 돌아갈 때면 어머니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철주는 그때의 어머니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그때보다도 좋지 않다. 그래도 설날만큼은 어머니를 집에 모셔 오고 싶었다. 새로 옮긴 요양원이 아무리 가정식 요양원이라지만 명절에 요양원에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많이는 못 드시지만 집에 모셔와 이것저것 명절 음식을 챙겨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루 종일 사무실은 명절을 앞두고 돈을 찾거나 보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다른 직원들은 마감 준비에 정신없었다. 철주는 박 대리에게 뒷마무리를 부탁하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눈이 오려는지 하늘이 잔뜩 흐려있었다. 거리는 명절 준비를 하러 나온 차들로 복잡했다. 효자 요양원은 회령을 막 빠져나와 재를 하나 넘으면 금천산 가는 길 좌측에 자리 잡고 있다. 요양원에 들러 어머니를 모시고 웅촌리에 도착하면 7시쯤 될 것이다.

고개를 넘어서자 도로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금천산 방향으로 삼 킬로쯤 더 가자 효자 요양원의 불빛이 보였다. 철주는 요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요양보호사의 차인지 경차 한 대만이 주차장 한 칸에 세워져 있었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까닭인지 요양원의 저녁은 더 적막해 보였다.

철주는 요양원 현관 앞으로 다가섰다. 현관 옆 작은 창문 너머로 요양원 거실이 보였다. 거실 천장에는 열은 조명등이 켜져 있고, 거실 가장자리에 긴 소파 하나가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TV는 꺼져 있었

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철주는 노인들의 저녁 식사 시간이 5시 이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아니나다를까 요양원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철주는 손을 멈췄다. 노인들은 일찍 저녁 식사를 끝냈을 것이다. 각자에게 처방된 약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먹여졌을 것이고 각기 자신의 침대에 눕혀졌을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못다 한 업무를 보고 있든지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이다. 철주는 미리 전화를 하고 오지 않은 걸 후회했다. 자신의 불찰이었다. 그래도 초인종을 누르면 요양보호사가 나올 것이다. 요양보호사에게 늦게 와서 죄송하다 말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된다. 철주는 다시 현관문 앞으로 다가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창문 너머 거실의 풍경이 다시 눈앞에 들어왔다. 거실에 켜져 있는 열은 조명등이 이제 이곳을 잠들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미 이곳은 한밤중이었다.

철주는 요양원 현관에서 한걸음 물러섰다. 금천산 등성이에서 시작된 눈송이가 어느새 붉은 눈발이 되어 요양원 하늘 위로 내리고 있었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내일이 설입니다. 객지에서 자식들도 올 것이고 손님들도 올 것이니 아침에 모두 모여 울력을 좀 할까 합니다. 어젯밤에 내린 눈 때문에 동네 입구에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눈도 좀 치우고 골목골목 청소도 할 것이니 한 집에 한 명씩은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회관 옥상에 달린 스피커에서 마을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다. 철주는 아침 일찍 들려오는 이장의 방송

소리에 힘들게 눈을 떴다. 어젯밤 집에 들어와 늦게까지 폭음을 했기 때문이다. 거실로 나가보니 미정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찬 아빠 잘 잤어요? 콩나물국 끓여 났으니 아침은 이걸로 해장 해요. 그리고 여보,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오전에 일찍 애들이랑 같이 요양원에 다녀옵시다.”

미정은 어젯밤 철주가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흐느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미정은 철주가 안쓰러웠다.

“그렇시다. 나는 밥 먹기 전에 동네 나가서 회관 마당 좀 쓸어주고 오리다.”

이장의 방송 소리는 낙원택의 집에도 울려 퍼졌다.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다. 낙원택은 이불 속에서 미동이 없었다. TV도 밤새 그대로 켜져 있었다.

잠시 후 이장은 똑같은 내용의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 처음보다 더 우렁찬 목소리였다. 방송 말미에는 날씨가 추우니 노인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오라는 당부의 말까지 덧붙였다.

낙원택이 털모자를 이마 위로 올리며 눈을 떴다. 낙원택은 목도리를 눈 밑까지 단단히 감은 후 마당으로 나왔다. 낙원택은 토방에 있는 유모차를 창고로 끌고 가서 삼 한 자루를 꺼내 유모차 위에 얹었다. 낙원택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빼그덕거리는 유모차를 밀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밤새 내린 눈이 유모차의 진행을 더디게 했다. 낙원택이 천천히 허리를 곧추 세우더니 유모차 손잡이를 꺾어 움켜쥐었다. 그리고 유모차를 힘차게 밀었다. 대암산 봉우리 끝에서 막 터져 내려온 겨울 햇살이 웅촌리 골목으로 쏟아졌다.

A essay

수필



심사평

제17회 공무원문예대전 수필 금상으로 선정된 「이발소에서」는 세련된 문장으로 글의 주제를 끌고 가는 작가의 시선을 만날 수 있었던 작품이다. 특히 단단한 사유의 깊이로 늙은 이발사의 이야기와 만종을 대입시켜 흥미를 놓치지 않게 하는 신선한 작품이다. 독자의 시선을 멈추지 않게 하던 공간적 묘사 등 소설적 구성 차용이 특이했다. IT산업의 대국이라 칭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회는 급격히 독자들에게 긴 글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변화시키고, 인터넷 시대의 문학이라고 하는 수필 문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 체험의 문학인 수필 문학을 사실 체험만의 문학의 틀에서 벗어나 상상의 세계를 넓히고 다양한 소재 접목의 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소설 문학의 신개념으로 부상한다는 15매~20매의 미니픽션(掌篇소설)이 독자들의 독서량을 높이듯이 수필 「이발소에서」는 수필의 소설적 구성 차용이 성공한 수필이어서 관심의 폭을 넓혀주었다.

심사 위원: 지연희, 이명지, 유한근

이발소에서 ● 금상

김갑수 | 전, 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문패 ● 은상

김광규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장독대가 있는 집

심금섭 | 전, 포항남부초등학교

또 다른 동행

김종길 | 화성서부경찰서

팽이 ● 동상

임형묵 | 충청북도 청원교육지원청

가방의 꿈

변모숙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버지의 땅

이규준 | 경상남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설악의 풍경소리

배진철 | 경상북도 김천시

인문학적 삶에 대하여

정재근 | 안전행정부

상사화

최선화 | 대구신암초등학교



금상



전. 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 갑 수

당선 작가 수상 소감



그 어떠한 상을 받았을 때 보다 무한 기쁘다.

초등학교 때 동시 창작으로 담임 선생님께서 칭찬을 받고 우쭐했던 그때로부터 글을 쓰는 것은 영원한 로망이었다.

전후 세대에 태어나 적응하기에도 숨 가쁠 지경인 급속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점차 얻고자 하는 것 외에는 가차 없이 떨쳐내 버리는 원심분리기를 닮아간다는 생각이 들곤 하였다. 권력이나 부를 축적한 실적이 곧 인격으로 재단되는 삶에는 다만 삭막한 거래와 치열한 각축만이 있을 뿐이어서 인간성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날마다 황폐해져 왔다.

‘부모의 재력이 자식의 인생을 결정하고 할아버지의 재력이 손자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기성 세대들은 지난 시대의 삶과 가치관을 전하는 임무를 포기하여야 하는 걸까? 점점 더 거대한 도시국가 형태로 변화해 가는 삭막한 사회에서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의 중간에 있는 소위 ‘깁 세대’에 처한 입장에서 문득 앞 세대가 살아 온 삶들을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 연결해 주어야 할 어떤 의무 같은 생각이 들곤 하였다.

출품작 〈이발소에서〉는 이런 평소의 소회를 담은 글이다. 졸작에 대해 과분한 평가를 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앞으로 신·구세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들을 비롯하여 가슴속 영원한 로망으로 간직해 왔던 창작 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기쁨과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발소에서

일흔이 다 되어가는 그 이발사는 약간의 수전증이 있는 듯했다. 물론 가위질이나 바리칸을 사용하는 동작에서는 별다른 불편이 없는 듯 했지만 면도를 하기 위해 장의자를 뒤로 젖혀 얼굴 가득히 비누거품을 칠할 때부터 시작되는 불안감은 면도질이 다 끝날 때까지 팽팽한 긴장감으로 손바닥이 축축해지곤 하였다.

거울 옆 벽기둥에 박아 놓은 넓적한 낡은 가죽 혁대에다 대고 여러 차례 쓱쓱 문질러 시퍼렇게 날이 선 삭도를 잡은 손이 파르르 떨면서 눈앞으로 다가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라. 땀에는 꼼꼼하게 면도질을 하느라 애쓰는 거북등 같이 딱딱한 그의 손바닥이 입술 언저리에서 한참을 머물며 자칫 콧구멍이라도 막을라치면 가뜩이나 오금이 저려 제대로 쉬지 못하던 호흡이 자못 질식할 지경이 되곤 하였다.

손님이 거의 없는 한산한 이발소인지라 서두를 것 없는 이발사가 달포에 한 번쯤 찾아오는 고향이 비슷한 단골을 맞아 행하는 일련의 이발 절차는 진부한 세상살이와 이제는 잊혀져가는 옛 고향 이야기가 두서없이 섞여 죽히 한나절에 걸친 장광설이 시들해질 무렵에야 끝나곤 하였다.

면도날이 스쳐나가는 조금 앞에서 한 마디씩 더듬어 나가는 무딘

손가락이 흡사 자벌레 같이 얼굴을 짚어 나가는 동안 나는 이 숨 막히는 면도질과 장황한 설레발이 언제쯤 끝날지 기늠하느라 머릿속이 멍멍해지곤 하였다.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에 인접한 골목길 어귀의 허름한 이발소에서 규칙적으로 지나가는 둔중한 열차의 진동 소리를 세면서 따분하고도 지루한 이발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나마 시선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거울 위 천장 가까이에 걸려 있는 밀레의 그림 〈만종〉이었다.

낡다 못해 바스라져 가는 액자 틀 안에서 희미하게 내려어진 그림 〈만종〉은 가뜩이나 어두운 색조의 그림에다 이발소의 칙칙한 분위기 가 더해져 수확이 끝난 저녁 들판에서 은은히 퍼져오는 교회의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젊은 내외의 평화로우면서도 경건한 이미지가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

뻗속 깊이 촌놈으로 자라난 나에게 밀레의 〈만종〉은 어린 시절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황혼의 들판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쁜 들설거지를 하던 때의 평화와 고요 속으로 번져오던 교회 종소리가 오버랩되는 친근한 그림이다.

들으나 마나한 늙은 이발사의 얘기는 간혹 코대답을 하면 그뿐, 쇠스랑이 꽃혀 있는 밭이랑에서 몇 알 담기지 않은 감자 바구니를 사이에 두고 일손을 멈춘 채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는 가난한 젊은 농부 내외를 바라보노라면 농촌 화가 밀레의 자연과 삶에 대한 경건함이 문득 가슴 뭉클하게 전해져 온다.

때로는 알아서 좋을 것 없는 경우가 더러 있다. 화가 ‘달리’가 밀레의 이 〈만종〉의 본 그림이 죽은 아이의 시체를 묻고 난 후 부부가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은 나에게서는 차라리 모르느

니만 못한 것 같다.

너무도 참절한 분위기의 그림이라는 충고를 받아들여 아이를 묻은 그림을 지우고, 그 위에 감자 바구니를 그린 것이라는 ‘달리’의 이 주장은 후에 특수촬영으로 증거가 되었다고 하니 그림에 얽혀 있는 사연을 애써 부인할 수도 없다.

그림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 그뿐일 것을 저간의 사정을 알게 되어서는 괜히 기도를 올리는 부부의 발밑 주변을 살피게 되고 어쩐지 그 부분이 전체 그림과는 뭔가 어색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니 이런 것을 두고서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고 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무척이나 익숙하였던 이 그림에 대한 ‘달리’의 주장은 여러모로 놀라운 충격이었다. 이토록 평화롭고 경건한 풍경의 화폭 속에 화가의 그러한 깊은 고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문득 아릿한 아픔으로 전해져 온다.

낮과 밤의 교차점에서 하루를 마감하며 물들어가는 저녁노을은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가. 그러한 시점에서 아이의 주검을 묻고서 애절하면서도 경건한 기도를 올리는 젊은 부부의 헤아릴 수 없는 상실의 슬픔. 그러한 슬픔을 실어 대지 저 멀리까지 실어가는 저녁 종소리를 그려낸 밀레.

인간의 삶은 평면적 도형만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것이어서 삶과 죽음, 선과 악, 슬픔과 기쁨, 사랑과 미움, 추악함과 아름다움이 빛과 그림자처럼 동류항(同類項)으로 존재하는 것이 속성이라지만 유달리 음지 한 편으로 치우친 삶들 또한 결코 적지 않으니 인생 도처에서 겪는 애환들이리라.

“멀거니 눈 뜨고 잠자는 게요?”

드러누워 밀레의 <만종>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물고 이어져가는 상념에 잠겨 있는 동안 아슬아슬한 면도질이 다 끝나고 머리를 감자는 이발사의 말을 놓친 것이다.

이발사는 세면대에 구부려 앉아 수그리고 있는 내 머리위로 차가운 물줄기를 한 차례 쏟아 붓고는 비누칠을 하여 잔뜩 거품을 일으킨 다음 억센 손아귀로 사정없이 머리통을 뒤흔들어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그렇건만, 어린 자식을 묻은 흔적 위에 남루한 바구니를 그린 화가의 우수에 찬 고뇌가 넓고 빛바랜 화면을 넘어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슬프면서도 따사로운 인간애로 전해져 온다.

남달리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 곡절 많은 젊은 시절을 지내오며 어렵사리 익힌 이발 기술 하나로 철도변에 접한 골목길 언저리에 남루한 이발소 하나를 차려 평생을 살아왔다는 늙은 이발사.

변변한 일가붙이도 없고 도시 한 켠에 붙어 간신히 살아가는 처지인지라 내 놓고 고향 갈 입장도 아니어서 어느 해 스산한 겨울날 고향 강변의 하얀 백사장만 쓸쓸히 거닐다 돌아 온 후로는 다시는 고향에 가지 않았다는 늙은 이발사.

언제부터인가 그의 얼굴에 검버섯이 하나 둘 피어나면서부터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며 장황한 수다마저 심드렁해 하던 그가 어느 날 희미한 추억 속에서만 그려지는 향수와 애뜻한 미련을 낚은 이발소에 꼬깃꼬깃 남겨 놓고 훌훌 세상살이를 털고 떠나면서 동향인이라는 어설픈 의리의 만남도 끝이 났다.

이발소 벽면을 온통 도배하듯 붙여 놓은 ‘미워도 다시 한 번’ ‘빨간 마후라’ ‘팔도강산’ 등의 70년대의 영화포스터를 비롯하여 그의 부모

가 썼던 물건으로 여겨지는 손풍로, 남포등, 화로를 비롯하여 외진 구석에 세워져 있던 도리깨 등속의 황당한 실내 인테리어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고향으로 가는 시월의 황금빛 길은 그 어떤 풍경보다도 훨씬 감동적이고 아름답다던 그의 고향 사랑은 낡은 액자 속에 박제 되어버린 추억인 듯했다. 마흔이 훌쩍 넘었을 딸년의 생사조차 모른 채 다만이 세상에 혈육 한 점 남아 있기만을 바라는 그의 목소리에는 빛바랜 서러움과 쓸쓸한 눈물이 배어났다.

어쩌면 그가 평생에 걸쳐 낡은 이발소를 지키며 살아 온 것도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홀아비 몸으로 키웠던 고명딸이 지지리도 가난하고 고리타분한 애비가 싫다며 뛰어나간 후로는 종적을 알 수 없었던 딸년을 한사코 기다렸던 간절한 부정(父情)의 세월이었으리라.

지지리도 못한 아버지만 딸년의 얼굴 한 번 볼 수 있기를 입버릇처럼 소원하며 공상에 찌든 홀아비 삶을 살았던 그가 쓸쓸히 세상을 하직하면서 끝내 돌아오지 않은 야속한 딸년을 용서하였을까? 아니면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지 못한 못한 아버지를 용서해 줄 것을 바랬을까?

문득,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며, ‘아름다운 마무리는 자연과 대지, 태양과 강, 나무와 풀을 돌아보고 내 안의 자연을 찾는 것. 궁극적으로 내가 기댈 곳은 오직 자연뿐임을 안다는 것.’이라는 법정 스님의 글귀가 생각난다.

삶의 필드(field)에서는 끊임없이 낡은 것은 떨어지고 새것이 태어나듯 삶과 죽음은 늘 함께 있는 것이며, 이별과 새로운 만남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원칙이 이 지구별을 유지하는 불변의 진리로 작용하는 한 세상은 늘 새롭고 아름다운 것이리라.

은상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김 광 규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언제부터인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내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 탈출구가 수필이었습니다. 내게는 무모하리만큼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가 가져다 준 하루의 설렘은 맛있는 삶을 꿈꾸게 했습니다. 웅크려 있던 삶의 조각 너머로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재개발 현장에서 무심히 떨어져 나온 불품없는 문패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속에 몽클하고 시큼하게 올라오던 그 느낌은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올 한 올 아버지의 삶을 뜨개질하다 보니 어느새 내 모습이 거기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수필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쌓여 갑니다. 나와 타인, 나와 사물, 나와 내 마음 사이에 켜켜이 막아서고 있던 웅어리들이 실타래가 풀리듯 치유가 되어 갑니다. 지나온 서툰 길을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패

뚫어진 창호지 틈으로 햇살이 뼈죽이 고개를 들이민다. 주인집 아저씨는 대청마루에 앉아 오늘도, 고운 천으로 문패를 닦고 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눈이 부시다. 아버지는 말없이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신다. 하루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뭍은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아버지는 차가운 골목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말없이 대문 앞을 서성이신다. 문패에서 시선을 사뭇 떼지 못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한없이 작아 보였다. 나는 인기척도 내지 못하고 한참 동안 담장 뒤에 숨어 발길을 묶어두어야 했다.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처럼 우리 가족도 추위가 오기 전에 서둘러 등지를 옮겨야 하는 생활이 잦았다. 부모님은 밥을 먹는 것보다 집을 구하러 다니는 횟수가 더 많았다. 해 질 무렵 돌아오신 부모님은 입과 발이 퉁퉁 부어 있었다. 오 남매나 되는 자식이 너무 많아 곤란하다는 집주인의 핀잔에 선뜻 집을 빌려달라는 부탁도 못하고 돌아서기 일쑤였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식만 세 명뿐이라고 둘러댄 것도 다 이 때문이었으리라. 쥐가 드나들 것 같은 집도, 손가락으로 몇 번이나 셈을 해보고서야 계약이 이루어졌다. 피난민처럼 집채만한 보따리를 이고, 지고 나서는 길목엔 잡초마저도 눈길을 주지 않

는다. 집주인은 문패 앞에 정승처럼 버티고 서있다. 안주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길게 늘어지니 어머니는 등에 업고 있던 동생의 목을 슬그머니 누비쳐네 속으로 밀어 넣었다.

아버지의 소원은 문패를 가지는 것이었으리라. 기회가 전혀 없는 않았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즈음, 달동네 언저리에 집을 보러 다니며 어머니와 호기로운 다툼을 벌였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차곡차곡 쌓여가던 성벽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조금의 이자라도 불릴 욕심에 집값으로 치를 돈을 계주에게 맡긴 것이 화근이었다. 야반도주한 계주를 찾아 어머니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찾아다니셨다. 실성한 사람처럼 울고, 가슴을 치고, 때로는 허공을 바라보며 웃었다. 밤새 내린 비에 온몸을 흠뻑 적시고 돌아온 밤, 어머니는 며칠을 끄끖 앓아누웠다. 단념 아닌, 체념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길고도 깊었다.

아버지의 문패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식솔을 거느릴 당신 명의의 집도, 뿔뿔이 차려 놓고 마음껏 장사할 가게도 없었다. 입에 풀칠하기에도 빠듯한 생활의 연속에서 가게를 얻기에는 밑천이 턱없이 모자랐다. 가족이 기거하는 방 한 귀퉁이가 아버지의 가게였다. 들고 나는 대로 물건을 쌓아 놓고, 세월을 먹어 수시로 털털대는 고물 오토바이를 타고 '오일장'을 찾아다녔다.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를 이름 석 자 대신 '김 씨'라고 불렀다. '김 사장'도 아닌 '김 씨'라는 호칭은 친숙하지만 분명, 아버지를 얹보는 것이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터처럼 닳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변두리 사람들의 하루살이 인생이 바로 내 아버지의 삶이었다.

일터에도 엄연히 문패가 존재했고, 그것이 때로는 식솔들의 삶까

지도 지배한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아버지는 잘 알고 계셨으리라. 아버지의 문패가 ‘김 씨’면 그 자식들까지도 ‘김 씨의 자식’으로 불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싫었을 게다. 장성한 자식들이 장사하겠다고 입을 떼면 불같이 호통을 치셨다. 반듯한 직장에 들어가, ‘김 씨’가 아닌 뚝뚝하게 불릴 수 있는 문패를 갖기 원했던 것도 그 때문일 성싶다.

문패는 사람의 성품까지 지배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에게도 노글노글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매번 만나는 주인의 어깨는 대나무처럼 꼳꼳하고 당당하였지만, 아버지의 어깨는 굽은 소나무처럼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서 몇 번이고 오던 길을 되돌아 나갔던 적이 많았다. 집도 없고, 가게 한 칸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며 살았던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묵묵부답이었다. 세상을 살아내는 혼자만의 방식이었으리라. 중년이 된 지금에서야 나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듯도 하다.

집문서가 실질적인 소유의 개념이라면 문패는 심리적인 상징물이라. 찌그러져 가는 초가삼간이라도 문패가 걸린 것을 보면 내게는 대궐처럼 다가왔다.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에게는 마음의 부를 상징하는 존재와도 같았다. 그렇기에 내가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문패에 대한 갈증은 쉬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루지 못한 아버지의 문패가 중년의 내 가슴에 흉터처럼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문패의 보이지 않는 힘은 내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 결혼 후 줄곧 남의 집에 세 들어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큰아이의 이마에 선명한 상처가 났다. 주인집 아이가 돌로 짝은 것이었다. 소독하는데 자꾸만 아이가 아프다고 운다. 아니, 아프다는 것보

다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듯했다.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호들갑을 떠다는 안주인의 눈빛에 할 말을 목구멍으로 삼키며 돌아섰다. 매일 드나들며 보아왔던 문패가 무언의 처신을 강요하고 있었다. 침 잠되어 있던 그 힘은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다. 문패 주인도 은근히 그런 힘을 믿었으리라. “너는 왜 가만히 맞고만 있었어.”하며 애꿎은 아이만 나무랐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한숨도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남의집살이 십여 년 만에 대출을 받아 조그만 집을 마련했다. 아버지는 집 안에 얼른 들어서지 못하고 현관 앞에서 오래전 그날처럼 오도카니 서 계셨다. 문패가 아닌 아라비아 숫자 807. 아파트 호수 속에 무엇을 느끼셨을까. 뒷면에 감춰진 아들의 문패, 당신의 존함도 보셨을까. 설핏설핏 눈시울이 젖어오던 아버지를 모른 채하며 집 안으로 모시던 순간, 나는 비로소 어떤 갈등에 대한 해갈의 느낌을 받았다. 비록 세월의 더께가 묻은 어쭈잡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아버지도, 나도 턱밑까지 치밀어 오르던 그동안의 서러움에 대한 돌파구가 분명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도 혼자만의 집을 일구었다. 화강석으로 된 번듯한 문패도 가졌다. 채 한 평도 되지 않는 터에 푸른 잔디도 심고, 키 작은 황금 측백나무도 심었다. 석공이 오로지 아버지만을 위해 정성스레 새겨준 문패였다. 가족 모두의 이름이 반듯하게 올려져 오로지 아버지만을 위해 영원히 존재하게 될 상징물이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문패 하나쯤 가지는 것은 지나친 욕심은 아닐 게다.

소유한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며, 소유하지 않는다 하여 못 가지는 것도 아니리라.

오늘도 나는 삶의 문 앞을 서성인다. 저 멀리서 그 옛날 내 나이 즈음의 아들이 중년의 나를 힐끔 쳐다본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언젠가는 내 아들도 삶의 문 앞을 서성이게 되겠지. 내가 아버지의 문패였듯이 훗날, 아들 역시도 나의 문패가 되어 주겠지.

오래전 집주인이 정성스럽게 문패를 닦던 것처럼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 석 자를 꼭꼭 눌러 몇 번이나 덧칠해 본다.



은상



전 포항남부초등학교
심금섭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은상이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몸도 마음도 온통 구름처럼 바람처럼 고향으로 날아갔는지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없이 기뻐던 마음도 잠시, 두근거리던 가슴이 진정되니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어 더럭 겁이 나며 덩달아 부끄러움이 밀려 왔습니다.

마음 가꾸기에 전력 투구 하라는 듯 활짝 웃는 어머니와 친구 얼굴이 서서히 다가와 겹쳐 집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 게으름만 피우고 있는데 이 소식은 앞날에 활력을 보태어 줄 것입니다.

서툰 글이지만 뽑아주신 심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힘겨울 때면 마음 달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무디고 거칠어진 감성을 갈고 닦아서 황폐해진 마음 받을 풍요롭게 일구도록 하겠습니다.

장독대가 있는 집

항아리 뚜껑에서 기르는 노랑어리연이 힘없이 축 치지는 가을날 오래 소식 없던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잔잔한 가슴을 여울질 하며 다가온 목소리에는 끝없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반가움에 서둘러 찾아간 그 집, 친구보다 먼저 요즘 보기 어려운 장독대가 눈에 들어와 무디어진 내 감성을 깨운다. 굵은 등같이 포개져 있는 용기들이 포물선을 그으며 둥글게 반짝이고 있다.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풍경에 친구 부를 생각을 잊고 바라보고 있었다. 별 좋은 날이면 뚜껑을 열어 하늘의 기운과 햇볕까지 담은 장독대이다.

어디서든 장독대를 만나면 정겹고,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친근감이 든다. 힘겨울 때는 달려가서 마음 달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던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보기 힘들어서 실향이라도 한 것처럼 매우 서운했는데 이곳에서 어릴 때 보던 것과 분위기와 모양이 비슷한 장독대를 다시 만났다.

햇살이 잘 드는 곳에 편편한 돌들로 방석을 깔고 그 사이사이에는 작은 돌로 메워 만든 장독대이다. 둘러앉은 항아리들이 저희끼리 정담을 나누는 것만 같다. 크고 작은 항아리마다 텅구는 햇살을 구름이 한가로이 내려다보고 간다. 바깥 부엌 옆 담장에 누런 호박이 몇 덩

이 얹혀있고 감나무와 산수유나무에는 풍성한 가을을 맞고 있었다.

장독대를 보며 한동안 잊었던 기억을 떠올리는데 뒤란에서 친구가 반갑게 뛰어 나온다. 시인 유안진의 산문에 나오는 『지란지교를 꿈꾸며』의 구절(‘허물없이 찾아가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을 보일 수 있고,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친구이다.

잠시 인사를 나누고 장독대를 둘러보며 구석진 곳에 놓여 있는 향아리 뚜껑을 열어보았다. 들끓는 욕망을 삭이고 또 삭히는 묵은 간장독이었다. 밑바닥에 남은 간장이 숙성 발효되어 소금 사리도 수북하게 빚어놓았다. 마치 백 년을 먼벽 수행하며 대를 이어온 듯 노르스름한 소금 결정체가 서려 있다. 세월을 정제한 호박(琥珀) 같은 간장소금을 사리함 속의 진신사리 친견하듯 들여다본다. 가장 어둡고 깊게 자리 잡은 애환도 몇십 년을 묵히고 익히면 담담하게 삶을 꿰뚫어 보는 눈이 밝아져 진솔한 삶을 우려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장독대 뒤에는 노란 꽃에서 빨간 열매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품고 서 있는 산수유나무가 보인다. 텃밭에는 유기농으로 기르는 친환경 식품인 상추, 썩갓, 파, 고추, 도라지 등을 가꾸고 있다. 아름다운 결실을 도와주는 마른 꼬챙이가 고추 포기를 받쳐주고 있다. 한 가정을 떠받치고 살아가는 친구의 모습이 어머니를 연상케 한다.

장독대에 있는 향아리에는 된장과 간장을 담을 뿐만 아니라 밀가루, 소금 등 먹을거리를 담아두는 음식보관 창고이기도 했다. 그늘진 곳 향아리엔 제사 때 쓸 엿이 밀가루 속에 박혀 있고, 하얀 고가지 핀 꽃감은 한지에 쌓인 채 들어 있었다. 긴 겨울 동안 간식으로 먹던 고염도 향아리에 있어 골방에 쥐 드나들듯 드나들기도 했었다.

요즘처럼 가게가 많지 않던 때라 집안에는 항상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보관하던 장소가 바로 장독대였다. 지금의 냉장고 역할을 했던 셈이다.

술한 삶의 희로애락까지 대물림한 장독대, 향아리마다 묵직한 정적을 밀어내고 곡식과 과실, 채소 말랭이 등의 먹을거리로 속이 꽉 차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한 장독대는 우리 마음의 고향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드나들던 장독대도 된장을 담그고 나면 엄격히 통제됐다. 벗짚을 피워 향아리를 소독하고 메주와 고추, 숯을 넣어 장을 담은 향아리에는 금줄이 쳐지고 근처에서 놀지 못하게 했다.

지금 친구네 집 장독대에도 옛날처럼 콩잎이며 깻잎, 풋고추가 반질반질한 짬뽕에 눌러 곁을 삭이는 중이다. 이렇게 폭 곰삭혀 만든 맛깔스러운 반찬들은 역시 아주 담백하고 깊은 맛을 낸다.

장독대 옆 무쇠솥에다 감자와 고구마를 넣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본다. 장작들이 맏힌 한이라도 풀어내는지 진액을 짜내며 거품까지 내뿜는다. 이윽고 솥뚜껑 밑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면 뜸을 들인다. 굵은 불잉겉은 꺼내서 숯을 만들고, 남은 잉겉불에 밤을 구워 장독대에 걸터앉아 먹으니 그 맛이 유별났다.

옛 여인들 삶의 바탕이었던 이 장독대는 소원을 빌던 청정한 곳이기도 하다. 식구 중 누군가가 아플 때나 시험 때가 되면 새벽마다 맨 먼저 길어온 정화수를 올려놓고 소원을 빌었다. 이른 새벽 서릿발을 밟으며 샘물 길어오는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듯해 젖은 눈으로 향아리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어 보았다. 먼 곳의 샘물을 길어 먹던 어린 시절의 장독대는 비가 오면 빈 향아리들의 뚜껑을 열어 빗물을 받았고, 눈이 오면 향아리에 쌓인 눈을 긁어모아 허드렛물로 썼다.

장독대를 오가는 친구는 생전의 어머니 모습이었다. 행주치마를 걸치고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넣은 친구표 된장찌개가 잉겔불이 아닌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는 것이 그때와 다를 뿐이다.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요즘 사람들은 장독대의 효용성을 알지 못한다. 돈만 있으면 된장, 간장뿐 아니라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은 음식을 쉽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시골에서도 무용지물이 되어 터만 차지한 곳이 많아졌다.

그 집의 음식 맛은 장맛이 좌지우지한다고 한다. 장맛은 역시 장독대에서 재래식 방법으로 정성 들여 숙성, 발효시켜야 제 맛이 난다. 여기 장독에서는 그런 장맛이 우러나올 것 같다. 오래 숙성된 장맛은 마음을 맑게 하는 노을까지 곱삭히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짧게라도 보고 싶은 어머니를 만났다는 게 꿈만 같다. 갈증으로 밀려오던 어린 시절의 그리움이 조금이나마 채워졌다. 달빛 가득하여 잠 못 이루는 쓸쓸한 명절이나 슬픔을 다스릴 수 없어 답답하고 괴로울 때마다 되새김질할 거리가 생겼다. 친구를 생각하면 장독대가, 장독대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잔잔한 웃음이 연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옛 생각에 취해 삶의 생채기와 시름을 삭히며 강강술래를 하듯 장독간을 돌며 작은 옹배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본다. 독을 만지는 손끝이 파르르 떨린다. 아득하기만 하던 추억이 실핏줄을 타고 흐르며 훈훈한 정과 생활의 탄력이 몸속까지 밀려온다. 반질거리는 장독간에서 나를 잡는 이 느낌을 그대로 가슴에 깊이 간직한다. 삶에 지쳐 위로받고 싶을 때는 어머니 품 같이 푸근한 장독대를 보러 여기에 오면 몸도 한결 가벼워지겠다는 생각이 든다. 군불 지핀 아궁이에서 구재

타는 듯한 매콤한 냄새와 나무의 향내가 섞여 몸을 따뜻하게 휘감는다. 장독대 가까이에서 들리는 벌레 소리 들으며 대청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장독대를 바라본다.

세월은 우리의 생활 문화를 빠른 속도로 바꾸어 버렸다. 쓰이지 않거나 쓰임새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장독대는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거의 사라져버렸다. 드라마에서 보는 종갓집이나 마당 넓은 시골집, 전통 음식점, 사찰에서나 볼 수 있는 게 고작이다. 독의 쓰임도 음식물을 담는 역할보다는 꽃병이나 화분, 분수대 등 집안을 장식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다.

좋은 경치를 보거나 오래된 물건을 보면 덩달아 즐거워진다. 이웃간의 정이 단절된 아파트 생활에서 잃어버린 정을 새록새록 살아나게 하는 것이 장독대인지도 모른다.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친구 집에서 장독대를 보며 어머니를 마음껏 그리워했다. 친구표 요리 솜씨와 장독대에서 제대로 숙성시킨 대물림한 장맛에 푹 빠진 하루였다. 가을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 한없이 기뻐다. 살아가면서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할 친구가 있어 너무나 고맙고 미덥다. 더불어 잊어가던 추억을 만끽하게 해 준 오늘은 행복 지수가 만점인 날이다. 오래된 추억이 나를 깨우는 이곳, 장독대가 있는 이 집을 웬지 떠나고 싶지 않다. 어머니의 굽은 등 같이 포개져 있는 옹기들이 포물선을 그으며 반짝이는 장독대다. 별 좋은 날이면 뚜껑을 열어 하늘의 기운과 햇볕까지 담은 장독들이다. 맑은 장은 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을 번갈아 받으며 색깔을 우려내고 그 맛을 더해 간다. 그래서 장독대가 있는 집만 보면 내 마음의 저울이 오래 행복 쪽으로 기울다. 다

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복감이 전해져 감성지수가 행복으로 확 올라갔으면 좋겠다. 장독대에 둘러앉은 장독들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넉넉함을 지녔다. 이런 넉넉함이 내게도 생겨났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방을 비우고 남의 아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담고 싶다. 장독대처럼 삶의 여유를 갖고 늘 마음의 방을 닦아 깨끗이 하려 한다.



은상



화성서부경찰서
김종길

당신 작가 수상 소감



오랜 공직생활이 주는 매너리즘을 극복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파출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보고 느끼면서 체험적 글쓰기에 기쁨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민원인들을 대할 때마다 순간적 만남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라 여기며 마음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신록의 빛깔이 점점 짙어지는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기대와 역할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경찰정복에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스스로 다짐합니다. 혹시 한 가닥의 마음이라도 흔들릴 때, 좋은 수필을 길벗으로 여기렵니다.

“진정한 감사는 행동이 따르는 성숙도에 달렸다.” 라고 가르쳐 주신 은사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꽃과일 같은 제 작은 몸짓의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선후배 경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필 교실 회원님과 함께 수상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동행

꽃샘바람이 매몰차다. 세찬바람이 꽃대를 흔들어 댄다. 나무는 바람에 의해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튼실한 줄기로 자라며, 새 길을 찾듯 새 가치를 뺏는 것이다. 내 눈길은 유독 흔들리며 피는 꽃들에게 오래 머물곤 했다. 꽃대와 줄기가 가냘플수록 꽃은 더 아름답지 않던가.

방황하는 청소년은 마치 꽃샘추위에 웅크린 꽃망울 같다. 꽃샘바람처럼 그들의 순간적 방황 중에도 자살 충동은 위험하다. 다른 문제는 발생해도 어느 정도 개선의 기회가 있지만, 자살의 경우는 다르다. 어떠한 행동보다 그 심각성이 크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죽음으로 이어져 모든 것이 한 순간 끝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살은 초기에 예방하고, 따스한 햇살 같은 정성이 필요하다. 흔들림 속에서도 꽃대를 뺏치듯,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쏟아야 한다.

며칠 전, 야간 순찰 근무를 할 때였다. 한적한 대합실에 청소년 두 명이 종이봉투를 옆에 놓고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발견하고는 피우던 담배를 그대로 바닥에 내던지고 외면하였다. 그들 앞에 섰더니, 내 눈길이 종이봉투에 싸인 번개탄에 멈

쳤다.

“뭐요, 왜 쳐다보는 거예요?”

묻기도 전에, 그들이 나를 보며 반항하듯 말했다. 그들은 번개탄을 슬쩍 뒤로 숨겼다. 순간, 엇그제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자살한 사건이 머리를 스쳤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다고, 번개탄을 소지하다니?’

아찔했다. 그들이 자살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더욱 당황스러웠다.

우선 그들을 데리고 편의점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음료수를 권했더니 그들은 어색해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그다지 친근하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부드러운 어투로 내가 먼저 제의를 했다. 지금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없으니, 순찰차를 이용하여 집까지 안전하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그들은 단숨에 거절하였다. 그리고는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런저런 얘깃거리를 꺼내며, 여유를 찾았다. 잠시 후, 내가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번개탄을 꺼내들고 보이면서 엇그제 자살 사건의 사례를 진솔하게 설명하였다. 결국 내 관심의 끈이 닿았는지, 요지부동의 그들이 진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구와 따뜻하게 이야기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들의 외로움이 짙게 깔린 눈빛은 금방 내게도 전해졌다. 그들은 우연히 채팅을 하다가 대화방에서 자살할 것을 결심했다는 고백을 하였다. 충분히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다가, 내가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너희들이 정말 죽을 용기가 있다면, 살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는가? 언제든지 마음만 독

하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열변을 토하고 말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설명하였다. 한 명은 부모님이 이혼했단다. 새로 들어온 계모는 늘 핀잔과 구박뿐이었다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 또 한 명은 엄마가 세 살 때 돌아가셨으므로, 엄마 찾아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울먹였다. 그들은 서로 같은 처지를 비판하다가 마음이 통했단다. 자살을 결심한 후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구입하였고 이웃 마을 상점에서 번개탄을 샀다며 자초지종을 말했다. 어차피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바보같이 산다면, 죽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아 결심했단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오늘 만났다고.

금방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주었더니, 두 시간이 넘는 줄 몰랐다. 나도 고개를 끄덕이고 응수하며, 대견스런 표정으로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다. 그들은 잠드는 것이 힘들었고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했단다. 때론 학교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거의 ‘숨 쉬는 송장’이었다고 끝나지 않을 듯 계속 얘기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 목젓까지 타오르는 사랑의 목마름을 느꼈으니까.

그 순간, 우리 거실에 있는 가족사진이 떠올랐다. 스쳐가는 가족들의 눈빛이 나만을 주시하는 것 같았다. 과연 우리 가족들은 하고 싶은 말들을 얼마나 하며 살고 있는가. 오순도순 한 이불 밑에 발을 포개고 정담을 나누었던 그 옛날처럼 정답게 대화를 나누며 살고 있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았다. 현대인의 소외감과 더불어 이런저런 이유로 대화에 목말라 있는 내 슬픈 자화상도 가족사

진 위에 겹쳐졌다. 입버릇처럼 바쁘다는 핑계를 자주 한 내가 아닌가. 부끄러웠다. 아들 같은 연령의 순진한 그들 앞에서 내 책임감이 더욱 막중함을 느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무슨 말로 어떻게 설득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더욱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특별한 내 관심을 전했다. 자살 충동을 느낄 때 뿐 아니라, 언제든지 터놓고 얘기하고, 고민도 함께 나누며 같이 친해보자고 간청하였다. 아울러 오늘 만남에 대해서는 서로 비밀로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우린 굳게 약속하였다. 결국 그날은 순찰차에 동승하여 안전하게 귀가 시켰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였다. 그 학생의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이 죽겠다고 집을 나갔는데, 아들의 일기장에 경찰관님과 대화했던 내용과 전화번호가 있어서 연락했단다. 난감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당황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침착하게 지난번 학생들과 대화했던 내용을 설명하면서 메모했던 내 수첩을 보았다. 그들이 자주 가는 곳이 S 공원 후문 쪽으로 적혀 있었다. 공원을 수색하다가 주차장 끝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차안에는 번개탄 연기에 취해 있는 그들이 보였다. 즉시 차의 앞문을 개방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병실 밖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 결코 피지 못한 꽃망울이 되어 떨어지지 않기를…….

잠시 후에 치료를 담당하던 의사가 나왔다. 조금만 지체했더라면 위독했을 거라고 했다. 다행히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이루어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살며시 손을 잡았다.

“힘들지, 금방 회복될 거야. 우리 함께하기로 약속했잖니?”

라고 말하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콧등이 찡함을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다. 다시 손을 꼭 잡으며, 무언의 약속을 했다. 우린 순간적 만남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시작임을 서로 느낀 것이다. 우린 서로 다른 처지였지만, 가슴으로 통하는 진정한 관심으로 동행하리라. 그 때, 나의 마음은 직업보다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더욱 공감되었으니까.

어느 날 퇴근 무렵이었다.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 약간 떨리는 음성이었다.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까지 전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깊은 의미의 눈짓을 보내며 밝은 모습으로 인사했다. 갑자기 쑥스러웠다. 하지만, 어른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했기에, 그냥 한 사람 씩 안아주었다. 웬지 친숙한 사이가 된 듯, 그들은 그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말들을 실타래 풀듯이 술술 풀어 놓았다. 깊은 반성과 새로운 설계의 꿈까지 얘기했다. 마침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까지 울컥했다. 참고 싶지 않은 남자들의 눈물인가. 우린 함께 부둥켜안고 어깨를 들먹거렸다. 삶의 무게는 저마다 힘겹더라도, 관심을 갖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반감될 것이다.

이제부터 그들의 솟구치는 현실적 반항과 불만을 부딪치지 말아야 하겠다. 그들을 먼저 인정하고 이해하리라. 힘들 때 따스하게 더 감싸주면서 함께할 것이다. 설령, 서로 추구하며 가는 길이 다를지라도.

드디어 꽃망울을 터뜨린 꽃들의 환희를 본다. 꽃샘추위를 당당히 이겨낸 듯하다. 저마다의 진통을 이겨낸 성취감이다. 제아무리 세찬 꽃샘바람도 개화기를 한 치 늦출 수 있겠는가. 저 꽃들 또한 흔들리면서 즐거움을 곧게 세웠으리라. 누군가의 따스한 관심으로.

동상



충청북도 청원교육지원청
임형묵

당선 작가 수상 소감



팽이는 혼자 돌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마주한 팽이에서
어머니의 세월을 읽었습니다.

혼자서 마음을 돌리는,
혼자의 몸으로 세상을 도는.

팽이

팽이를 후리고 싶은 마음에 몸이 들썩인다. 공연장에 모인 구경꾼들은 흘러나오는 민속 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고, 눅혀 놓은 절구통을 막대기로 두드리며 신명을 즐기지만, 그들을 뒤로하고 팽이채를 집어 든다. 팽이를 양쪽 손으로 쥐고는 힘껏 돌린다. 중심을 잡지 못한 팽이가 고꾸라진다. 그러기를 몇 번, 땅에 곧추서는가 싶어 채찍으로 힘을 가하는데 또 쓰러진다.

팽이의 모양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것과 별다르지 않아 정감이 간다. 위는 뭉툭하고 아래는 뾰족한 역삼각형에다 그 끝에는 쇠 구슬이 박혀 있다. 속이 단단한 나무를 원형으로 깎아 만들었는데, 자작나무인지 박달나무인지 구별하지 못하지만 손때가 어지간히 묻어 있어 추억이 되살아나게 한다. 그런데도 구경꾼들은 팽이엔 관심이 없다. 앉아 쉬며 음악을 듣고 음료수를 마시며 춤꾼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린다.

팽이는 혼자 돌지 못한다. 누군가의 힘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머니의 채가 되려 하지 않았다. 울타리 안에서 지내기보다 대폿집에서 친구들과 소주잔을 기울이고 남는 시간엔 다방에서 소일했다. 객지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주말에 집에 들러도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 낚시터로 내달았다. 대학을 나온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열아홉에 시집과 가정부처럼 일만 했다. 새벽부터 소죽을 끓이고 절골에서 물지게로 우물물을 길었다. 들에 나가는 게 아버지와 정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 편했는지 나를 비롯해 여동생들이 학교에 가지고 갈 도시락을 뒷마루 한옆에 챙겨 놓고는 일터로 갔다. 둘째 여동생을 낳기 이틀 전에도 똥지개를 지는 어머니였다.

결혼은 사랑을 떠나 가족을 책임지는 일이다. 어느 하나가 비틀거리면 중심을 잡아주고 힘들어하면 부둥켜안고 가야 한다. 살다 보면 힘든 날이 얼마나 많은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메워 줄 반쪽을 그리워한다. 기대고 싶어진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밖으로만 돌았다.

팽이와 채가 따로 노는 격이었다. 얼굴도 모르고 중매로 만나 결혼했을지라도 첫날밤부터 잠자리를 거부하지는 말았어야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어머니는 아버지를 멀리했고, 어머니의 투정이 거듭될수록 아버지는 하숙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렸다. 신랑될 사람이 땅 마지기 있는 부잣집이고 대학을 다니는 엘리트라는 중매인의 말에 현혹되어 얼굴도 모르고 시집온 게 잘못이라면 잘못일까. 어머니는 구석에 놓인 팽이처럼 혼자서 들에 나가고 홀로 밥상에 앉았다. 얼굴 잘생긴 신랑이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나 속빈 강정처럼 허울만 좋았다.

팽이는 채를 든 사람의 기분에 따라 춤춘다. 채에 따라 집안 식구들은 울고 웃는다. 밖으로 나도는 아버지가 미웠다.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커서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부전자전인가. 어느 때부턴가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하던 짓

을 따라 하고 있었다. 때론 팽이가 되고 어떤 때에는 채가 되어야 하는데 중심을 잃고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나이 들어 장가들고 애를 낳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런 나를 꾸짖지 않았다. 남편이 싫으면 애들도 눈 밖에 나는지, 내가 집에 자주 들르지 않아도, 전화로 안부를 수시로 여쭙지 않아도 나무라지 않았다. 일을 나가면서도 개떡을 찌 살강에 얹어 두고 출출할 때 먹으라던 어머니였는데, 떡은커녕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집에 있어도 어머니는 혼자였다. 내가 집에 가도 어머니는 혼자였다. 배끓아 허기져도 같이 일할 사람 옆에 없어, 이마에 맺힌 땀 닦아주며 목마를 때 막걸리 한 대접 따라주는 사람 없어, 콩대를 두드리고 들깨단을 쳐댔다. 아버지가 팽이채를 집어 들면 어머니는 주저앉고 어머니가 돌면 아버지는 슬그머니 채를 내려놓지 않았던가. 오죽하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운남성 민족촌 거리를 걷는다. 상점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경쾌하지만 애절하다. 사연이 있는 듯 비련의 음조가 풍긴다. ‘아미새’와 ‘고장 난 벽시계’. 시골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는 노래다.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애창곡이 된 두 곡. 때로는 텅실텅실 춤추며 부르지만 얼마 안가 음정이 흐트러진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입기만 했던 사람, 아름답지만 애간장을 태웠던 남자, 그리움에 목소리가 가라앉는다. 고장 난 벽시계는 멈춰 섰는데 세월은 멈추지 않는다며 속울음 삼킨다.

혼자 부르는 노래는 슬프다. 아무리 가락이 좋아도 들어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 혼자 부르면 흥이 나지 않거니와 바람에 일렁

이는 억새처럼 가락이 서걱거리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흙에 마음 붙이고 산단다. 손뼉 치며 노랫가락에 장단 맞추며 살자 해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몸 맡기는 게 편하다며 시골에서의 삶을 고집한다. 비대칭의 몸을 쇠 구슬에 의지하는 팽이의 몸짓으로 상추와 옥수수를 심고 화단에서 꽃을 가꾼다.

팽이는 도는 동안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단조로움에도 개의치 않는다. 자리를 탓하지도 않는다. 또한 더 돌려고 억지 부리지도, 곱디고운 몸짓을 보이려 애쓰지 않는다. 매운 채찍에 상처받고 세파에 휘둘러 몸에 멍이 들지언정 모난 몸뚱이를 탓하지 않는다. 돌 때에는 꽃잎처럼 분별없는 흩날림이 없고 주저앉더라도 꽃이 진 자리처럼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는 팽이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팽이에서 어머니의 세월을 읽는다.

어머니는 팽이다. 당신의 몸을 돌려 자신의 마음을 돌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린다. 보아 주는 사람이 있건 없건 혼자서 돈다. 혼자서 몸을 흔든다.

쓰러지기만 하던 팽이가 살아 움직인다. 세상을 향해 돌기 시작한다. 채찍의 아픔을 뒤로하고 운남 민족촌 공연장에서 빠져나온다.

동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묘숙

당선 작가 수상 소감



도전에 따르는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말고 모든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 주신 4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가슴 한 언저리에 성소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아름다운 유년의 추억 속 아버님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큰 힘이 돼 주셨습니다.

글쓰기는 저에게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이기도 합니다.

그 눈을 통해 보는 세상은 언제나 흥미롭고 신기하고, 보면 볼수록 나를 몰입하게 만듭니다.

글쓰기는 어느 새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일상화된 글쓰기는 저에게 개인적인 발전과 삶에 활기를 가져다 주는, 그 어떤 보약보다 효능이 뛰어난 나만의 보약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날까지 증진하려 합니다.

늘 글쓰기를 독려해 주는 친구들, 직장 동료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 모두와 오랜 세월 묵묵히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남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가방의 꿈

무릇 생각해 보면 나의 모든 희망과 설레임은 가방과 함께였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머니는 필통, 공책, 연필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그날을 위해 사 둔, 문어 모양의 모자가 달린 빨간 다우더 점퍼도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맨밑에 똑딱이 단추가 달려 있는 직사각형 가방에 비할 수는 없었다.

긴 뚜껑을 열면 공책이며 책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했고 필통을 끼울 수 있는 작은 주머니는 양증맞기도 했다.

빈 가방을 메고 마당에 서 보기도 하고, 빈 가방을 메고 밥을 먹으면서 입학식을 손꼽아 기다렸다.

“너무 큰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내 등짝보다 더 큰 가방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자 졸업할 때까지 메고 다니려면 아예 큰 것이 낫다고 어머니가 응대를 하셨다.

끈을 최대한 조절했지만, 가방은 내 허리쯤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입학식날 아침, 빨간 다우더 점퍼에 흰 가제 손수건을 달고 집을 나서 달음박질로 학교로 달려갔다.

“같이 가야지!”

어머니가 가쁜 숨을 쉬며 뒤따라 오셨다.

내가 달리는 만큼 등 뒤의 가방도 바빠 달렸다.

학교 가까이 이르자, 나무 사이로 길게 걸린 만국기는 한 여름의 무성한 나뭇잎처럼 뽀짝거리며 우리를 반겼고, 신나는 동요가 울려 퍼졌다.

교문 앞에 펼쳐진 좌판 위에서 최장수는, 얇게 저민 최 한 조각을 내보이며,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살쪄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만 어린 내가 보기에다 정작 단맛을 보려면 설탕을 녹여 만드는 건너편 퐁과자 좌판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앞으로 나란히!”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손을 뺐었을 때, 내 손은 앞 친구의 가방에 닿았고, 내 뒤 친구 손길도 내 가방을 통해 전해져서 나는 뒤를 보며 싱긋 웃었다.

다시 길게 내려온 가방을 올리기 위해, 업은 아기를 치켜 올리듯 가방을 올리자, 빈 가방이었지만 짐을 나설 때와 달리 웬지 무게가 느껴졌다.

가방과 함께 시작된 사회생활의 무게가, 어찌면 나도 모르게 이미 가방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1964년 이른 봄이었다.

그 후로 6년간, 언제나 같은 가방을 메고 같은 길을 걸어 학교에 갔다.

오래 메서 헤어지고 낡아서 가방이 싫어진 게 아니라, 갈수록 나는 가방이 싫어졌다.

가방으로 상징되는 공부는 정말 어렵고 귀찮은 그 무엇이었다. 골목에서 아이들과 한참 재미있게 노는데, 어머니는 숙제도 하지 않고 책가방만 던져 놓고 논다고 고함치며 나를 불렀고, 기어이 가방 안에 숨겨둔 40점짜리 받아쓰기 시험지를 꺼내 보시고 끝끝 혀를 차기도 하셨다.

공부를 충분히 못하고 일제고사를 볼 땐, 가방은 큰 돌이 되어 꿈 속에서 나를 누르기도 했고, 어떨 땐 내가 가방 속에 들어가 꼭꼭 숨어버리는 꿈을 꾸기도 했었다.

형편없는 성적표를 담고 가는 가방은 때때로 무거웠지만, 청소 후 남은 급식빵을 선생님께서로부터 얻어 가방에 담아 집으로 갈 땐 행복하기도 했었다.

우등상을 한 번도 담아 보지 못했던 오래된 합피 가방은, 6년 후 고맙게도 나에게 소도시 한 명문 여중의 천가방을 인계해 주고 내 곁을 떠났다.

6년 전처럼, 그러나 치열한 경쟁 끝에 어렵게 얻게된 - 학년에 따라 노란 개나리 위에 하얀줄이 하나씩 더 붙어가는 파란 가방의 첫날도 희망 그 자체였다.

저 파란 가방에 많은 상장을 담아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겠다는 꿈, 열정으로 나는 들떠 있었다.

하지만, 꿈은 왜 자꾸만 멀어지고, 열정은 왜 차갑게 식어 가는 것인지 1년, 2년이 지나도록 파란 천 가방은 제대로 된 상장 하나 담아서 집으로 가지 못했다.

나는 열등한 인간인가,

나는 의지 박약 인간인가.

그 후, 몇 개의 가방이 내 삶을 거쳐 지나갔지만 한 번도 가방의 영광은 없었다.

삶에서 어느 순간 가방은 나에게 치명타를 안겨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생각해 보면 가방이 나에게 치명타를 가했다기보다 내가 가방에 대해 치명타를 가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나온 가방들에서 결정적으로 내가 빛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 그날, 나는 가차없이 가방을 버리기로 했다.

기대와 달리 폐쇄적이었던 대학 수업을 참지 못하고, 나는 높은 담을 뛰어 넘어 탈출을 결심했다. 그리고 정말 3m 높이 가량의 담을 뛰어 넘었다.

퍼벅 펍.

의도와 달리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치듯 떨어졌다. 그리고 척추에서 뭔가 강한 통증이 느껴짐과 동시에, 나는 일어설 수 없었다.

수술실로 향하면서 저승 가는 길이 이 기분일까 싶었다.

원했던 대학에 떨어지고 원치 않는 대학의 가방을 선택해서 이 일이 비뚤었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눈물이 흘러 내렸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곰곰이 짚어 보았지만 답을 알 수 없었다. 주어진 대로 마냥 들고 다니면 되는 것이 가방이 아니란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만, 이 역시 때 늦은 후회일 뿐이었다.

비록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가방과 함께한 행복했던 학창시절 - 2교시가 끝나기 무섭게 털어 먹었던 도시락, 버팔로처럼 떼 지어 달려갔던 학교 앞 분식점, 몰래 봤던 영화…….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한 친구들을 기억하며 나는 아픈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3개월 투병 기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져나갔다. 어찌다 무리에서 낙오됐지만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 나서는 야생의 동물들처럼 나는 다시 일어나 길을 가리라고.

시간을 두고 모자라면 보태고 부족하면 채우리라…….

물 흐르듯 세상 따라 흘러가니, 가방에 시달리며 스스로 읊아맨 올가미가 풀리는 것 같아 삶에서 여유를 얻게 되었다.

어찌면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아내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나를 직장 생활을 오늘까지 무난히 이어가고 있음은, 내가 힘겹게 들고 다녔던 가방의 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고, 무겁지만 결코 무겁지만 않았던 가방이 없었더라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가끔 돌이켜 보기도 한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기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좀 더 내가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가방을 내려놓은 시점부터 스님들의 화두처럼 나를 떠나지 않았다.

성숙과 성취의 에너지를 가방에서만 찾았던 내 어리석음을 나무라면서 한때 놓쳤던 가방, 내가 진정 원했던 가방의 의미를 나는 50년이 지난 오늘 찾게 되었다.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두 볼을 때리는 차거운 바람을 가르며 한 걸음에 달려갔던 초등학교 입학식. 등 뒤에서 나만큼 바쁘게 뛰었던 초록빛 룩셋, 그 책가방이 내게 보여 주었던 따뜻한 희망, 설레임, 기쁨, 소망을…….

계단은 한걸음에 차고 올라가긴 힘에 버겁고, 손에 받아 쥔 유인물의 글자가 가물기물하지만, 나는 오늘 참 새롭다.

가방과 시작한 날이 언제나 새로웠듯, 늦깎이 대학생이 된 오늘 정말 나는 새롭다. 나보다 더 걸음이 느린 남편을 그 옛날 어머니가 서 계셨던 그 자리만큼에 세워두고, 나는 50년 전 입학식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생이 되어 다시 가방, 책가방을 잡았다.



동상



경상남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이 규 준

당선 작가 수상 소감



밤새 내린 순백의 눈 위를 맨 처음 걸어봅니다. 시원의 세계에 나의 흔적을 남깁니다. 발자국이 하나 둘 모여 삶의 궤적이 됩니다. 살다보면 즐겁고 기쁜 일보다는 괴롭고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아픔을 달래 주며, 건조한 삶을 풍성하게 하는 힘이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 문학과 함께 가는 영혼은 결코 지루하거나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땅

아내의 휴일 아침이 분주하다. 늦잠을 자려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할당된 몫의 집안 청소를 강요하는 것이다. 사글세부터 시작한 신집살림, 매년 평수를 늘려 옮겨 다니기는 했지만, 전세에서 해방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남의 집 세를 사는 동안 새끼들은 밭줄에 묶어서 키웠다. 사기그릇이라도 깨어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주인댁 아줌마는 저승사자처럼 나타났다. 우리 가족은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간절히 원했다. 어렵게 마련한 집, 아내는 집안 구석구석을 거울의 유리처럼 쓸고 닦는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 깃들고 싶은 둥지가 있다. 연어는 편안한 바다를 버리고 강으로 거슬러 오르고, 박쥐는 타고난 원죄 때문에 어둠을 찾아 동굴로 모여든다. 흙에서는 싹이 움튼다. 풀과 나무는 땅이 그들의 둥지이다. 그 둥지는 농군이 지킨다.

추석 명절이라 고향을 찾았다. 밭줄을 묻은 곳은 아니지만, 어릴 적 뼈아픈 사연으로 이사를 와서 정착한 곳이라 실질적인 고향이 되어 버렸다. 아직도 간혹 노을이 먹물처럼 번져가는 저녁이면 소여물 끓이는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오르는 한적한 농촌이다. 그 곳에서 여든이 넘은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땅을 지키고 계신다. 오랜 세월, 소

작만 해 오신 아버지는 평생의 꿈이 내 땅을 갖는 것이었다.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이 날을 세워 옷깃을 파고들던 동짓달이었다. 우리 가족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아 낯선 곳으로 이주를 단행하였다. 문전옥답을 주겠다는 친척의 약속, 그 하나만을 믿고 빠져거리는 화물 트럭에 몸을 실었던 것이다.

그 당시, 친척 아저씨는 꽤 잘 나가시던 분이였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력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다.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는 얼굴과 화려한 언변은 흠뻑에 모르는 아버지를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어려서는 남의 집 머슴, 결혼해서도 소작농으로 살아오신 아버지로서는 늘 배가 고팠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올망졸망한 새끼들의 허기진 눈망울을 바라보는 것이었으리라.

아저씨는 토끼를 사냥하는 늑대처럼 아버지의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선물 공세와 과도한 친절이 수시로 미끼로 던져졌다. 도끼질에 횃수가 많아지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씩 패여 갔다. 드디어 사냥감이 포획되었다. 거부할 수 없는 결정적인 미끼를 물다 뒷에 걸리고만 것이다. 황무지를 개간할 비용을 조그만 보태주면, 그 수십 배에 해당하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동안 내 땅 한 평 없이 살아오신 아버지로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제안이었다. 아버지는 한 치의 고민도 없이 그 제안을 승낙해 버리고 말았다.

사람은 누구나 핏빛 소망 하나쯤은 가슴에 담고 살아간다. 아저씨는 그러한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전 재산인 집 한 채와 소 두 마리를 처분하여 한 푼 남김없이 아저씨께 갖다 바쳤다.

오아시스를 찾아 낯선 곳에 터를 잡았다. 아버지는 당초 약속한 땅을 요구했다. 아저씨는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꾸라

지처럼 빠져 나갔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오래지 않아 아저씨의 화장기 빠진 맨 얼굴이 드러났다. 양의 가면이 벗겨진 것이다. 허공에 풍선처럼 날아가 버린 돈도 아깝지만, 믿음에 대한 배신감은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었다. 신기루는 한 줌의 연기가 되어 날아가 버렸고, 쌀독에는 먼지만 차곡차곡 쌓여갔다.

취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였던가. 아버지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소주 두 병, 흥기 한 점, 제초제 한 병을 준비했다. 소주는 이성 마비용으로, 흥기는 원수 처단용으로, 제초제는 모든 상황의 마감용이었다.

끝없는 원망과 주체할 수 없는 절망은 방황하던 마음을 바위처럼 굳혀갔다. 마침내 D-데이가 되었다. 해가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연거푸 소주 두 병을 마신 아버지는 범행 대상지로 향했다. 독한 술은 건장한 사내의 이성을 앗아가기에 충분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원수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았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혼미해진 아버지의 머리에 한줄기 회오리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번개를 맞은 듯 온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저 악마를 처단하고 내가 죽으면 원수도 갚고, 이 세상에서의 나의 고통도 끝이 나겠지. 그러나 남아있는 처자식은 누굴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지?” 아버지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흥기와 농약을 싣 보자기는 풀어보지도 못한 채 되돌아 나왔다. 구름에 가려 달빛도 없는 들판 한가운데 앉아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는, 논두렁 옆에 땅을 팠다. 거사를 위해 준비해 간 물건들을 흔적 없이 파묻었다. 한참을 더 울고 난 후에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되돌아 오셨다.

그 후로 아버지는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 낮에는 날 품팔이로, 해가 지면 남의 땅을 소작하였다. 이렇듯 밤낮으로 일한 덕분에 자식들은 콩나물처럼 잘 성장하였으며, 아버지께서는 환갑이다 되어서야 당신의 명의로 된 논, 밭 몇 마지기를 가지게 되었다.

땅의 기운과 화창한 햇살을 먹고 자란 벼 이삭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고개를 반쯤 숙이고 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고은 향기가 황금 물결처럼 일렁거린다. 갈대보다 더 야윈 이삭목 하나에 낱알이 백여 개나 달려있다. 그러나 벼는 낱알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아버지는 다섯 식솔의 목숨을 어깨 위에 얹어 놓고, 외줄을 타는 곡예사 같은 삶을 살아오셨다.

생신이나 명절이 되면 마지못해 고향을 찾는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매년 나의 손을 이끌고 당신의 왕국인 논으로 데려 간다. 나를 논둑에 세워 놓고 그동안 해 오신 농사일에 대하여 일장 연설을 하신다. 연례행사가 된지 오래다. 올해 아버지는 작년과 다르게 얼굴에는 검버섯이 많이 피고, 몸도 여위어지셨다. 아버지로부터 빠져 나온 피와 살이 자식들에게로 쌓여 간다는 사실을 자식을 키우면서 깨닫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농사일을 그만 두시라 말려도 막무가내다. 녹슨 자전거를 타고 당신의 땅을 가꾸는 일이 더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신다.

땅은 꾸밈이 없다. 잘난 체도 하지 않는다. 주는 만큼 되돌려 준다. 좋은 것을 주면 좋게, 나쁜 것을 주면 나쁜 결과로 보답한다. 아버지는 한 평의 땅을 갖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온 몸으로 땅을 아끼고 사랑했다. 식솔들의 배를 불러주는 땅이 삶의 전부였다. 산에서 풀을 베고, 길바닥에서 소똥, 돼지똥을 주웠다. 이것

으로 정성스레 퇴비를 만들어 논과 밭에 먹였다.

아버지는 본능처럼 평생 땅을 갖고 싶어 했다. 동지 속의 새끼 제비는 어미의 부리만 쳐다본다. 고달픈 날갯 짓으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어미, 새끼가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만 쳐다보아도 배가 부르다. 아버지는 굶주림에 지친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땅은 언제나 베풀 만큼 되돌려준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되돌아가는 인간, 아버지는 삶의 의미를 흙을 통하여 깨달았으며, 흙을 통하여 이루고자 한 것이다.

몇 해 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친척 아저씨가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 여러 번 병문안도 다녀왔고, 장례도 잘 치러 주었다.” 땅을 일구면서 땅처럼 살아오신 아버지는 이미 땅을 닦아 있었다. 땅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 곡식, 과일, 채소 등 사람에게 이로운 농작물에게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 심지어 독초까지도 품는다. “이제 너도 그 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걷어 들이고 용서해라. 나는 그 분을 용서한지 오래되었단다.”

나는 가끔 그때 아버지가 땅속에 파묻었던 보자기가 생각이 난다. 아마 지금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 보자기는 오래 전에 땅에 묻혀 썩어가고 있지만, 아버지의 상처와 뜨거운 사랑은 내 심장에 남아 혈관을 타고 도도히 흐르고 있다.

겨울을 지낸 화분을 꺼내 분갈이를 한다. 묵은 화분의 흙을 꺼내어 새 화분에 담는다. 한줄기 봄바람이 불어온다. 흙에서 아버지의 찌든 땀 냄새가 향긋하게 다가온다.

동상



경상북도 김천시
배진철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수상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즐거운 마음이 일지 않는다.
지난달 4. 16 한국의 역사가 멈추어 섰기 때문이다.
인적은 끊인지 오래다. 말문이 닫히고 심장도 머졌다.
슬픔에 잠겨 암울한 시간을 보내며 글쓰기도 접었다.
나약함과 부끄러움이 파고 아래로 퍼진다.
그러나 순결한 신음 소리를 고결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다시 펜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솟아났다.
지금 이 순간이 역사의 중흥기라 받아들이고
반도의 어둠을 헤쳐 어둑새벽을 향해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머스 엘리엇의 황무지가 떠오른다. 4월은 잔인한 달이었지만
봄이 새 모습으로 찾아오듯 새 생명의 고귀함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

지민의 여백에 순수를 읽습니다.
금번 여객선 침몰 사고에 먼저 가신 영령들과 의사자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부족한 작품을 선정해주신 심사 위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다는 것, 지금 현재에 대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뽀아내는 아카시아 향기가 산천을 덮고 오감을 깊게 흔들듯이
모든 이들의 행복이 온누리에 스며들기를 기도해 봅니다.

설악의 풍경소리

날마다 산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희곡의 등장인물처럼 무쌍한 얼굴로 유혹한다. 자연은 계절마다 시각마다 아름다운 얼굴에 향기를 품어내며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만날 때마다 매력에 사로잡히고 자태에 취해 쓰러지기도 한다. 일일편시라도 찾는 이들을 감동주고 영혼마저 앗아간다. 우리는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러 나서지만 격한 감정에 지쳐 빈손으로 돌아온다. 대자연의 마력에 끌려 오늘도 산기슭 만남의 광장으로 떠난다. 여명이 내려오기 전, 성스러운 해맞이를 위하여 정상을 향해 가벼운 몸으로 바지런하게 발걸음을 옮긴다.

방풍복도 입고 헤드 랜턴을 비롯해 장갑과 모자도 준비한다. 스틱의 길이도 맞추고 배낭을 메고 등정의 행렬에 몸을 의탁한다. 명산답게 전국에서 모여든 탐방객의 인파에 밀려 만조처럼 밀려서 산길은 고도를 높인다. 날씨가 제법 추워 등산복에 달린 모자도 꼭 눌러쓰고 앞 사람의 발자국을 포개며 끝없는 세계로 어둠 속을 헤쳐 나간다.

탐방객의 행렬은 야간열차 달리듯 나란히 잇는 불빛으로 이어진다. 별빛이 산허리를 휘감은 듯 온누리가 반짝인다. 새벽하늘의 별밭에는 유난히도 별이 반짝인다. 눈부신 하늘을 바라보니 어릴 적 친

구와 동산에 올라 별을 세며 꿈 이야기한 모습이 저 산 넘어 별빛처럼 다가온다. 새벽별은 옛 친구의 얼굴에 투영되어 영롱한 눈망울로 눈앞에 일렁거린다. 새벽하늘엔 한 세대 전 수놓은 듯 찬란한 별 발이 펼쳐진다. 발아래 산기슭에는 연등 불빛이 반짝이고 여명을 알리는 불빛 축제장으로 펼쳐진다.

새벽길의 산바람은 고도를 높일수록 거칠어진다. 몸속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며 기운도 온 몸을 돌아 발 아래로 흘러내린다. 어둠 속 울러 퍼지는 폭포수의 장관은 볼 수 없다. 그러나 간간히 그곳을 향해 랜턴을 비추어 폭포수 아름다움을 연상하며 설악 폭포의 울림을 듣는다. 끝없는 탐방객의 행렬 사이에 외국인들의 대화와 폭포수 소리가 내 귓전을 맴돌기도 한다. 오색에서 정상을 향해 오르는 탐방길은 경사가 급하여, 한국인의 성질 만큼이나 가파르다는 생각이 든다. 산을 오르는 순간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 힘들고 호흡곤란을 겪지만 인내와 극기 학습을 배우게 된다. 한발씩 발걸음을 옮기면서 대청봉 정상의 풍광을 상상하며 그리운 광경을 그려본다. 숨이 가슴 위로 차 오른다. 길옆에는 맛있는 휴식을 취하며 답소를 나누는 산사람의 대화가 들려온다. 일행 중에는 나이 지긋한 사람들과 연배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여명이 찾아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을산은 높이 오를수록 체감온도는 더 낮아 겨울 맛이 난다. 장갑도 겨울 장갑으로 준비하고 방풍복과 겨울옷을 미리 챙겨야 한다. 운동량이 많아질수록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고 수줍은 소녀 얼굴처럼 열이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간간이 길옆에서 탐방객이 외투를 벗는 희미한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 얼굴에 땀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려 한 겹의 상의를 벗고 모자도 벗는다. 간간이 설치된 산길 옆 작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해맞이에 늦지 않으려 정상을 향해 어둠 속을 씩 없이 걸었다.

정상이 가까워지면서 거친 바람의 아들이 바짓가랑이와 옷매무새를 사정없이 매만진다. 북풍이 산각을 넘어 옷깃을 스치고 볼과 입술에 칼날이 지나간다. 다시 외투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모자도 꼭 눌러썼다. 겨울의 삭풍처럼 명산의 가을바람은 사정없이 바지와 오지랖을 휘감으며 무게 중심을 흔들었다. 간신히 스틱으로 흔들리는 몸을 지탱할 수 있었다. 신이 산사람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북풍의 바람은 몰인정하게 휘몰아친다.

산마루 가까이 곡선으로 이어진 길을 돌아 발걸음을 옮기니 바람이 숨을 죽이고 여명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여명은 해맞이의 전주곡이다. 동녘 하늘 수평선에 홍조 띤 처녀 볼처럼 노란 색지에 붉은 색감으로 스케치한다. 해오름의 시간이 익어간다. 정상 언저리 금송은 동녘 하늘 바라보며 꽃꽂이 서있다. 어둑새벽의 풍경을 사진기에 담아보고 내 망막에 새겨본다. 신성하고 새로운 희망의 울림이 정상의 중요한 적막을 흔든다. 새벽이 열리면서 밝은 맑음이 온누리로 퍼진다.

저 멀리 백사장 넘어 수평선 언저리는 복사꽃 익어가듯 붉게 물들어간다. 뽕안 안개가 걷히면서 망망대해에서 솟아오르는 해오름은 신이 빛은 해맑은 얼굴이다. 대청봉 정상의 해맞이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동녘 하늘 운해를 뚫고 희망의 빛을 몰고 성지에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성스러운 빛이 대청봉 정상으로 스며든다. 붉은 태양은 온누리에 광휘를 비춘다. 정상에선 탄성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울림은 메아리되어 산봉우리를 뒤흔든다. 산봉우리마다 울림의

진동으로 귀가 먹먹하다. 대청봉 해맞이 풍광을 성스러운 순간으로 가슴 깊이 새겨 회자하며 추억하게 될 것이다. 성스러운 시간을 잡지 못해 정상을 떠나지 못하고 주위를 서성인다. 해오름 순간을 다시 새겨보고 동녘 하늘을 다시 쳐다본다.

천불동 계곡은 수천 개의 불상이 탐방객의 발걸음을 유혹한다. 웅장하고 구릿빛 나는 기암절벽과 침봉들 사이 유송들의 자태, 오색 빛 깔로 물든 단풍나무의 풍광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숨이 멎지기도 한다. 붓으로 뿌린 형형색색 눈부신 자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감정을 요동시키며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협곡으로 이어진 계곡과 폭포들의 위용은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아 잠시 가는 길을 멈추고 만다. V자 협곡으로 이어진 천당 폭포의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무릉도원을 보는 듯하다.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보고 가슴에 담아보고 망막에 새겨본다.

오랜 시간 쉬 없이 탐방했기 때문에 발에 통증도 오기 시작한다. 잠시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 신발을 벗고 명경지수에 발을 담가본다. 웅장한 봉우리와 협곡 사이 우뚝 솟은 소나무는 선비의 기상인 듯 곧은 절개와 같다. 그 주변에는 신선이 노닐던 곳인가? 사뭇 상상에 잠겨 눈동자가 고정되고 무상으로 바라본다. 오색 빛은 흐르는 물처럼 정상에서 물들어 계곡 아래로 변진다. 울긋불긋한 단풍과 유송은 한 폭의 도화지에 한 편의 수채화를 옮겨 놓은 듯하다.

비선대의 기암 절벽에서 암벽 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심장이 머질 듯 숨이 막혀온다. 아찔한 전율로 피가 빠르게 감돌아 오금이 저려오는 것 같다. 하산 길에 아름다운 풍광에 마음이 사로잡혀 몇 번이고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일행을 기다리다 명산

의 풍광 끝자락에서 저녁놀도 맞이한다. 서쪽 하늘 저녁노을이 동녘 하늘 해맞이처럼 붉은빛으로 물드는 것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라 여겨진다.

가을 산 풍광에 감동되어 그리움에 쌓여 낮은 목소리로 설악의 이름 불러본다. 설악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노라고 외쳐본다. 어두운 차창에 앉아 오늘 다 안아 보지 못한 성스러운 풍광을 아쉬워한다. 다음 기회에 찾아오리라 침묵하며 약속한다. 어둠이 밀려오면서 사진 속에 담아둔 명산의 해맞이와 가슴에 담아둔 가을의 풍경을 그려본다. 설악의 풍광에 병이 깊어 오랫동안 마음을 가다듬지 못할 것이다. 만산홍엽이 그리워질 때마다 가슴 열어 사진보고 설악의 하늘 바라보며 그리움에 잠길 것이다.

동상



안전행정부
정재근

당신 작가 수상 소감



독일에서 귀국한 아들 / 어디로 발령날까 / 새벽마다 신문 뒤적여도 아무 소식이 없다 // 일흔여섯 엄마는 / 뜨거운 뚝배기도 맨손으로 거뜬히 잡는 / 뚜껑디 뚜꺼운 몽당손가락으로 / 돋보기 코에 걸고 십리나 떨어져 깨알 같은 / 휴대 전화 글자판을 / 조심스레 힘주어 꾸욱~쑹 / 눌렀다 // (중략) // “아들 오늘 발령이 안나 / 궁굼하다 소식 주어 엄마 / 안녕” // 신문 인사란에 아들 이름 보고는 / 소 햇바닥처럼 거칠거칠한 손바닥 위에 / 한번 더 글자판 올려 놓는다 // “좋은 일하고 구설 듣지 말고 / 생각하고 / 인정에 끌리지말 거라 / 엄마가 사랑한다” // 휴대 전화 바탕화면에 / 우는 듯 웃는 듯 걸려 있는 / 어머니 // (손가락편지, 정재근, 2011년 8월)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한 번도 부모님께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지원 업무를 맡으면서 바빠기도 하였지만 진도와 안산의 엄마들이 오열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당신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는, 살아있음에 미안해야 하는 조그만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도 한 달 내내 제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인문학적 삶의 출발이라면 먼저 엄마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따뜻한 인문학적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인문학적 삶에 대하여

독일에 가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인문학 책을 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서 행정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한국의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공부하고 미국의 대학원에서는 도시계획학과 지역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른바 실용학문을 공부해 왔습니다. 또한 그때까지 28년의 공직 생활 내내 조직 관리가 어떻고, 인사가 어떻고, 리더십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경영이 어떻고, 효율이 어떻고 등등의 주제에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일에 가면 도착하는 바로 그날부터 현실 문제의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이런 방법론적인 책들은 결코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대신 인간을 얘기하고 가치를 얘기하고 철학과 사상을 얘기하는 책들, 그 중에서도 가급적 고전을 읽으면서 지나온 제 삶의 궤적을 관조해 보리라 다짐했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독일 근무였지만 마음 편히 인문학 책을 읽고 미술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페라와 베를린 필하모닉도 자주 감상하는 등 참으로 세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발령이 나서 귀국하면서도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책 읽기만은 계속하리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계 부여된 일

은 정부의 보직 중에서도 가장 바쁜 몇 자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책을 손에서 놓게 되었지만 마음은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옛날 살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방 근무와 해외 근무로 인해 이곳저곳에 묻어 놓았던 짐들을 캐내어 거의 6년 만에 한 곳으로 모으니 스물여섯 평짜리 주공 아파트는 잠 잘 공간도 없을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대부분의 짐들이 30여 년간 끌어안고 살았던 책들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앉아 상자를 풀어 책을 정리해서 버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일 내내 밤마다 이 일을 하니 어느새 숙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남기고”하면서 척척 분류하다 보니 문득 버려지는 책들과 남겨지는 책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책들은 대부분 현상을 설명하는 책들이었습니다.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인사 행정, 조직 관리, 소비자 트렌드, 한국 경제의 미래, 리먼 사태의 이해 등등... 독일에서 제가 결코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런 종류의 책들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은 책을 구할 당시에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였지만 시간에 따라 자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지식과 정보로 자주 고쳐져야만 하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이제 과감히 버리고 필요하면 그때마다 다시 사서 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79년 이상문학상 수상집’, ‘소유냐 존재냐’, ‘희망의 혁명’, 시집, 소설책 등은 비록 제가 대학 초년에 읽었던 아주 오래되고 누렇게 변한 보잘 것 없는 책들이었지만 지금도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 인문학의 힘이구나! 사람을 얘기하고 행복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 정의를 논하고 역사와 사상을 담은 책들은 세월

이 흘러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어떤 종류의 책으로 써 나가고 있을까? 내 스스로 써 내려간 나의 인생에 대한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는 그날, 나의 책은 나오자마자 버려지는 책으로 분류될까, 아니면 간직하고 싶은 책으로 분류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내 인생을 인문학적으로 써 내려가는 거야. 현실에 붙잡혀서 아등바등 사는 삶은 방법론적 책을 쓰는 삶이겠지. 내 주위의 이웃과 함께 살고, 다소 어리숙하지만 영악하지 않아서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게 살고, 문화와 예술을 즐기며 철학과 가치를 공부해 나간다면 다소 인문학적인 인생이 될 거야.’

오늘 저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남의 행사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점검이 끝나면 아마 저녁 6시가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승례문 옆 대한상공회의소로 달려가 『CEO독서아카데미』에 참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화요일 한 번만이라도 인문학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제 인생이 기능적으로만 흐르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향취가 그윽이 배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제 인생의 책을 다 쓰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 가족이나 지인들이 가끔 인간 냄새를 맡고 싶어질 때면 저를 떠올리겠지요.

“웬지 오늘따라 아빠가, 혹은 그 친구가 보고 싶어지네.” 이렇게 말하겠지요.

동상



대구신암초등학교
최 선 화

당선 작가 수상 소감



하이얀 밤을 보내고 맞이한 햇살!

그들을 맞을 준비가 덜 된 탓인지 온몸에서 군소리가 났다. 욕심이 과해서 생긴 신호였던가 보다. 아닌 게 아니라 참한 나날을 만들려고 용트림한 시간들이 저 너머에서 걱정 어린 눈길을 연신 보내왔다.

그 결과였던가. 오랜 시간 가시방석 위에서 산 듯하다. 군자도 성인도 내려놓아라. 하며 쉬운 길을 가르쳐 주었다. 알고 보니 아는 길이었고 축수를 세워보니 진즉에 다녀왔던 여정이었다.

이제는 웃는다.

삶의 잔잔한 추억 한 자락이 손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누가 무어라 해도 이제는 주변을 살펴볼 여유까지도 생겼다.

상사화

“괜찮나?”

안부를 문자 전화기 너머의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나중에 연락 하겠다고 한다. 참선 기간인지 통화하기가 곤란한 듯했다. 그녀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같이 다닌 오랜지기다. 고등학교 시절은 삼년 내 같은 반이었고 대학은 지척에서 자취를 한 덕에 문턱이 닳도록 오갔었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가슴을 저리게 했다. 만날 적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후딱 읽는 버릇도 생겼다. 콩나물처럼 발끝에 힘을 잔뜩 주고 선 그녀의 아픔을 알기 때문이다.

오래전, 소식이 뜸하던 어느 날이었다. 사람을 소개해줄터이니 만나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매번 그러했던 것처럼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결혼을 했다고 한다. 뒤통수에 불이 번쩍했다. 그동안 결혼을 시킬 요량으로 다그치며 공들인 시간이 꽤나 길었던 이유다. 배신감이 물밀듯 몰려왔지만 방금 들은 이야기가 무슨 말이었는지 알아내느라 정신을 가다듬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별떼들의 몸부림 소리가 났다. 그런 내 모습을 알 리 없는 그녀는 직장에만 알리고 전통혼례를 올렸다는 설명까지 했다. 뒤이어 배우자가 산사의 종교인이라는 말에 수화기를 내려놓고 말았다.

그러길 얼마가 지났을까. 또박또박 구두 징소리를 만들면서 출근 길을 재촉하는데 느닷없이 휴대폰 소리가 발목을 잡았다. 바람 길을 막느라 완전무장을 했기에 무시할까 하다 급한 연락이면 어쩌나 싶어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였다. 가슴이 떨렸다.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나 싶어 길거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살얼음이 낀 목소리로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했다. 기나긴 시간 강 건너 불로 살다가 어렵게 이어진 끈이었건만 생쌀을 퍼먹듯이 급하게 삶의 끈을 놓았던 모양이었다. 뒤늦게 만난 것도 안타까웠더랬는데 이승과 저승의 주소를 문패로 내걸고 살아야 한다니 말문이 막혔다.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 순간까지도 들은 이야기들이 잘못 전해졌기를 빌었다. 매캐한 향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닿아 남편의 영혼을 붙들고 있을 얼굴을 찾는데 아니나 다를까. 창백한 얼굴이 눈에 들었다. 구석진 자리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온몸에 안은 채 앉아 있던 이가 휘청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였다. 먼저 간 지아비와 함께 본인의 마음도 같이 묶어 보냈는지 진즉에 본적이 없는 표정이다. 검은 상복이 아니었어야 하고 그곳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랐건만 두 가지 기대는 보란 듯이 날아갔다. 그들을 시샘한 조물주를 탓했다. 물론 정해진 길이었으며 일찍이 가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했는지 모를 일이나 남자는 몰아쉬는 숨소리와 함께 모든 업보를 이고지고 가 버렸다. 남긴 것이라곤 그믐밤 같은 침묵과 얼음꽃이 된 그녀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의 말수가 늘었다는 확신이 들어 짐을 찾아갔다. 분위기를 바꿔줄 요량으로 없애도 좋을 물건들을 가리키다 방

문을 열었다. 순간 숨을 멈췄다. 아닌 게 아니라 구도자의 영정과 함께 걸이 드러나는 얇은뱅이 탁자, 기도를 드릴 때 사용했던 각종 물건들이 내 눈과 마주쳤다. 그야말로 산사의 남편이 사회로 돌아와 기도를 드렸던 공간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선무당 사람 잡듯이 무조건적으로 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니 그녀와 질곡 많은 삶을 살다간 그녀의 남편을 언짢게 한 것 같아 말을 아꼈다.

산행 길에 산사의 돌담을 배경으로 호젓하게 서 있는 상사화를 발견했다. 꽃의 얼굴에서 그녀와 구도자의 얼굴이 번갈아 보였다. 상사화는 거꾸로 세운 바소처럼 고고하게 서 있었다. 사람들이 헛갈려하는 꽃무릇과는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둘 다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필 때는 잎이 없으므로 잎은 꽃을 생각하고, 꽃은 잎을 생각하는 점이 내외를 연상시켰던 모양이다. 하지만 꽃무릇이 독약인 것과 달리 상사화는 약초이니 상사화야말로 두 사람과 닮았다. 또 있다. 꽃무릇은 태양의 색을 띤 채 제 뱃속까지 흰히 내보여 주며 야단스럽고 화려하니 그들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 뿐이 아니다. 상사화는 씨방까지 갖춘 완벽한 꽃이되 열매를 맺지 못한다니 2세에 대한 생각은 애초에 접고 살았던 그녀와 흡사하다. 담벼락에 기댄 꽃무리가 지나쳐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은 신자와 구도자로 만났다. 실오라기 같은 마음을 술술 풀어 건넨 쪽은 그녀였다. 그녀는 절대자의 가르침이 온전히 배여 있는 사찰 안과 밖을 오가면서 구도자와 평생을 함께할 꿈을 꿔다. 평생을 그림 밤처럼 사느니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든 뒤의 독수공방이 더 낫다고 생각한 듯하다. 하지만 속가의 사랑 놀음과는 진즉에 달랐다. 무려 십여 년 동안이나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숙성시키듯이 사느

라 속이 솟김정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녀를 내치기에 급급했던 상대방 또한 목숨을 건 정진 끝에 숨겨두었던 마음 한구석을 툭툭 털고 세상으로 나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주변의 만류나 재물, 명예도 오르지 못할 태산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짧은 만남 끝에 운명의 끈을 또 다시 한쪽씩 나눠 주고 꽃과 잎이 되어 상사화처럼 살아야 한다니.

우리 모두는 참으로 다양한 삶을 살고 있다. 평지를 산보하듯이 살 때가 있는가 하면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한다. 그와 반면 흙탕물이 흘러가는 동안 뿌영기만 하던 흙들이 가라앉은 마알간 물 위에 서서 고단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더러는 그 물난리가 진정된 뒤 다져진 평지 위에 서서 소박한 내일을 꿈꾸기도 한다. 그녀의 삶도 예외가 아니다. 비록 먼저 간 이의 몫까지 감싸고 사느라 타래 맨 고개가 무거워 보이지만 광야에서 고함치듯 되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단지 하루빨리 잃어버린 한쪽에 대한 미련을 운명이라 받아들이기를 빌며 습관처럼 수화기를 든다.

“괜찮나?”

A sijo

시조



십
사
평

● 시조 부문 금상 <풍경을 읽다(耳鳴)>은 '풍경'을 '이명'과 연결해 화자 내면의 사유를 잔잔히 우려낸 수작이다. 특히 둘째 수에서 보여 주는 경지는 놀라울 정도다. '몸 밖으로 흘러진 멀고 먼 울음', '녹슬어 안 들리는 두 귀' 등 풍경에서 발원한 내면의 소리가 백목련 꽃술 위에 불면을 털어낸다는 시각적·동적 형상화는 빼어나다. 첫 수 초장의 '한 마리 굴뚝새가 살점 모두 활아먹은'의 풍경에 대한 표현 감각도 돋보인다.

심사위원 : 김현, 권갑하

풍경을 읽다(耳鳴) ● 금상

이태균 | 김천시의회

사유(思惟)의 한 녘 ● 은상

이태호 | 전, 국방부

박제된 교실 풍경 ● 동상

고윤석 | 경북고등학교

변짐 소리

변우연 | 전,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공 굴리는 뼈에로

강용전 | 제주지방법원

시조, 서체를 품다

장은조 | 광주송우초등학교



금상



김천시의회
이태균

당선 작가 수상 소감



당선의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군중 속에서 화장을 고치던 그녀를 생각합니다. 습관적이라고 느껴진 그녀의 행동을 오늘 싱그러움으로 읽습니다. 그리하여 뼈마디로 올라온 중독 같은 봄양이를 즐기는 나의 체위 속에 비유와 상징이 하나씩 채워지기를 고대합니다. 그것은 글에 대한 허기로 퍼덕이는 수많은 시간들이 꽃으로 피어나, 언젠간 환희의 경계를 넘는 생의 오르가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푸른 수액으로 수혈된 뛰는 가슴을 안고, 나에게 남은 여백을 열정으로 보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성한 세상의 숲을 지나 아직 아무도 가지 못한 길 위에 나를 훌연히 내려놓고 싶습니다.

부족한 작품을 수상작으로 뽑아주신 심사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풍경을 읽다(耳鳴)

한 마리 굴뚝새가 살점 모두 훑아먹은
지난날 내 모습이 허공 끝에 걸려있네.
텅그렁, 텅 빈 가슴을
날숨으로 달래며
몸 밖으로 흩어진 멀고 먼 울음이지만
녹슬어 안 들리는 두 귀를 말아 쥐고
백목련 저 꽃술 위에
불면을 털어내네.



은상



전 국방부
이태호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시조는 퇴직 후 무력감과 공허함을 채워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무원 연금지를 읽던 아내가 공무원문예대전 공모를 알려주었고 반신반의하던 나는 끝내 응모하기에 이르렀다. 시조를 몇 마디로 정의하기엔 아직 짧은 이력이지만 가령 글의 제재나 소재가 콩이라면 불을 지피 삶은 콩은 형태가 변하지 않은 그저 콩일 뿐이다. 그것이 산문이라면 그 삶은 콩을 반죽하여 메주를 만들어 숙성시키고 다시 옹기에 담아 순수한 물, 소금 등과 결합하면 형태와 성질이 다른, 깊은 맛이 우러나온 조선간장이 된다. 그게 운문 즉 시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시조를 쓴다는 게 지극한 정성이 깃들어야 하고 깊은 사유의 숲 속에 늘 뒹굴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 차디찬 물 속 세월호에 갇힌 어린 영혼들과 그 유가족을 생각하면 글 쓰는 것조차 사치스럽고 죄스럽다. 공무원문예대전 응모를 권한 아내와 장을 마련해 준 안전행정부가 고마울 따름이며 이번 수상이 아장아장 걷는 외손녀에게 좋은 소식임이 분명하다.

사유(思惟)의 한 녘

1. 민들레

큰 손들이 점령해버린 네온의 서울 거리

한 개 풀씨로 날아든

그 또한 밝히는 꽃

한길 가 척박한 땅에

혼자 좌판을 열고 있다.

2. 참매미 울음

온몸에 화살 맞은 여름이 뒹군다.

초록 물 낭자한 꽃잎들의 잔해 속

사유(思惟)의 한 모서리를

둥글게

허물고

있다.

3. 부들 - 딸애 시집가는 날

개울이 내 아내 젓기슴처럼 말라 있다.
빨아도 빨아도 나오지 않는 젓을 물고
부들은 칭얼거리며 훌쩍 키만 키웠다.

태풍이 할퀴어 제 잇자국처럼 팬 흔적
그래도 혼자 큰 양 떠날 채비 마친 부들
자르르 카펫 밟으며 꽃대 저리 흔들고 간다.



동상



전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변우연

당선 작가 수상 소감



과분한 행운이 찾아온 늦깎이, 해거름의 주홍빛을 더 붉게 물들여 보려는 큰 격려를 받은 것 같다.

철새들의 울동, 저 군무(群舞)
사람들에겐 구경거리에 불과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사활을 건 날갯짓이다.
쫓갠 노을빛 어둠을 불러오고, 휘파람 소리 고요 속에 잠이 든다.
영문도 모르는 그 살처분
수목화의 번짐 소리다.
서로가 살기 위한 수단일 텐데 한 쪽은 죽고, 다른 쪽은 죽어야만 하는지 가슴이 무척 아
팠다.

번짐 소리

여백 속에 펼쳐지는 촘촘한 하늘 무늬
한 마리도 낙오 없이 점선으로 이어진다.
저 군무
그물망 펼쳐
노을빛을 낚는다.

철새들의 곡예비행, 점들의 날갯짓에
가오리 잭싸게 날고
밍크고래 잠수하고
순식간
허공의 결이
선염으로 번져간다.

한 덩어리 깃털들 떼 지어 이동하고
생을 건 춤사위로 비백(飛白)*효과 드러낸다.
어미의
눈빛에 따라
한 필획을 긋는다.

노을 쪼갠 해거름 어둠을 불러오고
갈대숲의 저 살처분 고요 속에 잠이 든다.
AI의

번짐 소리를
수묵화에 내어준다.

* 비백(飛白) 효과: 갈필(渴筆)의 흑·백선이 동시에 선명히 드러나는 서예 기법.



동상



경북고등학교
고 윤 석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올 봄엔 전쟁 통에 피난이라도 가듯 꽃들이 한꺼번에 피어나 노랗 불렀다.

온 천지를 점령한 듯 부산하던 꽃 잔치는 그 절정의 끝자락에서 슬픔의 꽃상여로 변해 버렸다.

어른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빚어진 이 아픔에 모두가 회한의 눈물을 꽃잎보다 더 처연하게 흘렸다.

그러나 가만히 시선을 돌이켜 보면 우리의 아이들이 진도 앞바다에서만 숨죽이고 있는 것만도 아닌 것 같다.

맞지 않는 옷에 몸을 맞춰야 하듯 주어진 제도의 틀 속에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다가 비명 한 줄 못 지르고 어른들 장삿속에 자신을 내던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간 주효했던 획일적 교육 체계는 이제 사대주의적 한계를 뛰어 넘는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발상이 절실히 필요하다.

모처럼 날아온 수상 소식에 미진한 작품을 뽑아 주신 심사 위원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21세기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제도의 발전을 고대한다.

박제된 교실 풍경

인터넷 신세계가 손끝에 끌려 나와
손바닥 위에서 온갖 재주 부린다
그 속에 들어가려나
넋을 놓은 아이들.

저마다 타고난 각각의 색깔들
보듬을 틈도 없이 경주에 내몰리어
붓 씻은 물통 물처럼
젓빛으로 뒤섞인다.

현실을 떨어내듯 도리질 친다 해도
불안한 그림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아닌 듯 속내 숨겨도
시선 둘 곳 아득하다.

오늘도 가야 할 길 옆으로만 맴돌다가
친근하게 다가서는 달콤한 손짓 있어
말없는 시간 저편에
슬쩍 놓는 의문 부호!

동상



제주지방법원
강용전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오름을 오르다 우연히 깡깡대며 소똥을 굴리는 쇠똥구리를 보았다.

문득 어릴 적 쇠똥구리가 소똥을 굴리며 가는 길에 철벽처럼 막고 있는 나뭇가지를 치워준 일이 떠올랐다. 그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42년이나 흘렀다.

한참이나 쪼그려 앉아 회상에 젖었다.

그 쇠똥구리가 굴리는 똥은 나의 삶이며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힘겨워하는 쇠똥구리는 나의 모습이었다.

오름을 내려오며 이 녀석을 소재로 글을 써봐야 겠다는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인연의 재회다.

결초보은이라도 한 겹가?

심사하시느라 쇠똥구리처럼 버거웠을 심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 굴리는 뽀어로

말아 쥘 세상살이
굴리는 쇠똥구리
구린내 내장속물
천지에 깔려 있어
한평생 굴리고 굴려도
태산처럼 쌓이네.

들녘의 굵 뜯 쇠들
쉽 없이 먹어대니
비지땀 말똥구리
한숨만 쉬는구나.
세상에 진동하는 똥
어느 세월 굴릴까.



동상



광주송우초등학교

장은조

당선 작가 수상 소감



화사하게 물든 철쭉꽃이 지고 아카시아 향기 가득한 중외 공원 비엔날레 전시관에 서예작품전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한문 서예 작품들 사이에 수줍듯 숨어 있는 한글 서예가 보였는데,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작가의 혼이 담긴 한글 서체들을 살펴보니 그 속에는 단아한 여인이 있었고, 한이 있었으며, 곳곳한 대장부의 기상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이러한 감정을 시조로 풀어보고자 거듭 고심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문학인 시조와 한글 서예의 만남을 축하해 주신 의미 있는 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조, 서체를 품다

궁체

한복을 곱게 입은 다소곳한 조선 여인
이목구비 수려하고 매무새도 단정하다.
숨 죽여 바라만 볼 뿐 사모마저 버거운,

흘림체

살풀이 춤사위로 매듭 푸는 몸짓으로
서편제 소리꾼의 곡절하는 목소리로
끓일 듯 이어지는 삶 구비 흘러 펼친 연서.

판본체

앞으로 가기 전에 뒤 한번 돌아보고
반듯하고 꼳꼳하게 가는 길 중심을 잡아
단 하나 의지를 세워 큰 뜻 이룬 대장부.

A children's poem

동시



심
사
평

〈엄마의 답장〉은 잔잔한 울림을 주는 작품으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가슴을 적신다.

‘5월 8일 3교시/ 사각사각/ 편지 쓰는 소리가/ 교실 안을 가득 채웠다’의 첫 행이 어버이날을 암시하며 후반부의 ‘나를 꼬옥/ 안아 주는/ 선생님의 품에서’ 나는 엄마 냄새를 맡으며 엄마가 보낸 답장으로 마무리하는 작품의 전개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 동시가 맛깔스럽다.

무거운 주제임에도 감상주의로 흐르지 않아 읽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이처럼 꾸미지 않는 동시, 민낯 같은 동시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준다.

심사 위원: 이상현 오순택

엄마의 답장 ● 금상

안안미 | 함평초등학교

아빠와 시계 ● 은상

이희천 | 통계청

민들레 이야기(부제: 우리 가족)

채나연 | 충청남도 천안시

봄비 ● 동상

이상구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겸손한 발가락

윤은경 | 충청북도 진천소방서

툰밥

김민중 | 대구장동초등학교

이사 가는 날

문초록 | 화령초등학교

아빠의 젖은 운동화

정우기 | 대구달서초등학교



금상



함평초등학교
안안미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길가에 핀 풀꽃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오래 들여다보면 모두 다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언제까지나 아이들과 함께하며 동시를 쓰고 싶습니다.

작고 작은 제 동시에 큰 상을 주시니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같고 닮아 큰 울림을 주는 동시를 쓰겠습니다.

엄마의 답장

5월 8일 3교시
사각사각,
편지 쓰는 소리가
교실 안을 가득 채웠다.

받을 사람은
우리 엄마
받을 곳은
하늘 나라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데
선생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

아무 말 없이
나를 꼬옥,
안아주는
선생님의 품에서
엄마 냄새가 났다.

우리 엄마도
내가 보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도 빨리
답장을 하는 걸 보면



은상



통계청
이희천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은 여덟 살, 큰아들 정훈이 덕분이다.

글을 쓰는 동안, 시간이 나에게 바라는 것과 내가 시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사라짐과 잊혀짐, 새로움과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은 예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내가 아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된 것이다.

느린 듯한 아이의 삶이, 바쁜 듯한 나의 삶보다 결국에는 훨씬 빠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펼칠 수 있게 마당을 마련해 준 공무원문예대전에 또한 감사한다.

아빠와 시계

아빠는 긴 다리로 척척척,
나는 짧은 다리로 촹촹촹,

그래도 멀어졌다가는 금새 만나요.

우리 집 시계도,
긴 바늘은 성큼성큼,
짧은 바늘은 조금조금,

그래도 한 시간만 지나면 다시 만나요.

아빠와 걷다보면 내 다리도 쭈욱쭈욱 길어지겠죠.
숫자를 돌다보면 짧은 바늘도 재깍재깍 길어지려나?

번~쩍! 우리 아빠가 안아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대~앵! 시계 바늘이 만나면 멋진 소리 나네요.

은상



충청남도 천안시
채나연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수상 소식을 듣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상을 받게 되었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로 수상 소감을 대신할까 합니다.

“나 이번에 상 받게 되어서 너무 기뻐. 오랜 시간 공들였으니까. 어쩌면 내 꿈을 이루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 접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 이번에 받은 상이 내 꿈에 한 발짝 다가서게 만들어 주었다는 인증. 그걸 너에게 받고 싶어.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늘 저를 응원해 주고 인정해 주는 - 나의 에너지 - 남편 민경대 씨와 사랑스런 아이들 서영, 채원과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들레 이야기 (부제: 우리 가족)

채송화 옆에 핀 작은 민들레가

“나는 예전에

연둣빛 초록 이파리를 가진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적이 있단다.”

하고 말했어요.

민들레에게

채송화는 말했어요. “네가 어떻게 저 나무 위를 올라가니?

원숭이라도 저 나무 위를 오르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거야. 저 나무는
너무 높아”

민들레는 채송화에게 말해 주었어요.

경쾌한 날갯짓으로

대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었던 일들어요.

민들레가 씨앗이었을 때

서쪽 하늘로, 동쪽 하늘로

영롱하게 반짝이며 나비처럼 날아다녔던 일들어요.

동상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이상구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어느 봄날, 거친 비에 꽃을 피워 보지도 못하고 꺾이는 꽃봉오리가 안타까웠고, 꽃을 피운지 얼마 되지도 않아 험한 봄바람에 꽃잎이 속절없이 지는 것이 못내 속상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꿈 많은 어린 꽃봉오리들이 피기도 전에, 돈 앞에서 도덕이나 양심을 쉽게 저버리는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지고 말았다. 죄스럽고 미안하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봄비와 같이 못다 핀 꽃봉오리들이 활짝 필 수 있는 새로운 사회가 열리기를 기원하며, 부끄럽게 세상에 내놓은 나의 동시가 입선된 기쁨을 나에게 항상 평온한 행복을 선사하는 내 인생의 주연인 내 삶의 동반자와 함께 나누고 싶다.

봄비

비야~ 비야~
봄비야~.
심술꾸러기 천둥 번개
깨우지 말고
하늘하늘 이슬비
대지만 적시어
못다 핀 꽃송이 피울 수 있게
조심조심 또 조심
까치발로 왔다 가렴.

비야~ 비야~
봄비야~.
장난꾸러기 바람 친구
부르지 말고
부슬부슬 보슬비
꽃잎만 적시어
활짝 핀 꽃송이 봄 노래하게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왔다 가렴.



동상



충청북도 진천소방서

윤은경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아픈 몸은 오랜만에 저를 쉬게 했고, 그렇게 쉬어 가는 시간 동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와 친구가 되기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서투르지만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어졌습니다. 절친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시를 친구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발가락

돌부리에 걸려
오른발 두 번째 발가락을 다쳤어요.

팅팅부어 열어나는
내 발가락

집으로 가는길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절뚝 절뚝
기우똥 기우똥

발가락 하나 다쳤을 뿐인데
몸 전체가 비틀거렸어요.

내 몸 중 가장 작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조용히 큰 일을
해내고 있던 내 발가락

몰라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상



대구장동초등학교

김민중

당선 작가 수상 소감



나라의 녹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글쓰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을 담아 내 손으로 빚어낸 글이 기쁜 소식을 안고 와주니 부끄럽고 과분한 마음도 들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정말 떨 듯이 기쁩니다. 글쓰기는 예전에는 그냥 스치던 말들에 호기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은데 거기다 이렇게 큰 선물과 행운이 곁들여지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내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기분이 드네요. 이제 용기 얻어 붓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글을 가장 먼저 읽고 격려해주는 참 예쁜 아내와 많이 놀아주지 못해 늘 미안한 아이, 소중한 가족들, 영원히 같은 길을 걸어갈 고마운 동료들에게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며.

톱밥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아빠의 톱

통나무를 베고
식탁의 키를 줄이고
엄마가 좋아하는 냄비받침을 만들고

아빠도 땀을 흘리고
톱도 땀을 흘립니다.

톱이 흘린 땀은
톱의 눈물 같기도 한 그것은
따뜻하고 폭신평신했어서
우리 다람이 집이 되고
다시 모아서 붙이면
널빤지도 만들고
내 책상도 됩니다.

열심히 일한
고마운 톱이
지나간 자리

톱찌꺼기 생기지 않고
톱가루도 되지 않고
따뜻한 밥만 있습니다.



동상



화령초등학교
문 초 록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나의 어린 딸을 지극정성으로 키워 주시고 계시는 친정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소박한 마음을 따뜻하게 평가해 주신 심사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신 상주아동문학회와 김재수 회장님, 이승진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어린 손녀딸을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부모님께 고마움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사 가는 날

아프면 소아과도
할머니랑 갔는데

예쁜 옷도
할머니가 입혀 줬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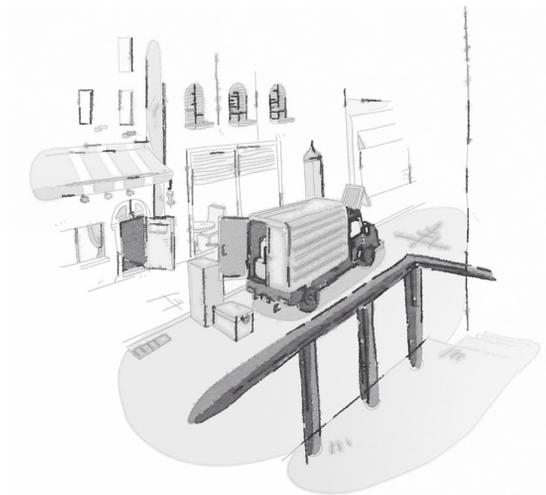
이제는 아프지 않을 만큼
 컸다고
이제는 혼자 옷 입을 만큼
 자랐다고

엄마 아빠 아파트로
이사 간대요.

이젠 깜깜해지는 하늘을
할머니는 시골집 마루에서 혼자
나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혼자
봐야 할지도 몰라.

나는 할머니가 외로울까 울고
할머니는 내가 무서울까 울고

이사 가는 날, 다시 애기가
되고 싶은 날.



동상



대구달서초등학교
정우기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아빠, 산에 구름이 떨어졌어!”

일곱 살 둘째 녀석의 말에서, 동심(童心)을 생각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을 키우며,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아빠의 젖은 운동화

위잉~ 위잉~

월요일 아침

아빠가 내 운동화를 말리고 있다.

덜 마른 내 운동화를 드라이기로 말리고 있다.

위잉~ 위잉~

나는 그만 됐다고 하지만

아빠는 몇 번이고 매만지면서

정성스럽게 말리고 또 말린다.

아빠 어렸을 때는

돌아가신 아빠의 아빠가

연탄불에 운동화를 말리셨다고 한다.

아빠와 같이 학교 가는 길

사진으로만 본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본다.

아..... 아빠의 운동화도 젖어 있을 텐데.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하다.

A children's story

동화



심사
평



금상에 오른 <상구는 내 친구>는 다른 작품에 비해 세련미가 부족하고 문장도 어눌하지만 그런 서투름이 오히려 작가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평소 좋지 않은 인상 때문에 친구를 무시하던 주인공 소년이 친구에게 산불 누명을 씌우고 괴로워하던 끝에 양심을 회복하는 이 이야기는 치밀한 구성과 섬세한 심리묘사가 앞의 서투름을 상쇄하고 남는다. 특히 진실을 알게 된 주인공 엄마가 친구 엄마를 찾아가 용서를 비는 의외의 반전은 오늘의 세태에 비추어 신선한 감동을 준다.

심사 위원: 이상현 오순택

상구는 내 친구 ● 금상

유우석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초등학교

마음속 물음표 하나 ● 은상

허윤정 | 대구광역시교육청

우리 아빠, 이범우 ● 동상

손수연 | 새일초등학교

우린 서로가 필요해요

손혜영 | 대구광역시

이오의 깃털

최은준 | 경상남도



금상



세종특별자치시 연서초등학교

유우석

당선 작가 수상 소감



나에게 동화를 쓰는 일은 그동안의 내 서랍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홉 살이 되면 아홉 살에 채워야 할 서랍장이 있고, 열 살이 되면 열 살 서랍장에 채워야 한다. 열 살이 되어서 비어 있는 아홉 살 서랍장을 채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내 서랍장에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고 슬픈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온갖 일들이 내 서랍장을 가득 채워있기를 바랄 뿐이다. 가득 찬 서랍장은 내가 그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동화를 쓰는 일은 내가 그동안 서랍장을 짹짹 채웠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상구는 내 친구

우리 집에서 바로 나가는 길에는 성희네 집이 있다. 성희네 집은 담도 낮고 대문도 없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그 곳을 안 보려고 해도 보인다. 아빠랑 성희네 아빠랑 친하고, 엄마랑 성희네 엄마랑도 친하다. 나랑 같이 있을 때마다 성희는 나랑 결혼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도 성희랑 친하다.

집으로 올 때 항상 성희네 집을 두리번거렸다. 엄마가 성희네 엄마랑 이야기하는 날이 많아서 그렇다. 그런 날에는 가방을 멘 채 성희네 집에 가서 성희와 놀았다.

며칠 전부터 대청소를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성희네 집이 텅 비어 있었다. 마당에 걸려있던 빨랫줄도 안 보이고 신발도 없었다. 집이 어지러웠다. 며칠 전에 성희네 집이 이사 간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부산 어디로 간다고 들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잊어먹었다. 누구한테 막 화내고 싶은데 누구한테 화를 내야할지 모르겠다.

집으로 들어왔다. 할 일이 없긴 마찬가지다. 빨리 성희네 집에 다른 사람이 이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혼자 있지 않아도 될 텐데…….

성희처럼 예쁜 애가 이사 왔으면 좋겠다. 아빠와도 엄마와도 친

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학교 마치고 매일 놀러 갈 수 있는 친구가 왔으면 좋겠다.

드디어 이사를 왔다. 그 집 새 주인은 상규네가 되었다. 원래 이름은 상규지만 모두들 상구라고 불렀다. 원래 상구네 집은 바로 옆 동네 산중턱에 있었다. 산에 올라갈 때마다 집을 보긴 했지만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누가 그 집에 몰래 가 봤는데 방 안에 조그만 도깨비가 산다고 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몰랐다. 그저 들은 얘기다. 그러니까 상구네는 산에서 동네로 이사를 온 것이다.

상구하고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말해 본 기억이 별로 없다. 그때마다 난 상구라고 불렀다. 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더 어릴 적부터 그랬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 어른들이 한 살 차이는 괜찮다고 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내가 형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건 상구는 나보다 키가 작았다. 그리고 눈이 올라가고 입이 조그만 했다. 상구를 보고 어른들은 농땡이라고 했다.

상구는 책을 더듬더듬 읽는다고 했다. 그리고 이름도 제대로 못쓴다고 했다. 내년이면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아직 글씨를 못 읽는다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그래서 어른들이 농땡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아직 이름도 잘 못쓰니까.

집에 들어오는 길이 좁아서 조금 넓혀야 차나 경운기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상구네가 이사 오는 바람에 글렀다고 했다. 아마 상구네는 길을 넓혀주지 않을 것인가 보다. 넓어지면 좋을 텐데. 내가 상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만큼 어른들도 상구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담 너머로 상구네 집을 보았다. 상구네 집에

는 상구 엄마가 있었다. 상구 엄마는 상구를 닮았다. 똑같이 눈이 올라가 있었다. 입도 조그만한 것 같았다. ‘상구야’ 하고 부르는데 목이 쉬어있었다. 쇠를 굽는 소리 같아서 듣기 싫었다. 원래 목이 쉰 건지 아니면 소리를 많이 질러서 그런지 모르겠다.

“엄마! 상구 엄마는 목소리가 이상해!”

나는 상구 엄마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알아듣긴 했어도 자세히 속으로 몇 번 중얼거려 봐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상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아마 상구가 말을 안 들어 상구 이름을 크게 불러서 그런 모양이었다. 그러니 상구보고 농땡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상구네 집은 이상했다. 시골에는 도둑이 없어 담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담을 높이 쌓아올렸다. 전에 성희네가 살 때는 성희네 집에 있는 대추나무 가지가 길까지 뻗어 나와 대추가 열리면 폴짝 뛰어서 대추도 따먹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는 담 때문에 대추나무가 꼭대기만 보였다. 또 녹색 대문도 달았다. 대문이 전부 다 녹색이었다. 이제는 안에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낮에 집에 올 때는 괜찮았는데 밤에는 무서웠다. 밤에 숨바꼭질하고 오는데 집에 오는 길이 캄캄했다. 녹색 대문도 시커멓고 담도 시커맸다. 나는 상구네 집이 싫었다. 성희네가 왔으면 좋겠다. 담도 다시 부수고 대문도 없었으면 좋겠다. 엄마한테 성희네는 다시 안 오냐고 했더니 엄마는 성희네는 더 잘 살려고 갔으니까 다시 안 올 거라고 했다.

토요일이라 마을회관 공터에 가서 놀았다. 공터에서 애들이랑 숨바꼭질을 했다. 희성이가 술래였다. 백 번을 세더니 찾아다녔다. 난 바로 돌아가는 모퉁이 담에 바짝 붙어있었다. 여자하면 뛰어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때 상구가 왔다. 아마 상구는 집에서 회관에 있는 가게에 오는 것 같았다. 난 상구가 오는 것을 봤지만 못 본 척했다. 상구도 그냥 지나갔다. 다행이다. 상구는 가게로 들어가지 않고 희성이한테 갔다. 희성이한테 뭐라고 하더니 가게로 들어갔다. 그리고 희성이는 곧장 나 있는 곳으로 뛰어왔다. 내가 있는 곳을 들키고 말했다. 아무래도 상구가 일러준 것 같았다. 너무 억울했다. 희성이한테 따지려고 하는데 상구가 과자를 사 들고 나왔다.

“야!”

난 이름도 부르기 싫었다. 어떻게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는지 나를 쳐다보았다. 올라간 눈이 조금 무서웠다.

“니가 가르쳐줬지?”

올라간 눈이 살짝 꼬부라진다.

“그래!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나를 얕잡아보고 하는 소리다. 나보다 한 살 많긴 했지만 분명 상구는 나보다 작았다. 숨어있던 애들이 술래에게 걸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나와 상구 주위를 둘러쌌다.

“니가 뭘데 가르쳐줬어?”

“내 맘이다.”

이런 말들이 오고가자 병대형이 나섰다.

“야! 남자들끼리 이러지 말고 한판 붙어라.”

병대형은 우리들의 대장이었다. 중학생인데 토요일이라서 우리랑 같이 놀았다. 나는 상구와 싸우기 싫었다. 하지만 안 싸운다고 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었다.

“야, 붙어.”

병대형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엉켜 붙었다. 나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올라간 눈이 보기 싫어서 한 쪽 손으로는 상구의 눈을 가렸다. 상구 눈을 쳐다보면 내가 질 것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엉켜 있었나보다. 상구도 나도 씩씩거렸다. 이제 싸우라고 해도 싸울 힘도 없었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성준이가 집에 가자고 했다. 난 상구보다 먼저 가는 게 싫었다. 상구도 그랬는지 꿈쩍을 하지 않았다. 한동안 그랬는지 또 병대형이 나서서 그만하라고 했다.

그제야 난 집에 왔다. 상구와 다른 길로 왔다. 결국 상구네 집을 건너긴 했지만, 어깨랑 얼굴이 아프다. 그 조그만 입으로 물었나보다. 옷이 다 흠투성이가 되었다. 안에 팬티까지 흠이 들어갔다. 꼭 하루 종일 술래만 하다가 온 사람 같았다. 몰래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 입고 나와서 세수를 했다.

“얼굴이 그게 뭐니? 누구랑 싸웠어?”

“아니.”

난 고개를 숙인 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러나 엄마는 눈치를 챘나보다.

“누구랑 싸웠니?”

“.....”

“누구랑 싸웠냐고?”

“상구하고.”

엄마는 한숨을 푹 쉬었다. 저녁을 먹는 등 마는 등 방에 들어와서 누웠다. 괜히 싸웠다.

아침부터 성준이랑 희성이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 아빠와 엄마는 일하러 나간다고 했다.

마침 우리는 성냥을 발견해서 종이를 가져다가 붙 붙여보기도 하고 마른 솔잎을 가져다가 붙여보기도 했다. 한참을 그렇게 놀다가 우린 더 좋은 곳을 찾아 뒷동산에 올라갔다.

뒷동산은 그리 높지 않고 또 반반한 곳이 많아서 레슬링도 하고 총놀이도 하고 그런 곳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부였다. 우리는 뒷동산 낮은 곳, 잔디밭에 불을 놓았다. 금세 불이 붙었다. 재미있었다. 혹시 불이 번지면 안 되니까 큼지막하게 원모양으로 흙으로 담을 쌓았다.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까르르 웃었다.

우리의 불놀이는 뒷동산에서 학교 잔디밭으로 옮겨서 계속 했다. 성냥이 다 떨어져서야 집에 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상구네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다. 전에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불이야!”

“불이야!”

우리 집 뒤, 뒷동산에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산불이 난 것을 처음 봤다. 온통 연기밖에 보이지 않았다. 어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어떤 어른은 양동이를 들고 오기도 했고 어떤 어른들은 마당 쓸 때 쓰는 빗자루를 들고 오기도 했다. 나도 뒷동산에 올라갔다. 병대형은 소나무 가지를 꺾었다. 나도 병대형처럼

소나무 가지를 꺾으려고 했는데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내가 매일 올라가는 뒷동산이 다 탔다. 눈에 보이는 건 다 탔다. 우리의 본부도 찾을 수가 없었다. 난 그때까지도 내가 저지른 일인지 몰랐다. 우리는 조그만 모닥불만 내놓고 왔다. 불이 다 꺼지자 어른들은 우리 집에 다 내려왔다. 그리곤 물을 마시기도 하고 옷을 털기도 했다.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네.”

“아이고.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지.”

정말 큰일날 뻔했다. 하마터면 우리 집까지 불길에 내려올 뻔했다.

“누가 불을 냈을까?”

“애들 짓이야. 애들 짓!”

순간 가슴이 쿵닥쿵닥 뛰기 시작했다. 불을 끌 때는 몰랐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불장난한 곳에서 불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내면 잡혀간다고 했다. 아무리 장난이라도 잡혀간다고 했다.

“이거 상구 놈이 한 짓 아니야?”

“상구? 그래. 그 애가 일로 이사 왔지?”

어른들은 하나둘 상구가 한 일로 생각하는 듯했다. 나보고 상구를 찾아오라고 했다. 난 성준이랑 희성이랑 같이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어른들이 경찰서로 데리고 갈 것 같았다. 무서웠다.

‘차라리 잘됐어, 상구가 싫었는데 상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른들은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상구네 집에 갔다.

“야 상구야!”

방문을 열고 나온 상구의 머리가 붕 떠 있었다.

“너 우리 집에 오래!”

“누가?”

“마을 어른들이.”

“왜?”

“몰라! 빨리 오래!”

상구는 엉거주춤 나를 따라왔다. 올라간 눈은 여전했다. 조그만 입은 더 조그만 했다. 어른들은 다짜고짜 불을 왜 질렀냐고 물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상구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그 올라간 눈에 조그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어른들한테는 거짓말로 들리는가보다. 어른들은 거짓말하면 경찰서로 데려간다고 했다. 그래도 상구는 아니라고 했다. 정말 상구가 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상구가 한 일이라고 단정했다. 상구 엄마도 상구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상구는 아니라고 계속 우겼는데 상구 엄마는 잘못했다고 빌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아이고. 저러니까 에미가 고생을 하지.”

다 혀를 꼴꼴 찼다. 상구 엄마가 빌었던 것이 통했는지 어른들은 다 용서한 듯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는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도 “저러니까 에미가 고생이지.”하고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내 마음이 갑갑하다. 내가 한 일인데 어른들은 모두 상구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곧 엄마가 저녁을 차렸다. 밥상머리에서도 오늘 일어난 산불 이야기밖에 없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밥 먹고 만화도 안 봤다. 내

방에 들어와서 누워있었다. 이상하다. 내가 잘못된 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밋던 상구가 저지른 일로 다들 알고 있는데 내 맘이 이상하다. 그렇게 그렇게 누워있었다.

문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꼭 아기가 우는 것 같아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들리지 않을 때까지 있다가 잠이 들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고양이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올라간 눈과 조그만 입이 마치 상구 같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건 나를 무섭게 하는 울음소리 때문인데…….

상구가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 같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고양이는 울음소리를 그쳤다. 아마 다른 곳을 찾아갔나 보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 내 마음속에서 울고 있었다.

산 중턱 상구네 집에서 사는 도깨비들이 나왔다. 도깨비는 아마도 상구와 친했던 모양이다. 상구와 도깨비가 놀고 있었다. 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도깨비들이 나를 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쫓아왔다. “저 녀석 잡아라! 저 녀석 거짓말쟁이다.” 난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나 발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팔도 계속 공중에서 허우적거렸다.

꿈이었다. 깜짝 놀랐다. 너무 무서웠다. 식은땀이 흘렀다. 벌써 아침인데 잠도 잔 듯 만 듯했다.

아침에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갔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그래. 뭔데? 아침부터 우리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엄마는 아침에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었다. 그런 엄마를 실망시킨 건 싫었다. 그러나 지금 말하지 않으면 더 괴로울 것 같았다.

“엄마, 어제 뒷동산에 불, 내가 냈어.”

“뭘! 뭐라고? 다시 말해 봐!”

“뒷동산에 불 내가 냈다고!”

이 말을 다시 하기 싫어서 크게 소리쳤다. 엄마는 아침 차리던 것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곧 뺨히 나를 쳐다보았다.

“정말 니가 그랬어?”

“응.”

난 울뻐했다. 엄마가 실망한 것 같았다. 엄마는 멍하니 계시더니 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끌고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 싶었는데 상구네 집으로 갔다. 상구네 집도 아침 준비 중이었지만 조용했다. 아직 상구는 자는가 보다. 상구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 엄마가 왔으니까 이상했을 것이다. 아마 혹시 또 상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상구 엄마!”

엄마는 상구 엄마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상구 엄마를 불렀다.

“내가 상구 엄마한테 용서받을 일이 있어서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구 엄마는 의아한 모양이다. 그런 일은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던 모양이다.

“글쎄 어제 산불을 우리 애가 냈다고 그러네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우 엄마!”

상구 엄마도 우리 엄마가 앞에 있는데 진우 엄마라고 부른다.

“우리 애가 어제 산에 불을 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는 상구가 그런 줄 알고 괜히 상구만 야단쳤네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상구 엄마는 아이들은 모양이다. 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과연 어떤 얼굴일까 짐작이 갔다. 아마 나를 께려보고 있을 것이다. 날벼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조용하다. 조금 더 참을까 생각했지만 궁금해서 고개를 들어보았다. 상구 엄마가 울고 있었다.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아이고. 상구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상구 엄마를 다독거리려 주었다. 이상하다. 내가 잘못했으면 엄마가 울어야 되는데 상구 엄마가 울다니…….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괜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가는 야단맞을 게 뻔했다. 한참 동안 엄마는 상구 엄마와 얘기를 했다. 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내 몸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엄마가 집에 가자고 했다. 난 상구 엄마를 보지도 않고 꾸벅 인사를 하고 왔다.

지금은 월요일 수업이 끝나고 상구네 집에 있다. 상구는 내년엔 중학생이 되는데 글씨도 못 읽으면 선생님께 혼날 것이다. 그래서 밥상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다. 상구는 또박또박 글씨를 썼다.

최 상 규…….

은상



대구광역시교육청
허윤정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다가온 작은 물음표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물음표는 잘못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양심이자, 때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옳은 결정을 내리려는 착한 마음입니다. 어린이들이 이리저리 부딪히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 그들을 지켜 주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물음표를 외면한 결과로 세상은 지금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부디 얼마 전에 태어난 사랑하는 조카 신우가 살아갈 세상은 눈물 없는 세상이길 기도합니다.

늘 곁에서 지지해 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해암 최춘해 선생님과 김삼삼 선생님, 문우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두 해째 이런 기쁨을 갖게 해 주신 안전행정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음속 물음표 하나

‘장원 김우빈? 이걸 정말 말도 안 돼!’

아이들이 집으로 간 학교 현관에 교내 백일장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황금빛 리본이 붙어 있는 액자에 눈길이 머문다. 리본 위에는 내 이름 대신 내 절친의 이름이 쓰여 있다.

보름 전 교내 백일장 대회 때였다.

동시가 생각대로 잘 써지지 않았다. 원고지를 구겨서 던져 버렸다. 아까부터 우빈이가 밥 먹는 주인을 맴도는 강아지처럼 나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원고지를 던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뻗었다.

“야, 그거 내꺼야.”

“버렸으면 주운 사람이 주인이지.”

도로 뺏으려 했지만 우빈이는 막무가내였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줘. 이 형님이 우주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뭘지 몰라?”

물론 안다. 녀석은 글자로 된 거라면 뭐든 질색이라는 걸. 몇 자 안되는 설명서도 읽기 싫어서 로봇 다리를 팔에 끼우는 녀석이니 말이다.

“그래도 백일장인데 직접 써야지.”

“야, 서한걸. 다른 사람도 아닌 나한테 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히죽거리던 우빈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배를 문지른다. 또 시작이다.

“과민성대장이라나 뭐라나.”

녀석은 곤란할 때면 늘 이렇게 말하면서 내 쪽으로 방귀를 내뿜곤 한다. 그 썩은 냄새는 상상도 하기 싫다.

“대신 이번 한 번만이야.”

“역시 넌 내 친구야!”

우빈이는 싱글거리며 자기 원고지를 채워나갔다.

‘꽤 괜찮은 글이었는데…….’

주고 나서야 후회가 되었지만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다. 그 작품이 바로 장원이 된 것이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침 방송 조회 시간에 우빈이가 상을 받았다. TV 화면으로 그 장면을 보자 었지른 물속 깊은 곳에서 허우적대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바로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교실로 돌아온 우빈이에게 아이들이 물려들었다. 우빈이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연신 나를 흘끔댔다.

“우빈이 네가 장원이라며?”

소연이다. 내가 좋아하는 소연이가 우빈이를 축하해 주고 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는 투명인간 보듯 하면서 말이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야, 김우빈…….”

우빈이에게 말을 걸려던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들어왔다.

“교내 백일장에서 우리 반 김우빈이 장원을 했어요. 우빈이가 원래 그렇게 글짓기를 잘했니?”

내 기분 탓일까? 선생님은 웃고 있지만 그 웃음 속엔 어쩐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 그제, 그러니까, 그냥 써본 건데…….”

우빈이는 얼굴을 붉히며 축스러워했다. 내 상이 영영 엉뚱한 녀석에게 갈 걸 생각하니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

쉬는 종이 울리자마자 녀석에게 다가갔다.

“지금이라도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야! 그랬다간 대신 써 준 너도 혼나!”

“그렇지만…….”

“혼나더라도 선생님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내가 작게 속삭였다.

“야! 누가 들어! 일단 알았어. 생각해볼게.”

우빈이는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자기를 부르는 아이들에게로 갔다. 칭찬을 들으며 우쭐해하는 모습이 못마땅했다. 아이들의 무리 중에 소연이도 보였다. 소연이가 우빈이에게 함박웃음을 보내고 있었다.

‘저 웃음도 칭찬도 원래는 다 내 건데!’

소연이의 칭찬과 미소가 내 가슴엔 샤프심처럼 콕콕 아프게 박혀왔다. 내가 소연이를 좋아하는 걸 뻔히 아는 우빈이가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저 뻔뻔한 녀석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내 친구 우

빈이가 맞나 싶다. 가만 보니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은 핑계다. 저 녀석은 양심불량이다. 저렇게 얼렁뚱땅 넘기다 끝낼 속셈인 게 분명하다.

“정말 실망이다! 김우빈!”

“내가 뭘…….”

어리둥절해 하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우빈이가 얼른 다가왔다.

“네 실력으로 받는 것도 아닌 상장 나부랭이가 그렇게 좋아?”

“뭐라고? 너 말 다했어?”

우빈이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입술을 찡룩거렸다.

“아니, 아직 더 남았어. 웬만하면 자수할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 같은 녀석은 이제 친구도 아니니까! 지금 당장 가서 선생님한테 다 말씀드려버릴 거야.”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근데 네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뭐라고?”

“그 글 내가 달라고 안 했어도 넌 어차피 다른 걸 냈을 거잖아. 그러니까 넌 어차피 상은 못 탔어. 왜 나한테 화풀이야?”

기가 막혔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우빈이. 잘못했다고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너 같은 녀석을 친구로 생각한 내가 바보다.”

다투고 난 뒤, 우리는 서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우빈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가버렸다.

아무도 없는 현관에 서서 우빈이의 작품, 아니 내 작품을 바라본다.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것 같아 슬프다. 그동안의 우정은 속 빈 공갈빵이었던 걸까? 눈물이 살그머니 고개를 내밀었다.

그 때, 누군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한결이도 우빈이 글 보러 왔구나.”

“선생님…….”

나는 눈물을 들킬까봐 서둘러 눈을 깜박거렸다.

“작년엔 네가 장원이랬지?”

‘올해도 제가 장원이에요.’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선생님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문득 올려본 선생님의 얼굴은 아침 때보다 더 그늘져 있었다.

“저, 선생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렇게 보이니? 사실은 선생님이 고민이 생겨서 말이야. 한결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무슨 일이신데요?”

“선생님이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한 사람이 다치게 돼. 그렇다고 입을 다물면 다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둘 다 선생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으음. 그래도 사실은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이지않아요.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요.”

너무도 당연한 걸 고민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건 그렇지. 하지만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사람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영영 비뚤어질지도 몰라.”

선생님의 마지막 말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 가슴에 물음표 하나를 남겼다.

다음 날에도 우빈이와 나 사이엔 찬바람만 뽀뽀 불었다.

“머칠 후에 도내 백일장이 열린다고 해요. 우리 반 대표로 누가 나가는 게 좋을까?”

나도 나가고 싶었던 곳이었다. 손을 반쯤 올리던 순간,

“우빈이요!”

아이들이 입을 모아 외쳤다. 나는 손을 얼른 책상 아래로 감추었다. 어제부터 아이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우빈이를 추켜세운다.

“그래? 우빈이가 나가볼래?”

그 순간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선생님은 왜 나를 바라보신 걸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만 무언지 알 수 없었다.

“저, 그제, 저는 별로…….”

“장원인 네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냐?”

아이들이 한 마디씩 하는 바람에 우빈이의 말은 묻혀버렸다.

“그래. 그러면 우빈이는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백일장 준비를 하자꾸나.”

“네?”

우빈이의 손에 있던 연필이 교실 바닥으로 데구루루 굴렀다. 많이 당황한 표정이다. 작은 물결은 쉽게 넘어갔지만 앞에서 해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너석은 1교시 수업 내내 식은땀을 흘리더니 보건실에 갔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장이 예민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배탈이 난다.

‘엄살 부리는 거 아냐?’

남의 상을 뺏고도 시치미를 툭 떤더니 결국 백일장 대표라……. 신경이 꽤나 쓰였을 거다. 정말 씹통이었다. 너석도 맘고생 좀 해야 한다.

벌써 4교시이다.

‘많이 아픈 걸까?’

빈 옆자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고소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불안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우빈이가 이려는 게 한 두번은 아니다. 하지만 한번은 배를 움켜쥐고 교실 바닥을 구르다가 응급실로 실려 갔던 적도 있었다.

‘왜 하필 싸우고 나서 이렇게 아픈 거야?’

내가 심한 말을 했던 게 떠올랐다. 우빈이가 아픈 것에 내 탓도 있는 것만 같았다. 왼쪽 옆구리가 뻣한 기분이 들었다. 눈은 칠판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보건실로 향했다. 우빈이가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침대에 누워 있다. 그토록 밍뎀 우빈이가 아파하고 있다.

‘그때 내가 대신 써주지 않았더라면…….’

문득 내 마음 어디에선가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동안 나는 당연히 우빈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다. 정직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대신 써준 것도, 혼날까봐 망설였던 것도.

‘넌 어차피 다른 거 냐을 거잖아!’

우빈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그 글은 결국 내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상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때, 선생님이 안겨준 마음속 물음표가 다시 떠올랐다. 만약 내가 사실을 밝힌다면 배탈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우빈이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도 외면당할 것이다. 그러다 자존심 센 우빈이 성격에 아예 비뚤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가슴속에서 똥똥똥 방망이 소리가 울렸다.

‘더 이상 다치게 내버려 두어선 안 돼!’

속상했던 나만큼이나 우빈이도 이미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젠 억울하다는 마음보다 우빈이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선생님. 제가 다시 생각해봤는데요.”

선생님은 헐레벌떡 쫓아온 나를 놀라며 돌아보셨다.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벌을 주지 않고 둘이서 풀어갈 수 있게요.”

“그럼 상처받을 사람은 어떡하니?”

선생님의 얼굴에는 아직도 고민이 한가득하다.

“둘이 소중한 친구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얼굴에서 어둠이 걷혔다. 살며시 미소가 피어올랐다.

백일장 날이 밝아왔다.

우빈이의 자리가 또 다시 비어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녀석이 왜 또 결석이지?’

그때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우빈이가 배탈이 심해서 학교에 못 온다고 하는구나. 백일장에 자기 대신 갈 사람을 추천하더구나.”

교실 문을 나서는 내 가슴이 훈훈하게 부풀어 오른다. 현관으로 달려가 액자 앞에 섰다.

‘이번엔 꼭 내 실력을 보여줘야지!’

동상



새일초등학교
손수연

당선 작가 수상 소감



초등교사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동화를 쓰는 일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교실에서 저를 향해 무한한 신뢰의 눈빛을 보내주는 스물한 명의 1학년 아이들과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항상 교사, 아내, 엄마로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저를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메시지 전합니다.

우리 아빠, 이범우

우리 아빠 이름은 이범우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아빠를 부를 때는 ‘이봐 범우’나 ‘텃골 양반’이라고 했다. 이 이름도 아빠가 있을 때 그렇게 불렀고 없을 때는 ‘버부리’로 통했다. 처음엔 버부리가 뭔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버부리는 병어리라는 말이다. 처음부터 병어리는 아니었다고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봐. 범우, 나 낫 좀 빌려 주게.”

그럴 때마다 아빠는 멀거니 낫을 빌리러 온 아저씨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그 아저씨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낫들 중에서 가장 반짝이는 걸 들고 낫을 만지작거리면서 나왔다.

요즘에는 아저씨들이 창고에 들어가서 반짝이는 낫을 들고 나와서 ‘이봐, 범우. 나 이거 들고 가네.’ 하면서 끄덕이는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 버렸다.

빌려 간 낫은 저녁 때가 되어서야 들어 왔다. 어떨 때는 며칠이 지나도 들고 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래도 아빠는 말이 없다. 왜냐하면 버부리기 때문이다.

들어온 낫은 다시 반짝거리게 갈아서 창고에 가지런히 걸어 놓았

다. 저녁 때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갔던 낫을 수돗가로 들고 가서 솥 돌에다 갈았다. 아버지가 사용한 낫은 한 개 밖에 되지 않는데 수돗가에 있는 낫은 서너 개나 되었다. 삼을 수돗가 옆에 눕혀 놓은 다음, 삼 손잡이에 솥돌을 괴었다. 그리고 마귀 할머니가 빗자루를 타는 폼으로 앉아 있었다. 삼은 땅바닥에 부딪혀 ‘달그락 달그락’ 소리를 내며 한참 동안 들썩들썩거렸다. 아빠의 손은 솥돌 가루가 묻어 시멘트에 손을 담갔다가 뻘 것 같았다. 아빠가 낫을 가는 일은 내가 저녁 때마다 만화 보는 것처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아빠가 차려 준 아침을 먹고 있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았더니 병태 아저씨가 왔다. 아저씨는 나를 힐끔 보더니 창고로 들어갔다.

“아저씨, 우리 낫 들고 가지 마요!”

손가락을 밥상에 던져놓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마루로 나와 아저씨를 잔뜩 썰어보고 크게 소리쳤다.

“저 놈 보게, 인식아! 어린놈이 어른한테 대들기는…”

“우리 아빠가 갈아 놓았는데 쓰기는 왜 아저씨가 써요!”

아저씨는 ‘저 놈 보게. 저 놈 보게’ 중얼거리면서 반짝이는 낫을 들고 우리 집에서 나갔다.

아빠는 우리 동네에서 키가 제일 컸다. 손도 내 손을 두개 합친 것보다 더 넓었다. 동네에 나갈 때 나를 목마 태워서 나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빠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키가 큰 것도 손이 큰 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동네에서 잔치가 있을 때마다 아빠는 돼지를 잡았다. 커다란 돼지

도 아버지가 휘두르는 큰 망치같이 생긴 오한마에는 한방에 떨어져 나갔다.

‘돼지를 한방에 쓰러뜨리는 사람은 우리 아빠밖에 없을 거야.’

오한마를 잡은 커다란 아빠의 손에 힘줄이 튀어나온 것이 보였다. 그런데 아빠가 큰 망치를 머리 위로 한참이나 들어 올렸을 때였다.

“에이구. 짐승 많이 잡으면 나중에 벌 받는데…….”

조용히 아줌마끼리 말하는 소리였지만 나에게 푹푹하게 들렸다. 아마 아빠도 들었을 것이다.

“쿵”

오한마는 정확하게 돼지의 이마를 때렸다. 돼지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털썩 내려앉았다. 기절한 것이라고 했다.

“아이고, 텃골 양반은 힘이 장사야. 텃골 양반이 있어 걱정이 없어.”

아까 짐승 많이 잡으면 나중에 벌 받는다고 했던 아줌마였다.

그 아줌마를 힐끗 보고 난 아빠한테 달려갔다.

“아빠, 집에 가. 이제부터 돼지 잡지 마. 응?”

아빠는 아무 말이 없었다. 오한마를 바닥에 내려놓고 드러누워 있는 돼지의 발을 묶었다.

“아빠, 저 아줌마가 짐승 많이 잡으면 벌 받는다고 했어. 이제부터 돼지 잡지 마. 왜 맨날 아빠만 돼지를 잡아.”

난 아빠가 벌 받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왜 그런 말을 해서는…….”

“아이고. 기태 엄마는 내가 뒤통다고 그라노.”

“저 애가 애비 뭉까지 타고 났는가베. 여간 영악한 게 아니야.”

아줌마들은 서로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우겼다.

그래도 아빠는 그 곳으로 눈길 한번 돌리지 않았다. 아빠를 계속 끌어당겼지만 아빠는 계속 한 손으로 돼지 다리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나보고 가라고 내저었다.

난 집으로 뛰어왔다. 다시는 아빠랑 아무 데도 안 갈 거다. 마루에 걸터앉아 다리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아줌마도, 아저씨도 밍다. 아빠도 미웠다.

소한테 물을 주려고 했는데 수도가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서 펄펄 끓였다. 주전자에 있는 물을 수도꼭지에 다 쏟아낸 후에야 수도꼭지에서 물이 짹짹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물이 세차게 쏟아져 나왔다. 바닥에 물이 튀었다. 그건 물이 튀기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얼음 알갱이들이 날리는 것 같았다. 물통에다 물을 담아 소한테 갖다 주었다. 손이 시려 방에 들어가 엉덩이 밑에 손을 집어넣고 아빠가 오기를 기다렸다.

저녁 때가 되어서 아빠는 새카만 봉지에 오늘 잡은 돼지고기를 들고 왔다. 봉지 속에는 살코기는 하나도 없고 비계만 잔뜩 들어 있었다. 씹어도 씹어도 물캉물캉하기만 하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아빠, 다시는 돼지 잡지 마. 응?”

아빠는 가만히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어서 먹으라고 손짓을 했다. 하지만 다음에도 아빠는 갈 것이다. 동네에 돼지 잡는 사람은 아빠뿐이고 또 아빠가 고개를 가로짓는 걸 한 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 아. 알려드립니다. 내년에 파종할 수박 모종 신청이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 없이 회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빠는 뿌옇게 먼지가 내려앉은 시커먼 잠바의 지퍼를 끝까지 채웠다. 그리고 손을 얼굴에 갖다 대고 고개를 눌렀다. 늦을지도 모르니 일찍 자라는 말이다. 아빠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이불을 방바닥에 깔아 놓고 손짓으로 이불을 가리킨다.

“응, 알았어. 아빠 일찍 와야 돼?”

아빠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빠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처럼 늦은 적이 없었다. 킁킁한 길이 무서웠지만 난 아빠한테 가기로 했다. 혼자서 집에 있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로등이 켜져 있긴 했지만 불빛이 닿지 못하는 골목은 캄캄했다. 찬바람이 얼굴을 덮쳤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관으로 뛰어갔다.

회관 마당 구석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지만 그래도 킁킁했다. 회관 마당에 뿌옇게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빠!”

아빠는 회관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쌓아놓은 비료 포대들을 옮기고 있었다.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비료를 혼자서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 뭐해?”

아빠는 내가 온 것을 보고 잠깐 주춤했다. 그리곤 나에게 더 가까이

왔다.

“어버버…….”

손을 내젓는다. 빨리 집에 가라는 말이다.

회관 안에서는 마을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안에 들어가 있고 아빠만 밖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아.”

아빠가 바로 앞에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다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빠한테 더 다가가지 못하고 발을 구르며 울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빠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소매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때 회관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시커멓고 커다란 그림자가 회관의 문을 다 가리고 있었다. 그림자가 아빠가 있는 곳까지 드리워져서 아빠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이. 범우 거기서 뭐하나? 빨리 들어오지 않고.”

“우리 아빠가 종이에요? 맨날 시켜먹기만 하고.”

난 있는 힘껏 소리쳤다. 힘이 잔뜩 들어간 손으로 아빠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다. 아빠의 손은 철봉처럼 차가웠다. 꼭 녹슨 철봉 같았다. 아빠의 손이 내 손을 맞잡고 있어 눈물은 계속 얼굴을 타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 번도 나에게 끌려온 적이 없는 커다란 아빠가 순순히 따라왔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는 아무런 손짓도 없었다. 나도 아빠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잤다.

아침에 아빠는 내가 일어난 다음에도 누워있었다. 내가 아침을 챙겨 왔다. 하지만 아빠는 밥을 먹지 못했다. 물만 먹었다.

“어버……. 어버…….”

아빠의 얼굴이 뜨거웠다. 시키면 수염 사이에 물방울 같은 땀이 배어 나왔다. 형클어진 머리는 물기가 묻어 반들반들하게 빛이 났다. 온몸이 뜨거웠지만 아빠는 계속 이불을 끌어당겼다.

“아빠아.”

아빠를 길게 불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빠는 이불만 당기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아빠는 축축하게 젖은 이불을 꼭 끌어 안고 있었다. 따뜻한 물을 아빠 머리맡에 두었다. 조금 먹어보고 물이 차가우면 다시 따뜻하게 해서 머리맡에 두었다.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아빠의 얼굴은 뜨거웠다. 다행히 앉아서 있기도 했고, 수염에 물방울도 없어졌다. 아빠가 밖에 나가려고 했지만 난 온 힘을 다해서 나가지 말라고 말했다. 아빠는 나보다 더 힘이 셋지만 내 말에 순순히 따라 주었다.

“아빠 이제 괜찮아?”

아빠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억지로 웃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봐. 범우, 안에 있나?”

문 밖에서 굵직한 어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문을 열어보라고 한다. 아저씨는 손에 박카스 한 박스를 들고 있었다.

“이봐. 범우, 괜찮나?”

한번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서도 아빠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

나보다. 하긴 맨날 보이던 아빠가 안 보이니까.

병태 아저씨다. 병태 아저씨는 박카스를 문 앞에다 두고 아빠 앞에 앉았다. 아빠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병태 아저씨를 마주보면서 앉았다.

“이봐. 범우, 괜찮나? 많이 아팠다고 하던데.”

병태 아저씨는 아빠의 얼굴을 보고 이불을 아빠 쪽으로 밀쳐 놓았다. 아빠는 이불을 다시 걷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 자네가 아파서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

아빠는 멋쩍게 웃고는 손을 휘저었다.

“딴게 아니라 내일 모레 우리 큰아들놈이 장가를 가지 않나? 그래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야겠는데 말이야. 우리 동네에 돼지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자네밖에.”

아저씨는 박카스를 하나 따더니 아빠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 아빠 많이 아파요. 어제부터 밥도 못 먹었어요!”

난 방문을 열어 아빠가 들고 있던 병을 마당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박스도 집어 들어 던졌다. 박스 안에 있던 병들이 빠져 나와 마당에 흩어졌다.

“이게 무슨 짓이고?”

병태 아저씨는 아빠 얼굴과 내 얼굴을 번갈아가며 봤다. 아빠가 내 손을 끌어당겼다. 난 아빠 곁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빠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병태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그랬다.

“아빠! 가지마. 아빠 지금 많이 아프잖아. 응?”

아빠는 내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병태 아저씨한테만 계속 고개를 숙였다. 병태 아저씨는 손을 들더니 ‘알았네. 알았어.’라고 그러더

니 헛기침을 크게 했다.

“그래. 오늘은 자네가 아파서 안 되겠구먼. 나 이만 가네.”

아빠는 병태 아저씨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하지만 병태 아저씨는 ‘됐네. 됐어.’ 라고 중얼거리면서 밖에 나갔다. 아빠도 따라 나가려고 했지만 내가 아빠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아픈데 나오지 말게. 그럼 나, 가네.”

아빠가 내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다.

“아빠, 지금 아프잖아. 그러니까 나가지마. 응?”

아빠는 내 이마를 쓰다듬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했다.

“아빠 어디 가려고 그래?”

물통을 들어서 붓는 손짓을 했다.

“알았어, 내가 소한테 물 주고 올께. 아빠는 여기 누워있어.”

난 아빠가 누울 수 있게 자리를 바로 펴고 이불까지 덮어 주었다.

소한테 갔다. 송아지가 어미 소의 젖을 빨고 있었다. 어미 소는 큰 눈을 깜빡이면서 먼 곳을 쳐다보며 가만히 있었다.

“소야. 우리 아빠는 버부리야. 버부리…….”

말을 걸어도 소는 눈만 깜빡이며 가만히 있었다. 송아지가 자리를 옮겨가며 계속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봤다. 어미 소는 먹지도 않는데 계속 입을 움직이면서 먹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난 옆에 있는 물통을 들고 수돗가에 갔다. 철렁철렁 넘칠 만큼 물을 담았다. 물통이 무거워서 손을 번갈아가면서 들었다. 물이 넘쳐서 양쪽 바지에 다 묻었다.

아빠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뿌옇게 먼지가 앉은 시커먼 잠바를 입

고 있었다. 아빠는 나를 보고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잠바를 쓸어내리면서 대문 밖으로 나갔다.

난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물통을 왼손에 들었는지 오른손에 들었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아빠아.”

난 아빠의 뒷모습이 사라진 지 한참 후에야 아빠를 따라 쫓아갔다.



동상



대구광역시
손혜영

당선 작가 수상 소감



공직 생활에 첫 발을 내딛으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감격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글재주가 부족한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쓴 글이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동화 속 등장 인물들처럼 도움을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 가진 초심으로 항상 시민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주인공인 아들 진홍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린 서로가 필요해요

“응애 응애”

“어휴! 이 녀석 또 오줌 싸구나. 이불까지 다 버려놨네.”
엄마의 화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기는 슬퍼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가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가요.
그런데 또 엄마를 화나게 했어요.

‘내가 없으면 엄마는 훨씬 기분이 좋아질 거야. 난 엄마에게 방해만 되는 걸.’

아기는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흐르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냅니다.

“응애 응애”

엄마는 하던 일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아가에게로 와요.

“어휴 우리 아가가 오늘 왜 이러지?”

또 엄마가 일하는 걸 방해했어요.

한참 달래다 울음소리가 멎으니 엄마는 다시 집안일을 합니다.

아가는 서글퍼졌어요.

아가가 슬퍼서 우는 것조차 엄마에게는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가는 조용히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웅하고 납니다.

“안녕, 난 바람의 요정이야. 왜 울고 있는 거니?”

“난 방해만 되는 아가야. 엄마는 내가 없으면 더 행복할 거야. 나는 사랑하는 엄마를 힘들게만 해.”

바람의 요정이 말합니다.

“그럼 나랑 여행을 떠날래? 난 항상 혼자라 외로웠거든.”

아가는 바람의 요정의 말에 솔깃했어요.

“내가 너에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니니?”

바람의 요정이 활짝 웃으며 대답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 너도 나처럼 바람같이 움직이게 될 거야.”

갑자기 아가의 몸이 등실 떠올랐어요.

정말 바람의 요정처럼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우와, 정말 날았어. 고마워 바람의 요정아.”

“그럼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날까?”

“응. 그래그래.”

아가는 신이 났어요.

이제 몸이 불편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엄마는 아가가 없어서 행복해질 거예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어요.

바깥세상엔 커다란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다들 바쁘게 다니고 있어요.

아가도 전에는 어른들처럼 저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럽지 않아요.

이제는 동실동실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저 멀리 행복 양로원이 보입니다.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인가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 마당에 나와 있어요.

퐁퐁한 아저씨가 할아버지에게 큰 천을 두르고 머리를 깎아 주고 있어요.

천을 두른 할아버지 뒤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 쪽 끝에는 이미 깔끔하게 머리를 자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머리를 깎아 주는 퐁퐁한 아저씨가 있어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은 행복해 보여요.

아가는 가만히 퐁퐁한 아저씨 옆으로 가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중이에요.”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안녕? 반갑구나. 난 이발사란다.”

아가는 궁금했어요.

“아저씨는 왜 이발관에 있지 않고 양로원에 있어요? 손님을 이발관에서 맞이하지 않아요?”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어른들은 몸이 많이 불편하시단다. 그래서 아저씨는 봉사를 하러 왔어. 한 달에 한 번씩 아저씨는 무료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머리를 깎아 드리곤 하지.”

아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그냥 머리를 깎아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도 못하시구요?”

아저씨가 껄껄 웃으며 아가에게 말했어요.

“하루 일을 못하지만 그래도 아저씨도 얻는 게 있단다. 아저씨의 마음이 따뜻해지거든.”

아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어떤 거예요? 그건 아저씨에게 중요한 일 인가요?”

아저씨는 대답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건 여기 오면 아저씨는 행복해진다는 거란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겐 아저씨가 필요하듯이 아저씨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필요한 거야.”

아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저씨의 머리를 깎아 주시지 않으니까요.

‘왜 아저씨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한 걸까?’

아가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3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러서 바람의 요정과 아가는 날 아다니며 신이 났어요.

“요정아 난 여기가 너무 좋아. 너도 내가 있어서 좋아?”

요정이 까르르 웃어요.

“응, 난 네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여행이 즐거웠어.”

아가가 다시 물었어요.

“요정아, 넌 이발사 아저씨가 이해가 가니? 아저씨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한 걸까?”

요정이 곰곰이 생각을 해요.

“난 인간 세상의 일은 잘 모르겠어. 아저씨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으면 신 나는 걸까? 내가 지금 신 나는 것처럼?”

아가와 바람의 요정은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행을 하는 건 신 나는 일이지만, 머리를 깎는 것이 신 나는 일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저 멀리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보여요.

경찰 아저씨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요.

맑고 청명한 날씨가 하루 종일 서 있는 경찰 아저씨에게는 좀 더울 것 같아요.

아가는 아저씨를 위로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하고 있어요.”

경찰 아저씨가 땀이 범벅이 된 얼굴을 아가에게 돌리고 웃어 줍니다.

“안녕! 반갑구나. 나는 경찰이란다.”

“아저씨, 덥고 힘들죠? 힘내세요.”

아저씨는 아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덥고 힘들지만, 행복하단다.”

아가는 또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덥고 힘든데 행복해요? 화나지 않아요?”

경찰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덥고 힘든 만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얼마 전에는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내가 있어서 작은 사고로 끝났단다.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꼭 필요해.”

아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아저씨가 있어서 행복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저씨가 행복한 건 이해할 수 없어요.”

경찰 아저씨는 껄껄 웃었어요.

“그래. 운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있어서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나도 그들이 있어서 행복하단다.”

경찰 아저씨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아가는 혼란스러웠어요.

“아저씨의 말은 너무 어려워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아저씨에게 무언가를 해 주는 건가요?”

경찰 아저씨는 다시 아가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 줄 필요는 없어. 그냥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지기 때문에 나도 행복한 거란다.”

아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저씨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작별 인사를 하며 아가에게 말했어요.

“너는 착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아가니까, 금방 아저씨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가는 다시 작별 인사를 하고 여행길에 올랐어요.

다시 하늘을 날면서 아가는 요정에게 말을 걸었어요.

“바람의 요정아, 나는 아직 어른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 이발사 아저씨도, 경찰 아저씨도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지?”

요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이발사 아저씨도, 경찰 아저씨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행복한 거야.”

아가는 깜짝 놀라서 요정에게 물었어요.

“요정아, 그럼 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니?”

요정이 대답했어요.

“응, 물론이야. 너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가는 좀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다들 행복해 하는 이유를 알면 나도 엄마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아가는 다시 한 번 높이 날아올랐어요.

이번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자욱했어요.

“더 이상 사상자가 없어야 합니다. 내부는 확인했나요?”

빨간 옷을 입은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멀리서 대답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위급한 환자는 전부 이송되었습니다. 불도 이제 거의 잡혔어요.”

빨간 옷을 입은 아저씨는 이제야 마음이 놓이나 봅니다.

“다행이다.”

한숨 돌린 것 같은 아저씨에게 아가는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중이에요.”

아저씨가 아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오 안녕! 난 소방관이란다.”

아가는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불이 나서 힘드셨죠? 화나고 속상하셨죠?”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많이 속상했단다.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구나. 그리고 아저씨는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구나.”

아가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아저씨는 왜 기쁜 거예요? 불을 끄는 일은 힘들지 않나요?”

아저씨가 아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어요.

“힘들단다. 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구나.”

아가는 알쏭달쏭했어요.

이제 아저씨가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가는 다시 물었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아저씨는 힘들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행복한 거예요?”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즐겁단다. 뭔가 꼭 얻는 것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서로가 필요하단다.”

아가는 아저씨의 말이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했어요.

“아저씨, 서로가 필요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저씨가 아가의 눈을 찬찬히 쳐다봤어요.

“너는 엄마를 사랑하지?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지 않니?”

아가는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는 아가의 마음을 어떻게 안 걸까요.

“네.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아저씨가 미소지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거야. 네가 엄마에게 도움이 되든 그렇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엄마와 너는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

아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갑자기 아저씨의 말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엄마의 도움이 되고 싶었던 것처럼, 엄마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너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바람의 요정이 속삭였어요.

“응. 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 빨리 돌아가자.”

아가는 소방관 아저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날아올랐어요.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았어요. 소방관 아저씨도, 경찰 아저씨도,
그리고 이발사 아저씨도 저만치 멀어져 갑니다.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엄마가 찾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진홍이가 어디 갔니? 어머니,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의 얼굴에서 이발사 아저씨가, 경찰 아저씨가, 소방관 아저씨가 보여요.
엄마는 여행에서 만났던 사람들처럼 아가에게 웃었어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지금 행복해 보여요.

아가는 이제 엄마에게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가 고맙지만, 아가에게 엄마가 필요하듯이 엄마에게도 아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필요한 사이예요.
서로가 있어야 행복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싶어요.

긴 여행으로 아가는 많이 즐리네요.
눈이 스르륵 감기는 아가의 귀에 엄마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아가야, 사랑한다.”

동상



경상남도
최은준

당선 작가 수상 소감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틀렸다. 내가 쓴 글이 작 품집에 실리면 그것은 분명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 부족한 것이 무척이나 많은 글을 읽어 주실 '독자'께도 미리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늘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내 하나뿐인 누나와 더 풍족하고 좋은 소재를 끌어내 주는 선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오의 깃털

“이오.”

“.....”

“이오, 그만 자고 일어나. 아기들 돌봐야지.”

아내 미오였다. 이오는 꿈을 꾸고 있었다. 습지 위 연꽃잎 위로 사뿐거리는 아내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아름다운 노란색 뒷목을 쓰다듬으며 걸었다. 다른 물펄들이 부러운 듯 쳐다봤지만 미오는 오로지 자신만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꿈이었다. 벌써 해가 뜨고 그녀의 다른 두 남편은 아침식사 준비에 바빴다. 꿈과 현실은 너무 달랐다. 미오의 두 남편들은 이곳에서 알아주는 멋쟁이였다. 길고 매끈한 꼬리깃털과 윤기 나는 노란색 뒷목까지. 이오의 모습은 초라했다. 게다가 오늘은 이오가 늦잠까지 자버렸다.

“이오는 좀 부지런해야 해.”

“미안, 어제 인간들 피해 다니느라 조금 피곤했어.”

최근 들어 물소떼가 이곳을 자주 침범했다. 그리고 물소를 이끄는 작은 인간들도 이곳을 헤집고 다녔다. 물소의 등에 올라탄 인간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tri, tri. anh chi(핑, 핑이야. 형아)”

“đâu(어디)?”

인간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연꽃잎 위에서 아기들을 품고 있던 수컷들을 공격했다. 몸놀림이 빠른 꿩들의 깃털도 하나 건드리지 못한 인간들은 등지들을 처참하게 휘저었다. 그자들의 무지막지한 행동으로 많은 아기들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며칠 동안 이집 저집에서 어미들의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벌써 몇몇 가족들은 평생을 살아온 이곳을 떠났다.

“이오, 우리도 곧 이곳을 떠나야 해. 곧 폭풍우도 몰려 올 거야.”

“무슨 소리야, 아기들은 어찌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다른 남편들도 동의했어.”

“그럴 수 없어. 어떻게 부모가 아이들을 버린단 말이야?”

“안타깝지만 아이들은 또 가지면 돼. 다행히 건강한 남편들도 있으니까.”

그녀는 차가웠다. 아름다운 외모의 그녀는 미모만큼이나 마음이 아름답지 않았다. 이오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는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처럼 차가웠다. 물꿩은 하나의 아내와 여러 남편들로 가정을 이뤘다. 알을 낳는 것은 아내의 몫이지만 알을 품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은 남편의 몫이었다. 그중에서 부성(父性)이 가장 강한 녀석이 이오였다. 아내의 다른 남편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동안 이오는 종일 아이들을 품었다. 그리고 곧 아이들이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올 때가 다가왔다. 며칠째 이오는 꿈쩍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아이들을 빨리 꼬집어 내 나는 연습을 시키고 싶었다. 아이를 버리는 일은 상상도 하기 싫었다.

그런데 이오는 왼쪽 날개 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며칠 동안 날갯짓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아 상처가 낫는 것도 눈치 채지 못했다. 깃털하나가 약간 휘어져 있었다. 부리로 몇 번을 고쳐 세우려 했지만 통증이 심해 그만뒀다.

또 며칠이 흘렀다. 이제는 옆집 식구들도 이곳을 떠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남은 것은 이오의 둥지뿐이었다. 갑자기 누군가 성큼성큼 이곳으로 달려왔다. 미오와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이었다.

“이오, 빨리 날아. 날아올라.”

“무슨 일이야?”

“지금 물뱀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어. 한두 마리가 아니야.”

큰일이었다. 이오는 뱀들에게 공격당할 확률이 높아진 것을 깜빡했다. 주위의 둥지들은 텅텅 비었고 먹이가 부족해진 뱀들이 난폭하게 변했을 것이다.

“어서 피해야 해.”

“둘째는?”

“그는 벌써 당했어. 뱀들이 아기들은 공격해도 어른은 공격하지 않는데, 이번엔 달라.”

잡아먹지도 못하는 꿩을 공격해서 죽였다면 상황이 심각했다. 그렇다고 이오는 아이들을 두고 혼자 도망갈 수도 없었다.

“난 가지 않을래. 둘은 도망가.”

“미쳤어? 이오, 아이들은 다시 낳으면 돼.”

“그런 말 마. 세상에 똑같은 아이는 없어.”

“넌 바보야. 멍청이.”

미오는 그녀의 잘생긴 첫 번째 남편과 함께 유유히 날갯짓을 했다.

그들의 몸이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한 바퀴 이오의 머리 위를 돌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오. 지난여름 우리가 함께 했던 동쪽 습지로 와. 태양이 두 번 떠오르면 도착할 거야. 기다릴게.”

이오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노란색 목덜미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이오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첫 번째 남편의 검정색 꼬리 깃털도 초라해 보였다. 살기 위해 달아나는 구차한 생명일 뿐이었다.

그때 이오가 앞드린 연꽃잎 쪽으로 강한 파동이 밀려왔다. 한두 마리의 물뱀이 만들어 내는 것 같지 않았다. 무언가 빠르고 강력한 것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공포가 밀려왔다. 파도가 점점 큰 산을 만들며 이오를 덮쳤다.

‘냄새!’

그랬다. 뱀은 냄새를 맡고 이오의 등지를 찾아올 것이다. 이오는 재빨리 몇 걸음 떨어진 연꽃잎으로 달렸다. 눈을 질끈 감고 구부러진 깃털을 부리로 뽑아냈다.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졌다. 이오가 연꽃잎 위에 오른쪽 날개를 툭툭 털자 피가 이리저리 튀었다. 그리고는 날개를 물속에 담갔다. 이오의 머릿속에는 아기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오의 깃털은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힘없이 날아갔다.

그때였다. 물 밖으로 머리를 치켜든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이오가 있는 쪽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오의 피 냄새를 맡았는지 놈의 혀는 잠시도 쉬지 않고 날름거렸다. 이오는 등지와 뱀을 번갈아 쳐다봤다. 뱀이 제발 등지 쪽으로 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오는 몸을 다시 물속에 담갔다. 그때 다리에 뭔가 뜨끔한 느낌이 들었다. 이오는 급히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솟구쳤다. 다른 뱀 한 마리가 이오의 다리를 물고 달려 올라오다 무게 때문에 물속으로 곤두박질쳤다. 그 바람에 다른 뱀도 이오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오는 다시 연꽃잎으로 내려 앉아 두 마리의 뱀을 유인했다. 다행히 두 녀석 모두 이오를 따라붙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이오는 동지에서부터 멀리 내달았다. 그 사이 몇몇의 뱀이 더 늘어났다. 이오는 죽을힘을 다해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이룩했다.

아이들을 지켰다는 사명감이었을까. 이오는 오른쪽 날개와 뱀에게 물린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날갯짓이 부드럽고 힘찼다. 이오는 이대로 힘이 다할 때까지 날아가도 괜찮을 것 같았다. 어차피 아내와 헤어졌고, 더 이상 아이들을 지켜낼 힘도 없었다.

갑자기 하늘 위에서 그림자 두 개가 나타났다. 먼저 도망친 미오와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이었다.

“이오, 미안해. 다시 돌아왔어.”

“.....”

“물골이 왜 이래,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아이들을 부탁해.”

“걱정 마, 아이들은 내가 꼭 살릴게.”

“나는 어려울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이오.”

“오른쪽 날개와 다리에 감각이 없어.”

이오의 몸을 살피던 첫 번째 남편이 소리쳤다.

“이오, 다리의 상처는 독이 없는 뱀이야. 죽지 않아.”

이오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갑자기 날개와 다리에 통증이 밀려와서 잠시 휘청거렸다.

“이오, 일단 착륙해.”

“아니야, 지금 날갯짓을 멈추면 다시 날지 못할 것 같아.”

“그럼, 동쪽 습지로 날아가. 거기서 우리를 기다려. 내가 아이들 데리고 곧 뒤따라 갈게.”

“그러기엔 너무 위험해.”

“아니야, 이번엔 내가 엄마 노릇을 할 차례야. 나를 믿어.”

이오는 눈을 질끈 감았다. 미오가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지만 다음 일은 상상도 하기 싫었다.

“알았어. 나도 곧 몸이 회복되면 돌아올게.”

“그래, 몸조심해.”

미오와 첫 번째 남편은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이오는 그들을 되돌아 볼 여력이 없었다. 금방이라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았다. 이오는 다시 죽을 힘을 다해 날개를 움직였다. 어느새 하늘은 폭풍우를 몰아칠 준비가 끝났다. 언제라도 비바람이 불어올 것 같았다.

이오는 쉬지 않고 날갯짓을 했지만 태양이 두 번 떠오르면 도착했을 동쪽 습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바람이 계속 뒤에서 쫓아오는 바람에 이오는 계속 날갯짓만 했다.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나는 것은 한결 편했지만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몰랐다. 집을 떠나 이렇게 오랫동안 날아본 적도 없었다. 처음엔 아이들

과 아내 생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날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새카만 구름과 무섭게 휘청거리는 나무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구름에 가려진 태양은 벌써 몇 번이나 뜨고 졌는지 몰랐다.

“野鸡, 白野鸡(꿩, 흰 꿩이다).”

‘탕, 탕!’

이오가 며칠 만에 땅에 내려와 휴식을 취할 때였다. 무언가 날카로운 것들이 주위에 날아왔다. 낫선 습지에 몸을 숨기고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커다란 인간들이 나타났다. 나무 막대기를 들고 이오를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며 따라왔다. 이오는 다시 힘겹게 날갯짓을 했다. 양 날개와 다리는 아직도 옥신거렸다. 이오는 차라리 아이들이 있던 습지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땅으로 곤두박질치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고 싶었다.

그런데, 아마도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 같다. 며칠 동안 날아온 넓디넓은 땅은 보이지 않고 대신 끝도 없는 바다가 나타났다. 벌써 태양이 여섯 번이나 뜨고 졌다. 몸은 출발할 때보다 가벼워졌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 힘들었다. 그렇다고 지금 날갯짓을 멈추면 이오는 바다에 곤두박질칠 게 뻔했다.

눈이 조금씩 감겼다. 안간힘을 쓰고 눈에 힘을 줬다. 수평선 너머로 구름 뭉치 하나가 뚱뚱 떠 있다. 그 속에서 하얗고 뽀얀 날개가 보이는 것 같았다. 다시 꿈을 꿨다. 미오의 보살핌으로 어른이 된 아이들이 하얀색 날개를 한껏 펼치고 이오의 옆으로 날아왔다. 이오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뽕~’

천둥 같은 큰 소리에 놀라 이오는 눈을 떴다. 어느새 바다는 보이지 않고 육지의 한가운데를 날고 있었다. 딱딱한 물체로 만든 것이 땅위를 달리며 이오에게 큰 고향을 쳤다. 이오는 본능적으로 습지를 찾았다. 그래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뭐야, 못 보던 녀석인데?”

“특이하게 생겼네.”

이오가 죽을 힘을 다해 도착한 습지에는 다양한 새들이 앉아 있었다. 고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큰 새들도 많았다. 그들은 여유로웠고 인간들로부터 공격을 받지도 않았다. 많은 인간들이 나타나기는 했어도 습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었다. 이오는 다리의 상처가 아물고 빠진 깃털에도 새로운 깃털이 올라오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고 몹시 보고 싶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화로운 마음도 들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외로웠다. 친구와 가족이 없는 낯선 습지는 적막했다.

“혹시 큰 땅 서쪽 습지에 살지 않았나?”

“어떻게 알아요?”

그는 다리와 부리가 기다란 하얀 중대백로였다. 며칠째 혼자 떨어져 지내는 낯선 새가 있다는 소리에 그가 이오를 직접 보러 온 것이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 습지가 자네 습지일세.”

“아, 정말이에요?”

“그래. 그런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날다보니 이곳에 도착했어요.”

“이 친구야. 여기는 자네 집에서 태양이 여덟 번은 바뀌어야 도착하는 곳이라고.”

“여덟 번이요?”

“몰랐나?”

“예. 폭풍에 쫓겨 날다 바다로 날았고, 멈추지 못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나저나 그 몸으로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겠나?”

“날 수는 있겠지만 길을 모릅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어요.”

“그건 걱정 말게. 때가 되면 나를 따라오게.”

“정말입니까?”

“그래, 그동안 체력이나 비축해둬. 살도 좀 찌우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오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춤이 절로 났다. 연꽃잎 위로 사뿐사뿐 뛰어다니며 한참을 기뻐했다. 그러다 문득 아이들과 아내 생각이 났다. 무시무시한 뱀들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았는지, 폭풍의 피해는 없었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지금은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해지는 것이 목표였다. 이오는 찬바람이 불어오기 전까지 매일 운동하고 영양 섭취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는 동안 이오의 꼬리날개는 길고 멋들어지게 자랐고, 목덜미 노란색이 윤기를 머금었다. 그는 비교할 만한 다른 물평이 없었기에 스스로가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깨닫지 못했다.

드디어 이곳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날개와 다리의 통증은 사라졌고 어느 때보다 몸이 가벼웠다. 그런데, 습지를 아무리 뒤져

도 중대백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잠깐 어디 다니러 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날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결국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하얀색 날갯짓을 하는 한 무리가 나타났다. 이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동족이었다. 물뿔이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였다. 이오의 아내 미오였다.

“이오.”

“미오.”

“살아있었군요.”

이오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처음엔 이오가 아닌 줄 알았어.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내가?”

“그래. 당신은 지금 최고야.”

“너무 추켜 세우지 마. 부끄러워.”

“아냐. 지금 고향에선 당신의 무용담이 얼마나 유명한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들을 구하고 뱀을 따돌린 일 말이야.”

“아이들을 구했다고?”

“그래.”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니까. 내 뒤를 봐.

미오와 함께 날아온 다섯 물뿔이 모두 그가 목숨 걸고 살린 아이들

이었다. 그 중의 한 녀석이 이오의 앞으로 다가왔다. 부리에 눈에 익은 물건이 물려있었다. 바로 그가 뽑아버린 구부러진 깃털이었다.

“아빠. 아빠의 깃털을 물고 이렇게 날아왔어요.”

“아빠?”

“그럼요. 우리 다섯의 목숨을 구해주신 아빠를 보러 여기까지 날아왔어요.”

이오는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보잘 것 없던 몸으로 아이들을 지켜냈다는 사실과, 지금 눈앞에 광경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키 큰 중대백로 아저씨가 나를 찾아왔었어.”

“어. 거기에 갔었어?”

“가족이 아파서 급하게 먼저 이곳을 떠났대. 그래서 당신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면서. 깃털이 빠진 물뿔이 누군지 아느냐며 나를 찾아왔었어.”

그런데, 미오의 첫 번째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도망쳤어.”

“뭐?”

“내가 아이들을 품고 폭풍을 견뎌내는 동안 그는 멀리 달아나버렸어.”

“미안해. 내가 더 강한 아빠였더라면.”

“아니야. 당신은 충분했어. 내가 그걸 몰랐을 뿐이지. 이제는 모든 물뿔들이 당신을 알아.”

이오는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습지에서 행복한 며칠을 더 보냈다. 그러는 동안 많은 인간들이 습지로 찾아와 아이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경남 창녕의 우포늪에 물뽕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물뽕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서식하는 여름 철새로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뉴스 손주원입니다.”

이오는 처음으로 인간이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새들의 주위를 맴돌 뿐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오는 내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도 좋을 것 같았다. 이곳에서 더 건강하고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졌다.

이오와 가족들은 길고 매끈한 다리를 연꽃잎 위로 사뿐사뿐 달렸다. 그리고는 하얀색 날개를 쭉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A play

희곡



심사
평

● <롤렛>은 제목이 은유하듯 누가 어떻게 롤렛이란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 죽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면서 한 사람씩 주인공처럼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광호와 두식의 만남에서 빚어낸 죽음의 예측이 반전이 되고, 이어지는 출연진들이 모두 롤렛을 피해 죽은 줄만 알았던 입사 동기들이 하나씩 살아난다. 마침내 마지막 등장인물인 훈식이 결말부의 반전을 주도하는데 그를 제외한 지금까지 모든 출연자들은 음주운전 사고로 동시에 죽은 영혼들의 모습이었다. 이 작품의 백미는 구성이다. 그 안에 적절하게 반전이 계속되고 결말부의 허황한 반전이 이 극의 허구성을 관객에게 폭로하는 시점이고 종결이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극의 처음부터 롤렛의 희생자를 찾아가는 관극 게임을 주도하고 마침내 현상과 실제가 뒤바뀌는 구성을 하고 있어 극적 흥미를 더하고 있다.

심사 위원: 곽노홍, 김태수

룰렛 ● 금상

노정은 | 장자중학교

자살합시다! ● 은상

조영준 | 서울법원청사우체국

욕망이라는 이름의 막차 ● 동상

이용욱 | 과천관문초등학교



금상



장지중학교
노정은

당선 작가 수상 소감



학창 시절 교사의 꿈을 키워온 나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었다. 바로 작가였다.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는 것을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는 연극부 활동을 하면서 대본을 찾아다니며 읽는 것이 좋았다.

연극이며 뮤지컬을 보고 있으면 뭔가 속에서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고등학교 때의 짧지만 강렬했던 나의 연극부 생활에 대한 기억은 연극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연극을 보는 동안 나는 배우가 된 적도, 스탭이 된 적도, 연출가가 된 적도 많았다.

글을 쓴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행복함을 가져다 줄 때가 많은데, 부족한 것이 많은 이 작품으로 잊지 못할 좋은 선물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 및 주최 측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다.

롤렛

- **등장인물** 김두식, 이광호, 김영철, 박상준, 강훈식, 최진희
- **때** 현대, 월요일 오전
- **곳** 회사 휴게실
- **무대** 무대 중앙에는 널찍한 테이블에 의자가 대여섯 개 놓여 있다. 왼쪽에는 커피 자판기가 놓여 있고, 그 옆으로 각종 안내문이 너저분하게 걸린 게시판이 있다. 유독 한 장의 안내문이 방금 붙인 양 눈에 띈다. 일반 휴게실과 비슷한 구조이다. 테이블 위에는 재떨이와 잡지 등이 정리 되지 않은 채로 널려 있다.

막이 오르면 광호, 성큼성큼 걸어와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의자에 앉는다.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있다가 괴로운 듯 머리를 쥐어뜯는다. 무엇인가 부정하고 싶은 듯 고개를 세차게 젓다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뉘 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잠시 후 두식, 잔뜩 심란한 얼굴로 이광호의 맞은편에 의자를 꺼내 앉는다.

김두식 겨우 찾았네. 대체 다들 어디로 숨은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이광호 (감았던 눈을 뜨더니 벌떡 일어선다.) 야! 너!

김두식 앓, 깜짝이야.

이광호 너… 너…….

김두식 나 뭐. 월요일부터 이래도 되는 거냐? 뒤숭숭해서 이거 원.

이광호 김두식! 너 김두식 맞지? 정말 김두식이니?

김두식 왜 이래? 가뜩이나 심란한데.

이광호 이 새끼 이거. 정말 김두식이네.

김두식 어이구?

이광호 이 자식! (두 팔을 벌려 두식을 안으며) 살아있었구나!

김두식 너, 왜 이래?

이광호 가만 있어봐, 이 새끼 이거. (다시 한 번 세계 안으며) 어휴.

김두식 (억지로 떼어내며)반가운 건 알겠는데. 우리 어제도 같이 있지 않았냐?

이광호 난 넌 줄 알았어 임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전화는 왜 안 받아?

김두식 (휴대폰 흔들며) 애가 맛이 갔어. 근데 뭐가 난 줄 알아?

이광호 어제 연수원에서 사고났잖아. 아침에 회사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와, 등골이 오싹하더라구. 자살이라잖아. 자살. 어제까지 우리 같이 있었는데 자살이 말이 되냐?

김두식 자살? 정말?

이광호 그냥 들리는 소문이 그래. 이런 소문은 또 딱 들어맞잖나.

김두식 그래서 다들 수군수군 난리였구나! 근데 이게 뭐 일이래?

이광호 그러게. 하루 아침에 이게 무슨 일이냐. 뭔가에 홀린 기분이야.

김두식 우리 어제 너무 마셨나? 근데 정말 자살이래? 누구?

이광호 그걸 알면 내가 너를 의심했겠냐? 난, 솔직히 자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다.

김두식 왜 말을 끊어? 자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응?

이광호 넌 줄 알았다구 임마.

김두식 뭐? 이 새끼가. 내가 왜?

이광호 네가 사연이 좀 있잖냐. 누군가 자살은 했다고 하지. 너는 연락이 안 되지. 다른 놈은 몰라도 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구. 이 자식이 결국 일을 저질렀구나 싶었지.

김두식 뭐? 내가 왜? 내 인생이 어때서?

이광호 아니면 된 거지 뭘 그리 열을 내고 그래.

김두식 평상시 내가 자살할 놈처럼 보였다는 거 아니야. 그니까 왜냐구?

이광호 불쌍한 놈.

김두식 뭐?

이광호 너 말야 임마. 널 모레가 마흔이면서 결혼은 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해보고.

김두식 그거냐? 꼴랑? 내가 죽을 이유가?

이광호 잘 생긴 것도 아니고.

김두식 얼씨구.

이광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두식 점점.

이광호 집안이 빵빵해?

김두식 이게.

이광호 줄이 있어.

김두식 야!

이광호 그렇다고 학력이나 좋아? 겨우 대학 졸업장 하나 달랑.

김두식 …….

이광호 승진이나 빨라? 후배놈들한테 자리 다 빼주고, 내지도 못하는 사직서에 위안이나 받고.

김두식 야, 이광호.

이광호 자신감도 없고.

김두식 그만해.

이광호 깡도 없고.

김두식 그만하라니까.

이광호 성격 착한 거? 그게 뭐, 내세울 건가? 만만하게 보거나 하지.

김두식 …….

이광호 술도 별로 안 마셔, 담배도 안 피, 여자도 시큰둥해.

김두식 그게… 뭐!

이광호 왜 사냐? 무슨 맛으로.

김두식 (사이) 내가… 그렇게 보이냐?

이광호 (사이) 아니다, 임마.

김두식 지금까지 지껄여 놓고 뭐가 아냐.

이광호 처음엔 네 얘기였는데 (사이) 하다 보니 딱 나야.

김두식 뭐?

이광호 내가 뭘 맛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널 모레가 사십인데…….

아무튼 살아줘서 고맙다 자식아.

김두식 네 얘길 듣고 나니 살 맛이 푹 떨어진다. 임마.

이광호 너나 나나 인생이 왜 이러냐. 정신없이 산 것 같은데 보상받을 게 하나도 없네. 밭보일까봐 주말 반납하고 눈치 보며 가기 싫은 연수나 가질 않냐. 동기놈 하나 챙기질 못해 스스로 목숨 버리게 만들질 않냐. 그러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회사로 출근이나 하질 않냐. 너나 나나 참 못났다.

김두식 에휴……, 네 얘길 들으니까…… 왜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냐.

이광호 자식…….

광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진희, 눈과 코가 빨개져 들어온다.

최진희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선배님들, 여기 계셨던 거예요? 한참을 찾았네요. 소문은 들으신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어제까지 우리 같이 있었는데……(울먹이며) 어찌죠? 선배님 불쌍해서…….

김두식 진희씨 누군지 알고 있는 거야?

최진희 아직 모르셨어요?

이광호 누군데? 응? 누군데 진희씨!

최진희 아무래도……, 영철 선배 같아요.

이광호 뭐? 영철이?

김두식 영철이가 왜? 진희씨, 진정하고 말 좀 해 봐. 영철이가 왜?

최진희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모진 생각을…….

김두식 확실해? 진희씨!

최진희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들은 얘기도 있고. 불길한 예감도 그렇고……. 연락이 안 돼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이광호 털 떨어진 놈, 죽긴 왜 죽어! 죽을 용기로 살아야지.

최진희 그러게요. 연수 때에도 내내 얼굴이 많이 어둡더라니. 어떡해요…….

이광호 살기 힘든 놈이 저 하나 뿐인가. 죽을힘으로 버텨어야지.

최진희 요즘, 영철 선배한테… 무슨 말 못 들었어요?

이광호 말 못 할 고민하나 안 달고 사는 사람 어디 있나 뭐.

김두식 게다가 영철이 놈은 워낙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서 말이야.

이광호 아, 그러고 보니.

김두식 뭐, 짚이는 거 있어?

이광호 왜, 전에 우리 회식 때 말이야. 안주발만 세우던 놈이 술만 폈던 날, 기억 안 나?

김두식 아! 영철이 완전히 뺨은 날? 근데 왜? 그때 무슨 얘기 들었어?

이광호 어, 술김이였는지는 몰라도 아버님 얘기 하면서 괴로워하더라고. 그때 아버님이 편찮으시다고 한 것 같은데.

최진희 어머!

김두식 그랬어? 난 못 들었는데.

이광호 그래, 맞아. 우리끼리 2차 갔을 때 그러더라고. 아버님이 위암 말기라고 했었지 아마. 그때… 죽고 싶다는 말도 했던 것 같아.

최진희 정말요? (운다.)

이광호 보험 들어 놓은 것도 없어서 병원비도 장난이 아닐 텐데. 영철이 자식, 맘고생 심했겠네.

김두식 우리한테 말이나 하지. 그런 줄도 모르고.

최진희 애들이랑 부인은 어떡해요.

이광호 애들이랑 부인도 문제지만 영철이 놈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놈인데.

김두식 힘들었겠네. 동기 좋다는 게 뭐야. 우리한테라도... 아니다. 동기랍시고 뭐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네. 털어놓는다고 해도 뭐 귀담아 듣기라도 했겠어? 다들 제 코가 석잔데.

이광호 영철이, 참 좋은 놈이었는데. 그런 놈한테 난... (사이) 난 조문도 못 하겠다. 영철이 볼 면목이 없어.

김두식 뭘 소리야 그건 또?

이광호 영철이한테 아직 용서도 못 빌었는데 어떻게 얼굴을 보고 향을 피울 수 있겠냐. 언제든 영철이한테 말하려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어제라도 말할 걸. 자식, 내 용서라도 받고 갈 것이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김두식 뭘데 그래? 영철이한테 뭐 죄 진거 있어?

이광호 있지. 그것도 많이.

김두식 됐어. 잊어버려. 영철이 놈 착해 빠져서 그만 거 기억도 안 할 거다. 그놈이 우리 동기놈들 좀 좋아했냐. 다 용서하고 눈 감았을 거야.

이광호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지. 차라리 판 놈이면 이렇게 마음이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김두식 그렇게 걸리면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어보든지. 아직 이 근

방에서 못 떠나고 있을 거다.

이광호 난 정말 나쁜 놈이야. 동기놈한테 기생하는 연가시 같은 놈이지. 나만 살겠다고, 투병하는 아버지가 있는 놈한테. 아, 나같은 놈이 죽었어야 돼.

김두식 야. 임마…….

이광호 보너스 300%였어. 인사고과 점수 반영 비율도 높았구. 겨우 겨우 그딴 거 얻어내려고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냐? 나… 아무렇지도 않게 영철이놈… 버렸다.

김두식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광호 일 분기 때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기획안 말이야. 영철이가 미친놈처럼 수십 군데 설문지 돌리고 발품 팔아 작성했던 그 기획안. 영철이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일부러 나 영철이 이름 누락시켰다. 선배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둘은 필요없더라구. 영철이 놈이야 늘 성실하고 인정받는 놈이니까 이거 아니어도 되겠다 싶었지. 그치만 정말 그때는 아버님 투병하시는 거 몰랐어. 정말이야.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안 했어. 난… 그냥… 미웠다. 난 뭘 해도 바닥인데 영철이 놈은 뭐든 오케이야. 못하는 게 없는 놈. 난 해내는 게 없는 놈. 같은 부서에서 비교당하는 거 낫아냐?

김두식 됐어. 영철이 놈도 다 이해하고 갔을 거다.

이광호 욕이나 실컷 하고 갔으면 내 마음도 편했을 텐데. 아, 죽고 싶다.

김두식 지금의 네 모습, 영철이가 바라는 모습 아닐 거야. 진정해.

이광호 영철이 자식… 보고 싶네. 죽으면 만날 수 있으려나.

광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처럼 영철이 들어와 의자에 앉는다.

김영철 왜 죽어서 만나? 지금 보면 되지.

김두식 너… 너… 어떻게…….

김영철 왜 이래? 귀신 본 것처럼.

이광호 너 이 자식 (영철을 외락 안으며) 살아 있었구나!

김영철 아, 왜 이래? 징그럽게.

최진희 (감격에 겨워 눈물 흘린다.) 영철… 선배…….

[두식, 광호] (화난 목소리로) 진희씨!

최진희 그제…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전 그냥……, 죄송해요.

이광호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진희씨, 고맙다 영철아, 고맙다 두식아. 다, 전부다 고맙다. 전부 고마워.

김영철 오늘 사람들 정말 이상하네. 누구는 인사를 해도 제대로 받아주지를 않더만, 또 누구는 이토록 반가워하니. 거참. 오늘 이상해, 정말 오늘 이상해.

최진희 선배,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김영철 미안, 미안. 어제 나 어떻게 된 거냐? 완전 필름 끊겼어. 무슨 정신에 회사를 기어나왔는지 모르겠다니까. 다들 얼굴이 누렇게 뜬 게 제대로 잠을 못 잤구만 그래. 근데 뭘 일 있어? 왜 이리 뒤숭숭해? 자살이니 사고니 그건 또 무슨 소리고.

김두식 우리 동기 놈 중 하나가 어젯밤에… 갔댄다.

김영철 가긴 어딜… 뭐? 누가? 왜?

김두식 그걸 모르니까 다들 수군수군 술렁술렁, 아! 못 살겠다. 정말.

이광호 그래도 어찌됐든 우린 다들 무사한 거잖아. 죄 받을 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좋다. 이렇게 다시 얼굴 보게 되니까 그냥 좋다. 참, 영철아.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김영철 해 보쇼.

이광호 (잠시) 아니다. 지금은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 시간도 많으니까. 나중에 진지하게 한 잔 하자.

김영철 자식, 그러든지.

김두식 잠깐, 그럼 누가 없는 거야? 진희씨 아는 거 없어? 우리랑 연수원서부터 쪽 같이 있었으니까 제일 잘 알지 않아?

최진희 (고개 저으며) 저두 불안해 죽겠어요. 같이 갔던 선배님들과고 연락두 안 되구…….

김영철 포천까지 가서 죽어야 할 만큼 괴로웠던 놈이 누굴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동기 놈들한테 가슴이나 열어줄 걸 그랬네.

이광호 우리 동기 놈들이 워낙에 정이 많고 착해빠져서 그래. 착한 만큼 얼마나 많이 당하고들 살았겠어. 이리 채이고 저리 까이고.

김두식 그래도 어디 재철이만 하겠어? (하다가) 아!

광호, 영철 (동시에) 재철이!

최진희 재철 선배!

김두식 다들... 나와 같은 생각하는 거야?

김영철 왜 재철이 생각을 못했지?

김두식 만약, 재철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하나님 실수하
신거야. 어디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재철일.

김영철 그러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재철이는 절대 안 되지.

이광호 하나님은 곁에 두고 싶은 사람 먼저 데려간다잖아. 지켜보
기에 너무 안타까우셨나 보지.

최진희 세운이라고 했죠?

김두식 응. 세운이, 세운이 하도 노래를 부르고 다녀서 아들 바보
소리 꽤나 들었지.

최진희 자폐... 라죠?

김영철 (고개만 끄덕인다.)

이광호 재철이 자식 그런 일이 있었어? 아픈 아들 놈 있다는 소리
는 들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

김두식 몰랐어? 관심 좀 가지세요. 동기님! 재철이, 늘 임버릇처럼
말했잖아. 만약에 환생이라는 게 있다면 자기는 꼭 썩거루
가 되겠다고. 세운이 놈 지 주머니에 넣고 죽을 때까지 함께
데리고 살 거라고. 그런 놈이 어떻게 세운일 두고.....

김영철 이제 아홉 살인가?

최진희 아직 학교도 못 들어갔다면서요.

김두식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지. 염병할 놈의 학교. 그 어린놈이 돈
을 달래, 쌀을 달래, 그냥 또래들끼리 수업이나 같이 듣자는
데 그걸 마다해? 그래 놓고 인성이니, 교육이니를 지껄여?

김영철 그게 어디 학교만의 잘못이겠나. 교문을 흔들고 다니는 치

맛바람이 문제지. 바람막이 잘못 하다간 학교 문 닫는 거 시간 문제아니겠어?

김두식 특수학교 알아본다더니 그게 잘 안 됐나? 생각해 보니 동기 랍시고 제대로 아는 게 없네.

최진희 어떡해요. 불쌍해서.

김두식 근데 말이야. 재철이가 세운이를 두고 과연 죽을 수 있었을까?

김영철 그건 그러네. 세운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던 놈이었는데.

김영철 그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야? 세운이를 두고 갈만큼 대단한?

이광호 글썄. 재철이 성격으로 봐서는 아주 소심한 것이라도 (뭔가 짚이는 게 있다.) 설마…….

김두식 왜 뭐 짚이는 거라도 있어?

이광호 왜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난 뭔가’하는.

김두식 그게 왜?

이광호 뭐, 별건 아닐 수 있는데…….

김두식 뭔데?

이광호 영철이 결혼할 때 말이야. 기억나지? 재철이 자식, 지가 결혼하는 것처럼 좋아하던 거. 청첩장도 제일 먼저 받고 축의금도 제일 빵빵하게 냈었지 아마.

김영철 응. 그랬어. 근데 그게 왜?

이광호 너 결혼하고 일주일이나 지났으려나 나한테 술 한 잔 걸치고 와서 말하더라구.

김영철 뭐라구?

이광호 자기가 보이냐구. 다른 사람들 눈에 자기가 안 보인데. 자기는 투명인간인데 자기는 안 보이고 필요할 때 자기 돈은 잘 보인단나?

김두식 뭐? 그 착해빠진 재철이가 그런 말을 했다구?

이광호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재철이가 그런 말을 했겠냐. 영철이 집들이 때, 왜 기억 안 나? 집들이 다음날 제수씨가 어머니, 아파트가 어머니, 우리끼리 신 나게 떠들고 있는데 재철이가 와서 그랬잖아. 영철이 집들이 했냐고.

김영철 재철이 안 왔었어? 우리 집들이 때?

이광호 재철이가 안 온 게 아니라 네가 안 불렀대 임마.

김영철 그럼, 너네라도 연락해서 같이 왔었어야지!

김두식 한 줄 알았지. 근데 재철이 있지 않았나? 봤던 거 같은데.

김영철 그러게. 나도. 그렇다고 그만한 일로 죽어?

이광호 야, 김영철!

김영철 아니, 난 그게 아니라.

한동안 서로 말이 없다.

김영철 재철아. 미안하다.

이광호 우리도 똑같지 뭐.

최진희 정말... 재철 선뵈까요?

이광호 잠깐! 조용히 좀 해 봐.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

모두 광호 말에 귀를 쫓긋 세워 소리를 들으려한다. 잠깐 동안의 침묵이 흐른다. 잠시 후, 침묵을 깨는 고함과 함께 상준 등장한다.

박상준 (괴성을 지르며 괴로워한다) 아~악!

김두식 깜짝이야. 박상준, 너 왜 이래?

박상준 으으으... 재철이 새끼.....

최진희 어머, 정말 재철 선배가..... (운다.)

이광호 그런가 본데.

김영철 아!

박상준 으으... 으으으.....

김두식 (상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 재철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

박상준 (힐끗 쳐다보며) 뭐?

김두식 재철이 자식, 우리보다 먼저 가서 자리 마련해 놓고 있을 거야. 가볍게 보내 주자. 우리도 어차피 가게 될 곳인데 친구놈 하나 마중 나와 있는 것도 괜찮은 일 아니겠어? 진정해.

박상준 뭘 소리야? 새끼야.

이광호 알아 네 마음. 우리도 다 똑같아.

박상준 똑같긴 뭐가 같아? 재철이 새끼 어딴어, 잡히면 내 가만 안 뒤.

김두식 뭐?

박상준 십새끼. 그 차가 얼마짜린데. 갑죽거릴 때부터 알아 봤어. 그 똥차를 갖구 내 차를... 감히 내 차를... (다시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한다.) 으으으....., 술을 쳐 먹으려면 곱게

쳐 먹을 것이지. 어디서 함부로 차를 돌려? 운전도 그지 같
이 하는 새끼가, 꼴에 똥차 하나 몰고 와서는. 이 새끼 죽인
다. 내가.

최진희 선배, 혹시, 주차하다... 급한 거예요?

박상준 급한 게 다 뭐야, 완전 아작을 냈는데. 많고 많은 자리 다 놔
두고, 넓고 넓은 자리 다 놔두고 왜 하필 내 옆에다 대냐구.
운전두 꼴통 같이 하는 자식이.

최진희 선배... 재철 선배 만날 수 없어요. 어제 사고로 그만.....

박상준 뭘 소리야? 방금 전 주차장에서 그 새끼 보고 뒤쫓다가 놓
쳤는데.

김영철 잠깐! 그럼.....

상준을 제외한 모두, 거의 동시에 외친다.

모 두 안 죽었어?

김두식 죽은 거 아니네, 재철이!

이광호 아!

김영철 휴~.

최진희 재철 선배 (감격의 눈물) 살아줘서 고마워요.

박상준 죽어야 돼. 그 새끼.

김영철 근데, 재철인?

박상준 몰라, 어디론가 튀었어. 오기만 해 봐. 내가 가만 두나. 전화
두 안 받구, 피하겠따 이건데. 내가 당하고 있을 줄 알아? 오
늘 아침부터 일진이 사납더니만. 그래, 내, 오늘 날짜로 제사

상 받게 해 준다.

김영철 그만 좀 하지? 차는 안됐지만… 소식 못 들었어? 우리 동기 중 한 사람이 어제… 갔다잖아. 우린 재철이가 죽은 줄 알았
고.

박상준 그래도 싸 그 자식은. 아니, 그랬어야 돼. 으…….

이광호 차 좀 굶힌 거 갖구 유난은. 새끼, 정떨어진다.

박상준 나두 네 차 같으면 그럴 수 있어 쿨하게. 근데 되냐? 내가 어떻게 장만한 건데. 것두 이번 연수 갈 때 처음으로 몰고 간 거란 말이야. 니들은 니들 일이나 신경 써. 내 일에는 신경 끄고, 암튼 이 새끼 잡히기만 해 봐.

이광호 야, 누구는 인생이 힘들어 세상을 등졌다는데, 고인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라도…….

박상준 씨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남 죽은 게 대수야? 누가 죽으
래?

김두식 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다른 사람도 아닌 동긴데. 넌 동기에 대한 애정도 없냐?

박상준 애정? 있지. 그래서 말인데. 오늘 조문은 니들끼리 좀 다녀와라. 난 우리 애마가 더 다치기 전에 안전한 곳에 모셔놔야
겠어.

김두식 뭐? 뭐가 다치기 전에 어쩐다구? 우리 중 한 사람이었대도
이럴래?

박상준 그럼 뭐? 내가 있으면 죽은 새끼가 살아 돌아 와? 어차피
한 번은 가는 인생이야. 이 정신에 운전했다가 사고라도 나
면 네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김영철 너 진심이야? 이렇게 막 나갈래?

박상준 아, 신경 끄시라고! 누구야? 죽은 놈이? 누가 죽었든 부조금만 내면 될 거 아냐?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

이광호 새끼, 고인한테 하는 소리 하고는. 너 별 받아 자식아.

박상준 시끄럽고! 야, 누구든 이걸로 내 이름만 써 줘. (지갑을 꺼내 수표 한 장을 꺼낸다.) 니들보다 많이 낼 테니까 인상 구기지 말고.

김영철 너, 정말. 동기고 뭐고 없구나? 너 이런 놈이었어?

박상준 동기면 뭐 내 차 제대로 고쳐준대? 몰라 몰라, 니들이 알아서 좀 해. 제 명이 여기까진 걸 나보고 어찌라는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별 수 있어?

최진희 그래도……, 선배 이러면…….

박상준 (동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나가다가 획 뒤를 돌아보고) 재철이 새끼 오면 나한테 전화해. 당장 달려올 테니까. 에잇, 개새끼.

상준, 모습이 안 보이는 순간까지 계속 욕을 해 대며 퇴장한다. 남은 동료들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황당해 하다가.

김두식 죄 받을지 모르지만 나 기도할란다.

이광호 동참해도 되냐?

김영철 하나님 바쁘시겠지만 이미 데려가신 동기놈 다시 돌려주시옵고,

김두식 개념없고.

이광호 싸가지 없는.

김두식 박상준 새끼 데려가십시오. 아무 대가 없이 달게 바치겠습니다.
이다.

두식, 광호, 영철 아멘.

최진희 (작은 목소리로) 아멘.

모두 키득거린다. 그러다 돌연 숙연해진다.

이광호 내 일이 아니라고 웃음이 나오네.

김영철 그러게. 미안하네.

김두식 이제, 진지하게 먼저 간 동기를 위해 기도하자.

이광호 그럴까?

잠시 기도로 인한 침묵이 흐른다. 잠시 후 상준, 전화를 하면서 등장한다. 아까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흥분 상태다. 상준의 등장
에 다들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상준을 쳐다본다.

박상준 이 새끼들이 서로 짤나, 왜들 전화를 안 받고 지랄들이야?

김두식 왜 또 왔어? 귀하신 차님 데리고 들어간다더니.

박상준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시동이 안 걸려. 씨발, 차 망가졌다고!
재철이 어딴어, 동찬이는 어딴구? 니들이 숨겼지? 니들
다 한패지?

최진희 동찬 선배요? 동찬 선배도 봤어요?

박상준 그 새끼도 다 한 패야. 재철이 새끼 차 얻어 탔다고 지금 편

들어주는 거라구. 거기 근성으로 푹푹 뭉친 새끼.

김영철 아, 잠깐 잠깐! 그럼, 동찬이 놈도 살아 있는 거야?

최진희 (기도하며) 아! 감사합니다.

이광호 어휴.

박상준 놀고들 있네. 아, 봤어, 못 봤어? 여기 안 온 거야?

이광호 하, 저 새끼, 진짜 맘에 안 드네. 왔어도 안 왔다 자식아. 너, 나가. 네가 있을 곳 아니니까 꺼져 이 새끼야. 재수 없는 놈.

박상준 뭐? 다시 말해 봐.

이광호 댕다고요. 나가시라고요. 이 밥맛 떨어지는 놈아. 이 중에 너 반길 사람 아무도 없으니 나가서 그 우라질 차하고나 노시라고요.

박상준 이 새끼가 차 태워달라고 해해 거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두 너 같은 새끼 상종 안 해 임마. 네가 나랑 레벨이 같냐?

이광호 뭐? 이 새끼가. (한 대 치러 일어나자 두식과 영철이 만류한다.)

박상준 쳐 봐, 어디! 꼴값들을 하세요. 업무 시간에 일들은 안 하고 쓸데없이 모여서들, 이러니 윗대거리들이 좋게 볼 리가 있어? 이런 새끼들하고 내가 한통속으로 묶여야 된다니! 씨발, 동기놈들아, 니들은 니들 인생 사세요. 난 나대로 살 테니까요. 제발!

김두식 너 진짜 안 되겠구나! 말이면 단 줄 알아?

박상준 아이구, 무서워라. 무식한 것들이 힘만 세서는. (다시 전화를 하며) 십새끼들, 잡히기만 해 봐. 예잇! (전화하면서 나

간다.)

이광호 너 거기 안 서?

흥분하는 광호 및 동기들을 뒤로 하고 상준은 전화 받지 않는 동기들 욕을 해대며 퇴장한다.

이광호 아! 내가 정말 오늘 저 새끼 죽이고 나두 죽는다.

김두식 그럴 가치도 없는 놈이야. 내버려 둬.

김영철 그래, 그래도 동찬이랑 재철이 소식은 알았잖나.

최진희 맞아요.

이광호 아유 씨! 저 새끼 언제 봐도 속이 뒤틀린다니까.

김두식 냅둬. 저 새끼 저거, 저러다 오지게 뒤통수 맞는 날 올 거야. 저것도 동기라고 (하다가) 하긴. 나도 할 말이 없다. 솔직히 나 동찬이 놈 미쳐 생각 못했어.

이광호 너도 그랬냐? 딴 동기놈들은 다 떠오르는데 동찬이는…….

김영철 있는 듯 없는 듯한 놈이었잖아. 동기 모임에도 자주 안 나오고.

이광호 그래도 이번 연수는 같이 들었는데.

김두식 자, 자, 모두 기운 내고.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관심 가져주면 되는 거지 뭐. 그래도 살았잖아. 지금은 우리랑 같이 살아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안 그래?

김영철 그래, 그래. 그건 그렇고, 그럼 대체 누가 죽은 거야?

김두식 그러게. 우리 동기 다 살았잖아? 우리 동기 일곱 명 아니야?

김영철 맞아, 일곱 명. 우리가 모르는 또 한 명이 있나?

김두식 아무리 같은 부서가 아니래도 그렇지, 1박 2일 연순데 한 번
도 못 봤다는 게 말이 돼?

김영철 그렇지!

이광호 헛소문 아니야?

김두식 그럼 좋지 뭐.

최진희 헛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회사 분위기로 봐서는…….

김영철 그러게. 좋은 일도 아닌데 이런 소문을 퍼뜨릴 미친놈이 어
뒀어.

김두식 그럼 누구지? 연수 갔던 동기들은 다 무사하다는 소린데.

이광호 그럼 뭐, 연수 갔던 놈이 아닌가부지…….

순간, 다들 뇌리에 스치는 무언가가 있는 듯 정적이 감돈다. 그러
다 거의 동시에 외친다.

[모두] 혼식이?

김두식 아!

최진희 어머!

김영철 으…….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광호 혼식이 자식을 생각 못 했네.

김영철 당연히 연수 갔던 동기 놈인 줄 알았지.

김두식 어쩐지. 이상하게 어제부터 이유 없이 혼식이 놈이 밟히더라니.

최진희 하지만 소문에는 연수원에서 사고가 났다던데요.

이광호 착각들 했나부지. 우리 동기 전체 연수였으니까.

최진희 생각도 못했어요. 혼식 선배는.

김영철 상준이 같은 놈을 데려가실 것이지. 왜 혼식일…….

이광호 그동안 내색은 별로 안 했어도 새끼, 무지 외로웠나보네.

김두식 그랬겠지. 금슬이 좀 좋았어?

김영철 오년을 신혼처럼 살았잖아.

최진희 제 친구들도 무척 부러워했었어요. 혼식 선배 같은 남자 있으면 당장이라도 시집가겠다고…….

김영철 그랬겠지. 죽은 와이프 친정 부모 걱정하는 사위 놈은 아마 세상 천지에 혼식이밖에 없을 거야. 처제들한테도 친오빠 이상으로 그렇게 잘 하더니만.

이광호 누가 아니라, 착한 일은 혼자 다 하더니. 가는 것도 남들 챙기다 지가 먼저 갔네.

김영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산 목숨 끊어가며 만나러 갔겠어.

김두식 차라리 혼식이 놈한테는 잘 된 것일 수도 있어. 이 세상에서 못다 이룬 부부의 연, 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맺을 수 있을 테니까.

이광호 부모님들이 걱정이다. 그나마 애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김영철 혼식이 놈은 그래도 이겨내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역시 외로움은 어쩔 수 없나보네.

이광호 우라질. 뭐, 이 따위 경우가 다 있냐. (운다.)

다들, 광호의 울음에 동조되어 흐느낀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식의 죽음을 애도한다.

김영철 (두식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됐어. 그래도 혼식이잖냐. 당연히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김두식 동기지만 혼식이 놈, 진짜 좋은 놈이었어. 배울 것도 많았구.

이광호 새끼, 이렇게 금방 가버리려구 그렇게 잘 한 거였어? 나쁜 새끼, 좋은 기억만 심어 놓고 가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잊으라구.

김영철 연수라도 같이 갔었으면 얼굴 한 번 더 보는 거였는데. 자식, 보고 싶네. (사이) 같이 가고 싶어했잖아.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같이 가고 싶다고... 장인이 쓰러지지만 않으셨어도 같이 가는 건데 못 가서 미안하다고... 그게 뭐 미안할 일이라고 미안하다고... 같이 못 가 정말 미안하다고.

이광호 혼식아....., 보고 싶다. 혼식아......

보고 싶다는 광호의 말에 다들 다시 한 번 비애에 젖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침묵을 깬 건 종이 한 장을 쥔 채 미친 듯 뛰어 들어오는 혼식이다.

김두식 저... 저거, 혼식이 아니야?

김영철 어! 정말 혼식이네! 혼식아!

영철과 두식은 반가운 마음에 혼식을 잡으려는데 혼식은 잡히지 않는다. 헛손질만 해대는 영철과 두식은 자신의 두 손을 보고 의아해한다. 혼식은 둘을 못 본 듯 그냥 지나쳐 게시판 앞에서 멈춘다. 진희와 광호도 자신들의 손을 쳐다보며 혼식이 만져지지 않았던 좀 전의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 당황한다. 혼식은 심호흡을 하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어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린다.

강훈식 뭐야 니들…….

혼식의 말을 들은 사람들,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황 상태에 빠진다. 뜻밖의 상황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

강훈식 뭐야, 니들…… 이렇게 가버리면 나 혼자 어찌라구.

혼식을 보던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멀뚱거리고 쳐다볼 뿐이다.

강훈식 왜… 왜? (사이) 이럴 거면 어떻게 해서든 나두 데려갔어야지! 나두 같이 갔어야지! 이런 게 어딴어, 이런 게 어딴냐구!

강훈식 (게시판에서 한 장의 종이를 뜯어내 찢어버리며) 아니야, 아니야… 니들이 나만 두고 이럴 리 없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사이) 이게 뭐야. 이런 게 무슨 동기구 이런 게 무슨 인생이야… (사이) 니들끼리 가 버리면 나 혼자 어떡하랴구.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랴구! 미연이도 가 버리고, 니들도 가 버리고 나만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사이) 나

도 데려 가! 나두 데려 가라구!

훈식의 절규를 듣던 네 명은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다가 자신의 몸을 아래 위로 훑는다. 훈식의 흐느낌을 듣던 영철, 두뼉두뼉 걸어서 훈식이가 있는 곳까지 간다. 훈식이를 만지려 하지만 만져지지 않는 것을 느끼고, 훈식이가 떨어뜨린 종이를 주워든다. 종이를 들고 한동안 쳐다보더니 두식과 광호, 진희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보여 준다.

김영철 (종이 들고 읽으며) 포천 연수원 사망자 명단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추정... 김두식... 이광호..... 김동찬..... 권재철.....박상준...김... 영... 철..... 최진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종이에는 어제 날짜로 포천 연수원 사망자 명단이 적혀 있다. 사망자는 훈식을 제외한 동기 모두이다. 서로가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며 절망하는 모습 뒤로 훈식의 절규가 이어진다.

강훈식 나도... 같이 가야 되는데... 나도... 같이 가!... 나도 데려가라구!

나도 데려가라는 훈식의 절규와 함께 서서히 막이 내린다.

은상



서울법원청사우체국
조영준

당선 작가 수상 소감



그저 이야기를 만드는 재미 하나에 빠져 10년이 넘도록 없는 재능을 쥐어짜내 글을 쓰다 보니 아집과 교만만 늘어 늘 독자에게 불편을 끼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은 호응에 보은하고자 처음으로 쓴 해피엔딩이 제게도 행복한 결말이 되니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먼저, 문학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우체국 직원분들, 뮤지컬극단 잡쇼와 18기 동기들, 항상 스스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만들어 주고 지켜봐 준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멋진 이야기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살합시다!

- **등장인물** 주원(33 남), 미선(29 여),련화(34 여), 광진(66 남),
우성(36 남, 점원 역 멀티), 준희(33 여, 여자 역 멀티)

막이 오르면 무대 가운데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고 좌우로 남녀 마
주보고 앉아 있다. 조명이 켜지면 여자는 몸을 객석을 향해 반쯤 돌
려 남자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런 그녀를
애절하게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주원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다 뭉
가를 꺼낸다.

주원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건네며) 저... 이거... 받으세요.

여자 (그제야 힐끔 보고는 관심 없는 척) 그게 뭔데요?

주원 한번 열어보세요.

여자 자꾸 부담스럽게 왜 이러세요? 매번 이런 식이면 저도 곤란
해요.

제가 저번에 분명 제 스타일 아니라고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람 나쁜 년 만들고 그래요, 네?

주원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죄송해요. 전 그냥 지나가다 예뻐보

이길래 민아 씨 생각나서 산 거예요. 죄송해요. 부담 주려던 거 아니었는데… 한번 보기만 하세요. 그럼.

여자 (기대에 찬 속내를 감추며) 그럼 한번 보기만 할게요. (코앞까지 가져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어? 편이네.

주원 네, 어때요? 예쁘죠? 민아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머리핀.

여자 (실망한 듯 어이없어 웃으며) 아, 네. 편이네요. 머리핀.

주원 사양 말고 한번 해보세요, 네?

여자 (억지 미소 지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주원 (머리핀을 꺼내 여자에게 다가가며) 에이, 그러지 말고 어디 한번…….

민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아, 진짜 짜증나게 왜 이래요? 됐다고 했잖아요. 저 갈게요.

여자 가방을 챙겨 큰 걸음으로 퇴장. 머쓱해진 주원,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는다. 짧은 사이, 여자 달려오며 등장.

주원 (반색하며) 민아 씨. 죄송해요.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

여자 주원 무시하며 테이블 위의 핸드폰만 짹짹 챙겨 다시 성큼 성큼 퇴장하다 돌아선다.

여자 앞으로 한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무슨 말인

지 아셨죠? (퇴장)

침묵. 때마침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점원 열정적으로 따라 부르는 제스처를 취한다.

노래 *올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작게 혼잣말로) 에이, 내가 얼마나 잘 해줬는데……. (버럭)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점원 (당황한 듯 달려와 주원에게 속삭이듯) 고객님, 여긴 커피숍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나가주시겠어요?

주원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더군요! 나가 드려야죠. 암요. 저 같은 거 그냥 나가 죽어야죠, 안 그래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작성하듯 중얼거리며) 여러분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모두 모여주세요.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해하다 결심한 듯 핸드폰 액정을 누르며) 오케이, 전송.

다섯 종류의 핸드폰 알림음이 거의 동시에 울리며 암전. 사이. 다시 조명이 켜지면 무대 가운데 객석을 향해 4인용 소파 놓여있고 그 앞에 낮은 탁자, 무대 왼쪽엔 빈 책상과 의자, 오른쪽엔 광진 흔들의자에 앉아 쉬고 있다.

주원 (문 두드리는 소리 후 목소리만) 계십니까?

광진 들어오시게.

주원 (들어와 인사도 없이 두리번거리며) 죽는 마당에 뭐 이런 별장

까지 준비하셨대요? 아, 이거 진짜 애먼 사람 피해 주는 거 아닌가 걱정이네요. 정말 괜찮은 거죠?

광진 그럼, 괜찮고말고. 내 집인 걸.

주원 네? 정말요? 여기 사시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똥촌 아니, 산골이에요?

광진 허허, 일단 좀 앉지.

주원 멧쩍은 듯 웃으며 둘러맨 가방을 앞으로 돌려 끌어안으며 소파에 앉는다. 광진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 소파 끝으로 슬그머니 엉덩이를 끌며 앉는다.

준희 (도도한 걸음으로 들어와) 안녕하세요. 준희예요, 방준희. (광진과 주원을 번갈아 본 후) 반가워요. 멧진 오빠들. 아직 다른 사람들은 안 왔나 봐요? 아님 이게 전부?

주원 (미모에 뉘이 나간 듯) 아, 안녕하세요. 아뇨, 아직 시간이 좀 안 되서 그럴 거예요. 좀만 기다려보죠.

광진 그래, 자네도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좀 쉬게나.

준희 (잠시 생각하고) 음, 그럼 난 이쪽! (주원 옆에 앉는다.)

미선 어느새 들어와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다 냉소적으로 비웃고는 무대 왼쪽 책상 의자에 앉는다.

준희 언니, 안녕? 무섭게 왜 그래, 응? 우리 사이에…….

미선 (발끈) 뭐, 언니? 우리 사이가 뭐?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그

리고 누가 봐도 니가 언닌데?

준희 (천진난만하게) 우와, 언니 이렇게 말 많은 거 처음이다. 안 그래요?

주원 아니, 이러지들 마시고요. 이야기는 나중에 회원 분들 다 오시면 그 때 하자고요. 조금만 좀 기다려봅시다.

광진 (미션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음, 그리고 보니 자네, 낮이 많이 익은데 우리 구면인가?

미션 아저씨, 그건 무슨 쌍팔년도 멘트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광진 하긴 그럴 일이 있나. 미안하게 됐네.

주원 자자, 이제 두 분만 오시면 되니까 조금만, 네?

주원 문 두드리는 소리에 직접 문을 열어주러 다가가다 문을 열고 들어 온 우성과 마주한다.

주원 (깜짝 놀라 가리키며) 어? 저기 흑시…?

우성 (고개를 숙이고 당황해하며)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주원 네? 맞는 것 같은데? 맞죠? 저기 왜 며칠 전에…….

우성 (체념한 듯)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정…….

주원 맞잖아요. 며칠 전에 카페에서 저 쫓아낸!

우성 (민망해하며) 아,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전 다른 얘기하시려는 줄 알고.

준희 아! 알겠다. 저 오빠, 정우성이다. 정우성!

주원 네? 정우성이요? 그게 누군데요?

준희 (쪼르르 달려와 신기한 듯) 맞네, 정우성. 왜 있잖아요? 옛날에 아이돌 그룹 씨오엘디, 맞죠?

주원 씨오엘디? 콜드? 아, 뭐 소녀들의 심장을 얼려버리겠다던 애들? 아, 거기서 그 찌리였던 아니, 존재감이 다른 멤버에 비해 조금 미약했던 아, 죄송합니다. 뭐 뽀짝우성이었나? 이제 생각나네요.

우성 블링우성입니다.

준희 맞아요. 블링블링 정우성.

미선 (비꼬며) 이야, 여기 멤버 참 화려하네. 한물 간 판따라에 늘은 아줌마팬까지 끼리끼리 잘들 논다.

준희 아닌데? 그때만 해도 난 이에스이 언니들 팬이었는데. 씨오엘디 따윈 관심도 없었어요. (우성에게) 오빠 미안, 헤헤.

광진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 한 명 남았나.

미선 이번엔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실까.

련화 허겁지겁 들어와 멈춰 선다. 일동 주목.

련화 늦어서 죄송함다. 제가 아직 한국 땅이 익숙하지를 않아서 좀 해맸습다.

미선 (표정 없이) 와우. (손뼉을 친다.)

준희 반가워요, 북한 언니. 남남북녀라더니 안 꾸며서 그렇지 꾸미면 한 미모 하겠네요. 물론 나만큼은 아니지만.

우성 다 온 것 같은데요. 이 분까지 여섯 명.

광진 (주원에게) 자, 이제 시작해 보시게.

주원 네? 그럼 시작할까요? 흠흠. 모두 이제 한 배를 탔으니 이쪽으로 가까이 모여주세요.

미선 난 됐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놀러온 거 아니잖아요.

준희 그래요, 아무렴 어때요? 심기 불편한 저 언니는 좀 봐줘요. 오빠, 얼른 시작해요.

주원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읽으며) 지금부터 자살합시다 카페의 아홉 번째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모는 카페 운영진의 공식 허가를 받은 올해 첫 번째 정모인 만큼 공식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겠으니 회원 분들은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미선에게) 아셨죠? 자, 이제 주최자인 저와 여기 계신 다섯 분은 바로 오늘 밤 세상과 작별을 고향 예정입니다. 그 전에 먼저 각자 간단한 소개와 자살 동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희 (손뼉을 치며) 박수 박수.

준희 호응을 유도하지만 미선은 냉랭하고 광진과 우성 조금 경직된 듯 엄숙하다. 련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 눈치만 보고 있다.

주원 그럼, 저부터 할게요. 제 이름은 민주원, 서른세 살입니다. 닉네임은 카사노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애 경험은 없어요.

준희 에이, 거짓말

주원 정말입니다. 모태 솔로예요.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연애 한번 못 해봤고, 저 좋다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제가 좋아했던 수십 명의 여자들은 물론이었고,

그냥 저한테 호감 한번 표현해 주는 여자도 없었다고요. 제게 여자란 별처럼 머나먼, 닿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벌써 30번째 실연입니다. 이제 정말 아무 의욕이 없어요.

준희 오빠, 연애도 못 해봤다면 무슨 실연이에요?

주원 실연 맞아요. 매 순간 저에겐 진실한 사랑이었으니까요.

우성 우리끼리라도 서로를 이해해야죠. 안 그래요?

준희 치, 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본 건데…….

미선 됐고, 그럼 내 차례지? 댓글 순이니까. (주원에게) 아직 안 끝난 건가?

주원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미선에게 차례를 넘긴다는 뜻으로 손사래를 친다.

미선 내 이름은 박미선, 스물아홉.

준희 뭐야, 저 언니 나보다 어리잖아.

미선 (무시하며) 닉네임은 에스라인. 그래, 비웃어도 좋아. 지금은 몸이 이 지경이 됐지만 그래도 한 때는 남부러울 것 없는 몸매였어.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준희 언니 대박. 어찌다 그 지경이 된 거야? 음, 가만 보니 예쁜 얼굴이네. 살만 좀 빼면 장난 아니겠다. (우성에게) 그쵸? (우성 무시하자) 안 그래요, 여러분?

우성 저기요. 가만히 좀 있어 봐요.

준희 (풀죽은 듯 입을 삐죽 내밀며) 히, 알겠어요.

미선 보시다시피 지금 내 몸뚱아리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빠는 얼

굴도 모르고 그냥 쪽 없이 살았고, 울 엄만 죽도록 고생만 하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 후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살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고. 이래봐도 어렸을 땐 체조계의 셋 별이다 꿈나무다 해서 주목도 많이 받았거든. 근데 그 꿈나무는 벌써 다 시들어버려 장작으로도 못 쓴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 때를 놓치니 그만둘 수가 없었어. 그렇게 20년 가까이 운동만 하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지긋 지긋한 헬스장 알바 인생도 신물이 나고 이젠 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생각해보면 그때 나도 엄마 따라갔어야 했지 싶어.

주원 아니에요. 미선 씨.

미선 됐고, 다음.

다음 차례 나서지 않고 우성과 준희 주위 눈치를 살핀다.

주원 (종이를 꺼내 읽으며) 닉네임 한국인님.

련화 (어깨를 움츠리며 손을 들고) 저, 접니다.

준희 어머, 저 언니 한국 사람이었나 봐. 저기 강원도 산골에서 왔나?

련화 맞습니다. 한국 사람. 고향은 중국 흑룡강이지만 아버지가 한국 분이셨습니다. 저는 장련화라고 합니다. 나이는 서른넷. 한국에 온 지는 3년이 조금 못됩니다. 오마이도 흑룡강 출신에 조선말을 써서 조선말은 잘 쓸 줄 압니다. 읽고 쓰는 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지만이요.

준희 아, 조선족 같은 거구나.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는.

련화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남들 피어내서 돈 뺏고 안했습니다. 열심히 음식점 일하고 많지는 아니해도 매달 고향에 있는 오마이께 돈 부치고 그 재미에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우성 근데 어찌다 이런 곳에……?

련화 정말 나쁜 건 여기 한국 사람들임다. 나쁜 사장님이 월급 안 주고 빼팅기다 큰 돈 벌게 해 주겠다고 해서니 모아 놓은 돈까지 빌려다가 날려먹고 도망가서 이제는 잘 곳도 없고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돼버렸지 아니겠습니까.

우성 그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준희 맞아요, 언니. 언니는 그냥 돌아가요. 티켓 값 정도는 여기 있는 우리가 조금씩 모으면 충분해요. 안 그래요?

련화 아닙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우성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되죠.

련화 저는 범죄자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준희 정말요? 사람이라도 죽였어요?

련화 아닙니다. 저는 지금 불법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미선 난 또 뭐라고. 별 거 아니잖아.

련화 별 거 아닌 게 아닙니다. 가려면 돈이 솔찬히 듭니다. 고향에 있는 오마이한테도 피해가 되고. 그냥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주원 그럼, 고향에 있는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련화 사실, 팔려왔습니다. 오마이도 친오마이가 아니고요.

일동 침묵. 어색한 분위기에 탄성을 피운다.

광진 (자리에서 일어나며) 흠, 내 이름은 광진일세, 김광진. 닉네임은 어린왕자.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두메산골에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지. 가족은커녕 일가친척 하나 없고 찾아와주는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이렇게 살고 있다네.

준희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쓸쓸해서 어떡해요?

광진 고아거든. 학교도 제대로 다녀본 적 없고 어렸을 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만 한 터라 친구도 없었다네. 이젠 쓸쓸한 게 뭔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주원 그럼 지금까지 평생을 여기서 이렇게 사신 겁니까?

광진 그렇진 않네. 나도 서울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사랑했던 여자도 있었지.

준희 근데 어찌다 여기서 살게 되신 거예요?

광진 벌써 30년이 넘었지. 그때 난 악착같이 돈만 모으며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살던 옆방에 나처럼 사글세 내고 살던 젊은 대학생 부부가 있었어. 이사 온 지 채 한 달이 안 돼서 남편은 데모하다 잡혀갔고 또 채 한 달이 안 돼서 불구가 되어 돌아왔지. 몸은 물론이고 정신까지 나가서는 또 채 한 달이 안 돼서 자살을 했어. 그렇게 혼자 남겨진 여자를 난 동정했어. 그녀는 의지했고, 결국 우린 사랑에 빠졌지. 그러다 덜컥 애가 생겨버리고 그녀는 세상의 이목이 두려운 나머지 편지 한 장 남겨두고 날 떠나 버렸어. 난 그녀를 찾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이곳으로 왔지.

미선 아니, 그럼 30년을 여기서 혼자 살았단 말이야? 여자와 아이는 어찌고? 아저씨가 이렇게 유유자적하며 감상에 젖는 동안 여자와 아이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광진 왜 안했겠나. 하지만 난 여길 떠날 수가 없었어. 여긴 그녀의 고향이거든. 언젠가 한번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니 비워둘 수가 없더라고.

미선 그럼 계속 기다려야지. 죽긴 왜 죽어?

광진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까. 죽었다더군. 이른 나이에 고생만하다가. 나의 죽음으로 그녀의 힘들었던 삶을 위로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내 얘기는 여기까지네.

준희 아이는요? 만났어요?

광진 아니, 지금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겠지. 무슨 염치로 아이를 만나겠나.

주원 그래도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미선 아니, 생각 잘했어요. 이제와서 만난다고 없던 정이 생기진 않을 거야. 오히려 미움만 커질 걸.

우성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이제 제 차렌가요?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닉네임은 슈퍼스타. 지금은 한물 간 아니, 여러 물 간 왕년의 스타죠.

미선 여기도 추억 속에 사는군.

우성 맞아요. 판따라짓도 잠깐이지, 요즘에야 장수 아이들이다, 만능 엔터테이너다 많지만 우리 때는 아니었어요. 유행 따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아이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때 번 돈

으로 장사라도 할 걸 그깟 꿈이 뭐라고……, 꿈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죠.

준희 오빠, 꿈이 뭐였는데?

우성 가수.

주원 가수잖아요.

우성 그런 가수 말고요. 진짜 가수요. 진짜 내 목소리로 내 노래를
하는 그런 가수요. 남이 써주는 유치한 사랑놀이 이야기 말고
제가 실제로 느끼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노래하고 싶었어요.

미선 그럼 하면 되잖아. 하지 그랬어.

우성 했죠.

준희 오빠 솔로 활동도 했었어? 난 왜 몰랐지? 하긴 다른 오빠들도
다 솔로 활동 하는데 안했을 리가 없겠네. 근데 왜, 잘 안 됐어?

우성 네, 씨오엘디의 블링우성이 아닌 정우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요. 후광이 싫어 아무도 모르게 가명까지 써가며 발표한 앨범
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망해버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사실 정
우성은 죽었다는 걸요.

준희 아니, 왜? 그냥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걸 시작하면 되
잖아. 안 그래?

우성 (한쪽 소매를 걷어 올리며) 자, 보세요. 이 상태로 뭘 시작해
요? 기자 새끼들도 벌써 냄새 맡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뽕쟁이로 추락한 스타로 만천하에 공개 처형 되느니
그냥 조용히 여기서 끝내려고요. 블링우성도 진짜 정우성도.

준희 (한숨을 쉬고) 마지막은 나, 준희예요. 닉네임은 리얼레이디.
여기 우성오빠랑 댓글 1초 차이로 늦어서 합류 못할 뻔 했지

만 운영진의 특별 허가로 오게 됐어요. 혹시 눈치 채신 분도 있겠지만 오픈할게요. 저 젠더예요.

미선 어쩐지.

주원 네? 정말요? 그럼 남자란 말이에요?

준희 찢, 여자지. 남자였던 거고. 오빠 미워.

광진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 닉네임이 아이러니 하군 그래.

준희 진짜 그러네. 난 얼마 전에 바꾼 건데. 스윙스 팬이라서.

주원 그럼 준희 씨는 무엇 때문에…?

미선 그래, 신 나 보이는구만.

준희 신 나 보여? 내가? 맞아, 신이 날 수밖에 없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여자로 봐주지 않으니까.

주원 아니에요. 난 정말 몰랐어요. 딱 봐도 이렇게 예쁜데.

준희 오빠, 고마워. 혹시 오빠, 생각 있으면 나랑 사귄래?

주원 아, 아닙니다. 어떻게…….

준희 어떻게 남자끼리 사귀냐고? 거 봐.

주원 아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준희 됐네요. 농담이야, 오빠. 즐기는, 귀엽네.

미선 돈 문제야? 아주 싹 다 고친 것 같은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테고, 아니면 후회 때문인가?

준희 아니, 난 지금 여자라서 행복해.

우성 그럼 뭐가 문제예요?

준희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수가 없어. 난 반만 여자니까. (두 손으로 꽃받침을 하며) 이 타고난 예쁜 얼굴, 턱은 좀 깎았지만. (두 손으로 가슴을 받쳐 모으며) 이걸 좀 도움을 많이 받았지

만 풍만한 가슴. (밧을 살짝 가리키며) 부끄럽지만 여기서, 이렇게 완벽한데, 마음까지도 천상 여자지만 아무도 날 진짜 여자로 받아주지 않아. 심지어 가족까지도.

주원 아직 희망이 있잖아요.

준희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희망? 무슨 희망? 내 겉모습만 보고 달려드는 발정 난 사내놈들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고 한 내가 바보였지. 벌써 몇 명인 줄 알아요? 자그마치 열다섯 명이야. 그 중 열두 명은 내가 남자였다는 이유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고, 두 명은 내 몸만 탐하다 얼마 안 있어 다른 핑계를 대며 가버리더라고. 그래도 최근까지 만난 사람은 꽤 괜찮은 놈이었어. 사실을 알고도 날 떠나지 않아준 것만으로도 말이야.

주원 결국 떠났나요?

준희 아니, 내가 놓아줬지.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구보다 날 사랑해줬고, 나 또한 그에 못지않게 사랑했지만 우린 결국 평생 함께할 수는 없었거든. 그도 힘들어했고. 사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채로 살 자신이 없었어. 너무 비참했거든. 그와 함께 있으면서도 난 없는 존재였고, 우리의 사랑은 오직 둘만의 사랑이었어. 난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반복되는 상처에 미안해하는 그를 보는 게 오히려 더 힘들었어. 그래서 떠났어. 근데 웃긴 건 그게 고작 반년 전인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 결혼한다더라고. 웬지 나한테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나?

미선 뭐야, 그 새끼도 그럼 똑같은 놈인 거네.

준희 아니, 어찌됐든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야.

주원 그게 무슨 말이죠?

준희 오빠,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은 그래요.

우성 복수? 뭐 그런 건가요?

준희 에이, 아니죠. 그를 위해 없어져 주는 거예요. 나와 그의 사랑을 위해. 남자들은 모를 걸요. (련화와 미선을 보며) 그쵸? (애써 웃으며) 내 얘기도 여기서 끝. 자 그럼 이제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주원에게) 오빠, 빨리요.

주원 알겠어요. 자, 다들 그럼 모두 준비되신 건가요?

광진 잠깐, 사진부터 찍어야지 않겠나?

주원 아, 맞다! 깜빡할 뻔 했네요. 절차에 따라 사진부터 찍겠습니다. 다들 웃은 준비해 오셨죠?

주원 상의를 벗자 안에 입은 흰 티셔츠에 검은 글씨로 ‘자’ 라는 글자 가슴팍에 크게 쓰여 있다.

주원 (보란 듯이) 자.

미선 (짜증내며 옷을 벗고 ‘살’ 이 쓰인 배를 보이며) 씨, 하필이면 살이야.

준희 그러게, 대박이다. (핸드백에서 흰 티를 꺼내 입고) 짜잔. 난 느낌표. 난 느낌 있는 여자니까.

우성 아, 저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어떡하죠?

주원 네? 인증샷을 찍으려면 그게 필순데 준비하셨어야죠.

광진 가만 있자. 누구 매직 없나?

주원 매직은 없고… 그렇지! (가방에서 번개탄을 꺼내며)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우성에게) 벗어 봐요.

우성 티셔츠를 벗고 소매 없는 흰색 속옷 차림에 부끄러워한다.

주원 (번개탄 조각을 조금 떼어내고는) 이리 와 봐요. (오지 않자 다가가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야죠. 뭐였죠?

우성 다요, 다.

주원 (천천히 바른 글씨로 쓰며) 다. 다 뻤어요.

광진 잘 됐네. (남방을 벗고) 시. 그럼 합은 저 처자인가?

주원 련화 씨라고 했죠? 혹시 준비 안했어요?

련화 아입니다. 했습니다. (부끄러운 듯 뒤로 돌아 천천히 옷을 벗으며)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주원 휴, 다행이네요.

련화 옷을 벗고 뒤를 돌면 가슴팍에 ‘합’ 이 애매하게 쓰여 있다.

주원 합, 맞아요?

련화 틀렸습니까? (가슴을 내려다보며) 맞지 않습니까, 합?

준희 언니야, 그건 합이지 함. 합이 아니라.

미선 글씨를 쓴 게 아니라 그린 거구만. 획 순이 어떻게 된 거야?

우성 아니에요, 련화 씨. 합 맞아요. 보기에 따라 함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주원 보기에 따라 함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련화 죄송합니다. 싸우지들 마시라요. 제가 아직 한국말 읽고 쓰는 건 잘 못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주원에게) 아까 그거 주시라요.

주원 아니에요. 그럴 것까지야... 별 것도 아닌 걸요. 진짜 또 이렇게 보니 합으로 보이네요. 다들 그렇죠?

광진 다들 준비가 됐으니 어서 사진부터 찍지.

광진 무대 앞으로 나와 관객을 등지고 카메라 스탠드에 카메라를 설치한다. 나머지 어색해하며 무대 끝으로 관객을 향해 서며 자리를 잡는다. 좌우 사람을 번갈아 보기도 하고 가슴팍에 쓴 글자를 보며 제 자리를 찾아 움직인다.

주원 제가 제일 오른쪽. 왼쪽엔 미선 씨.

미선 초등학교도 아니고 알아서들 서겠지.

준희 (우성의 왼팔에 팔짱을 끼며) 난 여기.

우성 (뿌리치며) 아이, 깜짝이야. 왜 이러세요. 련화 씨가 먼저 중심을 잡으면 우리가 양 옆으로 서면 되겠네요.

광진 (카메라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대고) 저기, 우성 씨, 련화 씨한테 너무 붙어 있는 거 같은데.

우성 (부끄러운 듯) 아니에요. 제가 뭘요.

광진 아니,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러네. 허허.

우성 (멋쩍어하며) 아, 죄송합니다.

광진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는 무리에 끼어들며) 자, 찍네. 하나 둘 셋.

일동 어색한 웃음으로 경직. 짧은 사이.

광진 미안하네. 10초야.

일동 작게 웃음 터지고,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플래시 깜빡인다.

주원 자, 각자 방법들은 생각해보셨어요?

준희 뭐, 오빠가 주최자니까 알아서 다 준비해 온 거 아니에요? (번개탄을 가리키며) 쪼기. 저거면 우리 다 갈 것 같은데.

주원 네,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이거 라 더라고요.

우성 근데 이거 불나고 그러는 건 아니죠? 괜히 경찰에 소방서에 출동해서 일 커지면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미선 어차피 죽은 다음인데 뭘 상관이야? 안 그래?

련화 그렇긴 합니다만 우성 씨 말도 맞지 않습니까? 소란스럽지 않게 죽으려고 모인 거 아니었습니까?

주원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인터넷 다 찾아봤는데 불은 안 난다더라고요. 근데 이거 불 피우면 연기는 장난이 아닐 텐데.

미선 됐고, 일단 불부터 피워보자고.

광진 (신문지를 돌돌 말아 건네며) 그냥은 안 될 걸세.

주원 신문지 끝에 불을 붙이고 불길이 커지면 깜짝 놀라 떨어뜨린다.

미선 (한심한 듯 번개탄을 뺏어 들고) 비켜봐, 내가 할게.

미선 멀찌감치 서 불붙은 신문지 위로 번개탄을 던진다. 불길의 약해지고 잘 옮겨 붙지 않자 당황해한다. 불이 옮겨 붙고 순식간에 불길의 거세지고 연기가 피어난다.

미선 (코를 막으며) 으악, 이거 뭐야? (말로 급히 불을 끄며) 으아, 이걸 안 되겠다. 빨리 좀 꺼 봐요.

련화 유독 가스에 괴로워하며 쓰러진다.

우성 (쓰러진 련화에게 달려가) 련화 씨,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 봐요. 아니 뭐, 얼마나 마셨다고 그래요?

준희 저기, 창문, 창문!

우성 련화를 부축해 창가로 이동해 문을 열고 흔들며 깨운다. 일동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 같이 손을 사방으로 휘저으며 숨을 돌린다.

련화 (슬며시 깨어나) 고맙습니다.

우성 괜찮아요? (주원에게 버럭) 죽을 뻔 했잖아!

일동, 침묵.

준희 (조심스럽게) 저기... 오빠, 우리 죽으려고 한 건데.

우성 (민망해하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좀 그렇잖아요.

주원 (멋쩍게 웃으며) 역시 술 먹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나 봐요.

우성 참, 그럼 다른 방법은 준비 안했어요?

주원 네, 이게 원샷 원킬이라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강추하길래.

우성 대책 없네. 다른 분들은요?

준희 (핸드백에서 약봉지를 꺼내 보이며) 짜잔! 수면제. 처방전 받은 진짜 수면제라고.

미선 오, 그래! 저거면 되겠다.

광진 (고개를 가우똥거리며) 수면제? 그걸론 힘들 텐데.

준희 왜죠? 이걸 진짜라고요. 약국에서 아무한테나 그냥 파는 수면 유도제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 진단 받아야 일주일엔 일곱 개 밖에 안 주는 아주 강력한 놈이에요. 제가 이거 모으느라고 꼬박 석 달을 부지런히 받아다 안 먹고 모아놨다고요. 자, 봐요. 98개.

주원 그럼 16개씩 나눠 먹죠. 깔끔하네요.

미선 맞아, 옛날엔 두통약 몇 개 잘못 먹고도 죽은 사람 있었잖아.

준희 나름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죽음이지. (미선에게) 언니가 뭘 좀 아네. 우리에게 딱 어울려, 그치?

우성 저기요, 이것 보세요. 수면제 그거 생각처럼 안 돼요. 진짜 옛날일이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겠어요? 위에서부터 안 받고 다 토해낼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잘 아는 데. 갖은 후유증에 재수 없어서 합병증까지 생기면 몸도 마음

도 고생이라고요.

미선 의사 나셨네. 이제 와서 뭘 소리야? 됐고, 나부터.

미선 준희에게서 약봉지를 낚아채고 뜯으려 하자 광진 미선의 손목을 잡아 막는다.

미선 아저씨, 뭐야? 이거 댁요.

광진 (말없이 지그시 바라보다) 그만 두게. 저 친구 말이 맞아.

미선 해 봐야 알지. 아저씨가 뭘데 그래요?

광진 (손을 놓으며) 안 해 봤겠나? 이 나이 먹도록? 나라고 이렇게 사는 게 마냥 좋았으려고? 딸 같아서 그러네. 그만 뒤.

미선 딸...? 딸... 이요?

일동 침묵.

준희 아, 진짜 그러고 보니 아저씨 딸 뺨이네.

광진 정말이야, 아까 처음 봤을 때부터 웬지 내 딸 같아 보였어.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미선 미선이요. 박미선.

광진 자네한테 딱 어울리는 예쁘고 착한 이름이군.

미선 (부끄러워하며) 제, 제가요?

준희 가만, 그럼 이제 우린 어떡하죠?

주원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아까 오면서 보니까 저 앞에 호수 같은 거 있던데, 거기라도 빠져볼까요?

우성 맨 정신엔 힘들지 않을까요?

광진 그건 호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오히려 연못에 가깝지. 빠지기도 힘들 걸.

련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광진 아니,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탁자 밑에서 밧줄을 꺼내 보이며) 자,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어?

주원 이거면 충분하겠네요. 모양은 좀 그렇겠지만요.

미선 아, 똥오줌 질질 새고 혀는 턱 밑까지 쪽 쏟아지고, 생각하기도 싫다.

준희 으, 싫어. 우리 그렇게 추하게 발견되는 거야?

우성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일 확실하기도 하고요.

주원 아, 근데 저희 만약에 발견되면 언제쯤 발견될까요?

광진 글썸, 이런 외진 곳에 찾아올 이가 있겠나? 간간이 찾아오던 교회 사람들도 발길 끊긴지 몇 개월이 넘었는지 몰라. 썩은 내가 진동을 할 때쯤에나 누가 오겠지. 그 땐 아마 형체를 알아 보기도 힘들 걸세.

주원 근데 이걸 어디다 매달죠?

광진 내게 생각이 있어. 마침 여섯 명이니 잘됐군. (밧줄을 길게 풀어 자르며) 모두 탁자 위로 올라가서 두 명씩 짝을 짓고 이 밧줄을 저기 천장 기둥에 넘겨 걸고 길이를 맞춰서 양 끝에 고리를 만들고 목에 거는 거야. 그리곤 하나 둘 셋. 뛰어내리는 거지.

우성 이 낮은 탁자에서요?

광진 그래서 처음에 길이를 잘 맞춰야 해.

우성 그럼 짝은 어떻게 맞추죠?

광진 알아서들 해.

미선 음, 그럼 난 여기 이 아저씨. 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무게가 비슷한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광진을 보며) 그렇죠?

광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렴.

련화 말없이 우성의 뒤로 다가와 왼팔 옷소매를 잡는다. 우성 련화를 돌아보며 짧게 웃고, 오른손으로 옷소매를 쥐고 있는 련화의 손을 감싸듯 잡는다.

준희 음, 그럼 오빠 어쩔 수 없이 나랑 짝이네.

주원 아니에요.

준희 치, 나랑 짝하기 싫어도 할 수 없네요.

주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먼저 하고 싶었어요. 이런 건 남자가 먼저 하자고 해야 하는 거죠. 저랑 같이 죽으실래요?

준희 어머, 이 오빠 귀엽게 웃긴다. (주원의 팔짱을 끼며 어깨에 기대고) 좋아요. 이런 멋진 오빠라면.

일동 탁자 위로 올라가는 사이 광진 밧줄 세 개를 천장 기둥으로 넘겨 여섯 가닥을 나눠주듯 건넨다. 일동 건넌받은 줄로 고리를 만들어 각자의 목에 건다.

주원 다들 준비되셨나요?

광진 마지막으로 할 말들 있으면 하자고. 나도 다음 생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 (미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예쁜 딸과 함께.

미선 나도 이런 멋진 아빠와 건강한 엄마 밑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라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 거야!

우성 전 이름대로 살지 않고 저대로 살아 제 이름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평범하게 연애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련화 저는 고생 않고 고향에서 우성 씨 같은 듬직한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주원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 받고, 제 모든 걸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준희 나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는 좋은 남자랑 알콩달콩 오래오래 행복할거야. 오빠, 다음엔 꼭 진짜 여자로 만나요.

주원 아니에요, 준희 씨. 지금도 진짜 여자인걸요.

준희 고마워요. 오빠 같은 남자를 진짜 만났으면 좋았을걸.

주원 미안해요. 일찌감치 알아보지 못해서요.

준희 안녕. 모두 잘 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

미선 그래, 이렇게 만나지 말고 멋진 모습으로 만나는 거야. 언니, 그리고 모두들 미안해요.

광진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주원 하나!

준희 둘!

모두 셋!

일동 소리를 지르며 뛰어 내리는 순간,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 기둥 부러진다. 어이없어하며 서로를 바라보다 눈물 콧물로 범벅

된 서로의 얼굴에 웃음이 터진다.

광진 여섯 명이 매달리기엔 짐이 좀 낫았군 그래.

미선 뭐야, 이거. 또 실패네.

우성 어렵네요.

련화 죽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주원 그러게요. 사는 거 보다 더 어려우니 이거 원…….

준희 우리… 그냥… 사는 건 어때요?

일동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만 짓는다.

준희 그럼 성공이네. 지금까지의 우리는 모두 여기서 죽고 새롭게 사는 거예요. 어때요?

주원 그래요. 다시 시작해 봐요.

우성 그럴까요?

련화 다시 한 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미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광진 물론 할 수 있고말고. 아직 젊지 않은가.

미선 전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광진 걱정부터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 보면서 실수도 해 보고 하다보면 어느새 무언가를 하고 있을 거네.

미선 저… 그럼 혹시 여기서 뭐 할 거 없을까요?

광진 여긴 나 같은 늙은이 하나면 되네. 젊은 사람은 서울에서 살아야지 않겠나.

미선 그럼 아저씨는요?

광진 내 걱정 말고 돌아가. 나도 할 일이 있으니까.

주원 준희 씨, 같이 돌아갈래요?

준희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자고 내일 아침에 헤어지기로 해요.

우성 그러죠. 벌써 밤도 깊었네요. 련화 씨도 그렇게 해요.

광진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군. 어찌할 텐가, 미선이?

미선 아쉬워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준희 우리 사진하나 찍어요, 멋지게! 어때요?

광진 그게 좋겠군. 어디 아까처럼 서 볼까? 아, 가만 있어보자…….

광진 잠시 생각하더니 모두의 가슴팍에 써진 글자로 천천히 눈을 돌린다. 고개를 숙여 자신의 글자까지 확인하고는 카메라로 달려간다.

광진 좋은 생각이 있어. 아까와는 반대로 서는 거야.

주원 반대로요? 어떻게요? 뒤로 돌아서요?

광진 아니,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라고. 주원 씨부터 오른쪽으로 쪽 서는 게 아니라 우성 씨가 제일 왼쪽이 되서 서는 거지. 준희 씨는 그대로 있고.

우성 (이동하며) 제가 제일 왼쪽으로요? 이렇게요?

미선 그래! 맞아. 그런 뜻이 있었네. (또박또박 한자씩 읽듯) 자살 합시다가 다시합살자가 되는 거야! 게다가 저 중국 언니 아니,

한국말 서툰 언니 덕에 다시함살자가 됐다고!

련화 다시... 함... 살자...?

준희 어머, 이게 웬일이야?

주원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자, 빨리 자리 잡아요.

일동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상기된 표정으로 자기 자리를 찾는다.

광진 (카메라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대고) 아주 좋아. 보기 좋군 그래.

미선 빨리 와요, 아저씨.

광진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무리에 끼어들며) 알지? 10초.

주원 그럼요. 이번엔 자연스럽게 웃을 거예요.

준희 (눈물을 훔치며) 아, 왜 눈물이 나지?

우성 울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미선 (울먹이며) 모두 웃는 거야. 웃으라고.

일동 눈물 맺힌 얼굴로 편안한 미소를 짓는다. ‘찰칵’ 소리와 함께 카메라 플래시 깜빡인다.

련화 아! 생각났습니다.

준희 뭐가요?

련화 방금 우성 씨가 한 말.

미선 응? 방금 뭐라 그랬는데?

련화 울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원 그게 왜요?

련화 제가 힘들 때 우연히 버스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래예요. 맞죠?

주원 어? 그리고 보니 나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미선 뭐야, 노래 가사였어?

준희 오빠, 그건 무슨 노래야?

우성 내 노래. 내가 직접 만들고 부른 내 노래. 그 노래 첫 소절이야.

미선 오, 정말? 제목이 뭔데?

우성 말해도 모를 텐데…….

련화 뭐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우성 씨 노래.

우성 이젠 울지 마, 크라이.

준희 (웃음 터지며) 울지 말라는 거야, 올라는 거야?

우성 이제 더 이상은 울지 말라는 거죠.

미선 그래, 가사처럼 내일부터 웃는 날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광진 이제 정리하고 일찍들 자는 게 어떤가?

주원 그러죠.

련화 잠깐만요. 우리 우성 씨 노래 한 곡 듣고 자는 건 어떨까요?

우성 네? 아니에요. 지금 상태론 못 불러요.

준희 에이, 오빠 빼지 말고.

일동 박수를 치며 박자를 맞춰준다. 노래 시작과 함께 서서히 암전.

우성 (열정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울어요.

주원 그래, 이 노래야!

동상



과천관문초등학교

이용옥

당선 작가 수상 소감



봄은 회색입니다.
신록도, 들꽃도 이슬 같은 눈물에 젖어
자꾸만 한숨을 쉬어댁니다.
기쁨도 환호도 잃어버린 시간에 갇혀
깊은 심연에서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소생의 새날을 기다립니다.
나목에서 새순이 돋듯이
언 땅이 풀꽃을 피워내듯이
연못 속 개구리알 부화하듯이
모두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막차

• 등장인물

- 여배우: 백이화, 연극배우. 여자. 46세
- 연출: 이성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연출가. 남자. 54세
- 아내: 이성울의 아내, 50세

• 때 현재

• 곳 연극전용의 대극장

• 무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공연하기 위해 세운 세트

위층과 아래층으로 된 퇴락한 이층 집, 무대 왼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허름한 층계와 뒷집의 낡은 베란다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아랫 집의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3단 층계가 있다. 그 옆에 낡은 탁자와 의자 2개, 쓰레기통, 긴 빗자루가 놓여 있다.

막이 오르면 어두운 무대에 블랑시의 대사가 들린다.

여배우 (블랑시의 섬세하고 환상적인 목소리로)

사실주의는 싫어요. 난 마법을 원해요!

그래요, 마법요! 난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 주려고 했어요.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아요.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어야만 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게 죄라면 달게 벌을 받겠어요! 불 켜지 말아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여배우 (백이화의 텅텅하고 걸판진 목소리로)

불 켜지 말라구? 미안하지만 불 좀 켜야겠다, 블랑시.
뭐가 보여야 말이지.

(스위치 누르는 소리와 함께 조명이 들어온다.)

(빈 객석을 째악 훑어보며 익살스럽게)

관객도 엄청나게 많이 왔네.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손끝으로 객석을 훑듯이)

저 툇툇망망한 눈, 내 팬들의 불타는 눈빛

눈빛도 타고, 열정도 타고, 끝없이 내달리는 욕망의 전차도
타고

강 이대로 엘레지안 필드까지 째악 달려보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종착역에 내리면 한 분 한 분, 기념사진도 찍어드리고
멋들어지게 사인도 해 드릴 테니까.

(블랑시의 목소리로 교태스럽게)

나는 춘희! 당신은 아르망!

(다시 백이화) 자, 출발합니다!

여배우 (블랑시의 흥분한 어조로)

그 작자는 짐승 같애. 짐승 같은 습성을 가졌어!
짐승같이 먹고, 짐승처럼 움직이고, 말한다니까!
인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뭔가 하등동물 같은 데가 있어.

(백이화의 음성으로) 아니지, 아냐, 이 감정이 아니라고.
이 대사는 블랑시가 동생인 스텔라 남편의 야만성을
설명하는 거잖아.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천천히, 또박, 또박. 스텔라를 설득해야지.
다시!

(블랑시의 음성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상대의 반응을 살
피며)

그 작자는 짐승 같애. 짐승 같은 습성을 가졌어!
짐승같이 먹고, 짐승처럼 움직이고, 말한다니까!
인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뭔가 하등동물 같은 데가 있어.

(몸을 돌려 무대 안쪽으로 걸어가며)

인류학 책에서 본 적 있어. 원숭이와 닮은 유인원!
수천, 수만 년의 세월이 그를 비껴갔지.

(돌아서 가상의 스텔라 쪽을 보며)

그리고 석기시대에 살아남은 스텔리 코왈스키가 있는 거야!
정글에서 사냥한 멧돼지를 통째로 메고 오는 야만적인 남
자!

(가상의 스텔라에게 다가와)

그리고 지금 넌 여기서 그 작자를 기다리고 있고!

여배우 (백이화의 음성으로) 아난데, 이걸 또 너무 밋밋하잖아.

감정 곡선 좀 그려 보자.

(대본을 보며 고민하다 뭐라고 써 넣는다.)

동선도 생각 좀 해봐야 해.

과거 회상 장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대 안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야.

가만 보면 연출도 고정관념에 빠져있다니까.

동선 수정 좀 해보자. (무대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여기서 시작, 조기로 갔다 돌아와서

저쯤에서 포커 놀이로 들어가는 거야.

여배우 (포커 놀이 시작 지점으로 가서 블랑시의 음성으로)

네가 포커 파티라고 하는 거! 그건 유인원들의 잔치야!

누군가 으르렁대면, 다른 놈은 뭇갈 낚아채고,

할퀴고 물어뜯으며 싸움이 벌어지고. 맙소사!

(가상의 스텔라에게 가까이 가서)

스텔라, 역사는 발전해 왔어!

제발 저 야만인과 어울리며 뒤쳐지려 하지 마.

여배우 (자신의 연기에 대해 흡족해 하며.) 좋았어.

근데 대체 이 장치들이 맘에 안 들어. 불편하단 말야.

잠시 생각하다가 쓰레기통을 반대편으로 옮기고, 낡은 탁자와 의자 두 개를 무대 중앙 쪽으로 약간 내놓는다. 그러다 갑자기 배를 쥐고 바

닥에 주저앉아 신음을 토한다. 잠시 고통을 참는 소리와 몸짓. 간신히 몸을 추스른다.

여배우 (힘 빠진 백이화의 목소리. 진땀을 닦으며 누군가에게 하소연 하듯)

절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요?

두 시간만 인간답게 살아보구요, 제발!

영금영금 의자로 기어가 잠시 고개 숙이고 아파하다가 왼손으로 배를 잡고 오른손으로 대분을 뒤적이다.

(잠시 후) 여기가 잘 안 된단 말야.

(블랑시 목소리) 사람이 여리면, 여린 사람들은 빛을 내야 해.

나비의 날개는 부드러운 색을 띄어야 하고

불빛 위엔 종이 갓을 씌워야 해…….

여리지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그런데 난 이제 시들어 가고 있어!

얼마나 더 눈속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픈 것도 잊은 듯 벌떡 일어서며 백이화의 목소리로)

아냐, 이게 아닌데.

이건 그 햇병아리 블랑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오래 삭힌 장맛처럼 깊으면서도 새봄의 제비꽃처럼 상큼하며

아침 이슬처럼 연약한 탄식.

혁, 내가 어느새 그 풀남 연출하고 똑같은 소릴 하고 있네.
 (무대 한 쪽을 보며 눈이 반짝!)
 아, 저게 뭐야. 불량시의 드레스잖아.
 이런, 이런. 자기 의상도 빠뜨리고 가다니…….
 (달려가 쇼핑백을 들고 의상을 꺼내 본다. 간절한 눈빛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유혹을 이길 수 없는 듯) 입어 볼까?
 (주위를 둘러보고 재빨리 걸쳐 입으며 미안함을
 잊으려는 듯 괜시리 두런거린다.)
 공연이 널모렌데 이 중요한 의상을 버리고 가다니
 하여간 정신없는 후배들 정신 교육 좀 시켜야 한다니까.
 (거의 입고는 제 몸을 쓸어내리며 나르시즘에 빠져서)
 이 넘치는 세련미(자크까지 올리고는) 딱 맞네, 딱 맞아.
 불량시는 어디로 보나 이 몸인데 말이야.

아까보다 더욱 그럴 듯하게 분위기에 취해서 혼신의 연기를 펼친다.

여배우 (불량시로서 환상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늘 한 번 쳐다볼 동안
 당신은 문을 열어 줘요. (1층 계단 난간에 기대선다.)
 우린 보헤미안이 되는 거예요. 파리의 센 강 왼편 언덕,
 예술가들의 카페에 앉아 있다고 상상을 해 봐요!*

그 때, 극장의 출입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객석 쪽에서 연출 등장.
 놀라 당황한 여배우는 재빨리 무대 뒤쪽으로 숨어 두려운 얼굴로 연

출을 주시한다. 연출은 오른쪽 귀에 휴대폰을 대고 전화를 거는 중이며 술을 마신 듯 약간 비틀거린다. 무대까지 걸어오는 동안 휴대폰 신호 가는 소리 4~5회 후,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שמ으로 연결됩니다…….'라는 안내 멘트. 신경질적으로 끈 후, 오기를 부리듯 다시 통화 시도

연 출 받아라, 이 여편네야. 좀 받으라구!

(신호 소리, 부재중 멘트 2회 계속되자, 화가 나서 휴대폰을 무대에 팽개친다.)

이런 빌어먹을 놈의 여편네,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젠 전화조차 안 받겠다는 거지?

(불 맞은 멧돼지처럼 흥분해 무대 앞을 서성이며)

벌써 오년이야, 오년. 한별이 고등학교 가면 들어온다,

대학교 가면 오겠다 요리조리 미루기만 하더니….

그만하면 할 만큼 했잖아.

서방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먹는지 굶는지,

궁금하지도 않단 말이지.

만나러 가겠대도 오지 마라, 들어와 좀 보재도 싫다,

나보고 어찌라고.

정말 새서방이라도 생긴 거야? 바람이라도 난 거냐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다 무대가 달라진 낌새를 챜다,

살펴보다가 신경질적으로) 뭐야 또 이진!

아니 그리고 보니까 불도 켜져 있었잖아.

연습 끝나고 남은 사람 없이 모두 나갔는데.

출입문을 잠근 것도 나고.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들어와 지랄을 떠 거야?

(거칠게 무대로 돌진해 분풀이 하듯 의자를 쓰러뜨리며)

나와, 나오라고!

거친 발걸음으로 1층을 훑고 내려와 쓰레기통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빗자루를 들고 2층 계단 뒤로 간다. 무대 뒤쪽에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여배우, 관객에게 보인다. 잠시 후 여배우와 맞닥뜨린 연출, 함께 놀라 소리 지른다.

연출, 여배우 (동시에) 으악!

연 출 (황당한 듯) 아니, 다, 당신은?

여배우 (비굴한 웃음 흘리며) 네, 연출님, 저예요. 백이화,
아니 멕시코 연인!

연 출 (잡아먹을 듯) 당신 뭐요? 뭘데 남의 무대 다 망쳐 놓고!
(거칠게 팔을 잡아 비틀어 끌고 와 무대 중앙에 팽개치며)
어랍쇼, 남의 의상까지 걸치고!

여배우 (겁에 질려) 여, 연습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연출님.

연 출 (비웃듯) 연습! 연습을 하셨다!

멕시코 여인께서 대사 서너 마디를 가지고

이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하셨다?

근데 왜 남의 옷을 걸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배우 정말 여, 연습한 거예요.

연 출 (비꼬듯 흥내) ‘꽃이요, 꽃이요, 장례식 화환이요’

이걸 몇 시간 동안이나 연습하고 있었다고?

여배우 (천천히 일어서며 애써 비굴한 웃음)

대사의 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배우는 한마디의 대사에도 혼을 심어야 한다!’

연출님이 하신 말씀인데…….

연 출 (가소롭다는 듯) 그래요!

그래서 연습하는 동안 그렇게 출석률이 좋으셨구나.

병원 간다고 빠지고, 일 있다고 안 나오고.

사나흘에 한 번 꼴도 못 본 것 같은데!

여배우 그러다 막 오른다니까 불안해서…….

연 출 (코웃음) 흥! 천하의 백이화가, 안티고네에 맥베스 부인에,
고전극의 여주인공을 도맡아 하던 백이화가 그 정도 단역에
연습이 부족해 불안하시다?

좋아, 그렇다면 당신의 그 대단한 배우 근성에 경의를 표하
지!

그렇지만 빌어먹을 놈의 경의는 경의고, 그럼 이걸.

블랑시의 드레스를 낚아챈다. 찢어져 불성사납게 드러나는 맨살,
연출은 순간 당황한다.

연 출 (좀 전보다는 누그러져서) 이 의상은 뭐야?

왜 남의 옷을 입고 설쳐 대냐고요?

여배우 (수치심, 분노 어린 얼굴로 따지듯)

배우가 무대에서 연습 좀 한 게 죄예요?

연출님, 정말 이리키예요?

연 출 (맞서서) 그럼, 아무도 없는데서 남의 옷까지 입고…….

여배우 (더 크게) 있길래 한 번 입어봤어요.

그래서 뭐, 큰일이라도 났나요?

연 출 (지지 않고 소리 높여) 무대까지 망쳐 났잖아요. 뭐냐고, 이게!

(쓰러진 의자를 한 번 더 걷어찬다.)

여배우 (침묵 속에 노려보다가 기습적으로) 사모님 때문인가요?

연 출 (정곡을 찢린 듯 시선을 피하며) 당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냐!

여배우 (약 올리듯)

안 돌아오시는 거죠? 전화까지 따돌리고!

연 출 (열이 올라) 쥐새끼처럼 남의 말을 엇듣고는.

주제 넘게스리…….

여배우 (불난 집에 부채질) 사람을 그렇게 쥐 잡듯 몰아대니 사모님인들 버틸 수 있겠어요?

연 출 (눈에 불똥) 아니, 이 여자가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때릴 듯 달려든다.)

여배우 재빨리 피하며 무대 바닥에서 연출의 여단이식 구식 휴대 폰을 주워든다.

연 출 뭐하는 거야?(뺨으러 한다)

여배우 (피하며 휴대폰을 열어 전화번호를 읽는다) 010-9746-

뺏으려는 연출의 반대쪽으로 휴대폰을 밀어 던지고 재빨리 자기의 스마트폰에 전화번호를 찍는다. 연출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주우며 그녀가 하는 양을 멀거니 바라본다.

연 출 (그제야 눈치챈 듯) 이 여자가 대체 왜이래?

(여배우의 스마트폰을 뺏으려 한다)

여배우 (피하며) 제 전화는 받겠죠.

연 출 (미간을 찡그리다 의미를 파악한 듯) 어찌려고? 왜 당신이
이…….

여배우 (씨익 웃으며) 찢리는 게 많으신가 보죠?

연 출 (어정쩡하게) 찢리기는 무슨, 송곳도 아니고…….

연출은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서 바라본다.

벨소리 세 번 울린 후, 무대 한 쪽이 밝아진다. 캐나다의 겨울 숲 그림이 걸린 벽에 붙인 작은 식탁에서 토스트와 에그프라이로 식사 준비 중인 연출의 아내가 역시 구식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다.

아 내 (한 손으로 우유를 따르며) 여보세요?

연 출 아내의 목소리에 화색이 돈다.

여배우 사모님, 저예요.

아 내 저라면……. 누구, 시죠?

연 출 (다가오며 작은 소리로) 나 바뀐요!

여배우 (연출 향해 입 삐죽하며) 저, 연극배우 백이화예요.

아 내 (일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긴장) 백이화씨?

전 잘 모르는 분인데요.

(잠시 생각한 후 남편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김새를 찬 듯)

연극하시는 분이라면... 저와 별로 볼일이 없을 듯하네요.

이만 끊을.....

여배우 (재빨리 자르며) 이성올 선생님, 어찌실 건가요?

아 내 (기분 나쁜 긴장감) 대체 누구시길래.....

연 출 (다가오며 좀 더 간절하고 강하게) 나 바꾸라니까.....

여배우 (연출을 피하며) 선생님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예요.

(따지듯) 선생님 정말 저대로 두실 거예요?

아 내 (의아해서) 저대로, 라면.....

여배우 말이 아니에요.

며칠째 안 나오시길래 배우들이랑 찾아갔더니...

물도 못 넘기시고 피골이 상접해선...

정말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에요.

혼자서 어둔 방에 불도 안 켜고.....

연 출 (이화의 거짓말에 당황, 뺨을 듯) 내놓으라니까!

여배우 (수화구를 막고 연출을 향해 강하게)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요.

아 내 (걱정스럽게) 병원이라도 좀 데려가 주시지요.

여배우 입원하시자고 했죠. 근데 정신까지 이상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이젠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나 뭐라나...

(연출의 황당해하는 하는 표정을 즐기듯 신 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더 문제인 것…….

아 내 (다급히 말을 자르며) 죄송해요. 이만 끊을 게요.

아내 쪽 무대 급히 어두워진다.

여배우 사, 사모님!

(낭패하여 면목 없는 얼굴로 스마트폰을 끄며 연출을 본다.)

연 출 (원망하듯) 바꾸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는…….

(목소리라도 들은 안도와 통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오지랴운 넓어 가지고…….

여배우 (머리를 긁으며) 죄송해요. 잘 해보려 했는데, 쩌.

근데 정말 화가 많이 나셨나봐요.

평소에 잘 줌 하시지 않고…….

연 출 (어색하게) 잘은 뭐……. 잘할 기회나 있었나?

아예 얼굴을 안 봐주는데…….

(한숨 쉬어) 나도 잘 하고 싶지요…….

(담배를 뽑아 물고 라이타를 찾는다)

그 때 연출의 구식 휴대폰이 울린다. 연출 휴대폰 열어 액정을 들여다보고 놀란다.

연 출 (흥분해서) 집사람예요!

(어찌면 좋으냐는 표정으로 여배우를 본다.)

여배우 받아야죠. (순발력 있게)

연출님은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라구요. 잊지 마시고!

연 출 (이화를 보고 고개만 끄덕이되 받진 못한다. 휴대폰 계속 울리고.)

여배우 (낮게 속삭인다.) 받아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연 출 (걱정스럽게) 겨 들어가는 목소리?

(목을 가다듬은 다음 목소리에 힘 빼고) 여보세요?

아내 쪽 무대 다시 밝아진다.

여배우 손짓으로만 파이팅! 표시

아 내 (울듯이 걱정스럽게) 나예요.

연 출 (더 죽어가는 목소리로) 누구신데요?

아 내 나라고요, 한별이 엄마.

그렇게 아프다면서 집에만 누워 있으면 어째요!

빨리 병원 가요.

여배우는 마치 연출이 무대 위 배우에게 지시하듯 계속 손짓으로 표정으로 연기를 주문한다. 그대로 따라 하는 연출의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 과장되고 익살스럽다.

연 출 (다소 정신이 드는 듯) 병원은 뭐, 아까보단 좀 나아.

(숨을 몰아쉬며) 당신은 어때?

아 내 내 걱정할 때예요? 아까 극단 사람들 왔다 갔다면서요.

그 사람들 따라 병원 갔으면 좀 좋아요?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연 출 (억지 기침) 고집은 무슨… 다 죽었어.

그것도 젊었을 때 말이지.

아 내 (걱정스럽게) 뭘 좀 먹었어요?

여배우 장난스럽게 소주 마시고 머리에 터는 흥내낸다.

연 출 (멋지게 웃으며) 그 사람들이 소주,

아니 죽 사와서 좀 먹었지 뭐!

당신 목소리 들으니 좀 살 것 같아. 보고 싶어.

(이화 손발 오그라든다는 시늉을 한다.)

아 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백이화씨라도 불러서 병원 가요.

연 출 (시침이 떴고 천연덕스럽게) 당신이 그 여자를 어떻게 알아?
아?

아 내 그 사람이 전화해 왔어요.

그이도 당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배우 (배 잡고 소리 없이 웃다가 손을 잡아채는 시늉을 한다. 작은 소리로) 그만 들어오시라고 해요.

연 출 당신 이제 들어오면 안 돼?

아 내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난 당신과 다시 살 자신이 없다고요.

여배우 (작은 소리로)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요.

연 출 사랑해.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 내 (이제까지와 다른 냉랭함으로) 사랑요?
 당신의 그 숭고한 사랑에 속아 난 충분한 댓가를 치렀어요.

여배우 (생각하다가 묘안이라도 찾은 듯)
 사업에 비전이 보인다고 하세요.

연 출 (말 잘 듣는 어린아이처럼) 이젠 내 사업도 많이 나아졌어.
 이번 공연에 다들 기대 많이 걸고 있다고.
 당신 고생 안하게 할게.

아 내 (냉정하게) 다행이네요.

여배우 (아내의 냉랭한 반응에 고개 갸웃하며)
 술친구들 모두 끊고 사모님께 잘 하겠다고 해 보세요.

연 출 나 이젠 술도 끊었어.
 전처럼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지도 않고.

이화의 로봇이 되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해대는 자신의 우스꽝스런 모습을 깨닫고 연출은 도망치듯 발소리 죽여 무대 뒤쪽으로 가며 소리도 점점 줄어든다. 아내 자리의 조명도 서서히 암전

연 출 (소리로만 점점 작게) 이젠 옛날의 이성율이 아니야.
 철 들었다구.
 힘도 빠졌고. 당신을…….

여배우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애쓴다, 애써. 철은 무슨 철. 봄철, 여름철, 갈 겨울철
 사철이 지조 있게 철없는 인간이…….
 (블랑시의 목소리에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아요.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어야만 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게 죄라면 달게 벌을 받겠어요!

어깨 으쓱, 입 삐죽하고 탁자, 의자, 쓰레기통 등 무대를 원래대로 정리한다. 그러다 자기가 걸친 블랑시의 드레스를 쓸어내린다. 짧은 한숨. 체념한 듯 드레스를 천천히 벗어 개킨다. 갑자기 쓸쓸해진 분위기. 그 때 연출 흥분해서 들어온다.

연 출 어이 이화씨, 덕분에!(손가락 오케이)

여배우 (말없이 희미한 미소만 짓는다.)

연 출 (허풍으로 속스러움을 모면하려는 듯) 어려워. 어려워!
이 세상에서 여자가 짤 어려워.

여배우 (다시 쓸쓸한 미소만)

연 출 (자신의 기분에 겨워 이화의 변화를 눈치 채지 못하고 계속 들뜬 채로) 만나기루 했어.

이 여편네 끝내 한국으론 안 들어온다네.

보고 싶으면 연극 끝내고 캐나다로 오래요.

허긴 나갈 때부터 안 돌아올 요량이었던 것 같애. 내 탓이지 뭐.

결혼하고 이때까지 돈을 제대로 벌어다 줬나,

다정다감하게 대해 주길 했나?

그저 연극에 미쳐서는... 신물을 낼 만도 하지.

내 여동생이라면 벌써 이혼시켰지 뭐.

(꿈꾸듯 그리움이 번지는 표정으로)

그래도 내 평생의 오직 한 여인이었음을 알거나 할런지…….

여배우 (가라앉은 목소리로 쓸쓸하게) 왜 연극을 하세요?

연 출 (갑자기 꿈 깨듯) 뭐요?

여배우 연출님은 왜 연극을 하시냐구요.

연 출 (우물쭈물) 왜 하긴 뭐…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지.

여배우 이 공연도 적자라면서요?

연 출 언제 돈 벌자고 연극 했나? 돈 벌려면 장살 해야지.

(한숨 쉬며) 공연 내내 전석 매진돼도 적자가 몇 천입니다.

여배우 (먼 곳에 눈을 두고 쓸쓸히) 뻔한 바보짓을 왜 할까요, 우린.

연 출 파랑새 따라 다니는 거죠.

그 놈 꼬랑지 붙들면 엘레지안 필드에 도달할 줄 알고, 허허.
내 평생 소원이 이름 있는 극장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한 번 공연해 보는 거였지.

처음 그 연극을 보는 순간 ‘저게 삶이다. 무너지고 깨져도 끝까지 살아보겠다는 여린 인간의 버릴 수 없는 욕망, 내 연출 인생에서 저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결심했었어.
그때가 스무 살이었고, 내가 지금 쉰네 살이유.

서른네 해 동안 변한 없이 품어온 꿈이었지.

여배우 드디어 꿈을 이루시는 거네요, 연출님은.

연 출 적자로 이루는 꿈이죠.

극장 대관료 내고 배우, 스태프 인건비에 무대 장치, 소품·의상비 주고 나면 남는 게 뭐 있나? 맨날 지하 월세방 못 면하지.

이런 적자 인생에 마누라 자식인들 붙어 있겠냐구.
다들 못 믿겠다고 떠나버려도 그놈의 허황된 꿈은 못 버리겠
더라고.

여배우 그래도 따님 유학은 보내셨네요.

연 출 유학요? 허허, 말이 좋아 유학이지, 도피예요 도피.

하도 비전 없고 신물이 나니까.

지 엄마가 데리고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로.

지 엄마가 마켓에서 일하고 지가 아르바이트 해서 어찌어찌
학교 다녔지.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등록금 한 번을 못 보냈네요.

가족한테 난 미친놈이지 뭐, 미친놈!

여배우 (혼잣소리처럼) 꿈을 갖는다는 건 참 슬픈 일이네요.

연 출 꿈을 갖는다는 건 슬픈 일이다! 허허, 듣고 보니 맞는 말일세.

여배우 (시선을 먼 곳에 고정시키고 꿈꾸 듯) 제게도 꿈이 있었지요.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공연해 보는 꿈.

블랑시가 되고 싶은 꿈.

연 출 (어이없다는 듯 싸늘하게) 아니, 블랑시를 걷어 찬 사람이

누군데 남의 다리 굽는 소릴 해요, 지금?

조연출이 1순위로 섭외했었구만…….

여배우 (쓸쓸하게) 섭외 왔었지요.

연 출 (다시 서운한 듯) 내 체면 봐서 멕시코 여인라도 했던 거라

면 나 하나도 고맙지 안시다.

(잠시 생각하다)

뭐, 어디 다른 극단 주인공으로라도 내정됐다 깨졌나?

여배우 (씹씹한 웃음) 좋게요, 그러면.

연 출 아니면 뭐 아침 드라마 조연이라도 들어왔던가?
서너 달 빼 빠지게 공들여봤자 티브이 드라마 한두 번
출연료만도 못한 실정이니 탓할 건 아니지.

여배우 방송국 쪽에 뜻 있었으면 벌써 갔게요.

연 출 그렇지, 뭐.
이화씨 정도면 드라마 조연으론 넘치면 넘치지, 모자라진
않지.

여배우 (피식 웃으며) 주연은 안 되고요?

연 출 꿈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여배우 (여전히 씹씹하게) 예, 제 꿈이 너무 컸나 봐요.
운명은 늘 어긋나기만 하는데…….

연 출 (시큰둥하게) 잘 타협해 봐요.

여배우 하느님하고 협상이 잘 될까요?
그 양반 취향을 도통 모르겠으니…….

연 출 (뒀 씨나락 까먹는 소리나 하는 표정으로)
뒀 일이길래 그 양반까지 동원하고…….

그 때, 여배우 갑자기 배를 쥐고 주저앉는다. 몰아쉬는 숨, 진땀이
나고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이다.

연 출 (당황해서) 왜 이래요! 이화씨 정신 차려봐요.
(여배우 신음을 삼키며 몹시 고통스러워한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이 진땀 좀 봐. (이마에 손을 대어 본다.) 열은 없는데.
(이화 점점 정신이 혼미해 지는 듯.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출)
아이, 참. 왜 이러는 거야. 눈 좀 떠봐요. 이화씨! 이화씨!
아, 119! (휴대폰을 찾으려는데 이화가 간신히 눈을 뜬다.)

여배우 제 가방 좀…….

연 출 어디요, 어딴는데?

여배우 탁자 뒤에…….

연출 얼른 가서 가져온다.

여배우 그 속에 약 봉지 좀 찾아 주세요.

연 출 (가방을 열어 약 봉지를 찾아낸다.) 무슨 약이 이렇게 많
아?

여배우 거기 물도 있지요?

연 출 (물병을 열고 약봉지를 뜯어 준다.)

여배우 (어렵게 약을 삼킨다. 아직 신음.)

연 출 왜 그래요? 어디가 아픈 거야?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여배우 (희미하게 웃으며 힘없이) 뭘 먼저 대답할까요?

연 출 웃음이 나와요?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구먼.
어디가 아픈 거예요?

여배우 (남의 말 하듯) 위암이라네요.

연 출 (놀라서) 뭐요? (화내며) 농담해요, 지금?

여배우 농담 아니예요.

연 출 그럼 정말이란 말예요?

여배우 그렇대요.

연 출 이런 제길, 무슨 말도 안 되는……. 잘못 안 것 아니에요?

여배우 정말 검사 받았어요.

연 출 수술은?

여배우 시기를 놓쳤대요.

연 출 (어이없다는 듯) 아니, 근데 무슨 연극을 하겠다고…….

여배우 그래서 못했어요. 불량시…….

연 출 (이제야 모든 걸 알겠다는 듯) 아아,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배우 (겨우 진통이 가라앉는 듯 몸을 추스른다.)

연 출 (뒤쪽으로 가 의자를 끌고 와서 조심스럽게 앉힌다.)

여기 좀 앉아요.

여배우 (미안해하며) 놀라셨죠?

연 출 그런 줄도 모르고…. (잠시 침묵) 누구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배우 아무도 몰라요. 말 안했어요.

연 출 이상하다 했어요.

이화씨 같은 배우가 주연을 마다하고 단역을 택한 거나 그
철저한 사람이 연습에 수시로 빠지는 거나.

내가 아는 이화씨가 맞나 했지.

여배우 죄송해요.

연 출 누가 그런 말 들겠나? 언제부터 안 거예요?

여배우 욕망 캐스팅 제의 들어왔을 무렵예요.

그래서 불량시를 못 했던 거고요.

연 출 그럼 다 집어치우고 치료나 했어야지, 멕시코 여인은 뭘니까?

여배우 그렇게라도 이 연극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이 작품은 저 역시 꼭 하고 싶었던 평생 꿈이었거든요.
공연 못하고 먼저 가더라도 작품에 폐가 덜 되도록…….

연 출 지금 폐가 문제예요?

여배우 의사 선생님이 그러대요. 생각보다 잘 버틴다고.
이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절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연 출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하여간 어이없는 일이야.

쇠몽둥이로 뒷골을 가격당한 기분이라구.

여배우 (눈물은 그렇하나 입은 웃는다.) 연출님이 왜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길 바랬는데…….

연 출 누구 간호할 사람이나 있어요? 결혼도 안한 걸로 아는데…….

여배우 연극하고 결혼했죠. 꽤 행복하다고 생각 했었는데.
아프니까 아쉬운 것이 가족이대요.
(농담하듯) 입양이라도 해 하나 키워 놓을 걸…
사모님께 잘 해드리세요. 제 꼴 되지 마시고…….

연 출 아이고, 남 걱정 마시고. 앞으로 어쩔 생각이예요?

여배우 어찌기네요, 뭘. 하느님이 봐주면 이렇게 극장에 나오고 가재면 따라 나서야지.

연 출 그렇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깊이 한숨을 들이쉬다 내쉬다 고민한다.)
생각 좀 해 봅시다.

연출은 무대를 서성이다 탁자에 손을 짚고 탁자 위의 블랑시 의상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백이화는 주섬주섬 자기 가방을 챙겨들고 일어선다.

연 출 (결심한 듯) 탐시다, 이화씨!

여배우 (뒀 소리가 하다 그대로 무대를 내려가려 한다.)

연 출 타자구요, 블랑시! 욕망이라는 이름의 막차.

나랑 같이 타보자구요.

여배우 무슨 말씀이신지….

연 출 블랑시를 해보잔 말이에요.

여배우 (그대로 움직이지 않은 채) 농담하시는 거죠?

연 출 (화닥 다가오며) 당신한테도 내가 미친놈으로 보여요?

농담 아니라니까!

여배우 (돌아서며) 동정하시는 거라면 싫어요.

연 출 (다가가서 앞을 막아서며) 동정 아닙니다.

(결연히) 신이 허락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 인간이 해내자구요.

꿈을 갖는다는 것이 슬픈 일이라면 정말 슬픈 거 아닙니까?

여배우 (체념한 듯) 제겐 시간이 없어요.

연 출 무대가 시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배우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어요.

연 출 그때까지 하면 되는 거요.

여배우 (화내듯) 아무 것도 준비된 게 없다니까요!

연 출 (설득한다) 이화씨 이미 블랑시오.

오랫동안 블랑시를 품어왔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마지막 공연은 거뜰히 할 수 있을 거요.

여배우 (슬픈 눈으로) 진짜 블랑시는 어찌고요.

배우라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마지막 공연이에요.

더구나 주연인데…….

연 출 (자신 있게) 그 정도 이해할 만한 친구예요.

이화씨 같은 선배가 있는 걸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걸요.

갈등이 이는 듯 백이화는 무대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싼다. 연출 천천히 다가가 등을 토닥인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부축하여 일으킨다. 백이화 결심한 얼굴이다.

연 출 함께 가는 거죠?

여배우 (결연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네!

연 출 (지긋이 바라보다가 싱긋 웃고는)

생각나는 블랑시 대사 없어요?

여배우 (잠시 눈맞춤, 희미한 웃음. 그리고 또박또박)

난 언제나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의지해 왔어요.

연 출 거 봐요. 이화씨 이미 준비된 블랑시라니까.

(무대 중앙으로 이화를 이끌며)

여기가 바로 이화씨의 자리라고.

여배우 (감격과 희망에 차 무대 구석구석을 훑어보다가

시선을 하늘 먼 곳으로 옮기며)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일곱 자매 별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는 아가씨들이 나오지 않았군요.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있어요! 고맙기도 하지!

연 출 (연출석으로 가 박수를 치며)

바로 그거라니까, 블랑시의 대사가 입에 착 붙어 있잖아.
(대본을 꺼내 넘기다) 39쪽 가운데.

백이화 (이화도 들뜬 표정으로 탁자 위 대본을 가져와 넘긴다.)
'육체적 아름다움은' 여기요?

연 출 그래요 바로 거기. 거기 한 번 가 봅시다.
어떤 감정인지 알겠지요?

백이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잖아요.
자, 감정 잡고, 무대 앞쪽으로 조금 나와서.
그래, 거기요. 바로 거기서, 심호흡 한 번 하고.

여배우 (희망에 들뜬 모습이지만 매우 노련하게)
육체적 아름다움은 순간적으로 사라지죠.
하지만 마음 속 꿈과 영혼의 속삭임,
그리고 가슴속 열정은 영원해요.
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라질 수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지죠!
내가 슬픈 여자라고 불러야만 하다니 정말 이상하죠!
내 가슴속엔 이런 보물들이 수없이 간직되어 있는데요.

백이화의 마지막 대사가 무대를 올리는 동안 막이 내린다.

부문별 심사평



심사 위원

- 시 권용태, 오세영, 진동규
- 소설 권영민, 김선주, 박덕규
- 수필 지연희, 이명지, 유한근
- 시조 김현, 권갑하
- 동시 이상현, 오순택
- 동화 김영훈, 조대현
- 희곡 광노홍, 김태수

시

심사 위원: 권용태, 오세영, 진동규

• 수상작

대상 작품 - 별도 수록

• 총평

수천 편에 이르는 투고작들 가운데서 입상작품 11편을 뽑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 심사 위원들은 미리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기로 논의하였다.

우선 제1차로 투고작 전체를 10여일 이상 읽고 세 분 심사 위원들이 각각 15편 내외의 작품들을 고른다. 그리고 수합된 이 50여 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제2차 속독회를 거쳐 입상자들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당선된 작품들이 별도의 발표문에 공지된 바, 윤영규씨의 〈푸른 감자〉 등 11편이다.

소설

심사 위원: 권영민, 김선주, 박덕규

• 수상작

〈무게〉는 모녀의 애증 관계를 회상적 관점에서 차분하게 그린 작품이다. 어머니의 부음을 접하게 된 딸을 초점 인물로 내세우고 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역도 선수였다. 어머니는 딸에게 집착을 보이고 딸은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이 싫어서 이를 애써 외면하고 살아왔다.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두 모녀가 동행했던 스위스 여행길이다. 어머니가 원하던 스위스 여행을 함께 했던 딸의 복잡한 내면이 냉정할 정도로 담담하게 펼쳐지고 있다. 삶이 주는 무게를 어머니의 무거운 몸 이미지와 연계해 보임으로써 소설적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서사의 방식 자체도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데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어머니의 삶의 무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바벨을 들어 올리는 역도 선수로 설정한 점이라든지 어머니의 무게로부터 도피하고자 했던 딸의 심리를 연기에 대조하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특히 군더더기 없이 압축된 문장도 돋보인다.

은상 수상작인 〈승화원〉은 인간의 주검을 처리하는 주인공의 설정이

특징적이다. 옛 애인의 주검을 화장하게 된 하루를 그리고 있다. 인간사의 관계를 오늘의 시간으로 집약해 얻는 극적 효과를 살려냈다. <개개비와 빠꾸기>는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에 이른 한 노인의 다양한 이상 징후가 가까운 이웃을 배우자로 맞는 것으로 해소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두 작품은 소재를 해석하는 방식이 뛰어나지만 어떤 개연성보다는 작위적 요소가 드러나 보인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

• 총평

2014년도 공무원문예대전의 소설 부문 금상 수상작으로 심사 위원 전원이 <무계>를 선정했다. 응모작의 수준은 예년과 비슷했지만 응모작이 대부분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야기를 엮어 가는 수준이나 문학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입상작에 오른 작품들은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상작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금상 수상작 <무계> 1편, 은상 수상작 <승화원>, <개개비와 빠꾸기> 2편, 동상 수상작 <너는 홀라춤을 추네>, <검은 입>, <술이 깨면>, <겨울 햇살> 4편.

수필

심사 위원: 지연희, 이명지, 유한근

• 수상작

제17회 공무원문예대전 수필 금상으로 선정된 「이발소에서」는 세련된 문장으로 글의 주제를 끌고 가는 작가의 시선을 만날 수 있었던 작품이다. 특히 단단한 사유의 깊이로 늙은 이발사의 이야기와 만종을 대입시켜 흥미를 놓치지 않게 하는 신선한 작품이다. 독자의 시선을 멈추지 않게 하던 공간적 묘사 등 소설적 구성 차용이 특이했다. IT산업의 대국이라 칭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회는 급격히 독자들에게 긴 글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변화시키고, 인터넷 시대의 문학이라고 하는 수필 문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 체험의 문학인 수필 문학을 사실 체험만의 문학의 틀에서 벗어나 상상의 세계를 넓히고 다양한 소재 접목의 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소설 문학의 신개념으로 부상한다는 15매~20매의 미니픽션(掌篇소설)이

독자들의 독서량을 높이듯이 수필 「이발소에서」는 수필의 소설적 구성 차용이 성공한 수필이어서 관심의 폭을 넓혀주었다.

• 총평

어느 해보다 작품 응모 편수가 쇠도했던 금년은 수필의 시대, 수필 사랑의 일면을 확인하는 것 같아 심사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심사에 응할 수 있었다. 신중하게 그리고 어느 한 편으로도 소홀하지 않게 정성을 들여 심사했다. 응모자들 대부분 가족 이야기와 직장 이야기가 많았다. 수필이라는 장르적 특징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수필은 삶의 체험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주제에 합당한 수필적 상상력으로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주제 축에서 한정지어 준 분량(200자 원고지 12~15매)을 훨씬 넘긴 작품이 많았는데 내용을 응축하는 압축미가 필요했다. 더불어 원고지 작성법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문학작품이라는 품격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섬을 동일시하여 쓴 감성이 풍부했던 작품, 시대적 모티프인 인문학에 대한 필요성 환기, 지난 삶 속 가방에 얽힌 이야기를 담담하게 서술한 작품, 고향집 뒤뜰에 웅기종기 모여 있던 잊혀져가는 장독대의 정취를 새롭게 환기시켜 준 글, 경찰 공무원으로 실의에 빠져 방황하며 죽음을 선택하던 청소년을 희망으로 일어서게 선도한 글들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반면 수필의 문학적 장치를 잘 알지 못하는 글도 적지 않았다.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 아니다. 글을 쓰기 전에 무엇을 쓸 것인지 알아야 하고, 그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수필은 주제가 있는 문학 장르임에 분명하다. 주제가 분명한 글은 가장 훌륭한 글이라고 했다. 주제를 반영하는 소재를 관조해 인생을 담아낼 수 있어야 좋은 수필이 된다. 또한 바람직한 문학 수필이 될 수 있다. 수필 장르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의 작품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글쓰기에 전념해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 수상작

시조 부문 금상 〈풍경을 읽다(耳鳴)〉은 ‘풍경’을 ‘이명’과 연결해 화자 내면의 사유를 잔잔히 우려낸 수작이다. 특히 둘째 수에서 보여 주는 경지는 놀라울 정도다. ‘몸 밖으로 흩어진 멀고 먼 울음’, ‘녹슬어 안 들리는 두 귀’ 등 풍경에서 발원한 내면의 소리가 백목련 꽃술 위에 불면을 털어낸다는 시각적·동적 형상화는 빼어나다. 첫 수 초장의 ‘한 마리 굴뚝새가 살점 모두 핏아먹은’의 풍경에 대한 표현 감각도 돋보인다.

• 총평

응모작들은 전반적으로 우수했다. 그러나 일부 응모작의 시조 형식에 대한 이해 부족은 아쉬움을 주었다. 시조가 우리말과 우리글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최고의 우주율이란 점에서 시조의 정형 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유시와의 변별성 측면에서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시조의 정형적 특징은 첫째, 초/중/종장의 3장 구조다. 둘째는 각 장이 4음보, 즉 2구로 짜여진다는 점이다. 셋째는 종장의 첫 음보 3음절 준수와 의미적 전환 구조다. 응모작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이탈은 종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첫 음보가 3음절을 지키지 않거나 둘째 음보가 5~8음절을 벗어나는 경우, 종장 첫 구에서 전환의 미학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응모작들의 소재는 다양했고 입상권에 든 작품들의 수준은 여느 백일장에 뒤지지 않았다. 「풍경을 읽다-이명」과 〈사유(思惟)의 한 녀〉이 마지막까지 겨뤘는데, 제목 처리 감각과 사유의 깊이에서 우열이 가려졌다. 아쉽게 밀려난 〈사유(思惟)의 한 녀〉은 ‘민들레’를 ‘혼자 좌판을 열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했고, ‘참매미 울음’에서는 ‘온몸에 화살 맞은 여름’, ‘초록물 낭자한 꽃잎’ 등의 표현 감각을 보여 주었다. 그 외 〈번짐 소리〉는 시와 관련된 철재들의 군무에 대한 이미지를 독특하게 형상화했으며, 〈공 굴리는 빼어로〉의 운율감은 우수했다. 〈박제된 교실 풍경〉은 소재가 신선했고, 〈시조, 서체를 품다〉는 이미지의 감각이 돋보였다. 입상자 모두에게 축하를 드린다.

• 수상작

〈엄마의 답장〉은 잔잔한 울림을 주는 작품으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가슴을 적신다.

‘5월 8일 3교시/ 사각사각/ 편지 쓰는 소리가/ 교실 안을 가득 채웠다’의 첫 행이 어버이날을 암시하며 후반부의 ‘나를 꼬옥/ 안아 주는/ 선생님의 품에서’ 나는 엄마 냄새를 맡으며 엄마가 보낸 답장으로 마무리하는 작품의 전개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 동시가 맛갈스럽다.

무거운 주제임에도 감상주의로 흐르지 않아 읽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이처럼 꾸미지 않는 동시, 민낯 같은 동시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준다.

• 총평

동시 부문 전체 응모작은 301편이었다.

이중에서 총 8편을 입상작으로 뽑아야 하므로 우리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작품을 읽고 1차로 20편을 입상권의 작품으로 뽑았다. 교원 작품에서 〈봄 소풍〉 〈봄〉 〈개나리꽃〉 〈봉화 김진석〉 〈혼자 피어 있는 꽃〉 〈툇밥〉 〈엄마의 답장〉 〈이사 가는 날〉 〈필통〉 〈아빠의 젖은 운동화〉 등 10편, 비교원 작품에서 〈몽당연필〉 〈민들레 이야기〉 〈겸손한 발가락〉 〈성적표〉 〈봄비〉 〈택배 상자〉 〈아빠와 시계〉 〈달팽이〉 〈빨간 냄비〉 〈나침반〉 등 10편이다.

20편의 작품을 놓고 몇 번의 독회를 한 후 〈툇밥〉 〈엄마의 답장〉 〈이사 가는 날〉 〈아빠의 젖은 운동화〉(이상 교원 작품), 〈민들레 이야기〉 〈겸손한 발가락〉 〈봄비〉 〈아빠와 시계〉(이상 비교원 작품) 등 8편을 놓고 두 심사 위원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잔잔하게 그린 〈엄마의 답장〉을 으뜸상인 금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아빠와 나를 시계의 바늘로 형상화한 〈아빠와 시계〉, 채송화와 민들레를 가족으로 승화 시킨 〈민들레 이야기〉를 은상에 올렸다.

동상엔 동시의 소재로 많이 다뤄지곤 있으나 봄비에게 ‘까치발로 왔다 가고,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왔다 가라’는 가룩한 마음이 담긴 〈봄비〉,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은 〈겸손한 발가락〉, 보잘것없는 사물을 통해 삶을 반추하는 〈툇밥〉, 이사 가는 기쁨보다 할머니와

헤어진다는 것이 마음 아픔으로 남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사 가는 날〉, 젖은 운동화를 통해 가족에 대한 정을 따뜻하게 표현한 〈아빠의 젖은 운동화〉를 뽑았다.

동화

심사 위원: 김영훈, 조대현

• 수상작

금상에 오른 〈상구는 내 친구〉는 다른 작품에 비해 세련미가 부족하고 문장도 어눌하지만 그런 서투름이 오히려 작가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평소 좋지 않은 인상 때문에 친구를 무시하던 주인공 소년이 친구에게 산불 누명을 씌우고 괴로워하던 끝에 양심을 회복하는 이 이야기는 치밀한 구성과 섬세한 심리묘사가 앞의 서투름을 상쇄하고 남는다. 특히 진실을 알게 된 주인공 엄마가 친구 엄마를 찾아가 용서를 비는 의외의 반전은 오늘의 세태에 비추어 신선한 감동을 준다.

그밖에 은상과 동상을 차지한 작품도 각각 살아있는 캐릭터와 은은한 동화적 향기,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묘사 등의 미덕을 갖춘 좋은 작품들이었다.

입상자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아깝게 탈락한 분들에게는 재기의 분발을 당부드린다.

• 총평

전체 응모작(110편) 중에는 수준 미달의 작품이 많았지만 그 중 3분의 1(30여 편) 정도는 문장을 다루는 솜씨나 줄거리를 엮는 요령이 기성작가에 못지않을 만큼 탁월했다. 다만 소재가 너무 흔한 것이거나 완성도가 떨어져 최종심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쉬웠다.

소재로는 부모의 이혼과 그로 인한 조손(祖孫) 또는 싱글맘 등 결손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겪는 소외 문제를 다룬 작품이 많았고,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애환을 다룬 작품이 뒤를 이었다. 모두 요즘 기성 작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천착하는 소재들로, 응모자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생활 주변 어린이들의 삶의 문제에 작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스러웠다. 개중에는 소방관처럼 특수 직종에 종사하지 않으면 손대기

어려운 소재를 다룬 작품도 있었으나 이런 경우는 홍보나 교훈성이 지나쳐 문학성을 놓치고 있는 점이 안타까웠다. 학교나 교실 현장에서 취재한 작품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다.

최종심에 오른 10여 편의 작품은 각기 개성과 함께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재독, 삼독을 하면서 우선 소재의 신선도를 보았다. 같은 소재라도 작가가 얼마나 진실한 자세로 내면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려고 애썼는가를 보았고, 그것이 얼마나 짜임새 있는 구성을 통해 한 편의 독립된 이야기로 완성되었는가를 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작품 전체가 주는 무게감과 감동을 보면서 입상 순위를 정했다.

희곡

심사 위원: 곽노홍, 김태수

• 수상작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오른 다섯 편의 작품 중에서 희곡 문학적 산고가 가장 큰 작품을 고르는 데는 이견 없이 <룰렛>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우선 마지막까지 결선에 오른 작품은 <룰렛>, <자살합시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막차>, <산티아고 가는 길>, <오순정>이었다. 그 중 <룰렛>은 제목이 은유하듯 누가 어떻게 룰렛이란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 죽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면서 한 사람씩 주인공처럼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광호와 두식의 만남에서 빚어낸 죽음의 예측이 반전이 되고, 이어지는 출연진들이 모두 룰렛을 피해 죽은 줄만 알았던 입사 동기들이 하나씩 살아난다. 마침내 마지막 등장인물인 훈식이 결말부의 반전을 주도하는데 그를 제외한 지금까지 모든 출연자들은 음주운전 사고로 동시에 죽은 영혼들의 모습이었다. 이 작품의 백미는 구성이다. 그 안에 적절하게 반전이 계속되고 결말부의 허황한 반전이 이 극의 허구성을 관객에게 폭로하는 시점이고 종결이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극의 처음부터 룰렛의 희생자를 찾아가는 관극 게임을 주도하고 마침내 현상과 실제가 뒤바뀌는 구성을 하고 있어 극적 흥미를 더하고 있다. 그 외 수상 작품으로는 최근 사회 문제를 적절히 다룬 <자살합시다>와 테니스 윌리엄스의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를 패러디한 <욕망이라는 이름의 막차>로 정했다.

• 총평

금년도 희곡 부문에 응모한 작품 수는 총 16편이다. 그 중 비교원이 9편, 교원이

7편이었다. 총체적으로 희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 반하여 정확히 희곡의 극문학적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상력만을 가지고 창작한 경우가 있다. 우선 희곡은 무대를 알아야 쓸 수 있다. 무대의 분할이나 활용을 작가가 충분한 경험과 계산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희곡은 대사의 문학이어서 대사로 주인공의 심리를 드러내고 극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개의 큰 특징만 알아도 희곡을 창작하는 기본은 된다. 이번에 응모된 작품들 중 다수가 위 두 가지 특징을 간과하고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의 시나리오를 착각하고 작품을 쓴 경우가 있다. 그들의 작품을 보면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만 희곡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했더라면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작가적 상상력을 갖춘 작품도 보여서 아쉬웠다. 희곡의 특징을 알면서도 장면의 변화를 너무 과도하게 이끌어간 작품도 있었다. 단막극에서 장면 변화가 많으면 관객들은 혼동에 빠지기 쉽다. 가급적 장면 변화 없이 배우의 대사로만 극의 구성을 맞춰야 한다. 희곡은 대사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응모 작품의 대부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소화를 다할 수 없는 안타까운 작품들이 많았다. 긴박한 그리고 살아있는 대사를 활용해야 함에도 대사가 설명 위주로 진부해져 자칫 지루함을 줄 수 있는 작품도 많았다. 대체적으로 금년도 응모작 수준이 문학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지닌 작품이었으나 절제된 희곡의 표현과 형식에 있어서 흠결이 발견되기도 했다. 희곡작가의 길은 매우 좁다. 어려운 희곡 분야에 응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작품을 기대해 본다.

발간등록번호

11-1312000-00024-10



제17회

공무원
문예
대전
수상작품집



안전행정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www.mospa.go.kr